I·SEOUL·U
너와 나의 서울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2150-0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서고보관 완료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 콘텐츠 개발 사업

2019.12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

사업 완료 보고서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제 출 문

서울기록원

본 보고서를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수 행 기 관 :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익한(명지대학교)
공 동 연 구 : 이현정(서울대학교)
송영랑(한국국가기록연구원 위촉연구원)
이경남(한국국가기록연구원 위촉연구원)
주현미(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아름(한국국가기록연구원 위촉연구원)
안드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위촉연구원)
보 조 연 구 : 서효선(한국국가기록연구원 위촉연구원)
곽수진(한국국가기록연구원 위촉연구원)

목 차

Ⅰ. 사업 개요 ····· 1
1. 사업목적 및 수행전략 ····· 1
1.1. 사업목적 ····· 1
1.2. 수행전략 ····· 3
2. 사업의 특징 ····· 7
3. 사업수행의 주요 내용 ····· 9
4. 조직 및 수행 일정 ····· 12

Ⅱ. 사업 내용 ····· 14
1. 수집실행지침 연구·설계 ····· 15
1.1. 서울 서사기반 수집실행지침 개발 목적 ····· 15
1.2. S-NAP 개발 방법 ····· 16
1.3. S-NAP 개발 특징 ····· 18
1.4. S-NAP 구조와 내용 ····· 21
1.5. 서울기록지도 (Seoul Archive Map) ····· 30
2. 수집실행·정리 ····· 34
2.1. 수집실행·정리 개요 ····· 34
2.2. 수집실행 주요 내용 ····· 39
2.3. 수집·정리 결과 보기 ····· 52
2.4. 수집·정리 시사점 ····· 59
3. 네트워크·아카이빙북 ····· 61
3.1. 네트워크·아카이빙 북 개요 ····· 61
3.2. 네트워크 대상기관 조사 ····· 61
3.3. 네트워크 프로그램 모델링 ····· 64
3.4.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워크숍 ····· 73
3.5.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이벤트 수집 ····· 76
3.6. 아카이빙 북 제작 ····· 79
4. 서울기록원 중장기 로드맵 ····· 81
4.1 서울기록원 중장기 로드맵 개요 ····· 81
4.2 단계별 세부 이행계획 ····· 82

Ⅲ. 첨부 자료 ····· 92
1. 수집 매뉴얼 ····· 93
2.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 144
3. 보고 자료 ····· 245
3.1. 착수보고 자료 ····· 246
3.2. 중간보고 자료 ····· 268
3.3. 최종보고 자료 ····· 299

첨부자료집 1

1. S-NAP (Seoul-Narrative Archiving Policy)

첨부자료집 2 [디지털파일]

1. 네트워크 대상기관 조사 리스트
2. 네트워크기관 면담조사 리드/케이스
3. 구술자별 산출자료

첨부자료집 3 [디지털파일]

1. 수집객체: 분류형 아카이브 보기
2. 수집목록
3.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보기

첨부자료집 4

1. 아카이빙 북

표 차 례

표 1 서울 분류체계 ····· 19
표 2 S-NAP 주제영역: '상징' ····· 23
표 3 S-NAP 주제영역: '사상·가치' ····· 24
표 4 S-NAP 주제영역: '흐름' ····· 25
표 5 S-NAP 주제영역: '활동' ····· 25
표 6 S-NAP 주제영역: '생명·이야기' ····· 26
표 7 S-NAP 주제영역: '네트워크' ····· 27
표 8 S-NAP 주제영역: '구조' ····· 27
표 9 S-NAP 주제영역: '역사·이벤트' ····· 28
표 10 S-NAP 주제영역: '물질' ····· 29
표 11 서울기록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전략 ····· 66
표 12 개별 복지관 글쓰기 프로그램 진행상황 ····· 76
표 13 이벤트 수집 진행 내용 및 일정 ····· 78
표 14 단계별 세부계획별 주요 산출물 ····· 82
표 15 S-NAP기반 연차별 수집사업 ····· 87
표 16 S-NAP기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개괄 ····· 87

그 림 차 례

그림 1 Seoul Archive Map ····· 1
그림 2 서사중심 아카이브의 특징 ····· 7
그림 3 서울기록원 수집사업의 주요내용 ····· 9
그림 4 서울기록원 수집마스터플랜 관계구조 ····· 10
그림 5 수집사업 과업재구조화 및 산출물 ····· 10
그림 6 사업 최종 산출 목록 ····· 11
그림 7 영역별 업무흐름 구조도 ····· 11
그림 8 서울기록원 수집 추진체계와 주요 전문가 ····· 12
그림 9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사업 추진일정 ····· 13
그림 10 S-NAP설계 프로세스 ····· 16
그림 11 S-NAP과 수집과의 관계 흐름 ····· 18
그림 12 S-NAP의 전체 구조도 ····· 22
그림 13 서울기록지도 예시 ····· 31
그림 14 서울기록지도의 수집기록 목록 ····· 31
그림 15 서울기록지도의 네트워크 활동 목록 ····· 31
그림 16 서울기록지도 수집기록 정보 ····· 32
그림 17 서울기록지도 네트워크 활동 정보 ····· 32
그림 18 서사중심 아카이빙 수행절차 ····· 34
그림 19 서울기록원과 수집사업팀과의 수집협업 절차 ····· 35
그림 20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 유형 ····· 36
그림 21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 유형: 생산 ····· 37
그림 22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 유형: 디지털수집 ····· 37
그림 23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 유형: 네트워크 수집 ····· 38
그림 24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 유형: 행정기록 수집(네트워크 수집·디지털수집) ····· 38

그림 25 주요 수집대상 유형 ····· 39
그림 26 봉제공장 리드/케이스 파일 (예시) ····· 40
그림 27 태극라사 전경 및 텍스트 수집 ····· 41
그림 28 라라포토샵 구술진행 모습 ····· 41
그림 29 스타의상실 수집협의 및 수집기록 ····· 42
그림 30 행위영상 촬영 및 1990년 초반 창신동 인근(동대문) 전경사진 ····· 43
그림 31 창신동 로드뷰 촬영 및 봉제공장 구술진행 ····· 43
그림 32 서울 성곽복원과 관련된 행정 문서 ····· 44
그림 33 성우이용원 촬영 모습 ····· 45
그림 34 극장간판 화가 도구 수집 및 다큐멘터리 제작 ····· 45
그림 35 옛날 간판 수집기록 ····· 46
그림 36 여성민우회 젠더운동 포스터 ····· 46
그림 37 퀴어한 낭독극장 음악파일 ····· 47
그림 38 대학로 마당놀이축제/대학로 연대기 기록 ····· 47
그림 39 광화문광장 다큐제작 ····· 48
그림 40 상계 주공아파트 모형 ····· 49
그림 41 청계고가 사진 ····· 49
그림 42 서울의 콘크리트 건축물 이미지 기록 수집 ····· 50
그림 43 소녀상 제작과정 기록 수집 ····· 51
그림 44 2019년 11월 강서구 소녀상 설치 영상 ····· 52
그림 45 S-NAP 주제별 수집 통계 ····· 52
그림 46 주체 및 유형별 수집 통계 ····· 53
그림 47 서사기반 수집매뉴얼 ····· 54
그림 48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예시 ····· 55
그림 49 수집목록 예시 ····· 55
그림 50 분류형 아카이브 보기 예시 ····· 56
그림 51 수집을 기반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 ····· 56

그림 52 '한양도성 밖 첫 번째 마을 창신동' 다큐멘터리 서비스 모형 ····· 57
그림 53 '광화문-세월호' 다큐멘터리 서비스 모형 ····· 58
그림 54 '영화 간판쟁이-사라져가는 것들의 안부' 다큐멘터리 서비스 모형 ····· 58
그림 55 서울기록원 네트워크 조성 방향 ····· 61
그림 56 네트워크 대상 기관 조사 예시 ····· 62
그림 57 강서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동대문구청 면담조사 예시 ····· 63
그림 58 프로그램 논리모형(이석민, 2011) ····· 65
그림 59 서울기록 생태계 네트워크 활동 매트릭스 ····· 69
그림 60 네트워크 프로그램 유형화 ····· 69
그림 61 서울기록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논리모형 ····· 71
그림 62 네트워크 기획 및 운영 메가프로세스 ····· 72
그림 63 네트워크 기획 및 운영 세부 프로세스 ····· 72
그림 64 마을 아카이빙 워크숍 모습 ····· 74
그림 65 마을 아카이빙 워크숍: 마을 서사 기반 수집 전략 설계서 예시 ····· 74
그림 66 '마을 아카이빙 워크숍' 만족도 조사 결과 ····· 75
그림 67 이벤트 수집 홍보 포스터 ····· 78
그림 68 아카이빙 북 이미지 ····· 80
그림 69 서울기록원 중장기 로드맵 이행전략 ····· 81
그림 70 서울기록원 중장기 로드맵: 단계별 세부계획 ····· 82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및 수행전략

2. 사업의 특징

3. 사업 수행의 주요 내용

4. 조직 및 수행일정

1. 사업 목적 및 수행전략

1.1. 사업목적

❒ **서사 기반 수집지침마련을 통한 수집체계 안정화**

- ㅇ 도시는 구체적인 상징과 기억 욕망이 담겨 있어 해석의 여지가 다분한 일종의 텍스트이며, 시민들은 도시에서의 경험과 습득한 기호 등을 각자의 그물망으로 엮어 의미를 만들고 있음
- ㅇ 도시민들의 숫자만큼 의미형성 작용이 반복되면서도 도시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들의 기억이 서린 하나의 '장소'로 탈바꿈함(김미경, 2018)
- ㅇ 유기체적인 서울기록의 수집을 위해 먼저 서울의 문화체, 현상, 공간 등의 의미기반 영역을 맵 형태로 논리화하기 위해 서사 기반 수집지침을 마련함

- 서울을 재현할 수 있는 서사 기반 수집 도구를 'S-NAP(Seoul-Narrative Archiving Policy)'이라 명명함. S-NAP은 수집 활동과의 계속되는 피드백 속에서 순환되어 서울기록의 그물망을 구체화하는 형태로 진행됨
- S-NAP은 수집을 위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후 서울기록 식별과 보완수집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장 조사와 서울기록원 로드맵 수립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며, 이것은 서울기록원의 수집체계 안정화를 도모할 것임



그림 1 Seoul Archive Map

- ㅇ 서울기록원의 S-NAP은 다양한 수집 활동을 통해 그물망을 채워나갈 것이며, 이러한 계속적인 노력은 서울시 전체를 망라하는 서울기록지도(Seoul Archive Map)로도 활용될 것임

❒ **자생적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으로 '서울기록 생태계' 균형유지**

- ㅇ 에릭 케텔라르(Eric Ketelaar)는 "기록은 산출로서가 아니라 과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Eric

Ketelaar, 2017)고 말하며 기록은 기록 활동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관리 체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함

- 즉, 기록 활동은 '관계'를 기반으로 활동의 경험과 기억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로 아카이브 공간은 기록 활동 주체와의 소통의 장소가 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서울기록원이 시민 참여형 아카이브 기반의 자기 성장 매커니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하고자 함
- 서울기록원은 2018년 협력에 기반한 서울기록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협치·민간영역의 기록 활동 주체들과 협력·소통 체계를 구축하였음(서울기록원, 2018)
  - 현재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는 기록 활동 발굴과정의 면담과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그 연장선에 있음
  - 공공, 협치, 민간 영역으로 기록 활동 주체의 범주를 설정하였고, 일부 MOU를 통해 네트워크 체계를 구성함
- 본 연구는 서울시와 '관계'를 형성해야 할 네트워크의 핵심 주체를 마을, 시민단체, 서울시 네트워크 단체, 활동가 등으로 넓게 위치시키고 관계 기반으로 네트워킹 주체들의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관계'기반 네트워크 관리운영은 네트워크 주체들에게 실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자립적 성장과 관계를 형성의 '장(場)'을 서울기록원 기반으로 마련해 나갈 것임
  - 또한, 기존 네트워크 결과물을 이어받아 기록 활동 주체들과의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향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속방안을 마련할 것임

❒ 다원적 주체와의 거버넌스적 아카이브 운영으로 서울기록원의 성장 발전 도모

- 본 연구는 기존 서울기록원 아카이브 사업의 총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지속적인 서울 아카이브의 성장 발전의 토대로 작용함
  - 서울기록원은 2013년부터 서울기록원 건립 및 수집·관리·서비스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사업들의 결과를 다원적 주체와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할 것임
- 다원적 네트워크 주체의 식별과 공감대 형성과 협업, S-NAP을 통한 안정화는 서울 구성의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역할을 할 것임
- 이러한 기반은 서울기록원의 거버넌스 운영의 기반조성 및 장기적 업무 실행능력 증진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임

1.2. 수행전략

❒ S-NAP을 통한 다원적 시각과 서울의 중층적 재구성

- ㅇ 서울이라는 공간은 법제적이고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심적 요소들의 복잡한 끈으로도 연결되어 있음. 사람의 행위에는 관성적이며 불명료하고 무의식적인 요소들이 작용함. 따라서 서울이라는 생활세계를 연구할 때 인간의 합리적 행위만이 아닌 감정적 반응도 포함해야 함
- ㅇ 따라서 서울기록을 수집은 서울시민의 정서와 무의식을 포함한 시대적 풍토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한 결과를 도출해야 함
- ㅇ 이를 위해서 연구팀은 서울의 공간·사건·현상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서울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성과 의식이 반영될 수 있는 영역을 S-NAP의 형태로 마련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함
- ㅇ S-NAP 주제는 '서울'이라는 거시적 공간이 아니라 '서울의 장소', '서울의 사람', '서울의 물건' 등의 미시적 공간과 현상으로부터 동시대의 서울의 모습으로 환유 될 수 있도록 설계함

❒ 자생적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주체와의 유기적 결합 모색

- ㅇ 최근 민간영역 특히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기록의 의미는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누며 결속력을 강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즉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누며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것임
- ㅇ 서울기록 수집을 위해서는 현재 기록을 통해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고 있는 서울의 자생적 공동체 아카이브들의 주체들과의 유기적 결합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함
- ㅇ 본 연구팀은 서울의 자생적 아카이브 주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S-NAP의 전략을 결합하여 입체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기존 마을이나 자생적 아카이브에서의 경험과 정서는 연구팀과의 관계 속에서 아카이브적인 질서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것은 서울기록 수집의 전략구성으로 재구성 할 될 수 있음
- ㅇ 즉, 서울아카이브는 연구 초기 단계부터 자생적 아카이브의 운영 주체들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아카이브를 계획하고 설계함을 원칙으로 함
- ㅇ 연구팀의 연구계획과 자생적 아카이브와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자 함

❒ 문화연구 방법론의 적용

- ㅇ 문화를 생성하고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일상생활임. 일상생활 영역으로 스며든 문화를 탐구하는 것은 사회 현상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가 됨
- ㅇ 서울 안의 공동체는 '이야기 기록'이라는 문화적 유전자로 살아왔음(2018, 이영남). 공동체 속의 기록을 일차원적인 기록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문화적, 언어적 행위 전반으로 넓혀서 기록을 이해해야 함
- ㅇ 따라서 본 연구팀은 "문화란 사회 또는 집단에서 구성원들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의미화 과정'이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이라는 관점을 견지함. '실천으로서의 문화(culture as practice)' 개념은 다른 문화가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공존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인 것으로 규정함(Judy Giles, 2003)
- ㅇ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문화 실천에 대한 탐구는 기존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문화영역을 뛰 넘는 것임. 기록과 사회적 맥락의 결합, 즉 기록과 수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미생성, 더 나아가 그 의미생성이 이루어지는 '사소한' 영역으로까지 문화 연구를 확대·심화하여야 함
- ㅇ 기록은 우리가 모여 사는 공동체(의미공동체, 문화공동체)를 만든 근원이며 이번 연구가 이런 근원적인 곳에서 출발한다면 서울의 기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다원적 시각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다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 ㅇ 다큐멘테이션 전략이란 특정한 지역, 주제, 사건 등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 생산자, 아카이브, 기록 이용자가 상호 협력하고 선별하여 수집하는 기록학의 평가·선별 방법론을 말함
- ㅇ 다큐멘테이션 전략은 서울 연구, 서울기록 수집에서 가장 기초적인 절차 모형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
  - 다큐멘테이션 전략은 거시평가의 영향으로 1970년 이후 사회상을 기록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마련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포괄적인 사회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 수집을 지향하는 다큐멘테이션 전략을 적용한 여러 프로젝트가 수행됨
- ㅇ 다큐멘테이션 전략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물리학회에서 진행한 '다기관 협력연구(1989~2001)'와 성적소수자들이 진행한 'LGBT-LAN(2000~)' 수집 프로젝트였음. 이들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은 영향력, 전문성 있는 자문위원회 구성과 수행 주체가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음
- ㅇ 본 연구팀은 하나의 현상을 다양한 시각과 의미로 해석하고 그 안에 담긴 겹쳐진 의미의 층위들을 성공적으로 다큐멘테이션 할 수 있도록 영상전문가, 작가, 인류학 연구자, 문화연구자, 시민, 활동가, 기록연구자들과 협업하고자 함

ㅇ 이렇게 본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그룹은 성공적인 다큐멘테이션 전략을 견인하는 중심축인 동시에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의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의 통섭적 수집전략일 것임

❒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방법 시도

ㅇ '서울의 사회현상과 삶의 현장'이라는 관점에서 수집한 기록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설명은 수집기록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음

ㅇ 단일한 맥락 이상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방법론을 처음 시도함

ㅇ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은 수집된 기록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기록학 영역을 넘어 타 영역의 전문가들이 서울을 바라보는 시선을 결합한 것임

- 넓은 의미의 기록은 기록을 생산한 사람, 장소, 현상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체임
- 이러한 특성을 가진 기록의 수집을 위해서 수집단계부터 기록화팀 다큐팀이 결합하여 수집을 진행하였음. 다큐멘터리와 기록의 결합으로 기록에 담긴 경험자들의 목소리와 그 안에 담긴 층위들을 해석적으로 접근하고자 함

❒ 연구 목적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 마련

ㅇ 서울이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 융합과 아카이브 생산·수집 기능을 접목해 서울기록을 수집한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집영역과 절차를 마스터플랜 형태로 마련함

- 마스터플랜의 추진을 위해 본 연구팀은 연구 추진체계와 연구 절차를 계획함
- 연구 아이템과 연구주제, 이벤트와 출판물의 주제와 목차를 일관되게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목적이 분명하고 과정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함

ㅇ 마스터플랜은 연구 과정에서 접촉한 시민이 서울기록 생산 주체로 나서서 공동체 혹은 자기 자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즉, 마스터플랜은 연구팀이 지향하는 '리빙 아카이브' 본연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함

❒ 효율성 확보 전략

ㅇ S-NAP형태로 세부영역별 서울기록 컬렉션을 만들어 영역별 연구의 모티브나 중요 기록수집 틀로서 기능하게 함

ㅇ 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기록수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문영역별 특수

성을 고려하여 수집프로세스에 배치함

- 조사연구와 수집전략 설계 단계에서 인류학, 작가, 기록학 등의 연구자가 유연하게 협력하여 서울의 가치 있는 기록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함
- 수집실행,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는 문화콘텐츠, 사진학 등의 연구자 결합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의 특징

❐ “서울을 재현한다”

ㅇ 서울기록원은 토탈 아카이브 체계를 지향하며 서사 주제와 관련된 공공기록, 산하기관기록, 민간기관 기록, 개인기록, 예술적 표현 기록 등을 수집하여 서울을 종합·재현할 수 있도록 함



그림 2 서사중심 아카이브의 특징

❐ “서울을 200여 개의 수집주제로 영역화한다 ”

ㅇ 서울 전체를 아카이브(재현)하기 위해 200여 개의 서사 기반 수집주제영역을 구성하고 연차적으로 수집 계획을 설계함

- 수집주제영역은 역사학, 인류학 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을 표상하는 역사와 자원, 일상의 삶, 현상, 상징 등을 포괄하는 주제영역을 도출하고 상세화함

ㅇ 타기관은 특정 주제 중심으로 부분을 재현한다고 하면, 서사 중심 아카이브는 약 200여 개의 서사를 기반으로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서울의 총체를 재현하는 데 주력하였음

ㅇ 단일한 생산 맥락으로 포괄할 수 없는 역사적, 사회적 흐름을 수집하여 전체를 재현하고자 하는 시도임

❒ **“유관기관 아카이브 결과를 수집·연계하여 기록생태계를 조성한다 ”**

-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양도성박물관 등 다양한 서울과 관련한 기억기관에서 수행한 아카이브 작업 결과는 유의미함
- ㅇ 서울기록원은 이러한 유관기관들의 유의미한 아카이브 결과까지 수집·연계하여 일반 시민들이 향유 할 수 있도록 함
  - 수집 및 조사연구 과정에서 식별된 유관기관에 대하여 네트워크 기능으로 연계되어 장기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수행의 주요 내용



그림 3 서울기록원 수집사업의 주요내용

❒ 서울이라는 지역적 공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록을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개발하여 제공함. 서울의 정체성을 담은 기록과 주체인 시민사회, 그리고 서울 지역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아카이빙 범위로 포괄하고 기록과 기록이 표상하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아카이빙 함

❒ 과업에서 지칭하는 수집 및 관리 대상으로 보는 기록은 서울이라는 지역적 공간을 표상하고 있는 물리적 형태를 갖춘 기록뿐만 아니라, 장소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고정된 건축물, 주체로서의 시민들의 삶을 담는 무형의 언어, 사회현상을 담고 있는 문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위의 기록을 의미함. 따라서 서울을 표상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층위의 비정형적 기록을 수집하는 방법을 서울 기록 수집 마스터플랜(S-NAP·서울기록지도·로드맵·수집매뉴얼 등)으로 제안함

❒ 서울기록원의 기록물 수집 및 활용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시민 기록의 아카이빙을 통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서울 S-NAP을 기반으로 서울 기록 생태계를 조직하기 위한 기초를 제시하기 위해 과업 내용을 재구성함

- 제안요청서 상의 과업 항목은 다음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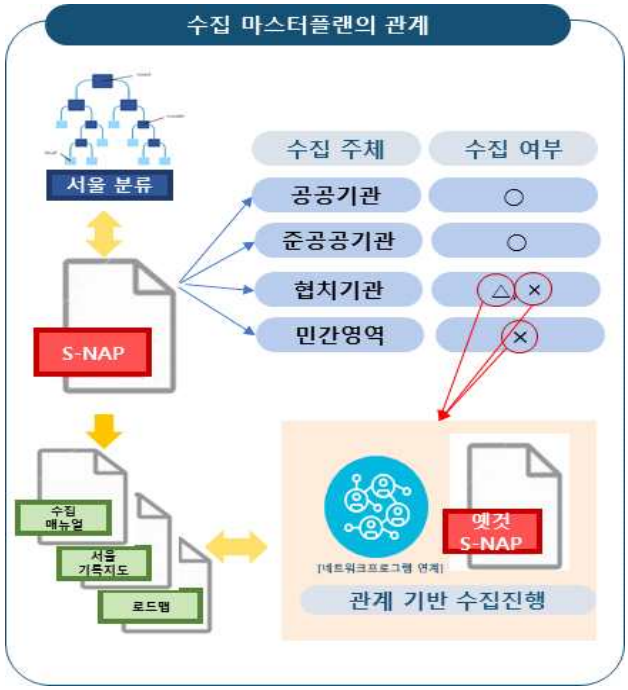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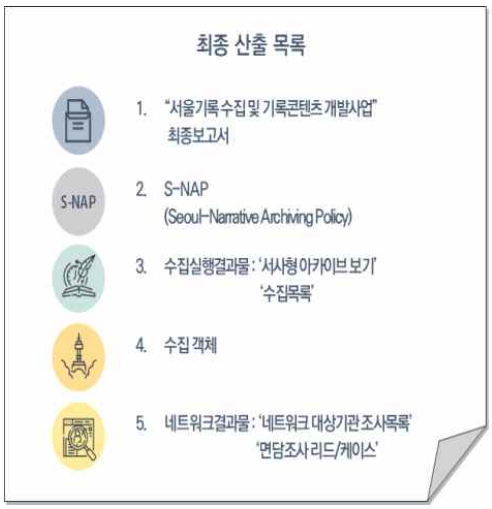
그림 4 서울기록원 수집마스터플랜 관계구조

- 서울기록원 수집 매뉴얼 개발
- 서울의 기록 활동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운영
- 서울기록 특별 수집
- 수집기록 인수·등록·정리·기술
- 서울기록 수집 아카이빙 북 출판

ㅇ 서울의 기록을 수집·관리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위해 과업의 내용을 분석하여 재설계함. 서울을 표상하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아카이빙하기 위한 수집 기획 과정을 통해 서울기록 수집 마스터플랜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도출함. 마스터플랜을 적용하여 수집을 실행함. 또한 아카이빙 과정에서 참여형 아카이브의 자생적 네트워크 체계를 검토하며, 서울 기록의 아카이빙 활동을 기록화한 아카이빙 북을 출판하는 과업을 진행함



그림 5 수집사업 과업재구조화 및 산출물



ㅇ 연구설계
- S-NAP 설계
- 마스터플랜 개발
ㅇ 수집실행·정리
- 특별수집 실행
- 수집기록정리
ㅇ 네트워크·아카이빙 북
- 기록활동 발굴 및 네트워크 운영
- 서울기록 수집 아카이빙 북 출판

그림 6 사업 최종 산출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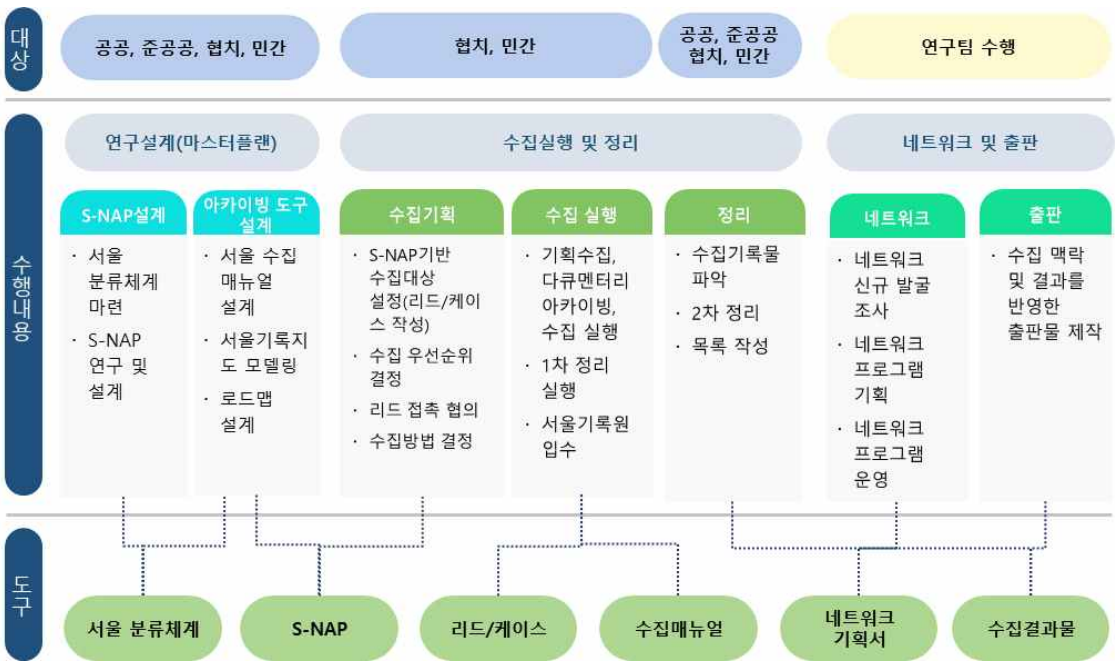


그림 7 영역별 업무흐름 구조도

4. 조직 및 수행일정

❐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

- ㅇ 인류학 연구자, 작가, 영상전문가, 기록학 연구자, 문화연구자 등이 연구수행인력으로 참여
- ㅇ 그 외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시민, 활동가 등 S-NAP 주제에 해당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함



그림 8 서울기록원 수집 추진체계와 주요 전문가

❒ 2019년 7월부터 12월 4일(5개월)까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함



그림 9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사업 추진일정

Ⅱ. 사업 내용

1. 수집실행지침 연구 · 설계

2. 수집실행 · 정리

3. 네트워크 · 아카이빙 북

4. 서울기록원 중장기 수집계획

1. 수집실행지침 연구 · 설계

1.1. 서울 서사기반 수집실행지침 개발 목적

❒ **서울을 포괄하는 다원적이고 총체적인 기록화 지향**

- ㅇ 기존의 행정 기능 중심의 기록 수집 정책은 일상 시민들의 생활과 서울이 갖는 장소성의 다층적이고 다원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함. 서울의 정체성을 이루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기록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
- ㅇ 서울의 역사와 자원, 일상의 삶, 현상, 상징을 총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기록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서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서울을 포괄하는 다원적이고 총체적인 기록화를 통해 서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서울의 사회적 기억을 기록화하기 위한 서사기반의 수집실행지침(Seoul Narrative Archiving Policy, S-NAP) 개발**

- ㅇ 기존의 행정기록 중심의 기록 수집정책은 행정적, 증거적 가치 이외의 개별 기록이 갖는 사회적 맥락이 드러나지 않아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수집 객체가 조직화되는 한계를 가짐. 이를 극복하는 수집 정책이 필요함
- ㅇ 서울을 표상하는 상징들과 사회적 현상, 그리고 삶의 현장이라는 관점으로 서울의 다양한 수집 주제영역들을 서사 기반으로 엮어내고, 수집 대상을 발굴하여 기록화하는 아카이빙 정책을 개발함
- ㅇ 수집 주제영역별로 수집 대상 객체들을 관통하는 서사 기반으로 기록을 수집하는 새로운 수집 방법론으로서 서울 서사기반 수집실행지침, Seoul-Narrative Archiving Policy(S-NAP) 개발
- ㅇ S-NAP는 시민들의 삶과 기억을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 구조를 드러내고 서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록들을 조직화하는 방법으로 수집을 실행함으로써 미시사적 측면에서 사회적 기억을 아카이빙하는 의미를 가짐
- ㅇ 상징적 기법의 아카이빙을 통해 인물, 사건, 장소가 갖는 종적, 횡적 의미 확장과 서사와의 연결을 통해 본질적 맥락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 기록 이면에 숨겨진 내러티브를 찾아냄으로써 기록에 의미를 부여함

❐ 서울 서사기반 수집실행지침(S-NAP) 개발 목적

- 서울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살아있는 기록을 수집하기 위한 정책으로 마련하고자 함
- 수집된 기록들은 수집 영역별 서사에 부합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되며, 수집 결과는 서사 기반의 기록 콘텐츠 자체로 활용될 수 있음
- 새로운 기록 활동들을 발굴하고 지속적 네트워크 유지를 통한 기록 자치 생태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음

1.2. S-NAP 개발 방법



그림 10 S-NAP설계 프로세스

❐ 서울을 표상하는 주제로 수집 주제영역 개발

- 서울을 표상하는 역사와 자원, 일상의 삶, 현상, 상징 등을 포괄하는 9개의 수집 주제 영역 단위를 개발함
- 주제 영역은 서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요소들을 포괄하는 대서사를 내포하도록 설정함

❐ 수집 주제영역별 연구 진행

- 다양한 분야의 서울에 관한 연구 자료를 검토하여 수집을 실행하는 단위인 상위 S-NAP. 하위 S-NAP를 도출함
- 검토한 연구자료의 유형으로는 서울학 연구 성과, 해당 주제영역과 관련된 단체 및 개인의 민간 기록 활동사례, 연구 논문, 저서, 다큐멘터리 영상, 언론 기사, 르포 심층취재 기사, 문화예술 작품 등을 포함

❐ 상위 S-NAP 설계

- ㅇ 9개의 주제 영역별로 수집이 실행되는 단위인 상위 S-NAP를 개발함
- ㅇ 수집 실행 단위가 되는 상위 S-NAP는 주제 영역 대서사의 맥락에 부합하며 서울을 표상하는 수집 단위로 구성함

❐ 하위 NAP 설계

- ㅇ 구체적인 수집 대상을 의미하는 하위 NAP는 수집의 대상 객체들을 아우르며 수집 정책을 이룸
- ㅇ 실제 수집 객체들은 하나의 서사로 묶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기록의 가치가 드러나고 서울의 상징적 의미들을 읽을 수 있음. 하위 S-NAP는 상위 S-NAP의 내러티브 구성요소로 자리하게 됨
- ㅇ S-NAP 기반의 수집 방법은 존재하는 실체를 포괄하고, 현상이 의미하는 것을 포착하려는 아키비스트의 관점으로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음
- ㅇ 상위 NAP과 하위 NAP는 다양한 분야의 서울 연구 자료를 검토하여 도출함. S-NAP를 도출하기 위해 검토한 자료의 유형은 다음을 포괄함
  - 서울학 연구 자료
  -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행정기록
  - 서울에서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의 민간기록
  - 서울에 관한 연구보고서
  - 다큐멘터리 영상자료
  - 사진 자료
  - 언론 기사, 도서, 간행물
  - 문화예술작품 등
- ㅇ S-NAP의 구성에 대해 역사학, 인류학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통해 일부 항목을 조정하고 보완하여 확정함
- ㅇ 포괄적 수집을 지향하기 위해 하위 S-NAP의 요소명을 일반적인 정책명, 사건명과 함께 서사 맥락에 따른 의미 지향적이고 가치 지향적 표현을 부제로 제시함

❐ 기록 수집 실행

- ㅇ S-NAP에 기반한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수집을 실행함
- ㅇ 실제 수집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반영하여 수집실행지침이 조정되는 순환적 수집 프로세스를 구축함

1.3. S-NAP 개발 특징

❐ 수집실행 전략과 수집 과정의 순환적 프로세스 구축



그림 11 S-NAP과 수집과의 관계 흐름

- S-NAP 작성 ⇒ 수집계획서 작성 ⇒ 수집의 실행 ⇒ S-NAP의 보완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수집 사슬 프로세스를 구축
- S-NAP를 기반으로 수집의 세부적인 방법론을 계획한 수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제 수집을 실행함
- 실제 수집을 실행하며 기록을 아우르는 서사가 바뀔 수 있음. 수집 과정의 결과로 S-NAP를 보완하여 업데이트하는 순환적 프로세스를 구축

❐ 미시관찰 방법론의 도입

- 이 과정은 수집을 실제 실행하며 서사에 기반한 수집 대상 객체를 조직화하고, 그 대상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기억을 담고 있는 기억체를 모으고, 이것을 서사 기반으로 엮어 이야기를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표현되며 미시관찰 방법론으로 명명함
- 사회적 기억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누락되었던 기억을 소환하고 기록화함으로써 그 결과가 다시 수집실행지침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음

❐ 서울분류체계 개발과 S-NAP의 검토·보완을 통한 균형적 수집 정책 완성

- S-NAP의 구성이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기 위해 서울분류체계를 도출하여 각 영역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수정
- 서울분류체계는 인간의 지식을 범주화한 인문사회의 분류체계와 문화인류학적 접

근을 통해 서울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

- 서울분류체계는 지식의 범주화로 활용되는 문헌분류체계와 인간 생활과 삶의 양식을 문화라는 표현 방법으로 주제화하여 분류한 문화유형분류체계를 종합하여 도출하였으며, 서울이라는 장소성을 표상하는 분류체계에 적합하도록 일부 영역을 통합하여 조정함
- 문화유형분류체계는 『아시아 문화자료 조사·수집을 위한 기초연구(2006)』의 <표현문화의 분류체계>에서 문화 분류체계(복합 문화, 공간 문화, 몸의 문화, 미각후각문화, 청각문화, 시각문화, 언어로 표현된 문화)와 『아시아문화정보원 상세 업무프로세스 및 매뉴얼 개발 연구(2010)』 중간발표자료의 <문화·문화자원 유형 분류체계> 결과를 차용하여 유사 분류를 종합하고 통합하는 조정을 거쳐 문화유형 분류 영역을 도출함. 문화유형분류가 문화적 관점에서 예술 분야의 세분화된 범주체계를 구성하므로 문헌분류체계와의 레벨을 고려하여 일부 요소들을 통합하여 조정
- 문헌분류체계에 기반하여 상위 분류를 구성하고, 문화유형분류에서 차용한 하위분류로 서울분류체계를 구조화하여 다음과 같은 영역들로 구성함
- 10개의 상위분류를 설정하고 하위에 39개의 요소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화적 표상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상위요소는 서울의 정보일반, 이데올로기, 종교, 사회조직, 자연생태, 기술, 예술, 언어, 문학, 역사로 설정함
- 하위요소로는 상위요소를 세분화하여 서울의 생활과 삶의 모습들, 축적된 활동의 산물들을 총체적으로 포괄하고자 함

표 1 서울 분류체계

상위분류	하위분류
정보일반	정보일반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종교	민간신앙
	종교
사회조직	경제
	사회
	정치
	행정
	노동
	법
	교육
	국방

상위분류	하위분류
자연생태	자연경관
	생태환경
	식물
	동물
기술	의료
	농업
	공업
	전기전자,통신
	제조업
	생활과학
예술	건축
	조각, 공예
	회화, 도화, 서예
	사진
	음악, 소리, 민요
	공연, 무용
	오락, 스포츠
	영상
	음식문화
	의복문화
언어	구어적 언어(말,은어,비속어,신조어)
	비구어적 언어(신체언어, 신호)
문학	문학작품
	풍속유래
역사	지리
	인물 전기
	사건 장소

ㅇ 서울분류체계의 구성요소들이 S-NAP으로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결락 부분을 보완하여 균형적 S-NAP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

1.4. S-NAP 구조와 내용

❐ **주제 영역 설계 방향**

- ㅇ 서울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정치, 행정, 사회 구조적 측면 외에 서울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 현상, 매커니즘 포괄하는 광범위한 주제 영역을 설정함
- ㅇ 서울을 그리기 위해 서울을 주제 영역별로 범주화하고 각 주제 영역별로 고유의 내러티브를 부여함
- ㅇ 주제 영역 안에는 수집을 실행할 수 있는 단위로 구분되는 상위 S-NAP와 하위 S-NAP의 수집영역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서사 구조를 형성함
- ㅇ 영역들은 서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고유의 내러티브를 가지며 유기적으로 연관되고, 실제 수집 단위의 기록들을 하나의 서사로 묶어냄으로써 기록이 갖는 맥락적 측면에서 기록 이면의 상징적 의미들을 통해 사회적 기억을 수집하는 유용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S-NAP - 수집실행 - 기록활동 네트워크의 선순환 구조” 확립**

- ㅇ 연구개발과정을 통해 도출된 S-NAP에 따라 실제 수집을 실행하고 산출에 의해 다시 S-NAP이 수정되는 환류 구조 체계를 가짐
- ㅇ S-NAP에 기록 활동 발굴 및 네트워크 결과가 반영되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

❒ S-NAP의 주제 영역



그림 12 S-NAP의 전체 구조도

ㅇ 서울의 서사를 담고 있는 9개 수집 주제 영역을 구성

- Symbol(상징)

  서울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건물, 말과 표시, 시민의 활동이 응축된 장소 등을 주제화함

- Idea&Value(사상과 가치)

  서울을 지배하는 오랜 가치와 습관, 사상, 이데올로기를 주제화함

- Flow(흐름)

  서울 내의 사람, 자본, 사물의 흐름을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고 그 메커니즘과 현상에 대해 주제화함

- Activity(활동)

  역동적 장소인 서울의 활동성을 직업, 노동, 교육, 생활, 사회관계, 여가, 정치 활동의 측면에서 주제화함

- Life&Story(생명과 이야기)

  서울을 살아가는 군중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일상의 표정을 주제화함

- Network(관계망)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체제에 주목하여 관계를

주제화함

- Structure(구조)

  도시구조의 시공간적 층위 속에서 인프라 구조를 드러내는 요소들을 주제화함

- Event(이벤트)

  도시의 기억과 도시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사건을 통해 서울의 심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Stuff&Things(물질)

  사람들과 상호작용 관계를 맺고 있는 서울의 물질 요소들을 주제화함.

ㅇ 상위 NAP는 서울을 표상하고 있는 수집 주제로 70여 개 구성. 영역별 대서사의 맥락 속에서 기록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수집의 주제로서 상위 수집실행지침별로 고유 서사를 갖고 있음

ㅇ 하위 NAP는 실제 수집지침으로서 200여 개 구성. 상위 NAP 서사의 맥락 속에서 실제 수집이 실행되는 단위로서 기록이 갖는 의미와 가치, 수집의 범위, 수집 지침의 내용, 참고자료 등으로 작성

■ 첨부자료집 1: S-NAP 참조

❒ S-NAP1. Symbol

표 2 S-NAP 주제영역: '상징'

상위 S-NAP	하위 S-NAP
1.1 매일이 새로운 첨단도시 서울	1.1.1 미래기술 도시-하이테크가 싣고 온 미래 1.1.2 생태도시-도시 너머의 녹색 생태환경 1.1.3 의료도시-첨단메디컬시티로의 도약
1.2 서울의 옛 것	1.2.1 한양도성-한양도성 안팎의 흔적들 1.2.2 뉴트로 감성과 추억을 선사하는 다방, 극장, 이발소 1.2.3 장인-기억해야하는 서울의 옛 것을 전승하는 장인들
1.3 서울의 삶과 말과 표시들	1.3.1 서울의 말 1.3.2 '통치'의 슬로건 1.3.3 표시와 광고의 홍수 1.3.4 협치와 소통-소통합니다
1.4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	1.4.1 석조건물과 콘크리트건물-석조를 밀어낸 콘크리트 1.4.2 콘크리트 랜드마크 1.4.3 고가도로-머리위로 올라간 콘크리트 도로 1.4.4 콘크리트와 생태의 만남 1.4.5 콘크리트의 재생산-아파트 1세대의 향수

상위 S-NAP	하위 S-NAP
1.5 삶의 이음, 골목길	1.5.1 경리단길-뜨고 지는 서울의 골목들 1.5.2 덕수궁 돌담길 1.5.3 해방촌길-분단의 산물 해방촌길 1.5.4 골목길-삶의 온기를 나누는 길
1.6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1.6.1 이순신 동상-지배 이데올로기의 표상, 이순신 동상 1.6.2 평화의 소녀상-소녀상을 통해 응집된 기억
1.7 광장의 외침	1.7.1 마로니에공원-마로니에 공원의 자성과 문화적 열망 1.7.2 광화문광장-희망의 외침, 광화문 광장 1.7.3 장충단공원-장충단공원의 명과 암 1.7.4 여의도공원-군사광장에서 시민광장이 된 여의도 공원
1.8 거침없이 새로운 시도들	1.8.1 돈의문 박물관마을 1.8.2 서울혁신파크-같이 만드는 이정표, 서울혁신파크 1.8.3 서울창업허브 1.8.4 제로페이-서울상생을 위한 제로페이

❒ S-NAP2. Idea·Value

표 3 S-NAP 주제영역: '사상·가치'

상위 S-NAP	하위 S-NAP
2.1 이데올로기 공화국	2.1.1 학생운동 2.1.2 민주화운동 2.1.3 반공 이데올로기
2.2 가부장의 뿌리와 아픔	2.2.1 가부장주의 2.2.2 집창촌
2.3 갑질에서 을질로	2.3.1 감정노동 2.3.2 일용직노동 2.3.3 불법취업
2.4 배움없는 배움	2.4.1 강남8학군 2.4.2 in서울
2.5 의례, 믿음, 그리고 안식	2.5.1 무속 2.5.2 종교
2.6 인디가 가치다	2.6.1 인디문화 2.6.2 독립영화 2.6.3 대중가요
2.7 삶 속으로의 예술	2.7.1 문학작품-서울을 문학하다 2.7.2 예술작품-그림으로 담은 동네

❒ S-NAP3. Flow

표 4 S-NAP 주제영역: '흐름'

상위 S-NAP	하위 S-NAP
3.1 지하의 삶과 문화	3.1.1 지하철-지하철과 사람들 3.1.2 지하상점과 지하아케이드 3.1.3 지하도시-지하생활자
3.2 사람들의 물결	3.2.1 이촌향도-고향을 떠난 실향민의 도시 3.2.2 서울유학생 3.2.3 서울관광객 3.2.4 도시유목민
3.3 불야성 거리의 정동(情動)	3.3.1 꺼지지 않는 불빛 3.3.2 은밀한 성문화 3.3.3 24시간 편의점
3.4 5일장에서 스마트 마켓까지	3.4.1 재래시장-장날의 추억 3.4.2 백화점과 쇼핑센터 3.4.3 온라인 쇼핑과 택배 3.4.4 도시의 장
3.5 땅에 출렁이는 돈과 투기심	3.5.1 젠트리피케이션-젠트리피케이션이 집어삼킨 우리동네 3.5.2 욕망과 투기의 무한증식

❒ S-NAP4. Activity

표 5 S-NAP 주제영역: '활동'

상위 S-NAP	하위 S-NAP
4.1 직장에서, 가게에서	4.1.1 전문직-전문직과 돈방석 일자리 4.1.2 자영업-생존경쟁의 늪에 갇힌 자영업의 굴레 4.1.3 미래의 도시 노동-미래를 여는 노동
4.2 가사는 노동이다	4.2.1 재생산노동-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 4.2.2 가사기계-홈 오토메이션 4.2.3 가사노동-식모에서 외국인 가정부까지, 가사노동의 아웃소싱
4.3 돌보는 세상을 향해	4.3.1 아이돌봄-아이돌봄 사슬의 프레카리아트 4.3.2 노인돌봄-노인돌봄의 탈가족화 4.3.3 돌봄공동체-돌봄의 사회화와 공동체
4.4 서울의 배움과 학습	4.4.1 입시제도-입시지옥의 탈출구를 찾아서 4.4.2 학교교육-성장하는 학교, 배움공동체 4.4.3 돌봄공동체-돌봄의 사회화와 공동체

상위 S-NAP	하위 S-NAP
4.5 의식주, 돈인가 사치인가 필요인가 편안함인가?	4.5.1 소비생활-쇼핑의 달인 4.5.2 명품족-계급을 구분짓는 사치와 취향 4.5.3 부동산투기-강남불패의 역사 4.5.4 자급자족의 도시-펜시티로의 진화, 자급자족 서울
4.6 관계의 속박, 그리고 새로운 변주들	4.6.1 새로운 가족의 탄생 4.6.2 공동체관계-내가 선택하는 친밀공동체 4.6.3 갑을관계-을들의 반란
4.7 서울의 쉼과 놂	4.7.1 여가-여가의 시대 4.7.2 놀이문화-서울의 호모 루덴스 4.7.3 스포츠-올림픽을 넘어 일상속의 스포츠
4.8 그들만의 리그, 우리들의 리그	4.8.1 선거 스케치 4.8.2 직접민주주의-미래를 바꾸는 정치참여 4.8.3 풀뿌리 민주주의

❒ S-NAP5. Life·Story

표 6 S-NAP 주제영역: '생명·이야기'

상위 S-NAP	하위 S-NAP
5.1 일하는 삶들	5.1.1 도시노동자-도시노동자가 된 상경민 5.1.2 성노동자 5.1.3 외국인 노동자-타국에서의 삶, 외국인 노동자 5.1.4 야간노동-달빛 속 노동
5.2 피로사회	5.2.1 성과 사회 5.2.2 우울증-마음건강과 현대인의 우울 5.2.3 노동시간-주 52시간과 워라밸
5.3 혼자 사회의 삶과 문화	5.3.1 N포세대-포기의 시대, N포세대 5.3.2 청년실업-안정, 이상, 현실의 트라이앵글, 청년실업 5.3.3 아르바이트 5.3.4 혼자문화-나 혼자 먹는다
5.4 차별과 혐오의 틈바구니에서	5.4.1 장애인혐오-장애인 택시 5.4.2 여성혐오-여성을 혐오합니다 5.4.3 아동혐오-아이들 출입금지, 노키즈존 5.4.4 성소수자혐오-LGBT에서 LGBTQ+로 5.4.5 노인혐오-경로가 아닌 혐로
5.5 가족주의의 차이와 번복	5.5.1 다양한 가족 형태-전통적 가족의 해체 5.5.2 비혼-결혼은 선택 5.5.3 국제결혼
5.6 함께 자연	5.6.1 동물복지-동물권 보장을 위한 동물복지 5.6.2 야생동물-도심 속 야생동물 5.6.3 서울숲과 도시녹화, 수생태계

상위 S-NAP	하위 S-NAP
5.7 제2, 제3의 인생	5.7.1 노인빈곤-신 넝마주이와 노인빈곤 5.7.2 일하는 노인-워킹 실버 5.7.3 노인의 연애-황혼의 연애, 로맨스 그레이
5.8 우리 곁의 죽음	5.8.1 높은 자살률 5.8.2 고독사

❒ S-NAP6. Network

표 7 S-NAP 주제영역: '네트워크'

상위 S-NAP	하위 S-NAP
6.1 되살아나는 마을들	6.1.1 성미산마을 6.1.2 정릉마을 6.1.3 마을만들기 지원
6.2 조합의 현장, 그리고 새로운 협동의 시도들	6.2.1 노동조합 6.2.2 협동조합
6.3 교통으로 만나다	6.3.1 도로망 6.3.2 시민의 발이 되어준 버스 6.3.3 서울의 관문 6.3.4 서울의 하늘길 6.3.5 고속버스터미널
6.4 정보 네트워크	6.4.1 통신망 6.4.2 방송 6.4.3 SNS

❒ S-NAP7. Structure

표 8 S-NAP 주제영역: '구조'

상위 S-NAP	하위 S-NAP
7.1 통치에서 협치로	7.1.1 행정구역의 변천 7.1.2 굿거버넌스
7.2 한옥에서 펠리스까지	7.2.1 사라지는 근대 건축물과 한옥 7.2.2 달동네-쫓겨난 사람들의 공동주거 7.2.3 아파트에 갇힌 욕망
7.3 인프라의 혜택과 비혜택	7.3.1 안심지원서비스-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하라 7.3.2 의료시스템-건강의 공공성과 의료시스템 7.3.3 정보접근성-언제 어디서든 무료(공공) 와이파이

상위 S-NAP	하위 S-NAP
7.4 변화하는 문화공간	7.4.1 세종문화회관-예술, 시민의 곁으로 7.4.2 소극장-관객과의 티키타카 7.4.3 동네 작은 책방

❒ S-NAP8. Event

표 9 S-NAP 주제영역: '역사·이벤트'

상위 S-NAP	하위 S-NAP
8.1 도시의 죽음	8.1.1 암살-소리없는 권력의 재구성 8.1.2 노덕술-고문기술자, 노덕술 8.1.3 박종철 고문치사-야만적 폭압, 고문치사 사건 8.1.4 91년 봄, 11인의 죽음-국가폭력에 대한 저항
8.2 운동장 정치	8.2.1 장충체육관 선거-투표권이 없는 시민들 8.2.2 서울올림픽-서울올림픽을 통한 허위 기적 주조 8.2.3 한일월드컵-광장문화의 시작 한일월드컵
8.3 제국주의의 망령	8.3.1 중앙청 철거-제국주의 그림자 지우기 8.3.2 친일파 동상-친일파 동상 설립과 철거 사이
8.4 버림받은 시민들	8.4.1 제1한강교 폭파-국가의 배신, 제1한강교 폭파 8.4.2 메르스-구멍난 방역체계 8.4.3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중산층 신화의 허상,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8.4.4 비정규직 김용균, 구별 짓기 속 착취와 버림의 반복
8.5 미군부대	8.5.1 미선이 효순이-사라진 가해자 8.5.2 용산철수-반세기만에 개방된 한미동맹의 상징
8.6 사람답게 사는 세상	8.6.1 전태일-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8.6.2 구로동맹파업-노동자 연대의 시작 8.6.3 강남역 살인사건-묻지마가 아닌 혐오의 폭력
8.7 촛불로 다시 태어나	8.7.1 광우병 반대시위-주체가 되어 광장으로 나온 시민 8.7.2 4.16광화문촛불-노란리본과 마음을 나누는 촛불 8.7.3 탄핵 촛불-광장의 촛불 민심
8.8 우리 곁의 재난	8.8.1 대연각 화재-생중계된 재난의 현장 8.8.2 삼풍백화점 붕괴-급속성장과 부패의 결합 8.8.3 성수대교 붕괴-책임 폭탄 돌리기
8.9 축제와 향연	8.9.1 마을문화축제-소통과 교류를 통한 마을 문화 8.9.2 한강 축제-시민에게 한강을

❒ S-NAP9. Stuff·Things

표 10 S-NAP 주제영역: '물질'

상위 S-NAP	하위 S-NAP
9.1 오천년 숨결이 흐르는 한강	9.1.1 역사가 흐르는 강 9.1.2 경계와 이동 9.1.3 한강으로 흐르는 문화예술
9.2 서울 스피릿, 남산	9.2.1 국사당과 일본신사-신성한 산에 남은 식민지 상처 9.2.2 반공이데올로기의 상장-공포정치의 상징 9.2.3 도시공원
9.3 도시의 불빛	9.3.1 광공해-별빛을 지운 광공해 9.3.2 도시의 가로등-안전을 밝히다
9.4 서울의 맛	9.4.1 궁중요리-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갖는 궁중요리 9.4.2 실향민의 요리-맛으로 그리는 고향의 그리움 9.4.3 서울 속의 세계요리
9.5 도구의 문화사	9.5.1 일하는 사람들의 도구 9.5.2 문화예술을 만드는 도구
9.6 오늘, 서울의 소리	9.6.1 노동의 소리를 듣다 9.6.2 일상의 소리를 듣다
9.7 물질의 순환과 환경오염물	9.7.1 대기오염-미세먼지에 갇힌 잿빛 하늘 9.7.2 소음-도시를 채우는 소음 9.7.3 폐기물-환경오염물이 불러올 재앙
9.8 에코주의	9.8.1 친환경정책-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하여 9.8.2 재활용-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가치 창조

1.5. 서울기록지도 (Seoul Archive Map)

❒ 서울 기록 지도 (Seoul Archive Map)의 개발 목적

- ㅇ 서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서사 기반 수집실행지침(S-NAP)에 따라 수집된 기록과 기록 활동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작성하여 제공함
- ㅇ 수집된 기록 이면의 서사적 맥락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기록이 갖는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여 개발함
- ㅇ 서울을 표상하는 기록들의 분표와 기록 간의 유기적 맥락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서울 지도를 기반으로 수집 기록 현황을 제공함
- ㅇ 서울 지역에 기반을 둔 기록 활동을 발굴하여 네트워크 대상으로 식별된 기관이나 단체의 정보를 제공함
- ㅇ 서울기록지도는 서울의 시공간적 축을 의미론적으로 확장한 서울의 서사, 이야기를 찾아가는 기록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기록 활동 네트워크를 확인하여 기록 자치 생태계 구축의 기반 도구로 활용 가능함

❒ 서울기록지도의 활용

- ㅇ 2019년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의 결과로 수집된 기록을 대상으로 수집 대상 객체의 장소성에 주목하여 기록관의 유기적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제공함
- ㅇ 수집된 기록 객체를 아우르는 서울의 이야기를 찾아 서사적 맥락 속에서 갖게 되는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음
- ㅇ 수집된 기록과 연결된 기록 활동 네트워크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인 추가 수집이나 현황 파악에 활용할 수 있음

❒ 서울기록지도 구현 모델 예시

- ㅇ 서울기록원이 서사 기반으로 수집한 기록 컬렉션을 서울의 지역/마을 단위로 서울 지도에 표시
- ㅇ 활용 서비스가 가능한 기록물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
- ㅇ 서울기록지도에서 접근 가능한 기록 현황을 표시한 포인트를 선택하면 수집된 기록에 관한 정보가 표시
- ㅇ 주요 기록 활동 네트워크 정보를 포인트로 표시하여 기록 활동 현황 파악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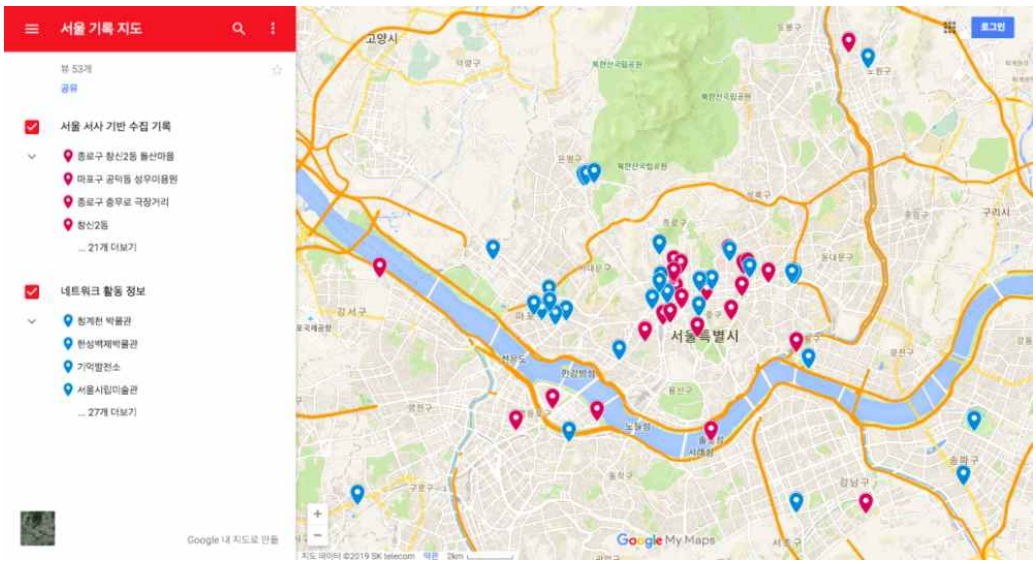


그림 13 서울기록지도 예시



그림 14 서울기록지도의 수집 기록 목록



그림 15 서울기록지도의 네트워크 활동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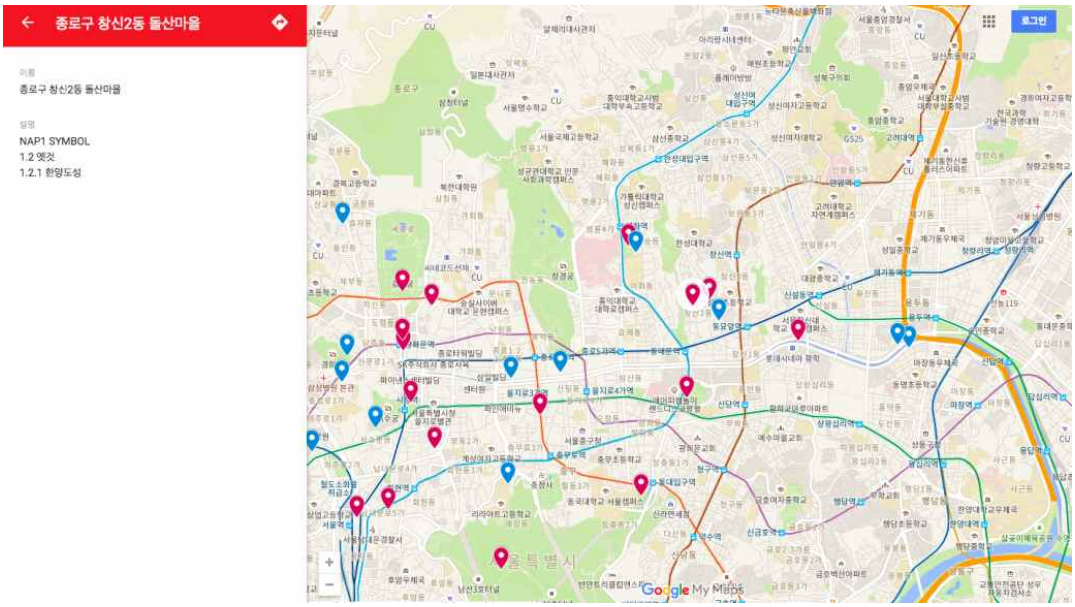


그림 16 서울기록지도 수집기록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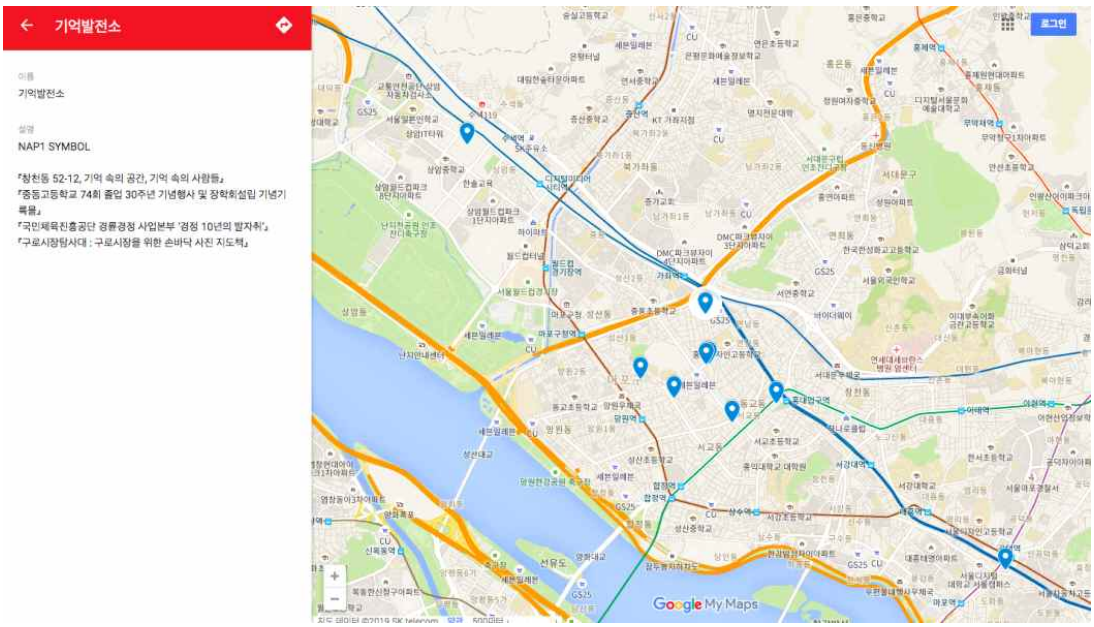


그림 17 서울기록지도 네트워크 활동 정보

❒ **서울기록지도 기대효과**

- ㅇ 서울기록원의 서울기록지도(Seoul Archival Map)는 다양한 수집 활동을 통해 채워질 것이며, 단계적 수집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시 전체를 망라하는 지도를 구축
- ㅇ 기록의 수집 도구와 기록 활동 네트워크 식별 도구로 활용 가능하며, 기록 콘텐츠 서비스 기반 지도로 활용 가능함

2. 수집실행 · 정리

2.1. 수집실행 · 정리 개요

❒ 2019년 서사기반 수집의 방향성

- ㅇ '서울의 사회현상과 삶의 현장'이라는 관점으로 서사를 기반으로 S-NAP을 설계하고 서울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함 (9개 영역별, 세부주제 약 200개)
- ㅇ 이중 '상징(symbol)'이라는 영역 중 4개의 세부 주제를 2010년 수집사업(7월~11월 말)의 주제로 선택하고 수집을 진행하고 있음
  - '서울의 옛 것' :10월 중순 '수집' 완료
  - '광장의 외침' :10월 중순 '수집' 완료
  -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 11월 중순 '수집' 완료
  -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11월 중순 '수집' 완료
- ㅇ 수집방법은 선행 과정으로 서울의 사회현상과 시민들의 삶이라는 시각에서 서사 기반거시평가 방법론을 수행하고, 후행 과정으로 현장수집과 그에 따른 행정기록을 수집하면서 귀납적 방법론을 통해 현실성을 담보함
  - 특히 행정기록 수집은 서사의 주관성을 간주관성의 관점으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가치 있는 행정기록 수집에도 중점을 두었음

❒ S-NAP기반의 '서사중심 아카이빙' 수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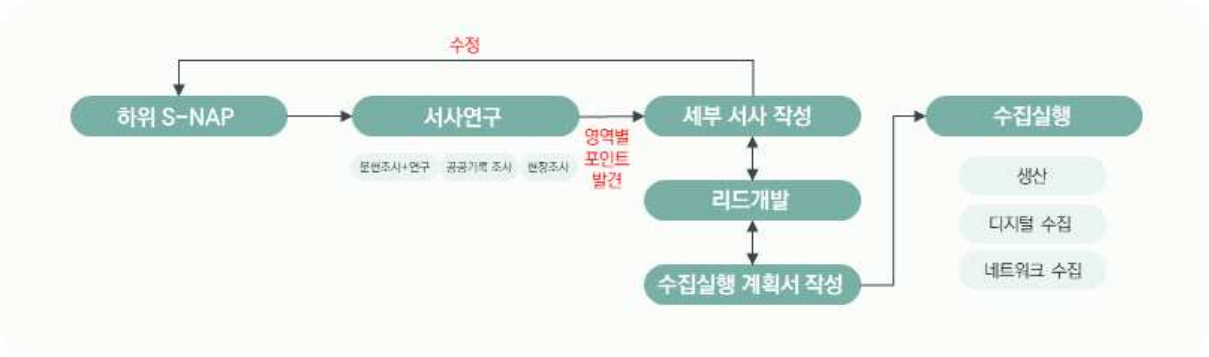


그림 18 서사중심 아카이빙 수행절차

- ㅇ 수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성을 기반으로 '서사기반 수집절차'를 마련함
- ㅇ 서사 기반의 수집 절차는 하위 S-NAP의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영역별 포인트를 발견하고 서사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영역 및 리드개발을 실행함

- ㅇ 수집실행 과정을 통해 추상성 있는 S-NAP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서사를 수정 보완하는 등 변증 관계 속에서 수집 진행

❒ 서울기록원과의 수집협업과 지적재산권

- ㅇ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은 수집대상자가 '해당 사본의 공적 이용에 대한 양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짐
- ㅇ 또한,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은 소장처와 공동이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정위원회나 평가위원회가 불필요하다는 전제로 수집을 진행함
- ㅇ 때문에 아날로그 기록 실물수집과는 지적재산권에서 다른 측면이 존재함. 즉 지재권 양도가 아닌 공동 이용으로 서울기록원이 지적재산권 양도를 원하면 향후 기증 및 구매 등을 통해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수집을 진행하였음
- ㅇ 다만,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 기록의 공동 이용을 위한 증서는 발급할 필요가 있음으로 서울기록원과 협의하여 증서발급을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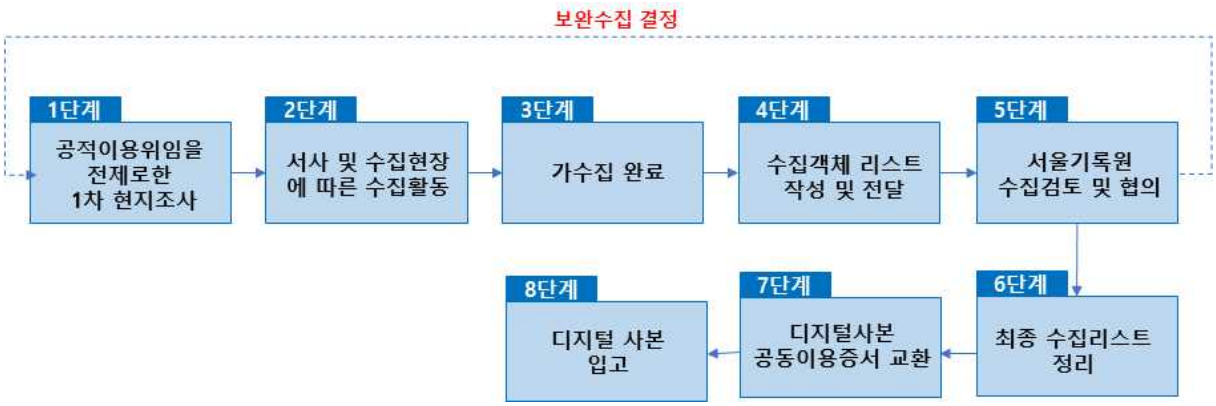


그림 19 서울기록원과 수집사업팀과의 수집협업 절차

❒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 과정에서의 서울기록원과 협업체계

- ㅇ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은 서사별 주제와 수집 현장의 상황에 따라 변증 관계 속에서 수집을 진행함. 이러한 역동적인 수집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수집 마무리를 위하여 위와 같은 안으로 절차를 마련하여 수집을 진행함
- ㅇ 연구팀은 1차적으로 소장처에서 기록의 공적이용에 대한 양해를 받고, 가수집을 진행함. 가수집이 완료되면 연구팀은 수집리스트와 수집기록은 서울기록원에 전

달하고 서울기록원은 가치판단을 통해 최종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 대상을 선정함. 이 과정에서 서울기록원 요청으로 보완수집이 진행됨

- ㅇ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 대상이 결정되면 서울기록원과 연구팀은 소장처에 '공동 이용증서'를 발급함.
- ㅇ 4개 영역 중 10월 중순 2개 영역(옛것, 광장)의 가수집을 완료하고 서울기록원에 전달할 예정임. 나머지 영역도 순차적으로 수집이 완료되면 서울기록원이 가치 판단할 수 있도록 수집기록과 리스트를 공유 예정임
- ㅇ 단, 서울기록원의 수집기록물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할 경우 이후 별도로 증서발급과 교환을 진행하였음

❒ 수집유형

- ㅇ 기록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S-NAP를 기반으로 '기록 공유'의 관점에서 수집 진행함
- ㅇ 기존의 일방향적 수집 관행에서 벗어나 '공동 이용'을 전제로 한 '디지털 기록 사본 수집'을 진행함
- ㅇ 사본수집의 방법은 **1) 생산, 2) 디지털 수집, 3) 네트워크 수집**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생산: 영상 촬영, 사진 촬영, 구술 생산, 다큐 생산
- 디지털 수집: 텍스트기록 수집(스캔, 디지털파일), 이미지 기록 수집(스캔, 디지털파일), 영상·음성기록 수집(디지털파일)
- 네트워크 수집: 장기적으로 협력할 네트워크 대상을 식별하여 '목록수집'을 진행하고, 네트워크 기능과 연계



그림 20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 유형

❐ **수집유형별 세부절차: 생산**

- ㅇ 생산은 기록으로 확보할 수 없거나 의미 있는 행위 등을 기록으로 포착하기 위하여 진행함
- ㅇ 세부 수집 유형은 '구술, 사진 촬영, 다큐 촬영'으로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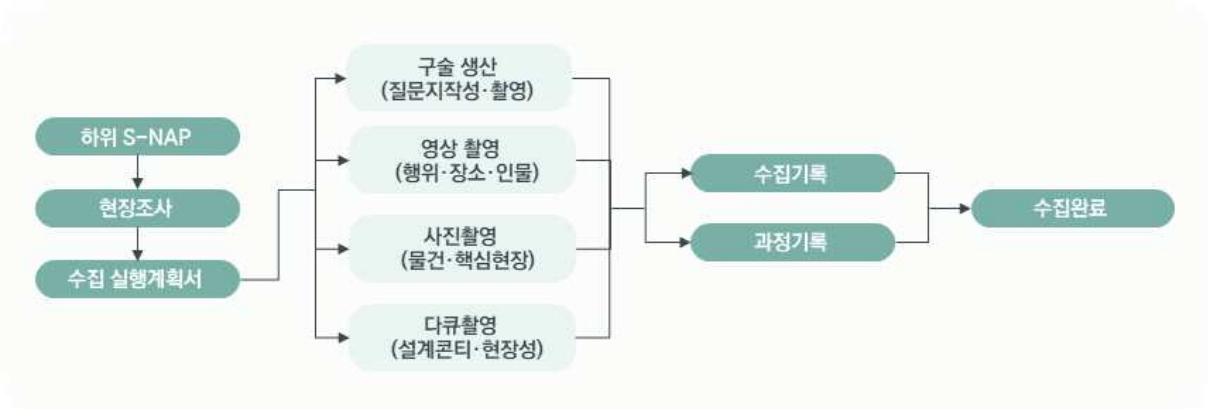


그림 21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 유형: 생산

❐ **수집유형별 세부절차: 디지털 수집**

- ㅇ 디지털 수집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음성 기록을 수집하며, 비전자기록일 경우 현장에서 스캔작업을 하거나 대여를 통해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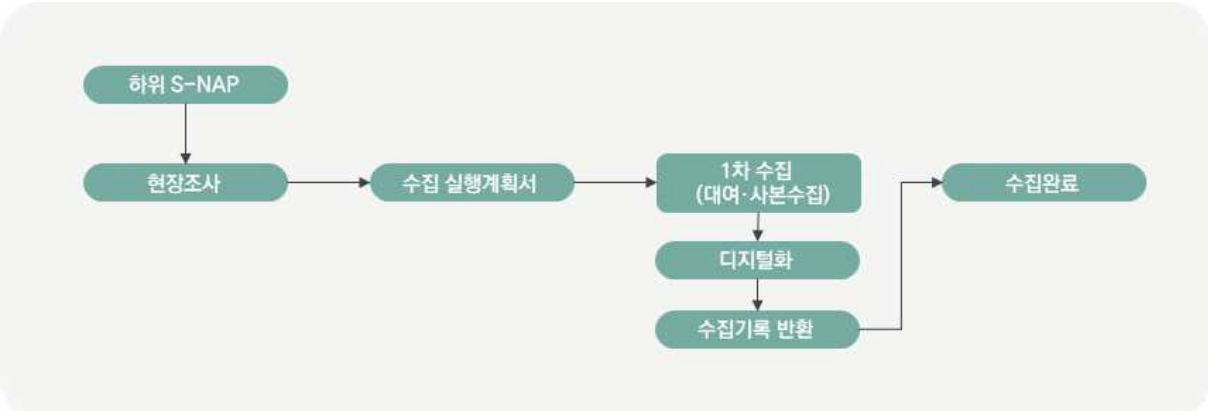


그림 22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 유형: 디지털수집

❒ **수집유형별 세부절차: 네트워크 수집**

ㅇ 네트워크 수집은 현장조사와 인터넷 조사 2가지 방법으로 수행함

- 협치·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인터넷 조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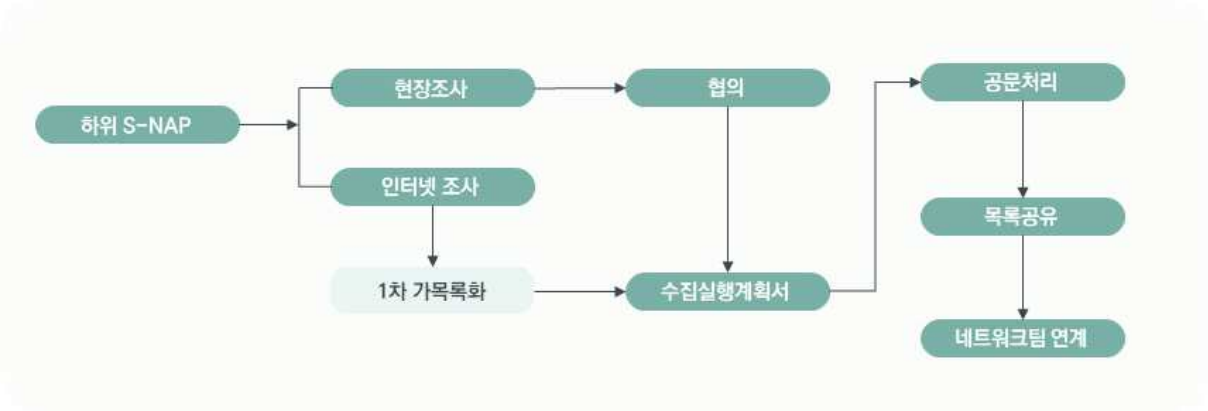


그림 23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 유형: 네트워크 수집

❒ **수집유형별 세부절차: 행정기록 수집**

ㅇ 행정기록 수집은 디지털 수집과 네트워크 수집 방법으로 진행하며, 하위 S-NAP 기준으로 주제 키워드를 추출하여 공문을 통해 수집하는 방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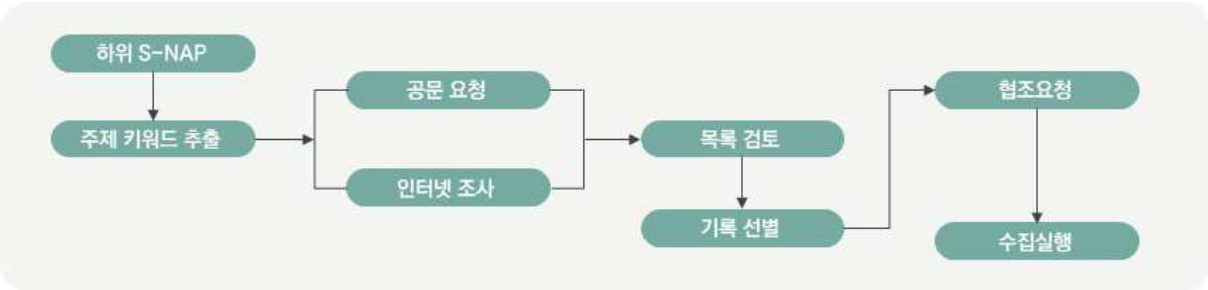


그림 24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 유형: 행정기록 수집(네트워크 수집·디지털수집)

2.2. 수집실행 주요 내용

❐ **주요수집대상**

- ㅇ 공공·협치·민간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총 41곳의 수집대상자를 접촉하여 사본수집 및 공유를 실행함
- ㅇ 서울기록원 토탈 아카이브의 수집지향은 공공기록의 빈틈을 민간기록으로 메우고자 하는 것임. 때문에 1차적으로 서울시 소장 청도문서고 건 목록을 조사하고, 2차로 민간·협치 영역에서 수집을 위한 대상기관 조사에 들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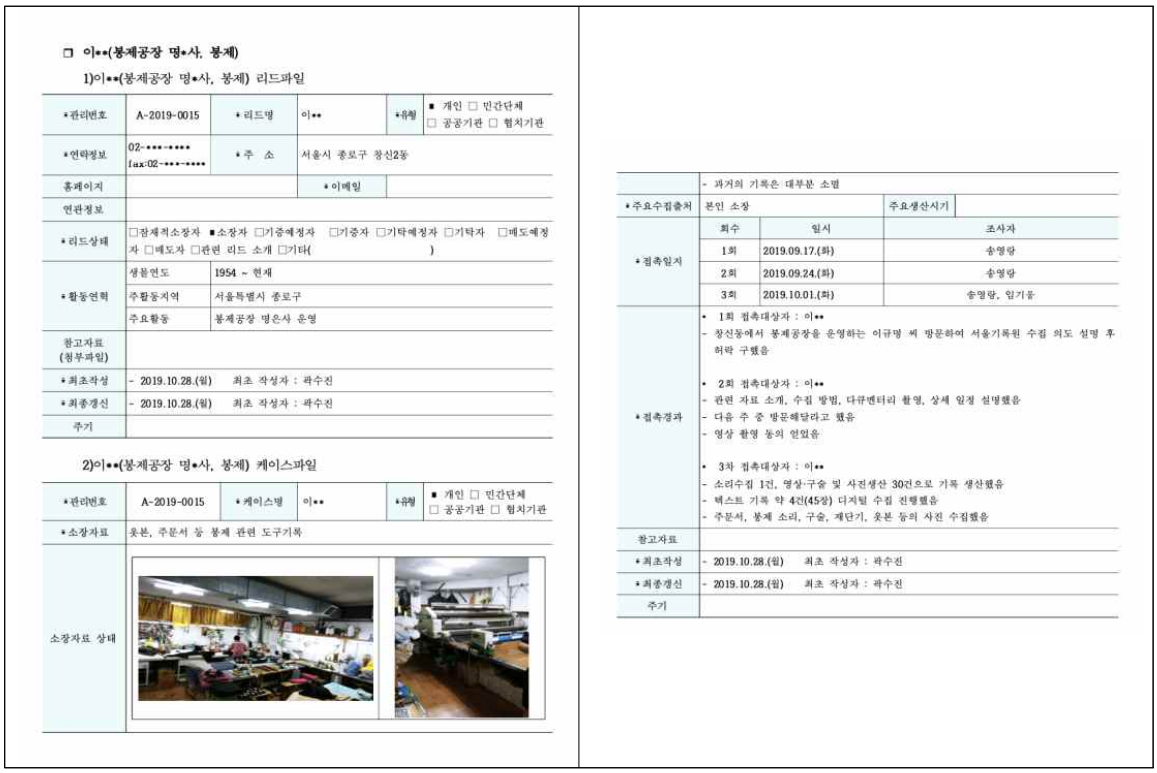


그림 25 주요 수집대상 유형

❐ **4개 영역(광장, 옛것, 조형물, 콘크리트 서울)의 기록 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고 수집기록으로 포함시킴**

- ㅇ 1차 조사·수집
  - 서울기록원에게 제공받은 '서울기록원 비전자기록물 이관목록(건목록1)', '2014 전수조사(일반문서)_본부및사업소', '2014 전수조사(일반문서)_본청' 자료 검토해서 수집 가능 예상 목록에 추가함
  - 공공은 국가 기록원, 서울기록원, 서울시, 서울사진아카이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 사진, 영상 등을 검토하여 목록화함
- ㅇ 2차 조사·수집
  - 민간영역은 신문기사, 논문, 단체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고 목록화

- 하위 S-NAP을 기반으로 현장 조사와 연구를 통해 직접 리드를 발굴하고 수집 진행



❒ 이••(봉제공장 명•사, 봉제)

1)이••(봉제공장 명•사, 봉제) 리드파일

*관리번호	A-2019-0015	*리드명	이••	*유형	■ 개인 □ 민간단체 □ 공공기관 □ 협치기관
*연락정보	02-•••-•••• fax:02-•••-••••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홈페이지		*이메일			
연관정보					
*리드상태	□잠재적소장자 ■소장자 □기증예정자 □기증자 □기탁예정자 □기탁자 □매도예정자 □매도자 □관련 리드 소개 □기타( )				
*활동연혁	생몰연도	1954 ~ 현재			
	주활동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요활동	봉제공장 명은사 운영			
참고자료 (첨부파일)					
*최초작성	- 2019.10.28.(월) 최초 작성자 : 곽수진				
*최종갱신	- 2019.10.28.(월) 최초 작성자 : 곽수진				
주기					

2)이••(봉제공장 명•사, 봉제) 케이스파일

*관리번호	A-2019-0015	*케이스명	이••	*유형	■ 개인 □ 민간단체 □ 공공기관 □ 협치기관
*소장자료	옷본, 주문서 등 봉제 관련 도구기록				
소장자료 상태					

	- 과거의 기록은 대부분 소멸		
*주요수집출처	본인 소장	주요생산시기	
*접촉일지	회수	일시	조사자
	1회	2019.09.17.(화)	송영랑
	2회	2019.09.24.(화)	송영랑
	3회	2019.10.01.(화)	송영랑, 업기윤
*접촉결과	• 1회 접촉대상자 : 이•• - 창신동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이규명 씨 방문하여 서울기록원 수집 의도 설명 후 허락 구했음 • 2회 접촉대상자 : 이•• - 관련 자료 소개, 수집 방법, 다큐멘터리 촬영, 상세 일정 설명했음 - 다음 주 중 방문해달라고 했음 - 영상 촬영 동의 얻었음 • 3차 접촉대상자 : 이•• - 소리수집 1건, 영상·구술 및 사진생산 30건으로 기록 생산했음 - 텍스트 기록 약 4건(45장) 디지털 수집 진행했음 - 주문서, 봉제 소리, 구술, 재단기, 옷본 등의 사진 수집했음		
참고자료			
*최초작성	- 2019.10.28.(월) 최초 작성자 : 곽수진		
*최종갱신	- 2019.10.28.(월) 최초 작성자 : 곽수진		
주기			

그림 26 봉제공장 리드/케이스 파일 (예시)

❒ '서울의 옛 것' 주요 수집내용

옛것- '기억해야 하는 옛 것을 전승하는 장인들'
서울의 '옛것' 중 '기억해야 하는 서울의 옛 것을 전승하는 장인들'의 주제영역에서 창신동 돌산마을을 중심으로 수집대상 접촉을 진행함. 창신동 일대는 보통 40년 이상 한 업종에서 종사한 분이 많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하는 서울의 옛 것을 전승하는 장인들' 이라는 수집지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수집을 진행함 (주요서사) 서울의 오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의 이야기, 같은 자리를 지켜주는 가게의 상인들의 이야기, 가게의 공간과 주변 환경의 역사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

- ㅇ 양복 재단 장인(태극라사 40년 운영, 박○○), 2019년 09월~10월 수집
  - 양복 옷본, 재단 도구, 수첩, 잡지 등의 실물 기록이 존재
  - 재단하시는 영상 촬영 동의를 구하여 촬영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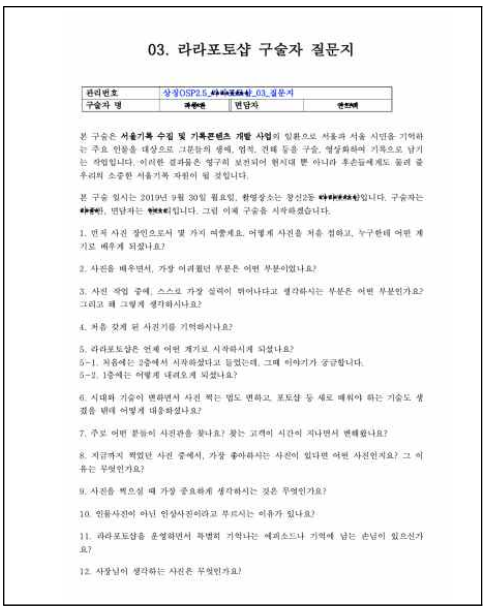
- 양복 재단 행위 영상 촬영



그림 27 태극라사 전경 및 텍스트 수집

ㅇ 사진 장인(라라포토샵 40년 운영, 라○○), 2019년 09월~10월 수집

- 70년대 촬영 사진기 및 촬영 장비, 당시 필름 봉투 등의 기록 수집
- 사진관을 40년 이상 운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의 이야기 등 구술생산



03. 라라포토샵 구술자 질문지

관리번호	상징OSP2.5_[illegible]_03_질문지		
구술자 명	[illegible]	면담자	[illegible]

본 구술은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과 서울 시민을 기억하는 주요 인물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생애, 업적, 견해 등을 구술, 영상화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영구히 보전되어 현지대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물려 줄 우리의 소중한 서울기록 자원이 될 것입니다.

본 구술 일시는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촬영장소는 장신2동 [illegible]입니다. 구술자는 [illegible], 면담자는 [illegible]입니다. 그럼 이제 구술을 시작하겠습니다.

1. 먼저 사진 장인으로서 몇 가지 여쭐게요. 어떻게 사진을 처음 접하고, 누구한테 어떤 계기로 배우게 되셨나요?

2. 사진을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3. 사진 작업 중에, 스스로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4. 처음 갖게 된 사진기를 기억하시나요?

5. 라라포토샵은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5-1. 처음에는 2층에서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5-2. 1층에는 어떻게 내려오게 되셨나요?

6. 시대와 기술이 변하면서 사진 찍는 법도 변하고, 포토샵 등 새로 배워야 하는 기술도 생겼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7. 주로 어떤 분들이 사진관을 찾나요? 찾는 고객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왔나요?

8.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진이 있다면 어떤 사진인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9. 사진을 찍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10. 인물사진이 아닌 인생사진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나요?

11. 라라포토샵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신가요?

12. 사장님이 생각하는 사진은 무엇인가요?



그림 28 라라포토샵 구술진행 모습

ㅇ 수선 장인(스타의상실 40년 운영, 권○○), 2019년 09월~10월 수집




그림 29 스타의상실 수집협의 및 수집기록

- 10대부터 공장에서 봉제 일을 시작, 현재 스타의상실을 오랫동안 운영하심
- 40년 이상 의상실을 운영하면서 10대부터 현재까지 생애사 구술진행
- 또한, 의상실을 방문한 손님들의 이야기를 에피소드 중심으로 구술을 진행함

옛것- '성곽마을들의 역사와 삶의 흔적들'
서울의 '옛것' 중 '성곽마을들의 역사와 삶의 흔적들의 주제영역에서 창신동 돌산마을을 중심으로 수집대상 접촉을 진행함. 창신동 일대는 창신동 돌산마을은 한양도성 밖 첫 번째 마을로 일제 강점기의 채석장 부지에 마을이 형성된 것임. 주로 을지로 일대에서 봉제업을 하신 봉제 기술자들이 밀려나가 현재의 봉제촌을 형성하였음. 때문에 '성곽마을들의 역사와 삶의 흔적들' 이라는 수집지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수집을 진행함 (주요서사) 한양도성의 축조 과정과 방식, 도성의 구조, 사대문과 사소문, 철거와 복원의 역사, 백악구간과 도성의 시작, 낙산구간과 봉제마을, 흥인지문구간과 끊어진 성벽, 숭례문구간과 서울 도심의 흔적, 한양 도성 밖 첫 번째 마을 돌산밑(채석장에서 봉제마을로)

ㅇ 성곽 주변 마을 중, 기록과 이야기를 통해 봉제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와 삶의 흔적을 중심으로 수집 진행

ㅇ 성곽마을 사람들 1 (은지네 빨래방 운영, 송○○), 2019년 09월~10월 수집
- 창신동 돌산마을(봉제촌)에서 시아게(마무리, 다림질) 전문으로 창신동 일대의 주민대표 격으로 많은 활동을 하심
- 80년대 창신동 사진 등 소장을 확인하고 디지털 수집 진행
- 창신동 봉제마을 형성 역사에 대해 청취하고 구술 및 다큐 제작 진행
- 창신동 관련 리드와 접촉/연계 가능성이 높은 소장자임




그림 30 행위영상 촬영 및 1990년 초반 창신동 인근(동대문) 전경사진

ㅇ 성곽마을 사람들 2 (명은사 운영, 이○○), 2019년 09월~10월 수집

- 2대가 함께 봉제공장(명은사) 운영, 을지로 미군 부대 근처에서 봉제업을 하시다가 돌산마을로 오셨음
- 봉제 영상 촬영, 물건, 봉제수첩, 발주서 등 수집 진행
- 구술, 다큐 촬영 진행




그림 31 창신동 로드뷰 촬영 및 봉제공장 구술진행

ㅇ 한양도성 성벽 보수공사 관련 기록(서울시 정보소통광장), 2019년 09월~10월 수집

- '성곽마을들의 역사와 삶의 흔적들' 관련 행정기록 수집 진행
- 한양도성 인왕-백악 구간 성벽보수공사 관련 행정문서 등 수집
- 2013년 서울시장 공약인 '도시재생 역사도심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흥인지문, 광희문 주변 단절된 성곽복원 및 연계성 회복사업' 관련 문서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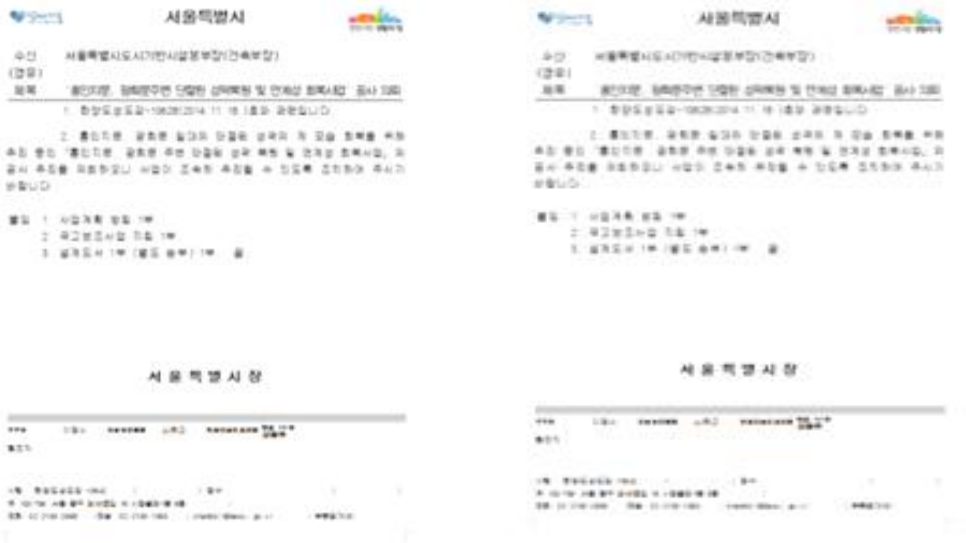


그림 32 서울 성곽복원과 관련된 행정 문서

옛것- '뉴트로 감성과 추억을 선사하는 다방, 극장, 이발소'
서울이라는 공간에 존재는 옛것 중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뉴트로라는 새로운 감성과 추억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곳이나 물건을 수집대상으로 선정함. (주요서사) 마을의 입소문 사랑방의 변화, 고급문화에서 대중문화로, 단발령과 함께한 이발의 역사, 이발을 배운 재소자들이 불러온 퇴폐 이발소, 이발소를 떠나는 남성들, 개화기 문화예술의 중심 다방, 레지와 다방커피, 다시 찾는 오랜 감성

ㅇ 성우이발소 (1920년대부터 3대째 운영, 이○○, 서울미래유산 지정), 2019년 09월~10월 수집

- 같은 자리에서 3대째 이발소를 운영하고 계시며, 영상 촬영 감독, 사진작가와 함께 수집 진행
- 사진(이용원 외관, 내부, 가위, 면도칼, 시, 영업신고증 등의 기록), 영상(이발소 전경, 이발 및 면도 기술, 이야기 등)으로 생산
- 이발 영상 촬영(이발하면서 별도의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아니나, 현재 위치에 자리 잡게 된 이야기, 기술을 배우게 된 이야기, 지금의 기술을 얻기까지 고민한 시간의 이야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촬영)



그림 33 성우이용원 촬영 모습

ㅇ 극장간판 화가 (1960~90년대까지 충무로 일대에서 활동, 백○○), 2019년 09월~11월 수집



그림 34 극장간판 화가 도구 수집 및 다큐멘터리 제작

- "영화 간판쟁이: 사라져 가는 것들의 안부"라는 다큐제목으로 단독다큐 제작 진행
- 2019년 9월 25일 1차 구술을 시작으로 11월 25일까지 다큐 제작을 위한 약 8회차 구술 진행. 다 큐과정에서 생산된 원소스 기록 수집 진행
- 구술진행 과정에서 관련 인물들을 소개받아 동시대 활동한 간판화가, 제자, 영화제작사 관계자 등과 접촉하여 다큐를 생산하고, 관련 기록을 수집함

ㅇ 옛날 간판 수집 (현재 남아있는 옛날 간판 디지털 사진 소장, 양○○), 2019년 09월 수집

- 동시대에 남아있는 옛날 간판을 디지털 사진으로 소장하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옛날 간판에 대한 전량 사본기증 진행(약 300장)



그림 35 옛날 간판 수집기록

❒ ‘광장의 외침’ 주요 수집내용

광장의 외침- ‘마로니에 공원’
서울의 광장마다 지니는 특색을 서사에 담고자함. 마로니에 공원은 문화다양성이 공존한다는 광장적 특성을 지님. 관련 특색을 상징할 수 있는 기록을 수집함 (주요서사) 여성의 목소리, 성 소수자의 목소리, 세월호 촛불문화제 참여 연극인들의 목소리,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 외국인(필리핀 마켓)들의 목소리, 마로니에 공원 및 일대 경관, 마로니에 공원 변천사



그림 36여성민우회 젠더운동 포스터

ㅇ 한국여성민우회(젠더운동 관련 기록 수집), 2019년 10월 수집

- 2018년 4월 21일 진행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주최 집회 관련된 디지털 기록 수집
- 마로니에 공원을 중심으로 젠더운동을 진행한 사진 이미지 중심으로 수집됨
- 관련 활동기록이나 기획단계의 기록은 장기적인 관계 구축 후, 수집 협의가 필요할 것임
- 홍보 포스터(1건), 디지털 사진(약 52매)

ㅇ 연극음악감독 (성소수자 관련 연극음악연출, 활동명: 이재, 서울미래유산 지정), 2019년 09월~10월 수집



그림 37 퀴어한 낭독극장 음악파일

- 대학로를 중심으로 여성, 청소년 등의 소수자 관련 연극의 음악감독을 진행해오신분으로, 관련 연극의 포스터 및 리플렛 기록 등의 사본 기록 및 연극에서 사용된 음원 등 수집
- 구술촬영은 9월 30일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진행함

ㅇ 필리핀 마켓 (마로니에 공원에서 필리핀 마켓 운영, 존슨○○), 2019년 09월~10월 수집

- 필리핀 전체 커뮤니티 회장으로 필리핀 마켓 판매인 AN○○로 연계하여 수집 진행
- 혜화동로터리 마켓 전경 촬영 및 인터뷰 진행

ㅇ 한국소극장협회 국장/연극평론가 (최○○), 2019년 09월~10월 수집





그림 38 대학로 마당놀이축제/대학로 연대기 기록

- 대학로의 문화예술공연문화 및 문화지구 변천사 관련 기록 수집 진행. 대학로 문화지구에 대한 역사뿐 아니라 극단/극장, 축제/공연 등 이 구역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식을 보유하고 계심
- 한국소극장협회에서 사전 미팅 진행(9.24), 10월 2일(수) 정식 인터뷰 진행
- 수집 기록: 마로니에 공원 소극장 목록, “광장, 사람, 풍경(70분 공연)” 관련 기록물, 거리공연축제 관련 기록물, 대학로 공연/축제 등에 관한 기록물, 특색 있는 극단/극장들 목록,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2016.08.12.) 책자, 대학로 연대기(출력본) 수집

광장의 외침- '희망의 외침, 광화문 광장'
과거 광화문광장 조성부터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광황문 광장의 역사적기록, 다양한 시민기록 중심으로 기록 수집하고자 함 (주요서사) 광화문 광장 이전의 경관, 광화문 광장의 조성 배경 및 과정, 2002년 월드컵의 함성, 촛불집회의 외침, 효순미선이를 기억하고자 하는 목소리, 광화문 광장에서 마주한 사람들과 그들의 목소리, 광화문 광장에서의 문화적 행사들, 4.16세월호 목소리, 시민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 새로운 광화문 광장을 위한 도약

ㅇ 416기억저장소(광화문 광장에서의 세월호 활동, 이○○), 2019년 10월 수집

- 416저장소 홈페이지를 통해 광화문 관련 기록물을 목록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4.16기억저장소와 협의하여 목록 및 디지털 사본 수집을 진행함

ㅇ 유민아버님, 2019년 10월 수집



그림 39 광화문광장 다큐제작

- 광화문광장에서 행했던 '단식'과 관련된 이야기 구술 생산 및 관련 텍스트 기록물 수집 진행
- 개인 페이스북의 수집동 의는 구하였으나, 수집 진행 일정상 진행하지 못함. 차후 연계하여 수집 진행 가능함
- 광화문 광장의 대표성 있는 인물로 단독 다큐 제작 진행

ㅇ 동화작가연대(광화문광장에서의 작가들의 세월호 추모 활동, 김○○), 2019년 10월 수집

- <기억의 벽> 프로젝트 참여 동화작가로 당시 사진 사본 수집
- 광화문 걸개그림, 어린이 책 "노란책" 소책자 4-5차본 등 수집 진행

❒ '콘크리트 유토피아' 주요 수집내용

콘크리트 유토피아
콘크리트라고 하는 서울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를 가지고, 서울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관련 기록을 수집함. 특히, 600년 역사의 수도인 서울의 랜트마크가 콘크리트라고 인식하게된 배경을 당시의 공문서, 영상 등의 수집을 통해 알아보고자 함. 또한 63빌딩의 높이에 집착했던 당시의 성장주의, 석조시대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그리워하는 것 등을 기록 수집을 통해 설명하고자 함

ㅇ 콘트리트 유토피아 수집 방향(민간+공공)

- 건축기록과 관련하여 표면적으로 남는 기록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남겨진 작가들의 초기구상(의도)가 담긴 기록, 즉 '초기 건물의 컨셉을 가지고 지향이 담긴 기록'을 주요 수집기록으로 설정하고 수집 진행
- 현재 공공영역에서 남겨지는 기록은 작가의 초기 컨셉이나 구상기록을 제외한 기능적 요소만이 부각된 기록이 많음. 민간영역에서의 이러한 초기 과정기록을 남김으로서 건물이 담고 있는 이야기(왜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를 풀어보려 함

ㅇ 건축가(1세대 아파트 관련 기록, 전○○), 2019년 11월 수집



그림 40 상계 주공아파트 모형

- 상계주공아파트는 1980년대 당시 파격적인 디자인을 시도하여 센세이션을 일으킨 아파트의 유형임. 서민형아파트가 보급되기 이전, 다양한 평면과 모양을 시도하여 현재의 표준화된 모습으로 자리잡음. 당시 다양한 평면의 변형과 구도를 상계주공아파트에서 시도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타입들만 모형으로 제작함.
- 당시 모형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연구용/전시용으로 만든 모형으로 실물 기증받음. 연구팀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본수집을 진행하고, 모형은 서울기록원 실물 수집을 결정하고 이후 별도의 절차로 사본 수집을 진행함

ㅇ 라○○(라라포토샵 운영), 2019년 09월~10월 수집



그림 41 청계고가 사진

- 2003년 촬영한 청계고가 사진. 현재는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철거됨
- 소장자가 2003년 7월 삼일빌딩에서 촬영한 사진임
- 도로 기준으로 좌측이 종로, 우측이 을지로임

ㅇ 서울의 현대를 찾아서(서울 콘크리트건물 이미지 사진, 김○○), 2019년 11월 수집

- 서울 관련 건축 도로 등 디지털 사진 소장(약 150~200건) 기록 사본 수집 진행함. 주요 수집기록은 아래와 같음
- 태화기독교사회관(1939 준공-1979 철거: 우리나라 최초 보육 활동 기관)가 있던 곳에 1983년 신축된 하나로빌딩, 20세기 후반 표준형 오피스텔의 외양을 가짐)
- 내부순환도로: 내부순환로와 청계고가도로의 잇던 청계램프의 흔적이 보임(1999년 개통-2003년 일부 폐쇄)
- 용산터미널상가(2014년 철거), 현재는 서울드래곤시티가 위치함
- 반포아파트(아파트 1세대)



용산터미널상가


태화기독교사회관


내부순환도로


반포아파트

그림 42 서울의 콘크리트 건축물 이미지 기록 수집

❒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주요 수집내용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기념비는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권력에 의해 확장되기도함. 이러한 관점에서 소녀상과 이순신 동상을 바라보고자 하였음. 이순신동상은 당시 정권이 ‘구국’의 이미지로 오버랩 시키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소녀상은 공권력이 해결해주지 못한 문제를 민간이 해결하기 위해 조성됨. 과거 국가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서울시라고 하는 지방정부가 사회적 기억으로 남기려는 활동의 일환으로 수집을 진행함

ㅇ 소녀상작가(김○○, 김○○), 2019년 11월 수집




그림 43 소녀상 제작과정 기록 수집

- 종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제작과정 기록 수집 진행
- 소녀상 제작 과정의 구상(스케치 기록) - 기획문서-사진 등 다양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소녀상 제작 1차 자료 전부 사본 수집함
- 강서구 소녀상 설치 - 오픈 행사의 영상생산을 진행하여, 관련 단체와 공유함
- 향후 장기적으로 서울기록원과 협력하여 수집공유 가능

ㅇ 강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권○○) 2019년 11월 9일~11일 수집

- 최초로 시민단체 주도로 소녀상을 건립한 사례로 관련 기록 수집과 생산을 진행함
- 강서구 소녀상 설치 - 오픈 행사의 영상생산을 진행하여, 강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와 공유함. 단체가 현재까지 활동한 활동기록 일부를 사본기증 받음
- 공공기관에서 민간의 기록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향후 서울기록원과의 협력 의지가 강함



그림 44 2019년 11월 강서구 소녀상 설치 영상

2.3. 수집·정리 결과 보기

❒ 수집·정리 결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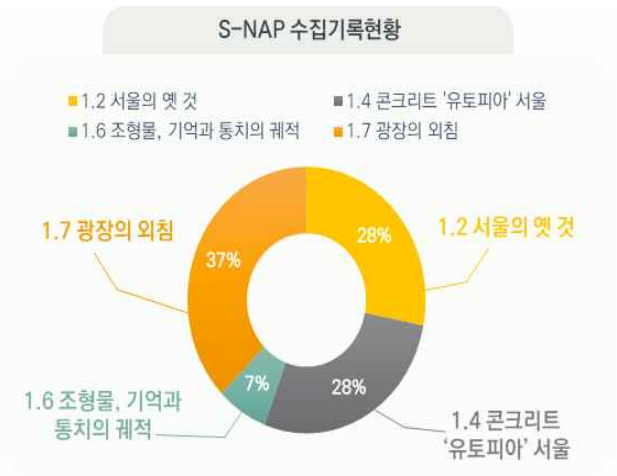


그림 45 S-NAP 주제별 수집 통계

ㅇ '서울의 사회현상과 삶의 현장'이라는 관점으로 서사를 기반으로 S-NAP을 설계하고 서울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수집·정리를 진행함

ㅇ 2019년 수집은 '상징'이라는 영역에서 4개의 세부 주제를 선택하고 수집을 진행하였음. 그 결과 총 4천 건 정도의 기록이 수집되었음

ㅇ 수집 결과는 주제별, 주체별, 유형별로 그림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ㅇ 주제는 광장의 외침 > 서울의 옛 것 > 콘크리트 유토피아 >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순으로 수집되었음. 이 같은 결과는 광장과 옛 것에서 수집 초기 3개월간의 시간을 투여하여 집중 수집한 결과의 반영이라고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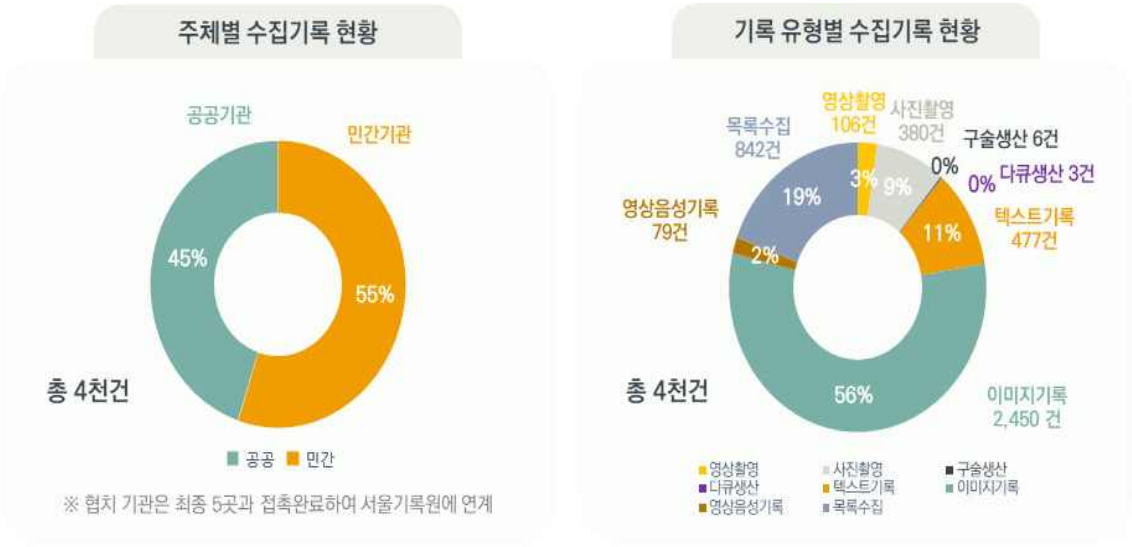


그림 46 주체 및 유형별 수집 통계

ㅇ 주체별로는 민간기관 55%, 공공기관 45%로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일부 협치기관은 약 10곳에 접촉 5개 기관과 기록 수집을 진행하고 네트워크를 위하여 서울기록원으로 연계하였음

ㅇ 유형별로는 이미지 기록(사진 이미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목록수집, 텍스트기록 순으로 집계됨. 향후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수집될 수 있도록 수집 진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 수집매뉴얼 개발

ㅇ 서사기반 수집매뉴얼은 서울기록원이 토탈 아카이브 체계를 지향하며, 서울을 재현하기 위해 설계된 서사기반의 기록을 수집하기 위한 매뉴얼임

ㅇ 이렇게 서울을 재현하기 위해 설계된 서사기반 S-NAP을 토대로 만들어진 서울기록원의 수집매뉴얼은 시민기록으로부터 공공기록에서의 빈틈을 메우고자 하는 서울기록원의 수집지향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설계됨

ㅇ 공공, 민간, 예술적 표현의 기록 등 하나의 서사 안에서 다원적 출처의 기록들을 수집하고, 서사로 연계하여 서울을 재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수집매뉴얼은 현장성을 기반한 고도의 지적 접근 방법으로 수집담당자와 현장 수



그림 47 서사기반 수집매뉴얼

집처와의 관계 형성부터 수집까지의 과정을 절차별로 다루었으며, 절차별 관련 업무 서식도 첨부함

- ㅇ 수집매뉴얼은 수집과정에서 발생한 역동적인 인간관계와 유의점, 수집 관련 법규 설명, 기관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ㅇ 서사기반 수집매뉴얼은 기존 수집매뉴얼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음. 우선 '관계 기반' 수집을 지향하고 있음. 서사기반 수집은 '관계 기반'수집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물 입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며, 수집과정에서의 관계 만들기에 집중함
- ㅇ 이렇게 수집과정에서 형성된 '관계'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능으로 연계시켜 기록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ㅇ 또한 수집과정에서 공적 이용위임을 전제로 한 공동이용(디지털 기록 사본수집)을 진행하여, 기존의 일방향적 수집 관행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음

■ 3장 첨부 자료 참조: 수집매뉴얼

❐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 ㅇ 상징의 영역 중에서 수집한 다량의 수집기록 중 핵심기록을 선별하여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를 제작함
  - '서울의 옛 것', '광장의 외침',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하위S-NAP 주제에 대한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제작
- ㅇ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는 '하위 S-NAP, 수집계획서, 현장수집결과'를 종합하여 상세 서사와 기록이 상호 연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물임. 메인 서사에 기록이 얽히는 방식으로 구성함
- ㅇ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는 확장과 축소를 통해 바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준콘텐츠'이기도 함



그림 48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예시

■ 3장 첨부 자료 참조: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 분류형 아카이브 보기

- ㅇ S-NAP을 기반으로 주제별 분류트리를 설계하여 수집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 ㅇ 전형적인 아카이브 결과물 보기 방식으로, 수집된 기록을 분류·정리함
- ㅇ 정리방식은 본 수집 기록이 사본 공유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에, 외부저장장치를 통해 정리, 목록화하여 전달함
- ㅇ 정리는 한 개의 주제가 끝나는 기점으로 정리팀에 인계하여 정리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명의 정리인력이 2개월 동안 수행함
  - 정리과정에서 수집팀 PL이 수집과정에서의 이슈, 맥락 등을 정리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정리를 실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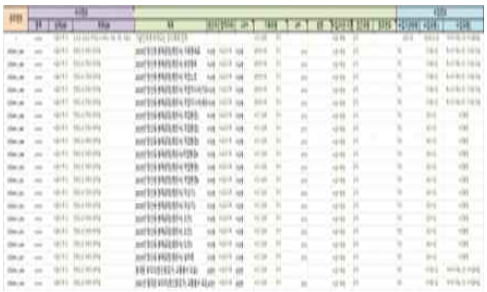


그림 49 수집목록 예시

- ㅇ 수집목록은 서울기록원에서 필수 기술항목을 받아 1차 적용하고, 서사기반 수집의 특성상 꼭 반영되어야 하는 기술항목(서사 기반 주제 분류, 수집유형, 수집 방법 등)을 2차 적용하여 수집 목록을 완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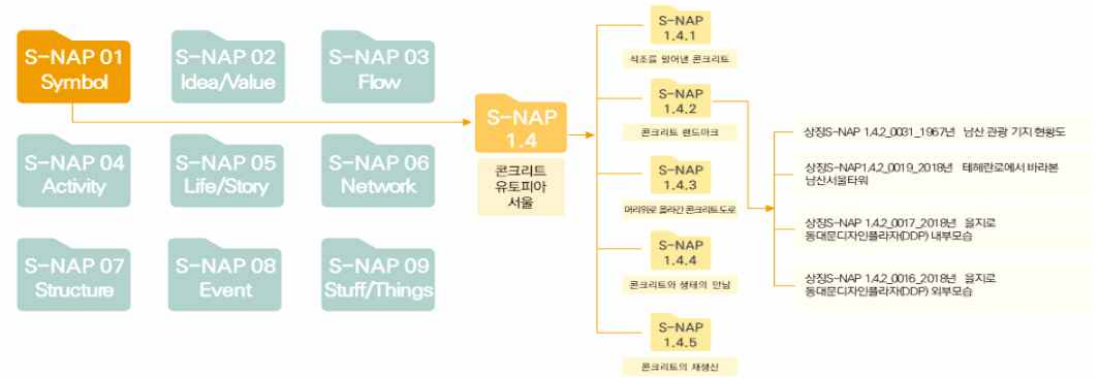


그림 50 분류형 아카이브 보기 예시

■ 첨부자료집 3 참조 : 분류형 아카이브 보기

❒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보기

- ㅇ 기록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표현하여 수집기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모형'을 제안함
- ㅇ 다큐멘터리는 수집기록과 기록으로 포착하지 못한 서사를 설명해주는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이번 수집사업을 통해 아래와 같은 3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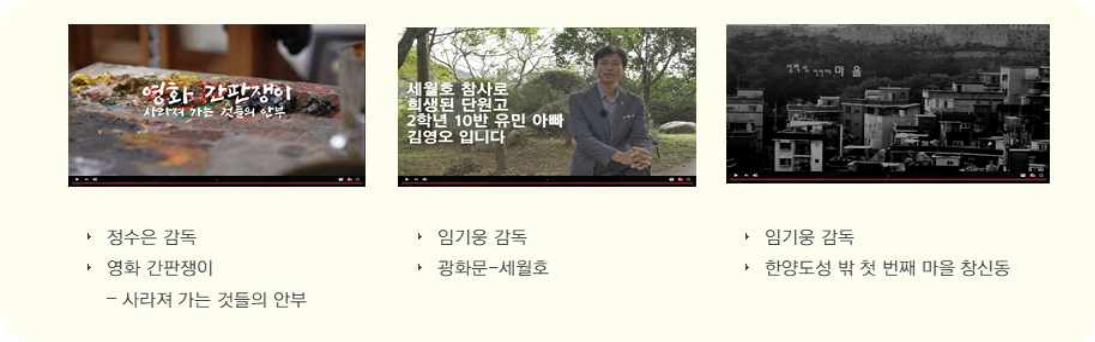


그림 51 수집을 기반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

- ㅇ 아카이브 관점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아카이브가 수집한 기록을 활용하여 그 안에 숨겨진 서사를 전달함
- 다큐멘터리가 갖는 현장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함
-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의 원기록도 기록화 대상으로 포착 가능함
- 이번 수집사업에서 연구팀은 다큐멘터리 관련 기록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모형을 제안함

- 다큐멘터리와 관련된 수집기록과 다큐 촬영 원소스 기록을 하단에 연계하여 서비스하는 방식임. 이것은 서사기반의 수집과정의 맥락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서비스 모형임

■ 첨부자료집 3 참조 :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보기



그림 52 '한양도성 밖 첫 번째 마을 창신동' 다큐멘터리 서비스 모형



그림 53 '광화문-세월호' 다큐멘터리 서비스 모형



그림 54 '영화 간판쟁이-사라져가는 것들의 안부' 다큐멘터리 서비스 모형

2.4. 수집·정리 시사점

❒ 서사작성과 수집진행의 상호관계

- ㅇ 서사기반 수집의 테스트베드로써 수집을 수행해본 결과, 서사 작성팀과 수집 진행팀의 피드백과 상호과정 속에서 서사와 수집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음
- ㅇ 이번 수집사업은 물리적 시간 관계로 인해 상호 피드백 과정이 다소 생략되었으나, 향후 일정 및 절차를 조정하여 수집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행정기록의 수집

- ㅇ 서사의 주관성을 간주관성의 관점으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서사중심 수집의 중요한 기록군임
- ㅇ 서울기록의 상징에 부합하는 행정기록 수집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주제의 성격과 대상 공공기관과의 협의조정절차 및 시기의 문제로 한정된 방법으로 행정기록을 수집함
- ㅇ 향후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통한 결합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수집과 네트워크와의 연계

- ㅇ 수집진행 결과 수집과정에서 유의미한 네트워크 대상기관을 발견하고, 이 중 몇 개 기관은 네트워크 대상기관으로 고려됨. 이는 서사중심 수집이 네트워크와의 연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음. 단, 짧은 네트워크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협치 기관은 자기성과를 공공 쪽으로 이전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이슈사항을 발견하였음.
- ㅇ 향후 장기간의 협의 과정을 전제로 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임

❒ 수집대상자, 다큐제작팀, 서울기록원과의 관계조성

- ㅇ 다큐팀은 서사를 기반으로 기획된 콘티를 현장상황과 구술 포함 수집상황(기록수집팀)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며 촬영 진행함
- ㅇ 역동적 현장상황에 따라 다큐기획 내용이 달라지므로, 수집팀과의 긴밀한 협업관계 구축 필요함
- ㅇ 또한 생산은 기존에 생산된 기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수집처의 동의를 얻어 생산하는 것임. 수집팀은 현장조사 시 수집처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

루어져야 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라포' 형성이 중요함

- ㅇ 초기 개발된 리드들은 수집팀에 의해 개발된 리드임. 서울기록원의 리드로 흡수하기 위해 기관이 중심이 되어 수집처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 '공유' 관점에서의 수집 수행

- ㅇ 이번 수집사업은 공동이용 및 공유를 전제로 한 수집 사업이기 때문에 디지털 수집에 있어 일방적으로 사본수집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함
- ㅇ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스캔작업을 하거나 대여를 통해 사본 수집 진행, 이도 힘들면 목록공유로 수집 진행함

❐ 수집과정에서의 시사점

- ㅇ 수집과정에서 대여를 진행할 시는 반환 일정을 정확히 공지해야 하며, 무리한 대여는 진행하지 않음
- ㅇ 돌산마을과 같이 마을, 개인 단위의 경우 대부분 비전자 형태로 기록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디지털화 기준(해상도)과 인력 등을 확보하고 수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ㅇ 네트워크 수집에서 협력대상 기관에게 서울기록원의 수집지향을 명확히 전달하고 장기적인 협력대상임을 인식시켜주어야 함. 특히 수집팀과 서울기록원 담당자가 함께 현장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함. 이것은 협력대상 기관에게 신뢰감과 장기적으로 협력대상임을 인식시키는 방법임
- ㅇ 수집이 완료되면 장기적 네트워크의 유지를 위하여 네트워크 운영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소통하는 체계마련이 필요함

3. 네트워크 · 아카이빙북

3.1. 네트워크 · 아카이빙 북 개요

❒ 네트워크 프로그램 진행 방향

- ㅇ 이번 사업에서는 서울 기록 생태계 작동 원칙에 따라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체를 그룹화, 서울 기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었음
- ㅇ 서울기록원의 기록생태계 조성 방향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모형에 따라 올해 테스트베드로서 2가지 프로그램(워크숍, 이벤트 수집)과 네트워크 대상기관 면담 조사를 실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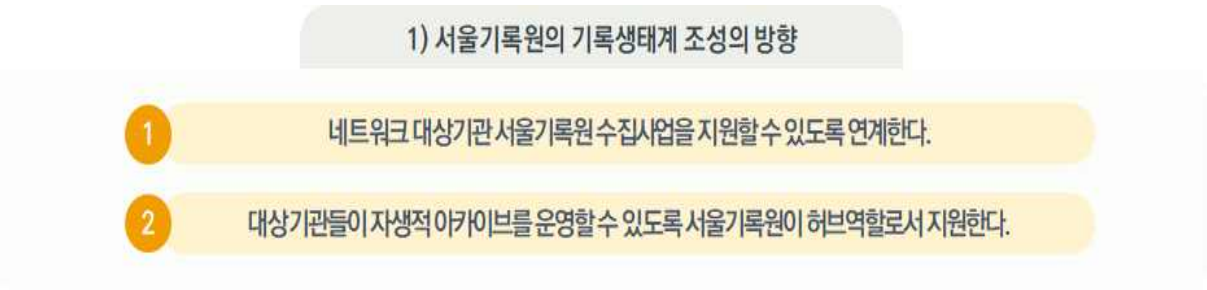


그림 55 서울기록원 네트워크 조성 방향

❒ 아카이빙 북 제작 방향

- ㅇ S-NAP기반 수집결과와 수집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기록 등의 내용이 보여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 방향을 설정함
- ㅇ 따라서 아카이빙 북의 컨셉을 “Seoul, People, Story, Link” “ 서울기록생태계, 사람, 이야기, 기록의 연결”로 설정함

3.2. 네트워크 대상기관 조사

❒ 네트워크 대상기관 기초조사 진행

- ㅇ 공공, 협치, 민간영역에서 네트워크 조사 기관을 선별하여 목록화함

연도	영역	리드명	기록활동 및 보유 기록	인터뷰진행여부
2019	공공	서울특별시청 정보공개정책과	서울시 기록물 및 행정정보데이터세트 현장방문조사 용역	미진행
2019	공공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노숙인정책 20년 기록물 조사용역	미진행
2019	공공	서울특별시청 정보공개정책과	서울시 청도문서고-서울기록원 기록물 이관용역	미진행
2019	공공	서울특별시청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아카이브시스템 1차 구축용역	미진행
2019	공공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여의도동 일대 공간적 특성 및 변화과정 기록용역	미진행
2019	공공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연지 효제 일대 공간적 특성 및 변화과정 기록 용역	미진행
2019	공공	서울특별시청 한옥건축자산과	우수건축자산 조사 및 공간실측	미진행
2019	공공	서울특별시청 주거환경개선과	정동교회 보수공사 설계 및 기록화사업 용역	미진행
2019	공공	서울교통공사 총무처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미진행
2019	공공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촛불시민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	미진행
2019	공공	서울특별시청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아트아카이브 2차수집 사업	미진행
2019	공공	서울특별시청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건립기록 영상콘텐츠 제작	미진행
2019	공공	서울대학교 부속시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년 규장각 소장 기록유산 DB 구축 - 디지털 이미지 촬영	미진행
2019	공공	서울대학교 부속시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년 규장각 소장 기록유산 DB 구축사업	미진행
2019	공공	서울대학교 박물관	곤여만국전도팔폭병풍 상태조사 및 기록화 학술연구용역	미진행
2019	공공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획운영	청소년활동 참여기록부 개발 연구	미진행
2019	공공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의무기록차트 광파일 작업 구축	미진행
2019	협치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다누리맘	다문화가정을 위한 건강 먹거리 가이드	미진행
2019	협치	(사)환경정의	마을부엌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기	미진행
2019	협치	서울YMCA,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시민의 눈으로 성평등 정책 만들기	미진행
2019	협치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재)녹색미래	자원순환 특성화 마을 만들기	미진행
2019	협치	독산동우시장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독산동 마을기록단 강의 시작(2019.7)	미진행
2019	협치	천연충현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 <사기충천> 발간	미진행
2019	협치	난곡난향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 <난곡난향 소식지> 발간	미진행
2019	협치	4.19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 <우이동 소식지> 발간(2018.12 첫 호 발간 후 후속 자료 없음)	미진행
2019	협치	상도4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 <있다, 잇다> 발간(~2018.12)	미진행
2019	협치	성곽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 <성곽마을, 그리고 사람> 발간	미진행
2019	협치	묵2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 <꽃 피우다> 발간	미진행

그림 56 네트워크 대상 기관 조사 예시

ㅇ 공공영역

- 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본청, 본부·사업소, 공사·출연기관 및 서울시 내 기타 공공기관
- 대상 시기 : 2018년 7월 ~ 2019년 11월
- 조사 방법 : 나라 장터 공고 중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기록화 작업 선별, 수집 진행 과정에서 식별된 수집대상 기관을 네트워크 조사 대상기관으로 전환
- 조사 결과 : 서울특별시 본청, 본부·사업소, 공사·출연기관에서 진행한 기록화 작업 총 35건 발굴

ㅇ 협치영역

- 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내 중간지원조직, 공공사업 수행 민간기관
- 대상 시기 : 2018년 7월 ~ 2019년 11월
- 조사 방법 : 민간위탁사무·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수행 기관 중 기록화 작업 선별, 수집 진행 과정에서 식별된 수집대상 기관을 네트워크 조사 대상기관으로 전환

- 조사 결과 : 서울특별시 내 중간지원조직, 공공사업 수행 민간기관에서 수행한 기록화 작업 총 27건 발굴

ㅇ 민간영역

- 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내 민간영역 단체
- 대상 시기 : 2018년 7월 ~ 2019년 11월
- 조사 방법 : 서울시 내 기록 활동 진행한 단체 온라인 검색을 통하여 선별, 수집 진행 과정에서 식별된 수집대상 기관을 네트워크 조사 대상기관으로 전환
- 조사 결과 : 서울특별시 내 민간영역 단체가 수행한 기록화 작업 총 37건 발굴

■ 첨부자료집 2 참조 : 네트워크 대상기관 조사 리스트

❒ 네트워크 대상 기관 면담조사 진행

ㅇ 네트워크 대상기관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파악된 네트워크 가능성이 높은 기관 및 네트워크 구축 의사가 강한 수집 과정에서 식별된 수집처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행함

ㅇ 면담조사는 2019년 9월 1일~ 11월 25일까지 총 41곳을 대상으로 접촉함

ㅇ 면담조사 결과는 네트워크 리드/케이스 형태로 집적하였음

ㅇ 면담조사는 공공·협치·민간 기관으로 유형화함

■ 첨부자료집 2 참조 : 네트워크기관 면담조사 리드/케이스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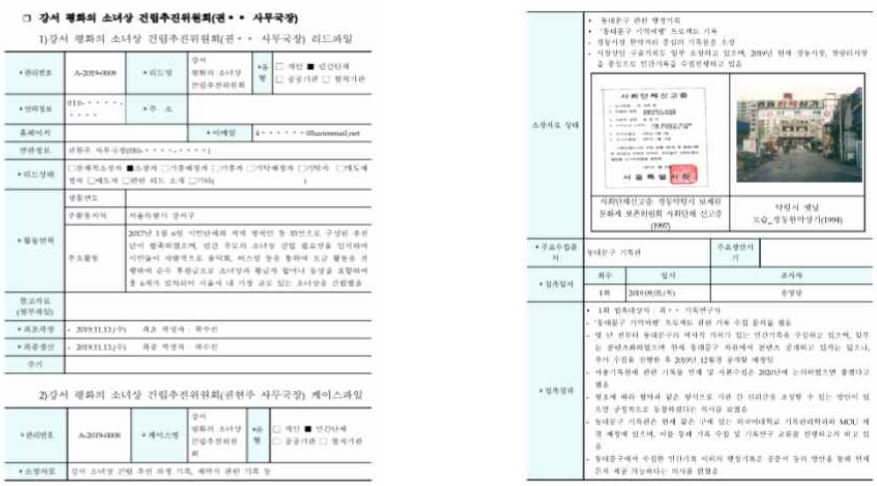


그림 57 강서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동대문구청 면담조사 예시

3.3. 네트워크 프로그램 모델링

❒ 목적

- ㅇ 서울형 S-NAP과의 연계된 서울기록 생태계 조성과 순환을 위해 네트워크 대상별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유형화하고 향후 서울기록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모델로 적용 확장할 수 있도록 함
- ㅇ 서울 기록 생태계 조성과 성장 메커니즘 측면에서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함

❒ 프로그램 논리모형 검토

- ㅇ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프로그램 구성요소 간의 논리적 관계이며,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여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모형임(Bickman, 1987)
- ㅇ 프로그램 모형은 프로그램 구성요소 간의 논리적 관계를 보여주며,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여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보여주는 모형임(논리모형은 Bennett(1976), wholey(1979)가 처음 용어를 사용한 이후로 프로그램의 기획, 관리, 평가의 도구로써 사용되어 왔음)
- ㅇ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자원 및 활동과 의도된 결과 사이의 관계 지도이며,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이론이나 가정들을 찾고 보여주는 역할을 함. 이러한 논리모형은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기획, 설계, 관리, 소통의 중요한 수단이자 핵심이며, 논리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은 사고의 방법 또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음. (이석민, 2011)
- ㅇ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기록원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기획, 설계하는 사고의 방법 또는 과정으로서 프로그램 논리모형이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론이라고 판단함
- ㅇ 논리모형의 구성요소는 연구자들에 따라 그 설명방식이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논리모형의 이론을 종합하고 모형 적용 사례에 대한 메타스터디를 한 이석민[1]의 설명을 채택함

1) 이석민(2011), 「프로그램 논리모형(Logic Models)의 적용과 사용에 관한 연구 : “간접흡연제로! 서울 평가지표 개발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1), 한국거버넌스학회, 211-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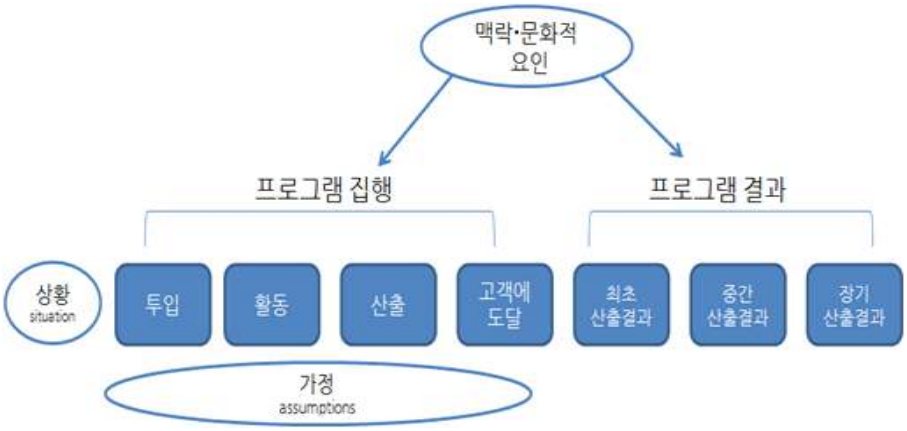


그림 58 프로그램 논리모형(이석민, 2011)

- 상황(situations): 이 단계는 문제와 이슈가 무엇인지를 기술하는 단계로서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룸.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문제를 정확히 분석할수록 논리모형의 개발은 더 쉬워짐. 일단 이런 상황과 문제가 충분히 분석되면 우선순위가 설정될 수 있음. 이때 우선순위 설정은 니즈 사정(needs assessment)에 의해 이뤄지지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미션, 가치, 자원, 전문성, 경험, 역사, 상황지식, 이해관계자 개입 등이 있음
- 투입(inputs): 프로그램 자원으로서 스텝, 자원봉사자, 연구기반, 장비, 기술 등이 있으며 프로그램 실행은 투입 또는 자원에 달려 있음
- 활동(activities)은 프로그램의 활동 요소들로서 기대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변화의 과정이며, 주로 교육, 훈련, 워크숍 개최, 서비스 전달, 상담제공, 미디어 홍보 등이 있음
- 산출(outputs): 프로그램 전달의 가시적 성과로서 프로그램 활동과 투입에 의해 결정됨. 주로 프로그램 참가 및 이수자 수, 개발된 생산물 또는 교재, 그리고 참여자 만족도 등이 있음
- 결과(outcomes): 프로그램 실행에 의해 예상되는 직접적인 결과나 이익들로서 단기결과, 중기결과, 장기결과로 나뉨. 단기결과는 주로 학습에 의해 인식(awareness),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태도(attitudes), 열망(aspirations), 동기(motivations) 등의 변화를 의미한다. 중기결과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며, 행위와 실행, 결정, 정책, 사회적 행동 등의 변화가 있음. 초기결과에서 지식과 기술 등을 학습하였다면 중기결과에서는 습득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함을 의미함. 그리고 장기결과는 실제적 이익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시민사회, 환경적, 제도적 변화를 의미함. 한편 종종 표현되는 영향(impact)은 장기결과를 의미하기도 하며 때로는 장기결과 이후의 궁극적인 변화를 의미하기도 함

❒ 서울기록원의 단계별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전략

- ㅇ 프로그램 논리모형 검토를 기반으로 서울기록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모델링 전략을 아래와 같음
- ㅇ 서울기록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전략의 단계설정은 McLaughlin & Jordan(1999)의 논리모형 개발 논리를 참고하여, 적용 발전시켜 5단계로 구성함

표 11 서울기록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전략

구분	단계명	주요 내용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1단계	프로그램 경계의 정의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조직의 구조와 활동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의 관할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경계(boundary)를 정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경계 정의
	이해관계자 작업그룹의 설치와 적절한 정보의 수집	작업그룹(work group)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문서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 인터뷰, 워크샵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	서울기록원 내부 직원을 대상로 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향 조사 (관리자/스텝/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대상기관 기초조사 (활동 +질적 인터뷰)
2단계	프로그램이 해결해야 할 문제와 그의 상황에 대한 기술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기술하되 문제가 되는 상황, 관련된 사람, 문제의 원인을 포함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 기술(현안주제 선정 및 내러티브 구성) 프로그램 집행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요인 도출 S-NAP과 연계한 기록 활동조사에서 도출된 이슈를 종합하여 서울기록 생태계 네트워크 활동 매트리스 설계
3단계	모형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정의	수집된 정보를 범주로 구분하여 논리모형의 구성요소들로서 식별하되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포함 구성요소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논리적 흐름을 발전시키고 검토	네트워크 대상의 기록 활동 상황을 인식하고 대상별 적합한 네트워크프로그램 유형화함 유형화된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목적 및 운영방식을 결정
4단계	논리모형의 작성	프로그램의 논리적 흐름과 연계를 포함하는 논리모형을 작성 하나의 프로그램이 하나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논리모형 설계 및 절차 정의

구분	단계명	주요 내용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이상의 논리모형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하나의 논리모형은 가능한 단순하게 표현되어야 함	
5단계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개발된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검증	프로그램은 사회적 니드(social needs)와의 관계, 프로그램 논리의 실행가능성(plausibility), 프로그램 요소들 간의 논리적 인과관계 검증 등의 관점에서 검증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 이벤트 수집 실행을 통한 검증 진행

- ㅇ 1단계: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경계를 정의한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작업그룹(work group)과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함
  - 네트워크 대상기관 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 수집
- ㅇ 2단계: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이 해결해야 할 문제와 그의 상황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프로그램화할 필요성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음
  - S-NAP과 연계한 기록 활동조사에서 도출된 이슈를 종합하여 서울기록 생태계 네트워크 활동 매트리스 설계
- ㅇ 3단계: 2 단계가 완료되면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구성요소를 정의해야 한함. 이 작업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무엇이, 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관한 논리적인 흐름이 정리하는 것임
  - 네트워크 프로그램 유형화 및 유형화된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목적 및 운영방식을 결정
- ㅇ 4단계: 3단계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논리적 흐름과 연계를 포함하는 논리모형을 작성하게 됨
  -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논리모형 설계 및 절차 정의
- ㅇ 5단계: 개발된 프로그램 모형은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다양한 관점에서 검증할 수 있음
  -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 이벤트 수집 실행을 통한 검증 진행

❒ 1단계: 네트워크 프로그램 경계 정의 및 네트워크 대상기관 기초조사

- ㅇ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방향성 정의
  -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서울 기록 생태계 작동 원칙에 따라 기관의 자립도, 사업

화 여부, 담당자 및 인력배치의 여부, 예산 운용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임

ㅇ 서울기록원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방향은 아래와 같음

1. 각 주체는 자신들의 기록을 잘 생산하고 잘 관리한다.
2. 각 주체가 생산한 기록은 시스템적으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
3. 각 주체는 서울기록화 측면에서 서울기록원에 사본 수집을 협조한다.
4. 각 주체는 자발적으로 소통하고 주체들끼리의 협력을 통해 유지되고 운영된다.

ㅇ 네트워크 대상기관 기초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

- 네트워크 대상기관 기초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유형별 네트워크 대상자를 식별하고, 네트워크 대상자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과 기록관리 상황을 파악해야 함
- 네트워크 대상기관 기록관리 현황 인식: 네트워크 대상기관 기초조사 및 면담조사 내용의 검토를 진행함. 이들 대상 중에서 기록에 중점을 두고 기록관리 활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기록만 있는지, 기록 활동만 있고 기록관리 조직은 없는지, 자생적으로 기록관리를 하고 있는지, 인식은 어떤지, 네트워크 의지 등)
- 상세 진행 내용은 '3.2 네트워크 대상기관 조사' 내용을 참조

❒ 2단계: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내러티브 구성

ㅇ S-NAP과 네트워크 대상기관을 연계하여 프로그램 내러티브를 구성함

ㅇ 1단계의 결과를 기반으로 S-NAP의 세부주제와 매핑을 통해 향후 수집을 진행할 곳,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곳, 기타 지원이 필요한 곳 등으로 대상별 S-NAP 주제와 연계를 진행함

ㅇ 네트워크 프로그램 내러티브 구성은 아래와 같은 '서울기록 생태계 네트워크 활동 매트리스로' 구조화될 수 있음

ㅇ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내러티브는 S-NAP을 세부 주제 영역과 그에 해당하는 주체로 구성될 수 있음



그림 59 서울기록 생태계 네트워크 활동 매트릭스

❒ 3단계: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유형화

- ㅇ 네트워크 대상기관별 상황과 의지(네트워크 활동조사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유형화함



그림 60 네트워크 프로그램 유형화

ㅇ 간담회
- 간담회를 통해 서울을 기록화하기 위해 개발된 S-NAP을 이해하고, 스스로 이와 관련된 사업 및 활동을 진행하는 기록물 생산 주체로 인식하게 함
- 주요 S-NAP 관련 활동 시 이관 또는 목록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마련함
- 간담회는 기록활동 발굴 신규 조사 대상인 공공영역 조직 및 담당자를 네트워크 조직으로 끌어들이는 기회임

ㅇ 워크숍 [이번 수집사업에서 수행]
- 협치 그룹 특화 사업으로 연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ㅇ 워크숍은 서울 기록화와 연계하여 서울 기록 생태계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운영
ㅇ 서울 기록화와 마을 활동 및 마을 기록화의 연계 지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위한 역할과 과제를 함께 탐색함

ㅇ 컨설팅 [이번 수집사업에서 일부 수행]
- S-NAP과 연계하여 특별수집(이벤트 수집)으로 진행하고, 연속사업으로 실행
- 서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조직, 단체, 모임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아카이빙할 수 있도록 기록화 방법론을 습득하고 실습, 공유함
- 민간영역 활동가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서울 기록화의 주체로 기록 생태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S-NAP과 관련해 다양한 민간의 활동과 기록을 생산, 포착, 수집하는 기회임
- 지속적으로 기록 생산 활동을 하면서 서울기록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룹(Seoul Archives Friends)을 구성함
- 서울기록원의 존재 가치를 알릴 기회임

ㅇ 교육
- 연속사업을 진행
- S-NAP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민간조직을 발굴하고 네트워크 대상으로 유입시킴
- 활동 중 기록화 및 수집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론 교육을 통해 기록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어냄
- 아카이빙, 기록화, 서울기록화 등에 관심이 있는 조직, 개인을 대상으로 한 아카이브 강의를 통해 시민 교양 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 개선, 저변 확대

-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장기적으로는 연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사업화 필요

❒ 4단계: 네트워크 프로그램 논리모형 설계 및 절차 정의

ㅇ 프로그램 논리모형 검토 결과 및 1~3단계의 내용을 기반으로 서울기록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현실적 운영이 가능한 논리모형을 설계함

- 네트워크 초기 단계(약 3년)는 서울기록원과 네트워크 운영팀(외주)이 협력하여 초기 네트워크 생태계 구성을 위해 프로그램 개입(투입-활동-산출-단기결과)을 하는 것으로 함
- 향후 안정기에 들어서면 서울기록원이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 단계 및 운영단계(투입-활동)에서 자원제공 등 최소한의 지원을 수행하고, 참여 주체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논리모형을 설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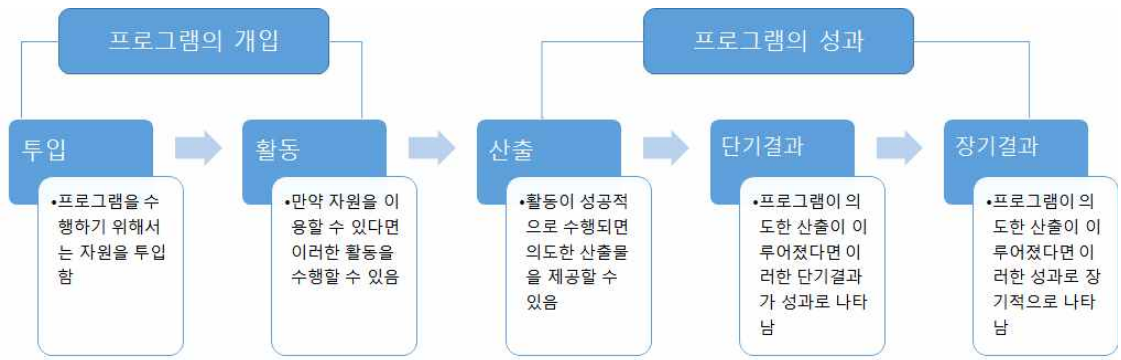


그림 61 서울기록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논리모형

ㅇ 네트워크 프로그램 절차

- 서울기록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따라 서울기록원의 S-NAP 기반 수집 특성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마련 절차를 설계함
-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하여 신규 기록활동 조사 목록(S-NAP 매핑 후 확보된 목록)을 토대로 활동 주체의 조직 특성에 따라 '공공 - 준공공 - 협치 - 민간'으로 1차 분류함
- S-NAP 영역을 기준으로 기록과 활동, 조직의 여부, 수집 가능성(디지털 사본) 등에 따라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매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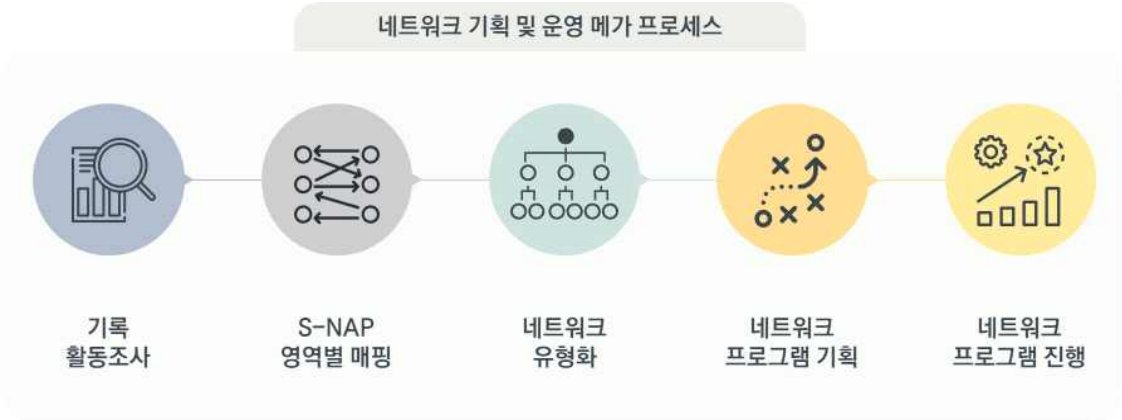


그림 62 네트워크 기획 및 운영 메가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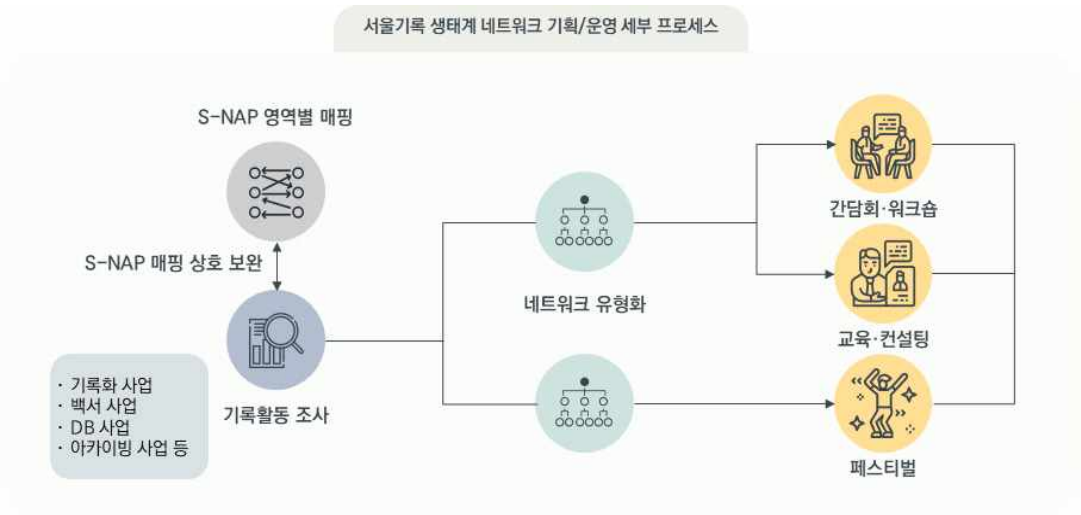


그림 63 네트워크 기획 및 운영 세부 프로세스

❒ 5단계: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검증

- ㅇ 상기 설정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전략의 실행 및 검증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함
- ㅇ 이번 사업에서는 '워크숍·컨설팅' 프로그램을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테스트베드로서 진행하였음
  - 마을 기록공동체 대상 워크숍 1회
  - '서울시 노인들의 일상 기록 수집' 이벤트 수집 일부 수행을 통해 향후 기록컨설팅 진행의 교두보를 확보함
- ㅇ 상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음

3.4.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워크숍

❒ '마을 아카이빙' 워크숍 목적

- ㅇ 마을에서 자생적·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마을기록활동가를 초청하여 서울기록화 및 기록생태계의 의미와 마을 아카이빙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
- ㅇ 일시 : 2019년 11월 23일(토) 10:00 ~ 17:00
- ㅇ 장소 : 서울기록원 3층 미팅룸 2
- ㅇ 참석인원 : 10명(정말기록당, 금천구 마을공동체 기록관 운영지원단, 해방촌 마을기록단)

❒ 진행 순서

시간		내용	진행
10:00~10:20	20 ′	- 등록 접수 : 등록 데스크 운영 및 참석 명부 작성	곽수진
10:20~10:30	10 ′	- 개회사	조영삼(서울기록원장)
10:30~10:50	20 ′	- 서울기록화 사업 설명 - 워크숍의 의미와 구성 소개	김익한(명지대학교 교수)
10:50~11:00	10 ′	- 휴식	
10:50~11:50	50 ′	- 마을의 이야기와 기록 수집(강의)	손동유((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장)
11:50~13:00	70 ′	- 점심시간 : 도시락 제공	곽수진
13:00~15:00	120 ′	- 분임토론 - 마을기록화 전략 수립 - 마을기록화 영역 설계	김익한(명지대학교 교수)
15:00~15:20	20 ′	- 휴식	
15:20~16:50	90 ′	- 분임토론 결과공유 및 자유토론	김익한(명지대학교 교수) 곽수진
1650~17:00	10 ′	- 마무리 - 워크숍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서울기록원 곽수진

❒ 진행 내용

- ㅇ 서울기록원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서울의 기록생태계 조성에서 마을 활동가들의 활동이 갖는 중요성 및 지속적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의지 전달
- ㅇ 서울기록화 사업 설명: 서울기록지도와 S-NAP을 중심으로 서울을 기록화하는 방식에 대하여 공유 및 논의 진행
- ㅇ 워크숍의 의미 및 구성
- ㅇ 강의(마을의 이야기와 기록 수집)를 통해 마을의 변화를 겪으면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에서 이야기를 수집할 수 있는 이야기의 주제와 방법에 대하여 전달

ㅇ 분임토론

- 기록화의 목적과 필요성, 의미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아카이브를 통한 마을 단위의 소통과 공감의 장의 필요성 확인
- 마을의 서사를 고려한 실제 작성본을 공유하여 마을에 적용하도록 안내

ㅇ 분임토론 결과 공유 및 자유토론

- 각 팀에서 논의한, 마을에서 기록할 주제와 서사 및 관련 기록에 대하여 발표 진행
- 마을에서 현재 자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록 활동내용과 서울시의 수집 활동내용을 상호 교류하고,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짐
- 마을 서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의 서사와 특징을 반영한 수집전략을 설계함



그림 64 마을 아카이빙 워크숍 모습



그림 65 마을 아카이빙 워크숍: 마을 서사 기반 수집 전략 설계서 예시

❒ ‘마을 아카이빙 워크숍’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ㅇ 마을활동가 워크숍 만족도 조사 결과 서사 중심의 아카이빙에 대한 마을활동가들의 만족도는 높았으며, 정기적인 프로그램 개최 요청이 많았음

ㅇ 주요 의견

- 서사형 아카이브 제작 방법 (동영상 제작, 사진 촬영 기법 등)에 대한 강좌요청
- 마을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결성 지원
- 연대와 협력을 위한 공간과 자금 조성
- 시민이 자생적으로 서사 중심 아카이빙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연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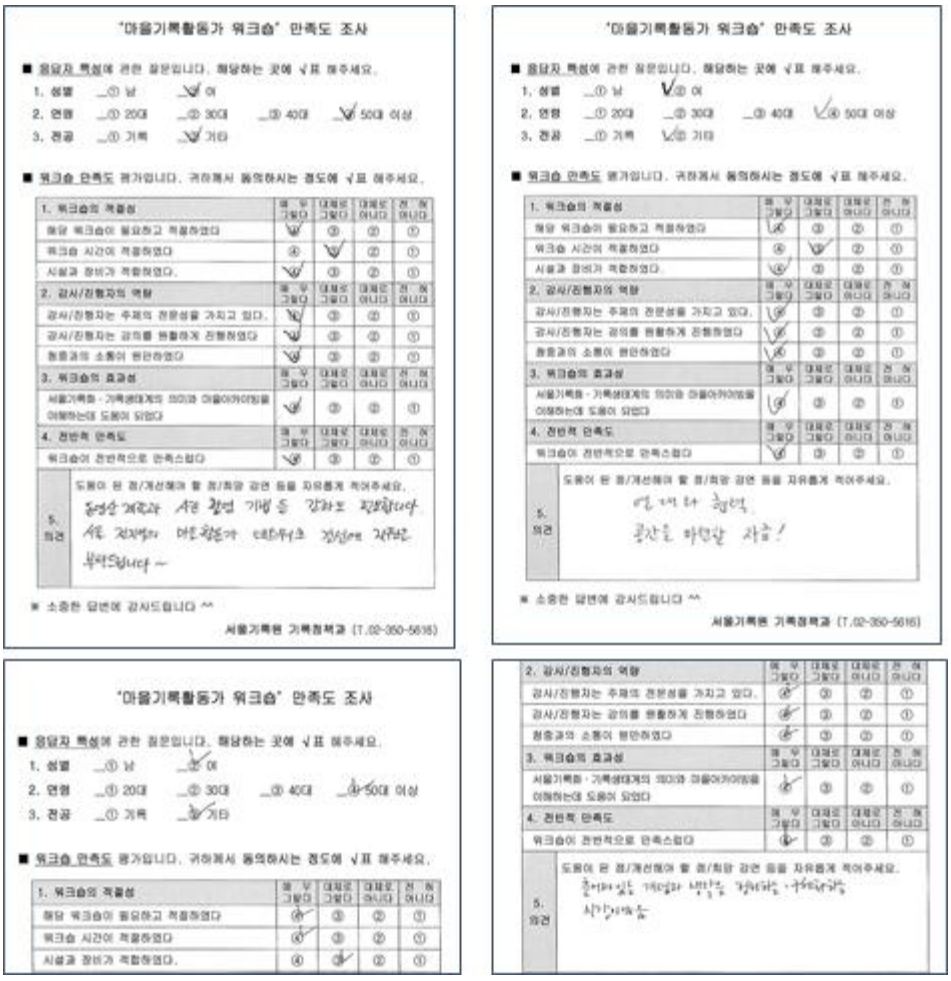


그림 66 ‘마을 아카이빙 워크숍’ 만족도 조사 결과

3.5.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이벤트 수집

❒ '서울시 노인들의 일상 기록 수집' 개요

- ㅇ 수집명 : "어르신 글쓰기 기록을 모아 소중하게 보존합니다"
- ㅇ 수집 기록 : 서울시 노인들이 생산한 자신들의 이야기
- ㅇ 관련 활동 : 복지관 글쓰기 수업 참여
- ㅇ 수집 기록 유형 : 일기, 수필, 에세이, 자서전, 자작시 등 육필 원고의 디지털 사본
- ㅇ 수집 기간 : 2019년 11월 27일 ~ 2019년 12월 11일
- ㅇ 수집 방식 : 디지털 사본의 온라인 수집
- ㅇ 수집 시 저작권 : 공동저작권 인정

❒ 이벤트 수집 실행을 위한 기초 조사

- ㅇ 서울시 노인들의 일상 기록 수집을 위해 노인복지관 글쓰기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개별 복지관 글쓰기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아래와 같이 조사함

표 12 개별 복지관 글쓰기 프로그램 진행상황

센터명	프로그램명
강남구립 강남시니어플라자	수필 창작·자서전 쓰기 시 창작 행복한 글쓰기(자서전, 수필창작)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시창작
서울특별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동아리 '시와수필의만남'
서울특별시립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시니어기자단
구립 신내노인종합복지관	문예창작
서울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문예창작
서울특별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시, 수필창작반

센터명	프로그램명
강남구립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자전수필
서울특별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	파일럿 글쓰기-시, 수필(자율)
서초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시창작교실 글사랑동아리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수필교실
서울특별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문예창작 시·수필창작동아리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교양과 문예창작
우리마포복지관	생활 속 글쓰기
송파구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문예창작
서울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문예창작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문예창작
은평구립 신사노인복지관	어르신 글쓰기 내삶쓰기
약수노인종합복지관	기자단(동아리)
서울특별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문예반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시 창작반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나의 빛나는 인생 '자서전쓰기'

❒ 홍보 진행

- ㅇ 수집을 위해 서울시 및 서울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공문 시행을 통한 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원 대상 홍보, 각 프로그램 운영 중인 시립노인복지관 홍보 진행



그림 67 이벤트 수집 홍보 포스터

❒ 수집 일정 및 경과

- ㅇ 이벤트 수집은 서울기록원과 협업하는 구조로 진행됨
- ㅇ 짧은 기간 공고를 통해 수집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업 기간 동안은 수집팀에서 이벤트를 수행하고, 그 이후 서울기록원이 수집이벤트를 이어가기로 함
- ㅇ 서울기록원과 사업팀은 이벤트 수집 기획 및 홍보 전략을 설계하고, 수집내용은 서울기록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표 13 이벤트 수집 진행 내용 및 일정

진행내용	일정
기획안 확정	11/21
서울시 및 서울기록원 홈페이지 공고 게재 진행	11/25~27
서울시 및 서울기록원 공고 시행	11/27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등 대상기관 협의 , 공문 발송 및 실행	11/25~27
수집	11/27~12/06

3.6. 아카이빙 북 제작

❒ 아카이빙 북의 목적

- ㅇ 아카이빙 북은 서울기록원 수집사업의 지향, 과정, 수집결과를 시민 및 관련 담당자 등이 이해하기 쉽고 서울기록원의 수집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제작함
- ㅇ 아카이빙 북은 서울기록원이 수행하는 수집내용 중 핵심기록과 과정상의 의미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매년 발행하는 것을 지향함
- ㅇ 아카이빙 북 제작은 서울기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촉매제 역할 및 대내외적으로 서울기록원을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임

❒ 아카이빙 북: '서울을 이야기로 기록하다'

❒ 컨셉

"Seoul, People, Story, Link" " 서울기록생태계, 사람 – 이야기 – 기록의 연결"

❒ 판형

- ㅇ 신국판 확장형(168×225). 컬러. 250페이지 내외
- ㅇ 표지 : 문켄폴라 300g + 오시1줄+ 무광라미네이팅 코팅 + 에폭시 후가공
- ㅇ 내지 : 랑데뷰울트라화이트 130g
- ㅇ 별지(표접지) : M매트 백색 80g + 오시4줄 + 5단접지

❒ 주요 내용

- ㅇ 서울은 사람과 이야기와 기록이 있는 도시
- ㅇ S-NAP으로 서울을 재현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기록생태계의 주체들을 발굴, 연결이라는 주제로 수집과정, 결과, 그리고 과정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함
- ㅇ 2019년 아카이빙 북은 수집 기록물 중 핵심기록을 서사를 기반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함. 즉 기록 이면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아카이빙 북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였음



그림 68 아카이빙 북 이미지

❐ 구성

- ㅇ 서울의 재현과 기록생태계, 서울의 아카이빙 과정 이야기 등으로 구성
- ㅇ 이번 사업의 특징 및 서울기록생태계 조성의 의미와 S-NAP 기반 수집 과정과 결과를 내용을 구성함

4. 서울기록원 중장기 로드맵

4.1. 서울기록원 중장기 로드맵 개요

❐ **서울기록원의 중장기 수집전략 수립**

- ㅇ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 수집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업무의 단계적 지속적 수집 실행
- ㅇ 서울의 사회적 기억을 아카이빙하기 위해 S-NAP를 서울기록원의 차별화된 콘텐츠 구축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여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수집 실행을 지속함
- ㅇ 서울 기록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기록활동 네트워크의 참여와 지원, 기록생태계 기반 마련의 관점에서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

❐ **토탈 아카이브로의 도약을 위한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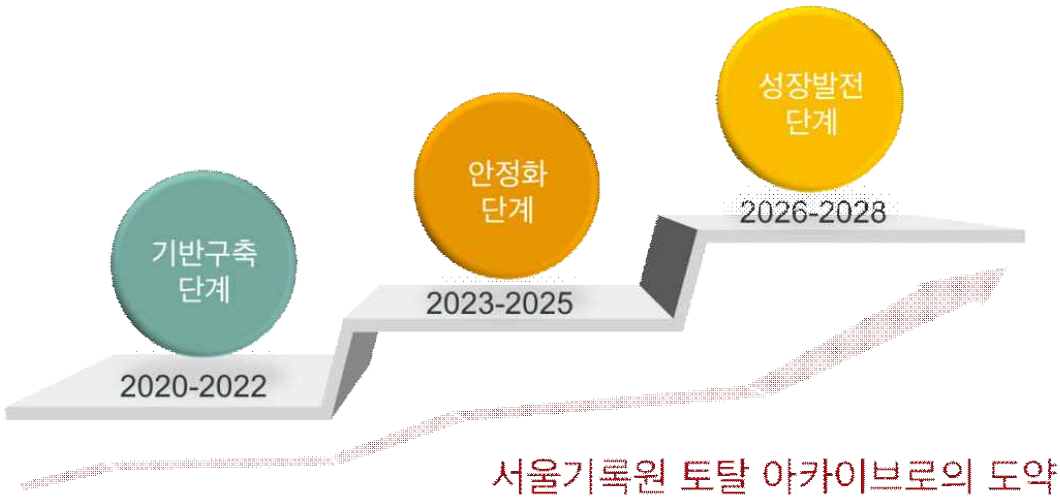


그림 69 서울기록원 중장기 로드맵 이행전략

- ㅇ 기반구축단계 (2020년-2022년)
  - S-NAP 기반의 수집실행 정책을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수집 실행
  - 기록 자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협력 프로그램 실행
- ㅇ 안정화단계 (2023년-2025년)
  - S-NAP 기반의 수집 실행을 안정화하고 수집 실행의 본격화
  - 기록 활동 네트워크 대상 기관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 실시

ㅇ 성장발전단계 (2026년-2028년)

- S-NAP 기반의 서울기록원의 기록 컬렉션 구축을 위한 수집의 확대 실행
- 기록 활동 네트워크 대상 기관과 S-NAP의 연계를 통한 수집 실행 방안 고도화 완료

4.2. 단계별 세부 이행계획

❐ 단계별 계획 수립



그림 70 서울기록원 중장기 로드맵: 단계별 세부계획

❐ 단계별 세부계획 수립

표 14 단계별 세부계획별 주요산출물

구분	주요추진내용	주요산출물
기반구축단계 (2020-2022)	• 수집정책 보완 및 성문화 • 수집계획 수립	• <수집정책의 고도화> 사업 추진 • 수집실행지침(S-NAP) 개정 • 수집계획서 • 수집정책문
	• 연차별 수집 실행	• 기록 수집 결과물

구분	주요추진내용	주요산출물
	- Symbol 영역 - Idea&Value 영역 - Flow 영역	• 아카이빙 북 출판
	• 수집 지원 시스템 기능 고도화 - 등록, 분류, 기술, 웹 카탈로그 서비스	• 시스템 기능 추가 구현
	• 기록 활동 네트워크 조사 분석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 - 네트워크 대상기관 분석을 통한 유형화 및 프로그램 운영 - 간담회/워크숍/컨설팅/교육/페스티벌 운영 기획 • 기록 활동 네트워크 수집 연계 - 네트워크 대상기관의 현황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수집 연계 방안 제시	• 기록 활동 네트워크 현황 조사표 • 기록 활동 네트워크 프로그램 활동 계획, 추진 결과보고서 • 기록 활동 네트워크 협력 증서
	• 법제 정비	• <수집정책 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사업 추진
안정화단계 (2023-2025)	• 수집정책 및 수집계획 고도화	• 수집실행지침(S-NAP) 개정 • 수집계획서 개정
	• 연차별 수집 실행 - Activity 영역 - Life&Story 영역 - Network 영역	• 기록 수집 결과물 • 아카이빙 북 출판
	• 수집 지원 시스템 기능 고도화 - 온라인 전시 기능 고도화 -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기법	•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기법의 서비스 구현 방안> 연구 용역 추진
	• 기록 활동 네트워크 유형화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 네트워크 활동 조사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유형화 - 기관 자체 아카이브 구성지원 / 네트워크 연계 수집 / 이벤트 수집 등의 방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기록 활동 네트워크 유형별 리스트 •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서울기록원 수집 장기비젼 수립	• 서울기록원 수집 관련 장기적

구분	주요추진내용	주요산출물
		추진 계획 • 민간기록 수집과 활용에 관한 법제 정비 • 국가지정기록물제도 재검토 • 서울기록원 조례 및 운영규정 개정
성장발전단계 (2026-2028)	• 수집정책 및 수집계획 표준화를 위한 확산	• 수집실행지침(S-NAP) 개정 • 수집계획서 개정
	• 연차별 수집 실행 - Structure 영역 - Event 영역 - Stuff&Things 영역	• 기록 수집 결과물 • 아카이빙 북 출판
	• 수집 지원 시스템 기능 고도화 -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기법 확산	•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기법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 기록 자치 생태계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 기록 자치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

ㅇ 수집 영역

- 서울기록원의 안정적인 기록 수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집사업의 추진과 함께 기록 활동 네트워크 협력 사업이 함께 실행되어야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수집이 지속가능함
- 수집사업 부문은 S-NAP의 보완과 수집정책을 근간으로 한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S-NAP의 수집 주제영역의 수집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수집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수집된 결과물은 아카이빙 북을 통해 외화 되어 서울기록원 수집 의지를 공고히함

ㅇ 네트워크 영역

- 기록 활동 네트워크 협력 사업 부문은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록 활동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기록의 생산과 수집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공고한 네트워크 협력 체계의 구축을 통해 S-NAP 기반의 수집 대상 기록의 네트워크를 통한 수집 경로를 마련하고 기록 생태계 기반을 조성

- 기록 활동 네트워크의 발굴과 현황 파악,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
- 네트워크 유형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으로 기록 자치 생태계를 구축

❐ 수집역량 강화를 위한 5대 핵심과제 추진

- ㅇ 서울기록원의 수집정책을 안정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로드맵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주요 목표임
- ㅇ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업무로 추진함으로써 서울기록원의 수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ㅇ 수집역량 강화는 정책과 실행,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이어져야 하며, 네트워크 측면의 지원과 제도적 보완 마련의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함
- ㅇ 서울기록원의 수집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할 주요 핵심과제는 과제의 시급성, 중요성,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5개 영역으로 제안함

- 핵심과제 1 : 수집정책 및 수집계획의 안정화와 성문화
- 핵심과제 2 : 서사기반 수집실행지침에 따라 연차별 수집 실행
- 핵심과제 3 : 수집기록물의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는 시스템 고도화
- 핵심과제 4 : 기록 활동 네트워크 협력 프로그램 시행
- 핵심과제 5 : 수집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
- 핵심과제 6 : 아카이빙 북 출판

❐ 핵심과제 1 : 수집정책 및 수집계획의 안정화와 성문화

- ㅇ 서울 서사기반 수집실행지침(S-NAP)은 서울기록원의 아카이빙 전략으로서 수집정책으로 활용함. S-NAP의 지향점을 반영하여 서울기록원의 수집정책문으로 성문화할 필요
- ㅇ 2019년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 콘텐츠 개발 사업>의 결과물인 S-NAP의 초안은 서울의 아카이빙을 위한 주제영역의 설계와 수집 요소들의 S-NAP 상하위 구조화를 통한 수집정책의 기본 구조를 제시하고 250여개에 달하는 S-NAP 각 영역별 수집실행지침을 제안하였음
- ㅇ 그러나 수집실행지침의 개발이 수집영역의 연구 분석과 예상되는 수집 대상 기록유형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성상 이번 사업 기간 내 철저한 연구 분석을 완

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ㅇ 따라서 향후 <수집정책의 고도화 사업>을 통해 이번 사업에서 제안한 S-NAP를 추가 보완하는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며, 주기적으로 1-3년 단위의 S-NAP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함
- ㅇ 수집실행지침 S-NAP는 수집정책으로 작동하며, 이를 기반으로 실제 기록 수집을 실행하기 위한 수집계획을 작성해야 함
- ㅇ 수집계획은 수집정책을 기반으로 수집 대상과 수집의 범위, 수집 기록의 출처와 리드 목록, 수집의 방법, 사전 준비 요소들과 각종 서식을 포함하여 수집의 모든 절차와 방법을 포괄해야 함
- ㅇ 업무 환경의 변화와 기록 활동 네트워크의 동향, 수집 사업의 기간과 범위, 예산을 고려하여 수집 계획을 작성하며, 네트워크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ㅇ 수집정책문은 운영규정 등에 반영하여 수집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ㅇ <핵심과제 1 - 수집정책 및 수집계획의 안정화와 성문화>는 다른 과제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우선추진 과제로서 로드맵 첫 단계인 기반구축단계에 완료되어 이후 지속적인 추가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핵심과제 2 : 서사기반 수집실행지침에 따라 연차별 수집 실행

- ㅇ 수집실행지침 S-NAP는 수집 정책으로 활용하며, S-NAP의 9개의 주제 영역은 서울기록원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수집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의 사회적 기억을 총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음
- ㅇ 연차별로 각 주제 영역별 수집 실행과 더불어 기 수집된 영역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와 네트워크 협력 결과에 따라 follow-up을 실하여 추가 수집을 실시함. 기록활동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지속 유지하고 새로운 활동을 발굴하여 네트워크 영역으로 확보
- ㅇ S-NAP 기반 연차별 수집사업 실행 계획 제안. 9차년도 연속적으로 지속적 수집사업이 요구됨. 9개 주제영역의 수집 완료는 서울기록원의 수집역량이 성공적으로 확보되었음을 의미하며, 이후 갱신관리 방법으로 수집 사업 실행함
- ㅇ S-NAP 기반의 연차별 수집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안함

표 15 S-NAP기반 연차별 수집사업

수집 주제영역	수집 내용
Symbol(상징)	2019년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 콘텐츠 개발 사업>에 의해 4개 영역(4개 상위 S-NAP, 15개 하위 S-NAP)우선 시범 실시 완료 미수집된 영역 2020년 수집 실행 4개 상위 S-NAP, 15개 하위 S-NAP
Idea&Value(사상과 가치)	2021년 수집실행 7개 상위 S-NAP, 17개 하위 S-NAP
Flow(흐름)	2022년 수집실행 5개 상위 S-NAP, 16개 하위 S-NAP
Activity(활동)	2023년 수집실행 8개 상위 S-NAP, 25개 하위 S-NAP
Life&Story(생명과 이야기)	2024년 수집실행 8개 상위 S-NAP, 27개 하위 S-NAP
Network(관계망)	2025년 수집실행 4개 상위 S-NAP, 13개 하위 S-NAP
Structure(구조)	2026년 수집실행 4개 상위 S-NAP, 11개 하위 S-NAP
Event(이벤트)	2027년 수집실행 9개 상위 S-NAP, 26개 하위 S-NAP
Stuff&Things(물질)	2028년 수집실행 8개 상위 S-NAP, 20개 하위 S-NAP

❐ **핵심과제 3 : 수집기록물의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는 시스템 고도화**

- ㅇ 수집된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 서비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 '서울기록원 디지털아카이브'의 기능 고도화 시 다음의 기능 구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함
- ㅇ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등록하고, S-NAP의 서사 맥락을 살릴 수 있는 분류체계의 구현, 집합적 기술을 지원하는 기능과 조직화된 기록의 웹 카탈로그 서비스 방안 구현, 그리고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기법의 실현을 위한 연구 필요

표 16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개괄

기능 요구사항	기능상세
수집 기록물의 등록	•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

기능 요구사항	기능상세
	을 포괄할 수 있는 입수 기능 • 네트워크를 통한 기록 정보의 공유를 반영할 수 있는 기능 • 서로 다른 시스템의 기록물 입수 시 메타데이터 매핑 기능
서사 맥락의 분류체계 구현	• 기록의 맥락에 따른 분류체계를 구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집합적 기술 지원	• 서사 맥락 정보에 따라 유연한 컬렉션 구성을 지원하는 집합적 기술 구현
웹 카탈로그 서비스	• S-NAP 기반 수집 기록물의 콘텐츠화 및 서비스 보기 방식의 다양화 • 서사 맥락에 기반한 “이야기 보기” 방식과 기존의 출처별, 기록 유형별 “분류 보기” 방식을 이용자가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구현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기법	• S-NAP에 기반하여 제작한 다큐멘터리와 해당 다큐멘터리와 연계된 기록물을 함께 서비스 하는 방안 구현 • 다큐멘터리를 재생하는 동안 이용자의 요구사항이나 특정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

- ㅇ 특히 2019년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 콘텐츠 개발 사업>의 수집 결과물을 정리한 2가지 유형의 방식을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수집 기록물컬렉션을 서사 기반의 “이야기보기” 방식과 기존의 기록 출처별, 기록 유형별 “분류보기”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 ㅇ 핵심적인 연구 과제로서 2019년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 콘텐츠 개발 사업>에서 최초로 제안한 다큐멘터리 기법을 서비스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기법의 서비스 구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후속 사업으로 이어져야 함.

❒ 핵심과제 4 : 기록 활동 네트워크 협력 프로그램 시행

- ㅇ 기록 활동 네트워크 대상 기관 및 사례를 발굴하여 기록 수집과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기록 자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ㅇ 네트워크 대상 기관의 자생적 기록 생산 및 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기록의 수집 및 공유, 공동 이용을 보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 ㅇ 로드맵에 따른 기반구축단계(2020년-2022년)에서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목표는 서울기록원의 수집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록 활동을 조사·분석하고, S-NAP에 따른 수집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음
- ㅇ 향후 안정화와 고도화 단계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확인된 기록 활동 네트워크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기록 활동 기관 및 단체의 특성 유형별로 기록의 생산과 관리를 지원하여 기록 자치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록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핵심과제 5 : 수집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

- ㅇ 지속적 수집이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집정책 환경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사업이 로드맵의 기반구축단계에 필요
- ㅇ 민간영역의 기록 수집을 위해 민간 기록물의 수집과 활용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국가지정기록물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과제 진행이 필요
- ㅇ 서울기록원의 수집 전담 부서의 신설과 수집 전담 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요인이나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S-NAP 기반의 단계적 수집 실행 방안이 수집 기록을 통한 콘텐츠의 구축 등에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나 운영규정의 개정을 실시함.
- ㅇ S-NAP 기반의 수집사업을 향후 9년 동안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서울기록원의 장기적 비전 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S-NAP 기반의 수집 사업을 반영해야 함

❒ 핵심과제 6 : 아카이빙 북 출판

- ㅇ 서울기록원의 수집 지향을 담은 수집과정 및 결과물을 아카이빙 북의 형태로 외화시킴
- ㅇ 기반구축 단계에서의 아카이빙 북은 서울기록원의 수집과정과 지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 전략을 구성함. S-NAP의 구성과 필요성, 기록생태계의 의미 등을 대시민에게 공유하는 방향으로 아카이빙 북을 기획함

- 특히, 2019년 아카이빙 북에서는 S-NAP과 기록생태계의 의미를 공유하고, 서사 기반의 수집기록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함. 2020년 아카이빙 북에서는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 서사 중심 수집의 핵심주체인 인물 그안에 담긴 이야기를 중심으로 아카이빙 기획전략을 잡음
- 안정화 단계에서는 각 수집영역에 해당하는 수집결과와 네트워크 운영결과 및 그 안에서의 의미 찾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함. 즉 아카이빙 북을 본격적인 서울기록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성장발전 단계에서는 아카이빙 북을 기록생태계의 주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함. 서울기록원과 기록생태계 주체들과 함께 실행한 수집결과를 아카이빙 북으로 외화함

❐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위한 2대 핵심 추진 과제

- 기록 문화 확산과 장기적으로는 기록 자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록 활동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대상 기관들의 자생적 기록관리 체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대상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성공적인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위한 2대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

- 핵심과제 1 : 네트워크 현황 조사표의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 핵심과제 2 : 주기적인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 핵심과제 1 : 네트워크 현황 조사표의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기록 활동 네트워크 현황 조사 및 네트워크 대상 기관으로의 협력이 가능한 활동들을 발굴하여 협력 대상기관 리스트로 관리
- 협력 대상 네트워크 기관 리스트를 대상으로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인력 운영, 재정상태, 주요 활동 내용, 기록화 대상 내용을 파악하여 기관별 <네트워크 현황 조사표>를 작성함
- <네트워크 현황 조사표>는 네트워크 대상 기관의 운영 현황과 기록 활동 분석의 자료로서 수집 사업과 연계하여 수집 전략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네트워크 현황 조사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서울 전체의 기록 활동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각 대상 기관에 적합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료로 활용함

❒ **핵심과제 2 : 주기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 ㅇ <네트워크 현황 조사표>를 통해 기록 활동 분석을 수행하고, 각 기관에 적합한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연계함
- ㅇ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이번 사업에서 모형화한 다음의 유형으로 기관별 기록 활동 내용, 인력, 추진 의지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기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행
  - 간담회, 워크숍, 컨설팅, 교육, 페스티벌 프로그램
- ㅇ 대상 기관 활동의 중요도와 영향력, 기록 활동의 휘발성, 비상시성, 기록의 생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연차별로 매년 3~5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ㅇ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전파할 수 있는 홍보 방안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추진
- ㅇ 장기적으로는 기록 활동 네트워크 기관 유형화를 통한 장기적 지원 전략 수립으로 발전시켜야 함. 기관 유형화에 따른 지원 전략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기관 자체의 아카이브 설립을 지원
  - 수집정책과 연계하여 수집 실행
  - 일회성, 이벤트성이 강한 기록을 대상으로 이벤트 수집 실행 등
- ㅇ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록 문화를 확산하고 기록 자치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Ⅲ. 첨부 자료

1. 수집 매뉴얼

2.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3. 보고 자료

1. 수집 매뉴얼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서울 서사중심 아카이빙 수집 매뉴얼

2019. 12



수집 매뉴얼

1. 개요
2. 수집 대상 조사 단계
3. 수집실행 단계
4. 수집결과 정리 단계
5. 수집관련 업무서식

1. 개요

서사기반 수집 매뉴얼은 서울기록원이 토탈 아카이브 체계를 지향하며, 서울을 재현하기 위해 설계된 서사기반의 기록을 수집하기 위한 매뉴얼이다. 서울을 재현할 수 있는 서사기반의 기록이 체계적으로 수집되려면 이론적, 실천적, 윤리적, 기술적 측면을 두루 포함한 수집매뉴얼이 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기록원은 토탈 아카이브 체계를 지향하며, 시민기록으로부터 공공기록에서의 빈틈을 메우고자 하고 있다. 그러한 방법론의 하나로 서사기반 수집은 공공, 민간, 예술적 표현의 기록 등 하나의 서사 안에서 다원적 출처의 기록들을 수집하고, 서사로 연계하여 서울을 재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수집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이다.

서사기반 수집 매뉴얼은 기존 수집매뉴얼과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우선 '관계 기반' 수집을 지향하고 있다. 서사기반 수집은 '관계 기반'수집을 우선시하고 있기에 기록물 입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며, 수집과정에서의 관계 만들기에 집중한다. 이렇게 수집과정에서 형성된 '관계'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능으로 연계시켜 기록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집과정에서 공적이용위임을 전제로 한 공동이용(디지털 기록 사본수집)을 진행하여, 기존의 일방향적 수집 관행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서사기반 수집 매뉴얼은 현장성을 기반한 고도의 지적 접근 방법으로 수집담당자와 현장 수집처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부터 수집까지의 과정을 절차별로 다루고 있다. 또한, 수집과정에서 발생한 역동적인 인간관계와 유의점, 수집을 둘러싼 관련 법규를 설명하고, 아울러 기관 차원의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상세히 고려하여 짚어주고 있다. 서사기반 수집 매뉴얼은 '서울의 사회현상과 삶의 현장'이라는 관점에서 서울을 재현할 수 있는 기록을 수집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며, 서사의 주관성을 간주관성의 관점으로 접근시키는 방법이다. 수집매뉴얼은 매년 수집이 진행됨에 따라 현장성을 기반하여 주제별로 갱신할 수 있음을 밝힌다.

서사기반 수집 매뉴얼은 공동이용을 전제로 한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은 '생산-디지털 수집-네트워크 수집'의 방법으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생산은 단일한 생산맥락 이상의 흐름을 기록으로 포착할 필요가 있을 때 구술, 행위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방식으로 생산한다. 디지털 수집은 비전자문서, 전자문서를 포괄하여 이미 생산되어 수집대상자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사본형식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수집은 장기적으로 협력할 네트워크 대상을 확보하고, 향후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할 수 있도록 기록의 상황을 파악하고 목록을 공유하는 수집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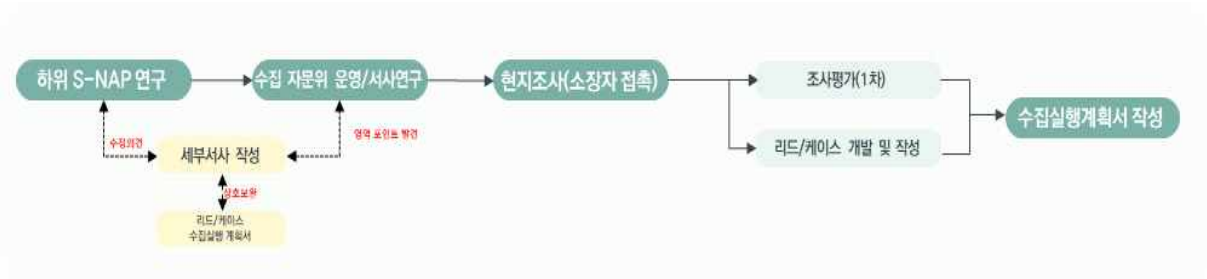
서사기반 수집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며, 단계별 세부내용과 절차는 각각의 절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절차명	업무정의	내용
수집대상 조사	• '하위 S-NAP'를 상세화 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수집을 위한 사전평가를 진행하고, 현장성을 바탕으로 수집실행을 계획하는 업무	• '하위 S-NAP' 연구 • 수집자문위원회 운영 • 현지조사(수집대상자 접촉) • 조사평가(1차) • 리드/케이스 개발 및 작성 • 수집실행계획서 작성
수집 실행	• 수집실행계획에 따라 기록 수집대상자와 수집·생산의 절차 및 조건을 설명하고 수집을 진행하는 업무	• 수집 협의 • 수집 실행
수집결과 정리	• 수집 결과에 따라 '하위 S-NAP'를 수정 보완하고, 결락부분에 대하여 보완수집 결정을 함 • 1차 가 수집 결과를 서울기록원에 전달(입고)하여 2차 가치평가 후, 공동이용증서 등을 교환하고 수집을 마무리함	• 1차 정리 및 보완 • 수집결과 전달 및 수집평가(2차) • 공동이용증서 교환

2. 수집 대상 조사 단계

수집 대상 조사 단계에서는 사전에 작성되었던 '하위 S-NAP'를 기반으로 문헌조사 및 현상조사를 통해 '하위 S-NAP'의 적정성 및 현실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수집실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선행과정으로 작성되었던 '하위 S-NAP'에 현실성을 담보하고, 전문성 있는 수집자문위원회를 주제별로 구축하여 수집대상자와의 연결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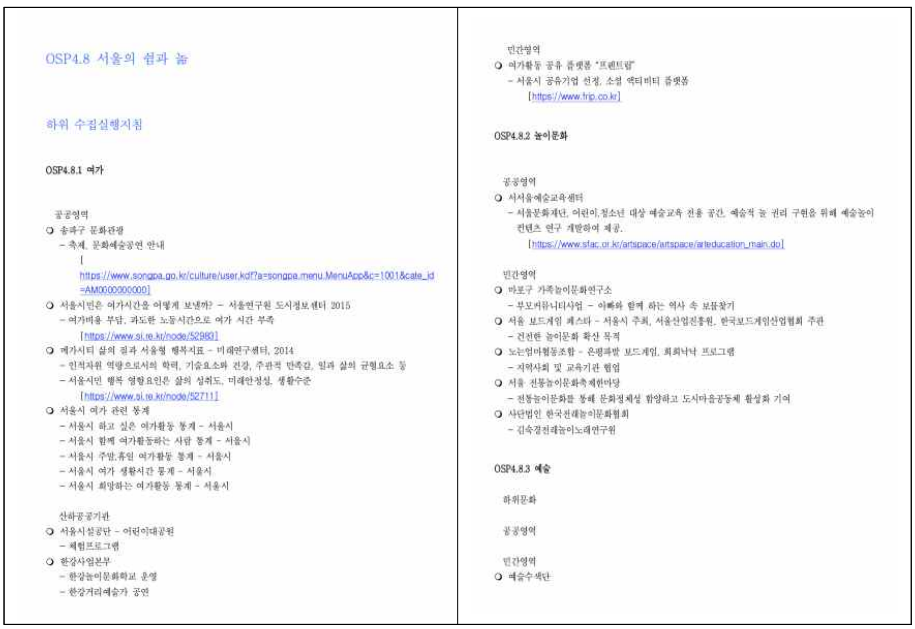


절차명	업무정의	세부절차
하위 S-NAP 연구	• 하위 S-NAP를 근거하여 수집조사를 진행하는 업무	• 하위 S-NAP에 실려 있는 주제범주 및 소장처를 확인(세부서사 연구내용에 따라 하위S-NAP은 수정 보완됨) • 문헌조사 실행
수집자문위원회 운영 / 서사연구	• 문헌 및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추출한 주제영역의 전문가를 접촉하여 수집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업무 • 문헌조사, 예비 현장조사를 통해 세부서사를 작성하는 업무	• 수집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접촉 • 수집자문위원회 진행 • 서사연구 진행
현지조사(수집대상자 접촉)	• 수집대상자를 접촉하여 수집내용 소개와 소장기록을 파악하는 업무	• 수집대상자 접촉 • 소장기록 조사
조사평가(1차)	• 서사에 기반한 기록의 수집 적절성에 대한 평가(1차 평가)를 진행하는 업무	• 평가기준 적용 • 수집대상 기록 선정
리드/케이스 개발 및 작성	•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축적된 리드/케이스를 개발하고 종합정리하는 업무	• 리드/케이스 정보 취합 • 서사연구와 현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 교류함
수집실행계획서 작성	• 수집대상 조사 결과를 서사와 연계하여 수집실행을 계획하는 업무	• 수집대상 조사결과 종합정리 • 서사연구와 현장조사, 세부서사작성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수집실행계획서 작성

하위 S-NAP 연구

하위 S-NAP 연구는 사전에 작성된 하위 S-NAP를 기반으로 타당한 수집범위 해당 여부와 수집대상으로서 효용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 매뉴얼에서는 수집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헌 조사, 인터넷 조사, 수집자문위원회 운영, 현지 조사, 세부 서사 작성' 등의 방법으로 서사의 현실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우선 하위 S-NAP를 고려하여 사전 조사한 서사의 내용과 수집범위, 기록유형의 수집 가능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수집대상의 선정과 서사 검토를 위하여 문헌 조사를 실행한다. 선행된 리드/케이스 조사 자료가 존재한다면 해당 서사에 해당하는 리드/케이스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OSP4.8 서울의 쉼과 놀

하위 수집실행지침

OSP4.8.1 여가

공공영역
○ 송파구 문화관광
- 축제, 문화예술공연 안내
[https://www.songpa.go.kr/culture/user.kdf?a=songpa.menu.MenuApp&c=1001&cate_id=AM0000000000]
○ 서울시민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2015
- 여가비용 부담,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여가 시간 부족
[https://www.si.re.kr/node/52980]
○ 여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 미래연구센터, 2014
- 인적자원 역량으로서의 학력, 기술요소와 건강, 주관적 만족감, 일과 삶의 균형요소 등
- 서울시민 행복 영향요인은 삶의 심리도, 미래안정성, 생활수준
[https://www.si.re.kr/node/52711]
○ 서울시 여가 관련 통계
- 서울시 하고 싶은 여가활동 통계 – 서울시
- 서울시 함께 여가활동하는 사람 통계 – 서울시
- 서울시 주말,휴일 여가활동 통계 – 서울시
- 서울시 여가 생활시간 통계 – 서울시
- 서울시 희망하는 여가활동 통계 – 서울시

산하공공기관
○ 서울시설공단 – 어린이대공원
- 체험프로그램
○ 환경사업본부
- 환경놀이문화학교 운영
- 환경거리예술가 공연

민간영역
○ 여가활동 공유 플랫폼 "트렌트립"
- 서울시 공유기업 선정,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
[https://www.trip.co.kr]

OSP4.8.2 놀이문화

공공영역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문화재단, 어린이,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전용 공간, 예술적 놀 권리 구현을 위해 예술놀이 컨텐츠 연구 개발하여 제공.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arteducation_main.do]

민간영역
○ 마포구 가족놀이문화연구소
- 부모커뮤니티사업 – 아빠와 함께 하는 역사 속 보물찾기
○ 서울 보드게임 페스타 – 서울시 주최, 서울산업진흥원, 한국보드게임산업협회 주관
-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 목적
○ 노는엄마협동조합 – 온평과발 보드게임, 회피낙낙 프로그램
- 지역사회 및 교육기관 협업
○ 서울 전통놀이문화측제한마당
- 전통놀이문화를 통해 문화정체성 함양하고 도시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
○ 사단법인 한국전래놀이문화협회
- 김숙경전래놀이노래연구원

OSP4.8.3 예술

하위문화

공공영역

민간영역
○ 예술수첩단

Activity(활동) : 'S-NAP 4.8 서울의 쉼과 놂' 문헌조사 자료 (예시)

문헌 조사는 하위 S-NAP에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한 문헌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특정 정보를 포함한 문헌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전문가의 보고서와 공식 문헌으로부터 비공개 문헌 및 인터넷 문서 등 비전문가의 자료 순서로 실시한다. 또한, 주제에 관련한 정부 간행 공문서나 회의록, 전문적인 연구 서적, 논문, 보고서, 사전, 연표뿐 아니라 신문, 잡지류 역시 포함된다. 인터넷 자료 역시 문헌으로 간주하며 문헌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단 비공식적인 출처에서 조사한 문헌이나 신빙성이 낮은 문헌은 정보의 진실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문헌 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는 하위 S-NAP를 세분화하여 이후 작성될 수집 소개자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예비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서사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하위 S-NAP를 상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수집 자문위원회 운영 / 서사 연구

수집 자문위원회는 수집 네트워크 확보 및 수집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수집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우선 문헌 조사를 통해 실시한 주제 관련 핵심 전문가 혹은 지인의 리스트를 주제별로 매핑하고 수집순위를 고려하여 수집 자문위원 후보를 목록화한다. 수집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의 특성에 따라 일대일 면담 혹은 집단 면담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수집 자문위원이 곧 수집대상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접촉 시 서사기반의 수집의 지향과 주제별 세분화를 한 후 자문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집 자문위원회에서는 1) 서사내용자문과 2) 기록조사자문 두 가지 축으로 진행한다. 서사내용자문은 '작성된 서사가 타당한지, 더 추가할 만한 사항은 없는지, 해당 서사가 서울을 상징할 만한 것인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자문을 진행한다. 기록조사자문은 '해당 서사에 부합하는 핵심 기록이 무엇인지, 현재 소재지는 어디에 있는지, 자문위원이 혹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은 있는지, 관련 수집대상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지' 등으로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수집 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록물 수집대상자로의 연결'에 있다. 현재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을법한 리드(수집대상자)에게의 연결은 수집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그렇기에 초기 수집 자문위원회 진행 시 자문위원에게 신뢰감을 주어 서울기록원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집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및 하위 S-NAP을 기반으로 문헌 조사, 예비현장 조사를 통해 서사 연구를 진행한다. 서사 연구의 핵심은 예비 현장 조사를 통한 서사의 현실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서사 연구는 예비 현장 조사의 결과와 하위 S-NAP 연구 결과를 상호 보완하면서 진행된다. 수집자문위원회 의견, 예비 현장 조사, S-NAP 연구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영역별 서사 포인트를 발견하고 세부 서사를 작성한다. 이때 작성된 세부 서사는 리드/케이스 개발과 수집실행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다.

현지조사(수집대상자 접촉)

문헌 조사, 수집 자문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으로 정리되지 못한 주요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대상자의 소장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수집대상자 접촉을 통한 현지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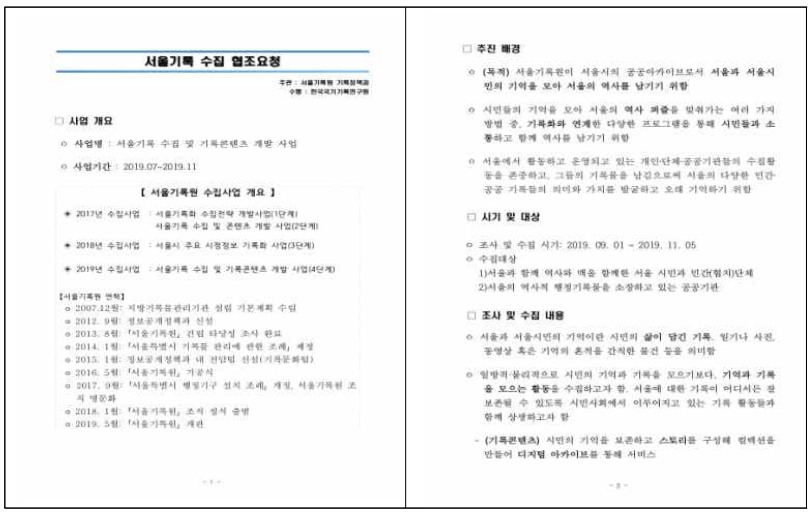
1) 수집대상자에 대한 정보 파악
2) 수집대상자에게 기록 정보 파악
3) 수집대상자에게 기록 수집방식 파악
4) 수집대상자에게 기록이 부여하는 가치 파악
5) 수집대상자 입장에서의 기록에 대한 애착 파악

6) 원질서 원칙에 따른 분류방식 파악
7) 추가적인 계획 확보

수집대상자를 초기 접촉할 경우에는 서울기록원의 수집지향과 수집주제와 방식 그리고 향후 활용 가능성까지 상세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초기 접촉 전에 이메일을 통해 소개자료를 먼저 발송하고, 접촉 당일에 한 번 더 설명을 진행한다. 초기접촉이 유선이나 이메일로 진행될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 또한 수집대상자에게 기록의 활용 방안 계획 및 네트워크, 접촉 등의 사항과 차기 수집목표 및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접촉 실행 시 접촉 상대가 회의적이거나 잠재적 수집대상의 상태, 특성이 수집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도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추후 업무 해당 내용 사항에 대한 충실한 정리 및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소장처가 공공기관일 경우는 1) 공문 요청, 2) 인터넷 조사 두 가지 방법으로 행정기록 수집을 진행할 수 있다. 첫째, 공문 요청은 '하위 S-NAP'에서 주제 키워드를 추출하고, 인터넷 조사를 통해 기록 및 담당자 정보를 식별한다. 이러한 주제별 기록정보는 수집 소개자료와 함께 공문을 통해 요청한다. 행정기록 수집은 보통 디지털 수집(사본 수집)과 네트워크 수집 방법으로 실행된다. 대상 공공기관(중앙정부기관, 정부산하기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공문을 통한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본 또는 리스트'가 수집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기록원의 주관하에 수집이 진행된다. 이때, 효과적인 수집 진행을 위해서 공문 시행 전에 주관 담당자가 유선상으로 사전에 수집사업에 대한 의견과 기록존재 유무를 먼저 확인한 후 공문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인터넷 조사를 통한 행정기록 수집이다. 인터넷 조사를 통한 수집은 추출된 주제 키워드에 기반하여, 국가기록원,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등 온라인상에서 원문검색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진행한다. 이 방법은 시간과 인력대비 효율적인 조사 방법은 아니지만, 공문 요청으로 확보하지 못한 핵심기록을 검색할 경우 사용한다.



서울기록원 수집 협조요청

주관 :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수행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사업 개요

○ 사업명 :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

○ 사업기간 : 2019.07~2019.11

【 서울기록원 수집사업 개요 】

✷ 2017년 수집사업 :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개발사업(1단계)
서울기록 수집 및 콘텐츠 개발 사업(2단계)

✷ 2018년 수집사업 : 서울시 주요 사정정보 기록화 사업(3단계)

✷ 2019년 수집사업 :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4단계)

【서울기록원 연혁】
○ 2007.12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 2012. 9월: 정보공개법령과 신설
○ 2013. 6월: 「서울기록원」 건립 타당성 조사 완료
○ 2014. 1월: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2015. 1월: 정보공개정책과 내 전담팀 신설(기록문화팀)
○ 2016. 5월: 「서울기록원」 기공식
○ 2017. 9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서울기록원 조직 명문화
○ 2018. 1월: 「서울기록원」 조직 정식 출범
○ 2019. 5월: 「서울기록원」 개관

□ 추진 배경

○ **(목적)** 서울기록원이 서울시의 공공아카이브로서 **서울과 서울시민의 기억을 모아 서울의 역사를 남기기 위함**

○ 시민들의 기억을 모아 서울의 **역사 파괄**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기록화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역사를 남기기 위함**

○ 서울에서 활동하고 운영되고 있는 개인·단체·공공기관들의 수집활동을 존중하고, 그들의 기록물을 남김으로써 서울의 다양한 민간·공공 기록들의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고 오래 기억하기 위함

□ 시기 및 대상

○ 조사 및 수집 시기: 2019. 09. 01 ~ 2019. 11. 05
○ 수집대상
1)서울과 함께 역사와 맥을 함께한 서울 시민과 민간(법인)단체
2)서울의 역사적 행정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공공기관

□ 조사 및 수집 내용

○ 서울과 서울시민의 기억이란 시민의 **삶이 담긴 기록**, 일기나 사진, 동영상 혹은 기억의 흔적을 간직한 물건 등을 의미함

○ **일방적·물리적으로 시민의 기억과 기록을 모으기보다, 기억과 기록을 모으는 활동을 수집하고자 함. 서울에 대한 기록이 어디서든 정보존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 활동들과 함께 상생하고자 함**

- **(기록콘텐츠)** 시민의 기억을 보존하고 **스토리**를 구성해 컬렉션을 만들어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서비스

서울기록원 수집사업 소개자료 (예시)

현지 조사에서 '현지 조사 서식작성'을 통해 리드/케이스파일 서식에 미처 조사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며 문헌상의 오류를 수정한다. 구체적인 현지 조사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현재까지의 리드정보 및 케이스파일 정보, 현지 조사정보를 분석 정리하여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도록 한다. 현지 조사과정에서 수집대상 수집대상자가 보유·관리 중인 기록, 소장물 개별 정보 및 정리 관련 기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현지조사는 기록상태에 초점을 두도록 하고, 잠재적 수집대상자, 공유자(기증자), 공유예정자(기증예정자), 위탁자, 판매자 등의 성격을 파악한다. 이러한 정리 결과는 아래 현지조사보고서의 서식에 그 정보가 포함되도록 항목을 구성하도록 한다.



현지조사(수집대상자 접촉) 모습

관리번호		사업명	해당 프로젝트 명칭
조사대상	접촉한 리드의 명칭		
일 시	예) 2019.11.18(월) 14:00~15:00	조사장소	현지조사 장소
조사자	현지조사 수행자 이름		
조사 주제	서사 키워드추출		
조사 내용	누구를 통해 조사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조사하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조사하게 되었는가, 어떠한 내용을 조사하게 되었는가 등의 정보를 작성한다.		
주기	주요 특징과 기타 사항		
향후 계획	다음 조사 계획		

현지조사보고서 서식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집대상자가 자생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거나 아카이브를 소장하고 있음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서울기록원이 그들의 조력자로서 아카이브를 잘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존재임을 밝힌다. 이러한 기관들은 목록공유(네트워크 수집)으로 유도하고, 네트워크 프로그램 담당자와 연계해 준다.

조사 평가(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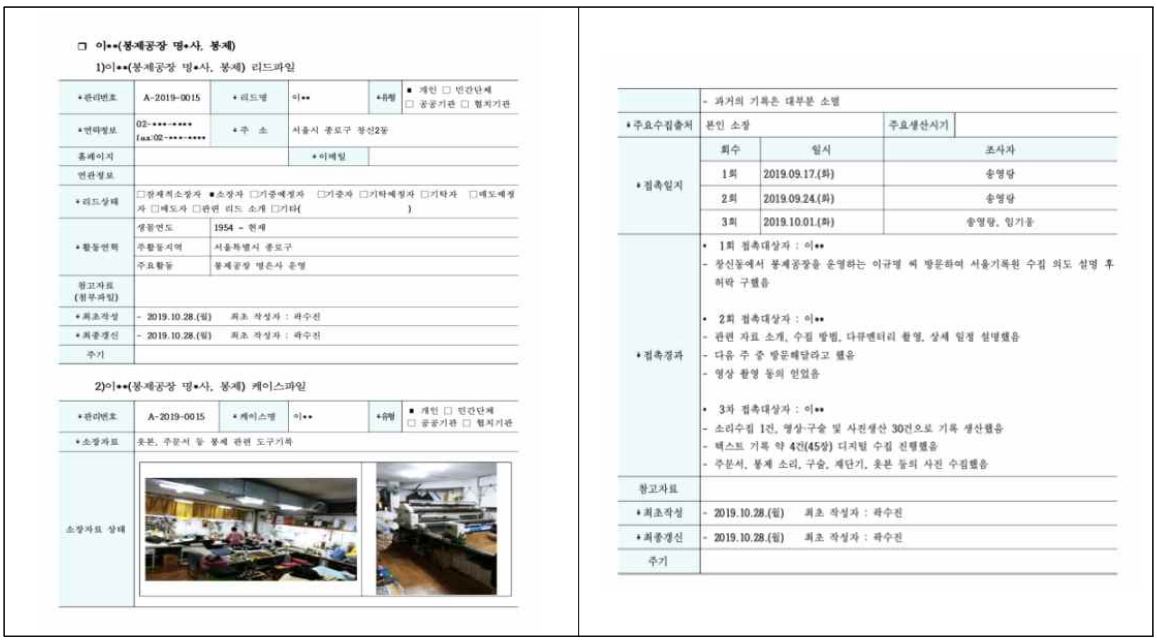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록 중에서 서울기록원의 사명과 목적 그리고 서사에 부합하는 대표성을 가진 기록을 수집하기 위하여 수집팀의 1차 평가 과정을 거친다. 또한 수집대상자와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대상물이나 행위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산'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 평가를 위한 수집팀의 선별 가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을 재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록인가?
2) 수집 이후 전시 및 활용가치가 있는가?
3) 연구 및 교육, 기타 활동에 활용가치가 있는가?
4) 서사에 적합한 기록인가?
5) 서울기록원의 사명과 목적에 부합하는 기록인가?
6) 행정기록의 틈을 메울 수 있는 기록인가?
7) 단일한 생산맥락 이상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가?
8) 향후 네트워크 연계 가능성이 있는가?

위의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수집팀은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수집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특히 공유의 관점에서 진행하는 수집이기 때문에 실물확보의 유무 보다는 향후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염두 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가치평가의 우선으로 한다.

리드/케이스 개발 및 작성

현지 조사단계에서 접촉한 수집대상자 정보와 기록물 소장정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절차이다. 또한 문헌 조사 단계에서 얻은 정보 중 수집 가치가 높거나 수집 가능성이 높은 수집대상을 탐색, 접촉하기 위한 정보를 개발한다. 리드/케이스 정보는 수집이 종료 단계까지 수시로 추가, 갱신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시간이 경과하여 관련 사항이 잊혀 지기 전에 수시로 기입해야 한다. 리드/케이스는 차기 수집의 시작이자 네트워크 팀의 주요 네트워크 자원 탐색 도구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핵심 리드들은 먼저 네트워크 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봉제공장 명•사, 봉제)

1)이••(봉제공장 명•사, 봉제) 리드파일

•관리번호	A-2019-0015	• 리드명	이••	•유형	■ 개인 □ 민간단체 □ 공공기관 □ 협회기관
•연락정보	02-•••-•••• Fax:02-•••-••••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홈페이지			• 이메일		
연관정보					
• 리드상태	□잠재적소장자 ■소장자 □기증예정자 □기증자 □기탁예정자 □기탁자 □매도예정자 □매도자 □관련 리드 소개 □기타( )				
• 활동연혁	생몰연도	1954 ~ 현재			
	주활동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요활동	봉제공장 명은사 운영			
참고자료 (첨부파일)					
• 최초작성	- 2019.10.28.(월) 최초 작성자 : 라수진				
• 최종갱신	- 2019.10.28.(월) 최초 작성자 : 라수진				
주기					

2)이••(봉제공장 명•사, 봉제) 케이스파일

•관리번호	A-2019-0015	• 케이스명	이••	•유형	■ 개인 □ 민간단체 □ 공공기관 □ 협회기관
• 소장자료	옷본, 주문서 등 봉제 관련 도구기록				
소장자료 상태					

	- 과거의 기록은 대부분 소멸		
• 주요수집출처	본인 소장	주요생산시기	
• 접촉일지	회수	일시	조사자
	1회	2019.09.17.(화)	송영당
	2회	2019.09.24.(화)	송영당
	3회	2019.10.01.(화)	송영당, 임기홍
• 접촉경과	• 1회 접촉대상자 : 이•• - 창신동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이규명 씨 방문하여 서울기록원 수집 의도 설명 후 허락 구했음 • 2회 접촉대상자 : 이•• - 관련 자료 소개, 수집 방법, 다큐멘터리 활영, 상세 일정 설명했음 - 다음 주 중 방문해달라고 했음 - 영상 촬영 동의 얻었음 • 3차 접촉대상자 : 이•• - 소리수집 1건, 영상-구술 및 사진생산 30건으로 기록 생산했음 - 텍스트 기록 약 4건(45장) 디지털 수집 진행했음 - 주문서, 봉제 소리, 구술, 재단기, 옷본 등의 사진 수집했음		
참고자료			
• 최초작성	- 2019.10.28.(월) 최초 작성자 : 라수진		
• 최종갱신	- 2019.10.28.(월) 최초 작성자 : 라수진		
주기			

'봉제공장 리드/케이스 파일 (예시)

* 관리번호		* 리드명		* 유형	□ 공공 □ 민간 □ 협치 □ 개인
* 연락정보		* 주 소			
홈페이지			* 이메일		
연관정보					
* 리드상태	□잠재적수집대상자 □수집대상자 □기증예정자 □기증자 □기탁예정자 □기탁자 □매도예정자 □매도자 □관련 리드 소개 □기타( )				
* 활동연혁	생몰연도	-			
	주활동지역	-			
	주요활동	-			
* 수집대상자료					
수집대상자료 상태					
* 주요수집출처			주요생산시기		
* 접촉일시			* 조사자		
* 접촉경과	-				
참고자료 (첨부파일)	-				
* 최초작성	-				
* 최종갱신	-				
주기	-				

리드/케이스 정보 서식

수집실행계획서 작성

수집 대상 조사의 마무리 단계로 수집실행 계획서를 작성한다. 우선 현지 조사, 조사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수집 우선순위에 따라 소장처를 목록화하고, 하위 S-NAP의 서사에 얽히는 예상 수집기록물을 배치하고 예상 수집 규모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수집 방법을 결정한다. 앞서 조사한 내용에서 수집대상자에 따라 '생산-디지털수집-네트워크 수집' 방법을 확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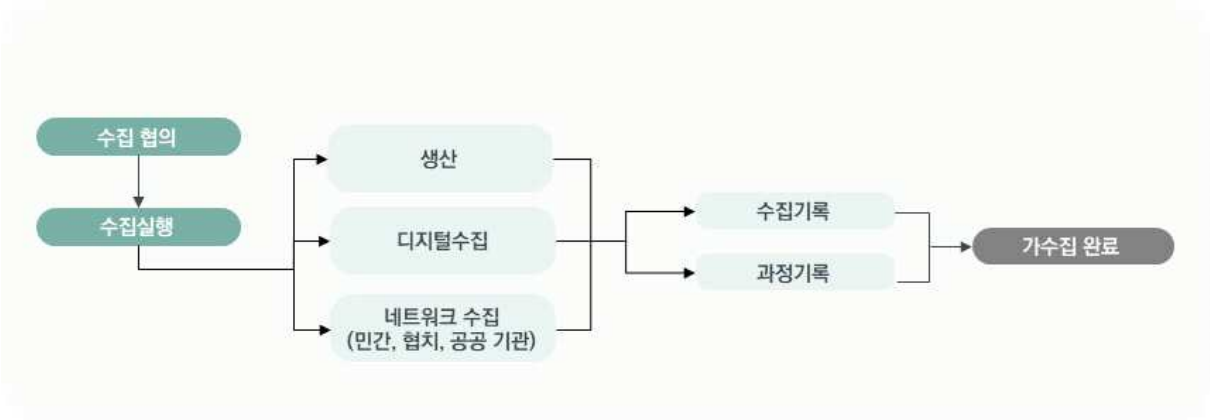
생산은 기록으로 확보할 수 없거나 의미 있는 행위 등을 기록으로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진행하며, 생산유형에 따라 생산팀(다큐팀, 사진작가)의 일정을 조율하여 함께 수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수집은 기록화팀과 필요에 따라 현장 스캔 등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반영한 인력구성과 시간 안배를 통해 수집실행계획서를 작성한다. 네트워크 수집은 현장 방문보다는 이메일이나 공문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공문 일정 확인 관계부처와의 협력 등 대상 기관을 설득할 방안을 수집실행계획서의

형태로 작성한다.

수집실행계획서는 하위 S-NAP, 서사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되지만 수집현장의 상황과 기록의 존재 유무에 의해 하위 S-NAP의 내용이 수정 보완될 수 있다. 이러한 귀납적 방법을 통한 수집실행계획서 작성은 서사의 주관성을 간주관성의 관점으로 접근시키는 방법이며, 서사에 관련한 기록을 유무를 식별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3. 수집실행 단계

수집실행 단계에서는 수집실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수집대상자와의 수집협의를 거쳐 수집을 실행하여 기록 사본을 입수 혹은 공유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서사에 기반한 단일한 생산맥락 이상의 이야기를 포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집 방법을 결정한다. 또한, 수집대상자와의 '관계 조성'이 중요한 목표이며, 수집대상자의 현 상태와 기록물의 상태에 적합한 수집 방법 결정이 중요하다. 수집팀은 수집대상자에게 기록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심어주기보다는 '기록 공유'라는 관점을 잘 전달하고, 사본 기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절차명	업무정의	세부절차
수집협의	• 수집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집방법 및 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업무	• 수집절차 및 방법 결정과 확인 • 수집조건 협의
수집실행	• 소장처의 특성에 적합한 '생산-디지털수집-네트워크 수집'을 진행하는 업무	• 생산 • 디지털 수집 • 네트워크 수집(민간, 협치, 공공 기관)

수집협의

수집대상자와 수집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수집조건을 협의하는 단계이다. 수집 협의 단계에서는 수집의 진행 과정과 과정별 참여자와 준비사항을 수집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수집팀은 '생산-디지털수집-네트워크 수집' 중 서사를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을 분석하여 수집 방법을 결정한다. 이때 수집대상자에게 '공유'를 전제로 수집임을 밝히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세부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수집 협의 과정은 약 1회에서 많게는 4회 정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수집팀은 끈기를 가지고 수집대상자와의 협의를 끌어내야 한다. 수집대상자가 기록공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대효과와 의미를 설득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타 수집사례를 보여줄 수도 있다. 수집 협의는 현지 조사에서 호응도가 높은 대상

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수집에 대한 호응이 낮은 수집대상자에게는 생산, 디지털수집보다는 네트워크 수집이나 서울기록원 수집사업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에 중점을 둔다. 수집 결정은 우선적으로 수집팀의 안을 수집대상자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며, 무리한 생산과 수집은 진행하지 않는다.




수집협의 모습

서울기록원의 주요 수집방식은 '공유'를 전제로한 사본수집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생산, 디지털수집, 네트워크 수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집방식	설명
생산	• 수집가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활동 이에 관련된 사항을 영상/사진 촬영, 구술/다큐생산 등의 방법으로 기록화하고 그 이용권한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
디지털 수집	• 수집가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의 디지털 사본을 텍스트기록 수집, 이미지 기록수집, 영상음성기록 수집 방식으로 공유하고 일부 이용권한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
네트워크 수집	• 수집가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의 목록을 공유하여 목록에 대한 일부 이용권한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 • 장기적으로 협력할 네트워크 대상으로 식별하여 '목록 수집'을 진행하고, 네트워크 기능과 연계하는 수집

서울기록원 주요 수집방식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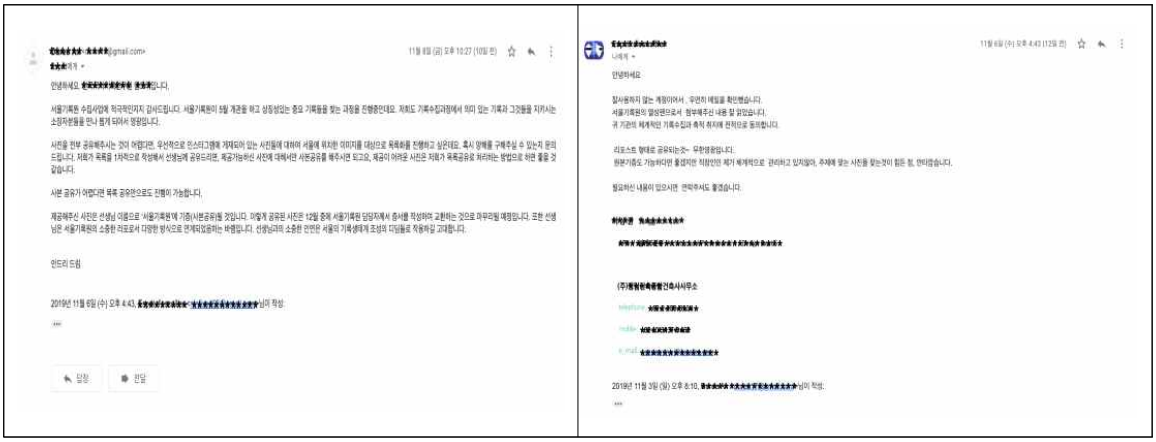
수집팀은 위의 수집방식은 수집대상자와 공유하고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한 귀속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서울기록원 수집은 등가적 보상 및 대가의 지불이라는 개념을 원칙적으로 지양한다. 현실적으로 수집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록의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 수집조건 협의사항은 수집협약서의 내용 중에 문서로 만들어져야 하므로, 수집조건 협의가 이뤄지면 협의 내용을 협약서의 형태로 임시작성한다.

저작재산권		설명	비고
저작 인격권	공표권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며 권리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저작재산권		설명	비고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될 수 없음.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음.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 재산권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 및 상속될 수 있음.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하며 공동저작물의 경우 최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함.
	공연권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	
	전시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대여권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	
저작 인접권	실연자의 권리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	대체로 저작재산권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원저작자의 권리가 아닌 전수자 및 제작자의 권리임. 예를 들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연주하고 음반을 제작하면 해당 음반에 한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있음.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	

수집조건 관련 저작재산권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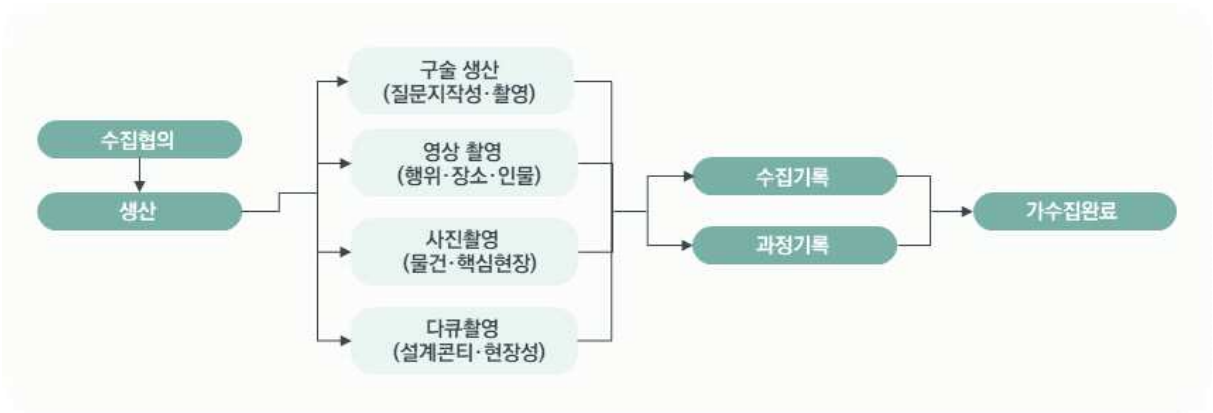
수집대상자의 사정으로 면대면 협의가 힘들 경우,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수집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메일 혹은 유선 협의 시 수집조건과 수집내용과 절차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 협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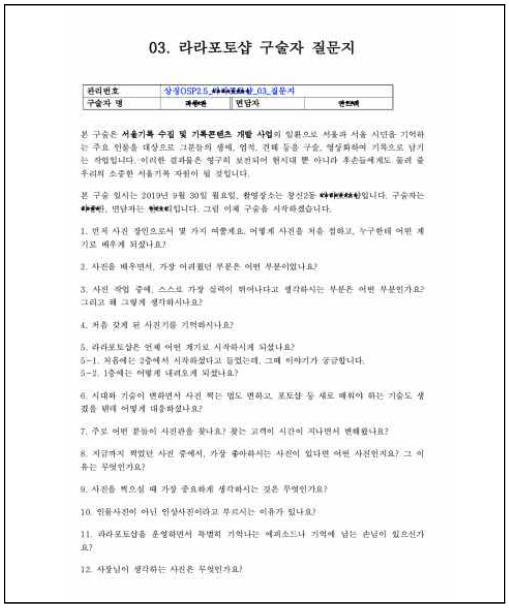
이메일을 통한 수집협의 (예시)

수집실행: 생산

생산은 기록으로 확보할 수 없거나 의미 있는 행위 등을 기록으로 포착하기 위하여 진행하며, '구술, 영상촬영, 사진촬영, 다큐제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술 생산은 현지 조사, 수집 협의 단계에서 수집대상자 중 구술대상자를 선별하여 진행한다. 구술진행 여부는 수집 협의 단계에서 충분한 설명 후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구술진행을 위한 사전면담은 구술대상자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2회 진행한다. 사전면담 단계에서 구술대상자 관련 문헌 조사를 진행하여 구술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헌 조사 및 사전면담 과정을 거쳐 서사를 고려하여 구술을 위한 질문지를 작성한다. 구술질문지는 구술 일주일 전에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구술자에게 사전에 전달하도록 한다.



03. 라라포토샵 구술자 질문지

관리번호	상장OSP2.5_[illegible]_03_질문지		
구술자 명	[illegible]	면담자	[illegible]

본 구술은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과 서울 시민을 기억하는 주요 인물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생애, 업적, 전해 들을 구술, 영상화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영구적 보전되어 현시대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물려 줄 우리의 소중한 서울기록 자원이 될 것입니다.

본 구술 일시는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합정장소는 창신2동 [illegible]입니다. 구술자는 [illegible], 면담자는 [illegible]입니다. 그럼 이제 구술을 시작하겠습니다.

1. 먼저 사진 장인으로서 몇 가지 여쭙겠요. 어떻게 사진을 처음 접하고, 누구한테 어떤 계기로 배우게 되셨나요?

2. 사진을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3. 사진 작업 중에, 스스로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4. 처음 찾게 된 사진기를 기억하시나요?

5. 라라포토샵은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5-1. 처음에는 2층에서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5-2. 1층에는 어떻게 내려오게 되셨나요?

6. 시대와 기술이 변하면서 사진 찍는 법도 변하고, 포토샵 등 새로 배워야 하는 기술도 생겼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7. 주로 어떤 분들이 사진관을 찾나요? 찾는 고객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왔나요?

8.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진이 있다면 어떤 사진인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9. 사진을 찍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10. 인물사진이 아닌 인생사진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나요?

11. 라라포토샵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신가요?

12. 사장님이 생각하는 사진은 무엇인가요?

구술 질문지 (예시)



구술촬영 모습(라라 사진관)

영상과 사진 촬영은 수집대상자가 소장한 기록으로 그 맥락을 표현하기 부족할 경우와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물건기록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로 가치 있는 활동/행위 영상, 장소 영상, 물건 촬영 등이 이에 속한다.



창신 2동 돌산마을 로드뷰 영상 촬영



기억해야할 옛 것을 전승하는 장인들: 행위영상



성우이용원 외관 촬영 모습



강서구 소녀상 설치 영상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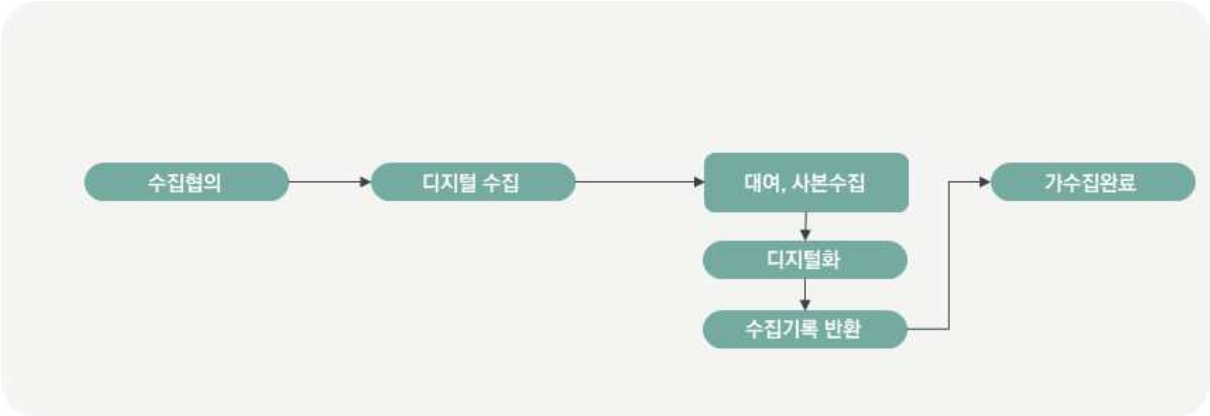
다큐촬영은 수집팀과 서사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우선 다큐팀이 서사를 기반으로 콘티를 설계한다. 다큐팀의 콘티는 수집현장 상황에 따라 수정과정을 거친다. 즉, 기획된 콘티는 현장상황과 구술을 포함한 수집상황을 고려하여 수집 보완된다. 이렇게 완성된 콘티를 기반으로 다큐촬영이 진행된다. 다큐촬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수집 현장에서 수집팀은 다큐팀과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수집팀은 현지 조사 및 수집 협의 과정에서의 이슈를 다큐팀과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의과정은 다큐제작 방향을 결정하기도 한다. 둘째, 수집팀과 다큐팀은 기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수집대상자의 생산 맥락에 관한 원 기록을 수집하고자 하는 수집팀과는 다르게 다큐팀은 콘텐츠 관점으로 기록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기에 다큐제작 과정기록과 다큐 원 소스 기록이 삭제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팀이 수집의 목적과 지향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생산과 활용관점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 다큐촬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록을 생산한다는 것은 기존에 생산된 기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수집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생산한다는 것이다. 기록 생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수집대상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라포'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집 및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확보해나가야 한다.

수집실행: 디지털 수집

디지털수집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영상 디지털 기록을 수집하며, 비전자기록일 경우 현장에서 스캔작업을

하거나 대여를 통해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여 수집한다.



서울기록원은 '공유'를 기반의 수집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본 공유'라는 원칙으로 수집을 진행한다. 이러한 지향은 실물기록을 수집해야 한다는 부담과 복잡한 절차적 문제를 간소화시켜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집 대상물이 비전자기록일 경우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스캔작업을 하거나 대여를 통해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특히, 마을, 개인 단위의 경우 대부분 비전자 형태로 기록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수집을 진행하도록 한다.

1) 비전자기록물의 양
2) 수집대상자의 수집투여 가능 시간
3) 서울기록원에서 규정하는 해상도기준
4) 디지털화 인력
5) 비전자기록의 대여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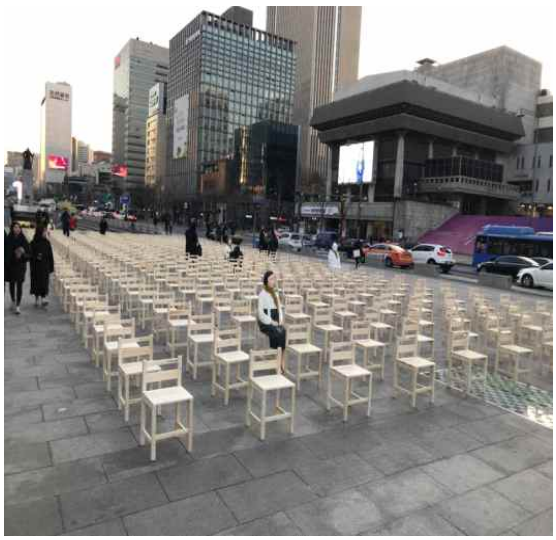
수집 진행 과정에서 비전자기록의 양의 많을 경우, 수집대상자의 양해를 구하고 대여를 통해 디지털화를 진행한다. 대여가 불가능할 경우, 현장에서 소화하거나 수집대상자와 협의 후, 일정 조정을 통해 추가 방문하여 수집을 진행한다. 대여를 진행할 시에는 반환 일정을 정확히 공지해야 하며, 무리한 대여는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스캔작업을 하거나 대여를 통해 사본을 수집 진행하지만, 이도 힘들면 목록공유로 수집을 진행한다. 전자기록 수집은 수집 당일 외장하드를 이용해 수집해 오거나 수집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이메일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여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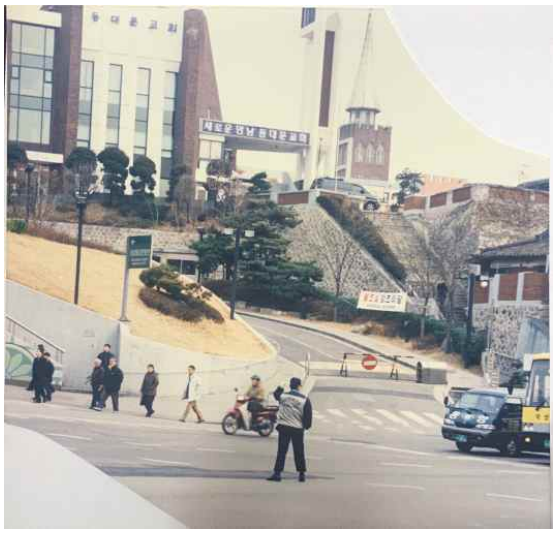
의상주문서(비전자기록): 텍스트수집



태극라사 의상주문서(비전자기록): 텍스트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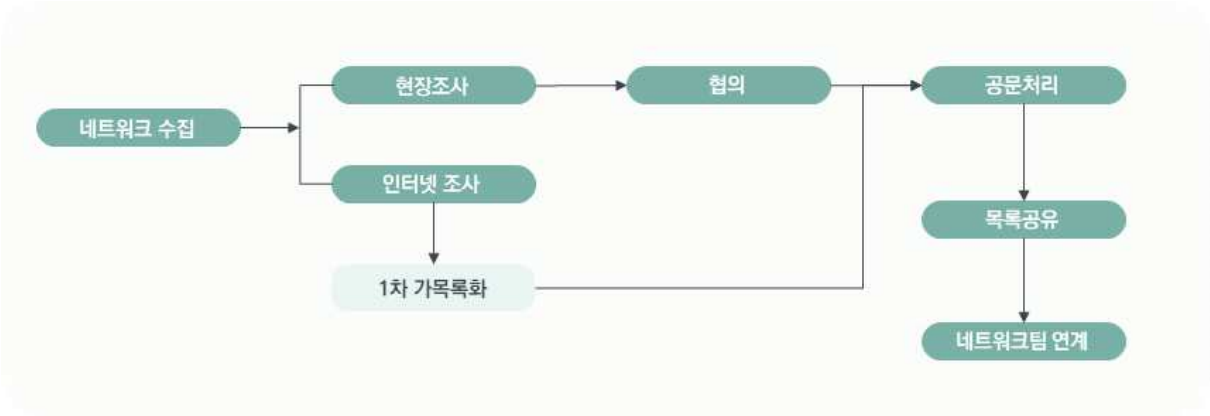
‘2017년 마지막 수요시위와 소녀상’ 이미지 수집



동대문 교회(현 한양도성박물관) 전경 이미지 수집

수집실행: 네트워크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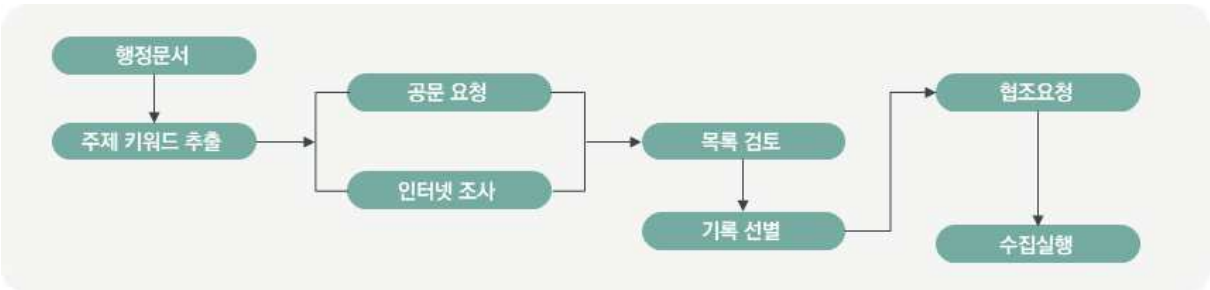
네트워크 수집은 사본수집보다는 기록 소장처 식별에 중점을 두며, 목록수집(공유)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우선 네트워크 수집은 현장 조사를 통한 수집과 인터넷 조사를 통한 수집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주요 대상 기관은 협치기관, 민간기관, 공공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네트워크 수집은 수집팀과 서울기록원 담당자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래 그림은 협치·민간기관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수집 절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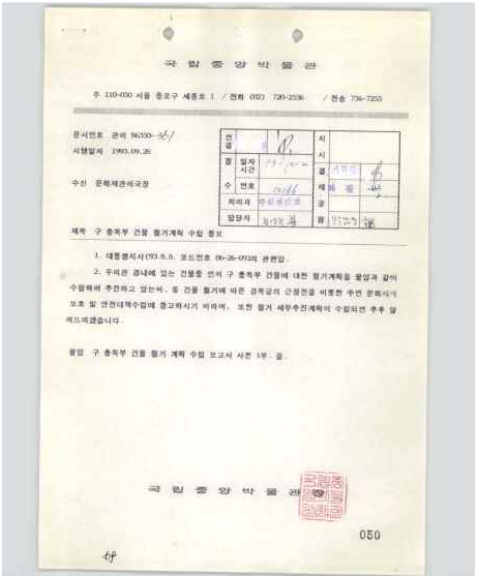


현장 조사를 통한 네트워크 수집은 수집대상자 식별을 진행하여 협의 과정을 거친 후, 공문처리를 통해 목록을 공유한다. 네트워크 수집은 수집팀과 서울기록원 수집담당자의 업무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 협의와 공문처리 과정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협의 내용의 누락 및 공문발송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네트워크 수집 대상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 때문에 수집팀과 서울기록원 수집담당자가 현장조사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수집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집대상자를 네트워크 대상으로 연계하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수집대상자로 하여금 신뢰감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터넷 조사를 통한 네트워크 수집은 주로 공공기관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서사를 기반으로 한 키워드를 추출한다. 국가기록원,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등 원문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키워드를 활용하여 기록조사를 진행하고 1차 가목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한 목록은 공문을 통해 목록 혹은 사본 공유의 형식으로 수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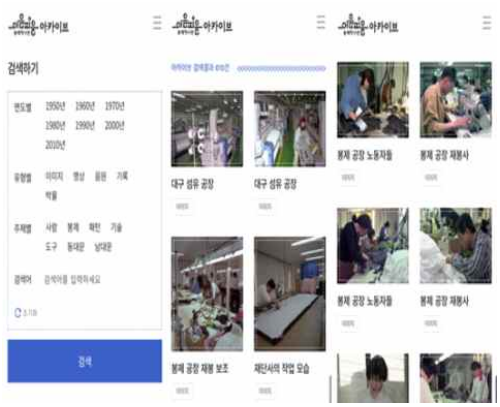
한편, 행정기록 수집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네트워크 수집이 진행된다.





구 총독부 건물 철거계획 수립 통보. 문화재청

행정기록 수집은 주로 네트워크 수집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 먼저 서사를 기반으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공문요청과 인터넷 조사를 통해 목록을 입수하거나 1차 가목록을 작성한다. 입수하거나 작성된 가목록은 서사와의 적합성, 가치, 민간기록의 수집결과를 고려하여 선별을 진행한다. 최종 선별된 목록은 다시 공문을 통해 수집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목록을 최종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행정기록 수집은 기관 대 기관으로 서울기록원의 수집사업을 소개하고 소장기록을 공유하는 것으로, 민간영역보다 수집 동의 및 설득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외부 수집팀이 공공기관에 접촉하여 수집을 진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기록원 수집 담당자와 유기적은 협력하에 행정기록 수집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네트워크 수집

네트워크 수집과정에서 형성된 '관계'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능으로 연계시켜 기록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협력할 네트워크 대상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할 수 있는 수집 방법이다.

4. 수집결과 정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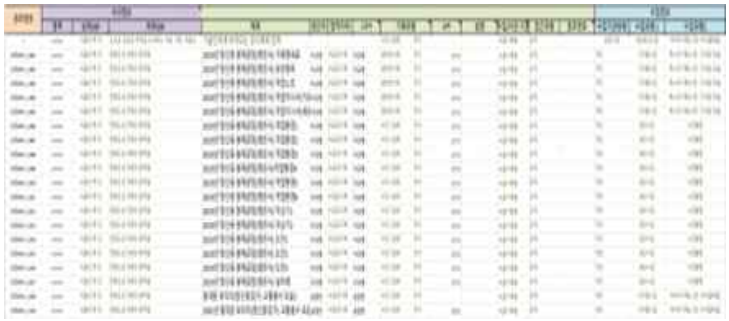
수집 결과를 정리하여 2차 가치평가를 거친 후, 수집대상자에게 공동이용증서를 교환하고 수집업무를 종결짓는 단계이다. 또한, 서사에 기반을 둔 기록물 정리 및 목록화 후, '하위 S-NAP'의 보완작업을 수행한다. 입고 과정에서는 수집 결과물이 디지털 사본이기 때문에 별도의 물리적 점검은 필요치 않으나, 입고 시 데이터 오류, 바이러스 체크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서울기록원이 중심이 되어 가치평가와 공동이용증서 교환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집팀은 서울기록원과 수집과정에서의 맥락정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거친 후, 문서화해서 전달해야 한다.



절차명	업무정의	세부절차
1차 정리 및 보완	• 수집결과물을 정리하고 하위 S-NAP에 대한 보완의견을 전달하는 업무임. • 서사에 기반한 결과물을 정리하고, 전개상 필요시 보안수집으로 연계하여 수집을 실행함	• 기록물 정리 및 목록화 • 서사 보완 및 수집결과 정리
수집결과 전달 및 평가	• 서울기록원에 수집 객체와 수집목록을 전달하여 가치평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 가치 평가 후, 필요시 보안수집으로 연계하여 수집을 실행함	• 수집결과 전달(입수) 및 확인 • 가치평가(2차)
공동이용증서 교환	• 수집이 확정된 기록에 대하여 수집대상자와 공동이용증서를 교환하는 업무	• 목록 최종 확인 및 공동이용증서 교환

1차 정리 및 보완

현장 수집실행이 완료되면 수집내용 및 관련 결과물을 정리한다. 정리는 1) 수집객체의 정리와 2) 수집과정에서 생산된 맥락기록 정리, 3) 서사에 기반한 수집결과보기 정리까지를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는 정리팀, 수집팀, 콘텐츠팀(작사, 감독 외)이 함께 협업한다.



수집정리 목록기술 (예시)

첫째, 수집객체 정리이다. 정리팀은 수집객체를 서사 기반의 분류에 따라 배치하고 목록화를 진행한다. 이때 서울기록원의 SDA를 통해 직접 수집객체를 업로드하여 정리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현실성을 감안하여 내부 클라우드를 통해 수집정리 상황을 공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정리팀은 수집 활동을 진행하기 않았기 때문에 수집팀은 상시적으로 분류매핑, 수집파일명, 기술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록물 기술 시 수집과정에서 획득하지 못한 정보는 수집대상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기록설명을 듣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후, 정리팀이 사용하는 내부 클라우드는 수집이 완료되면 반드시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수집정리 목록기술요소는 아래와 같다.

관리 번호	서사정보													수집정보		
	영역	상위SNAP	하위SNAP	제목	생산자	법적지위	소장처	기록유형		날짜	설명	수집/이관 기관	접근 유형	참조 번호	수집기관 유형	수집 유형1	수집 유형2

수집목록 서식

둘째, 수집과정에서 생산된 맥락기록 정리이다. 맥락기록은 수집활동기록, 다큐제작 원소스, 구술생산에 따른 관리기록을 말한다. 먼저 수집활동기록은 수집대상자의 정보와 수집활동을 축적한 리드/케이스파일 등이 대표적이다. 수집팀은 수집대상 조사단계에서 1차 작성된 리드/케이스파일에 수집 활동 과정에서 획득된 정보를 수정 및 보완한다. 일부 리드는 수집이 완료 이후, 종료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리드들은 네트워크 대상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다큐팀에서 생산한 다큐 원소스 및 촬영 사진 등의 과정기록도 수집·정리한다. 이때 다큐팀이 기록을 바라보는 관점이 활용중심으로 수집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사전에 다큐팀에게 남겨야 할 기록을 고지하고, 정리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하여 맥락기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구술생산 기록의 정리이다. 구술생산에 따른 발생 기록은 영상, 음성, 질문지, 녹취문, 구술증언주요정보, 면담후기, 비공개검토서, 구술동의 및 활용동의서 등이 있다. 구술은 영상 또는 음성으로 생산될 수 있는데 영상으로 촬영할 경우, 이후 영상 훼손이나 기타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책으로 반드시 음원 파일을 별도로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구술생산 전에 구술동의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수집과 구술이 동시에 병행된 경우에는 '공동이용증서'에 구술동의 및 활용 동의의 항목을 삽입하여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 녹취록은 수집팀의 예산 및 수집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수집과정에서 생산된 맥락기록은 수집객체와 구분하여 별도 분류관리, 목록화한다. 구술생산에 따른 맥락기록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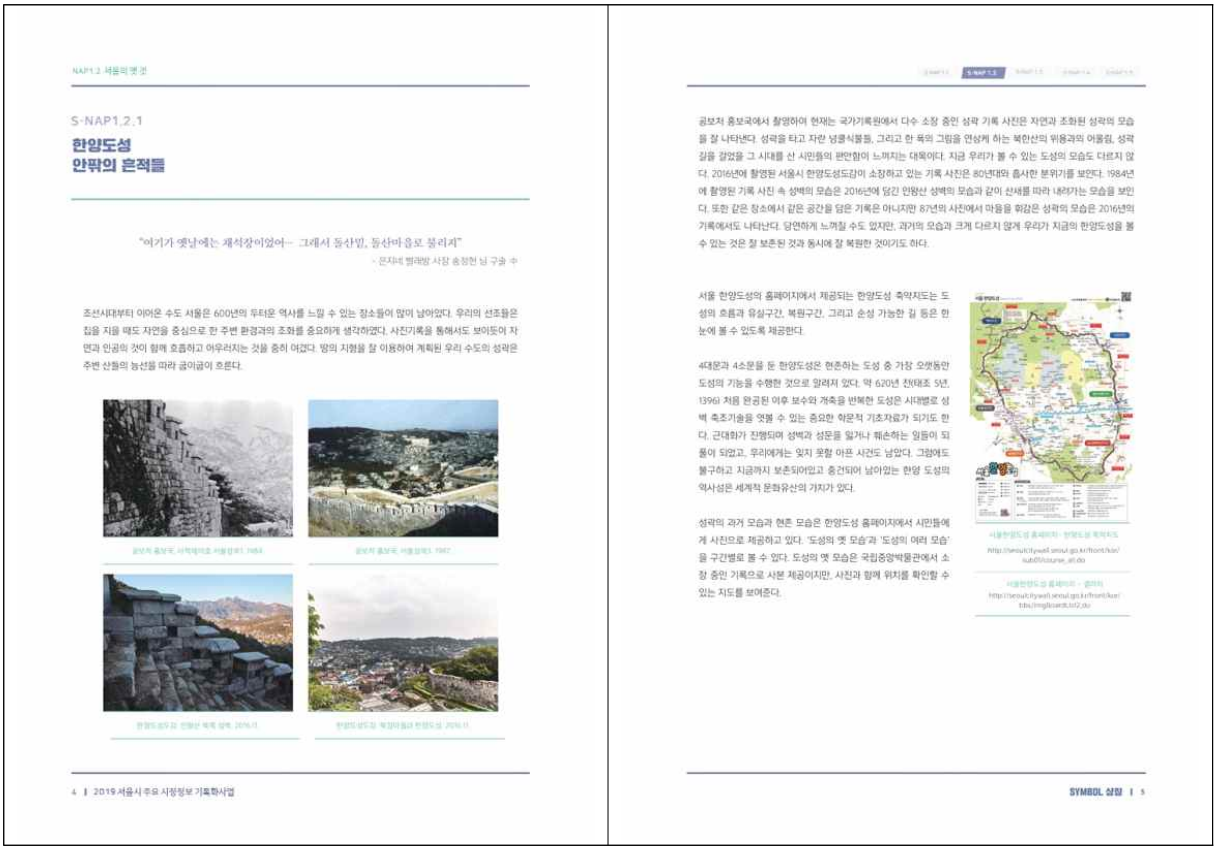
1) 구술영상(영상원본, 서비스용)
2) 구술음성(원본음성, 서비스용)
3) 질문지
4) 녹취문
5) 구술증언주요정보
6) 면담후기
7) 비공개검토서
8) 구술동의 및 활용 동의서



구술서비스 영상(예시)

1) 수집객체 정리와 2) 수집과정에서 생산된 맥락기록정리에서는 '하위 S-NAP'에 대한 수정보완과정을 거친다. 이 단계에서는 서사에 기반을 둔 기록물 정리 및 목록화 후, '하위 S-NAP'의 보완작업을 수행한다. 실제 기록물 수집 결과와 '하위 S-NAP'와의 내용적 일치성과 현장성을 고려하여 '하위 S-NAP'에 대한 세부 수정의견을 도출한다. 도출된 수정의견은 S-NAP 관리팀에 전달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수정된 '하위 S-NAP'를 근거로 필요에 따라 보완수집을 진행한다.

셋째, 서사기반 수집결과보기 정리이다. 서사기반 수집결과보기는 단일한 생산맥락 만을 수 쫓는 수집결과물의 한계를 넘어서 기록으로 포착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서사를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보기, 분류형 아카이브 보기' 형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수집된 객체로 채워질 수 없는 이면의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서사기반 수집결과보기는 서사형 수집의 결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기록연구자 이상의 다양한 이용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며, 기록으로 포착할 수 없는 다양한 층위의 서사를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기반 수집결과보기 정리는 수집팀, 작가, 다큐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는 '하위 S-NAP'를 기반으로 수집객체를 서사에 매칭하여 기록과 기록에 관련된 상황(시대적, 예술적 의미) 등을 글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서사기반 수집의 특징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방법으로 다량의 수집기록 중 핵심기록을 선별하여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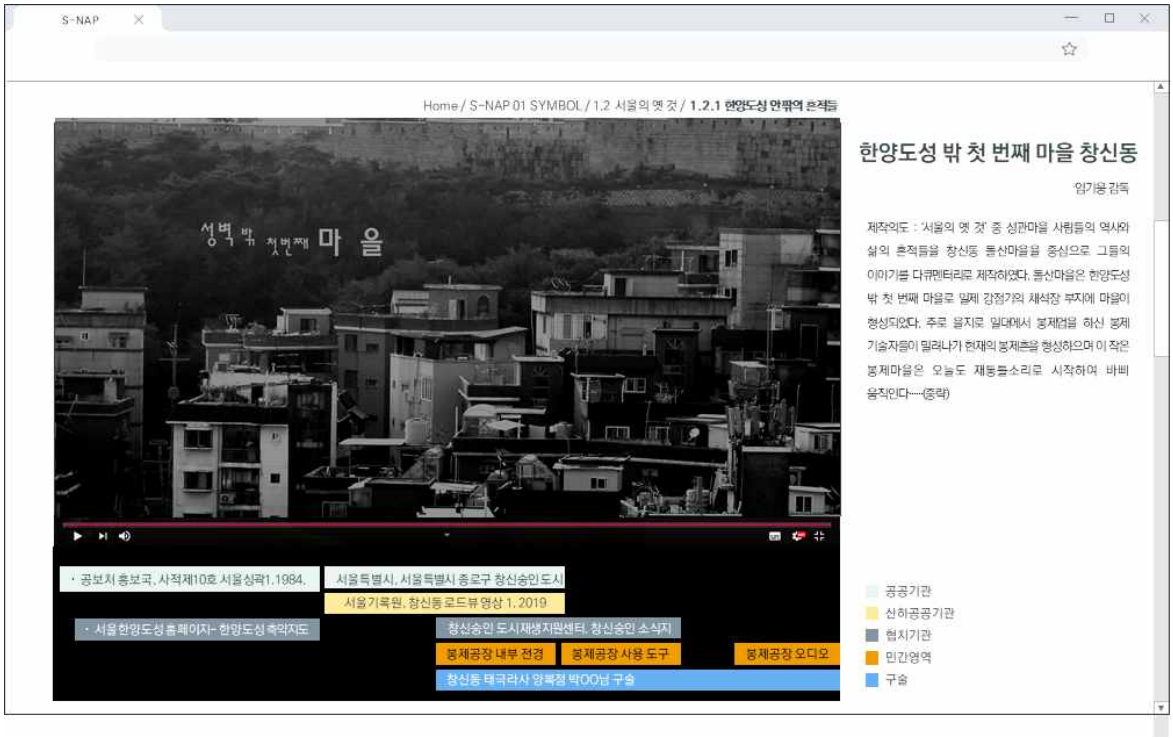


'한양도성 안팎의 흔적들'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예시)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보기는 기록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을 다큐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수집기록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으며, 아카이브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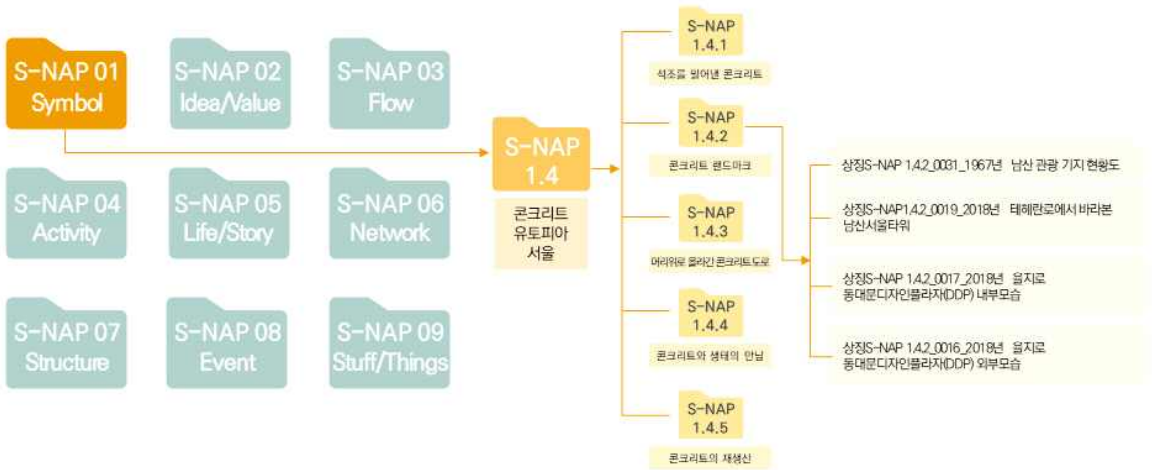
1) 아카이브가 수집한 기록을 활용하여 그 안에 숨겨진 서사 전달(서사기반의 촬영진행)
2) 다큐멘터리가 갖는 현장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
3)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의 원 기록도 기록화 대상으로 포착 가능

수집 결과물로서의 다큐멘터리는 서사를 기반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콘텐츠이기도 하지만, 주된 역할은 수집객체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즉, 다큐멘터리는 확장과 축소를 통해 바로 콘텐츠로 활용할 수도 있는 '준콘텐츠'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다큐멘터리의 역할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보기 방식은 아래와 같이 다큐멘터리와 관련된 수집기록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한양도성 안팎의 흔적들'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보기: 한양도성 밖 첫 번째 마을 창신동(예시)

분류형 아카이브 보기는 일반적으로 기록학에서의 정리방식이다. 정리팀에서 서사를 기반으로 정리된 수집객체를 대상으로 분류명을 확정한다. 이 방식은 서사를 기반으로 한 주제별 분류 트리로 수집된 수집객체를 볼 수 있다.



상징 영역의 분류형 아카이브 보기 (예시)

수집결과 전달(입수) 및 평가(2차)

수집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수집팀은 수집객체와 수집목록을 서울기록원에 전달한다. 수집팀과 서울기록원 담당자는 수집 결과물의 입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영역별 혹은 주제별로 일부 수집이 완료된 순으로 수집 결과물을 입수할 것인지, 해당 수집 전체가 완료되고 수집 결과물을 입수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 진행이 필요하다. 이는 수집대상자의 상황이나 활용 가능성, 수집팀의 일정 등을 염두 하여 결정하고, 입수 일정은 양자가 모두 수행 가능한 기간과 일자로 합의한다. 서울기록원은 수집담당자는 입수 관련 합의 내용을 서식을 통해 정리한다. 서울기록원은 입수 받을 전자 스토리지의 규모, 상태, 필요자원 등 입수환경을 점검한다. 수집팀은 수집 결과물이 입수된 이후에도 수집과정에서의 이슈나 가치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은 충분히 서울기록원에 설명한다. 수집 결과물 입수는 서울기록원의 SDA 혹은 외부 저장장치를 통해 전달한다.

* 관리번호		* 입수처	
* 인계자			
* 인수자			
* 입수일정			
* 입수방식			
* 입수수량 및 규모			
주요 유형			
주기			

입수계획서 서식

서울기록원은 입수된 수집 결과물에 대해 상태평가를 한다. 수집목록과 수집객체를 대조하여 메타데이터 오류, 바이러스 검사 등 품질 검사를 수행한다. 인수 시 1차 검사를 하고, 일정 기간 격리보관 후에 2차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한다. 또한, 목록과 수집객체의 일치 여부, 내용적 일치성도 검수한다. 서울기록원 수집담당자는 품질 검사 및 검수 과정에서 미비 사항 또는 오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수집팀에 즉시 통보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수집 결과물의 입수 후, 서울기록원 수집담당자는 가치평가를 한다. 평가 기준은 서울기록원의 사명과 목적, 지역 대표성과 향토자료로서 가치, 수집 이후의 전시, 연구 기타 활용 가치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서사와의 정합성과 상징성 등도 고려한다. 가치평가는 수집기록 평가서를 통해 문서화한다. 수집기록평가서에는 가치기준평가표에 따른 평가 외에 소장자의 이름, 유형, 연락처,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과 활동연혁을 기재하고 접촉 경과와 기록의 명칭, 보관상태, 기록에 관한 분석 정보, 기록의 범주와 물리적 상태, 수집 시의 유의사항, 최초작성시기와 최종 갱신 시기 및 주기를 기재한다. 평가표의 기록평가기준은 기록 가치, 전시 가치, 연구가 치, 창작 소재적 가치, 교육 가치, 상징적 가치로 여섯 개의 항목이다. 기록의 가치 항목은 서울기록원의 사명과 목적, 수집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서울기록원의 사명과 목적 부합 여부는 기록으로서의 가치, 전시적 가치, 연구적 가치, 창작 소재적 가치, 교육 가치, 상징적 가치(서사와의 적합성)를 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록 소장자가 생각하고 있는 기록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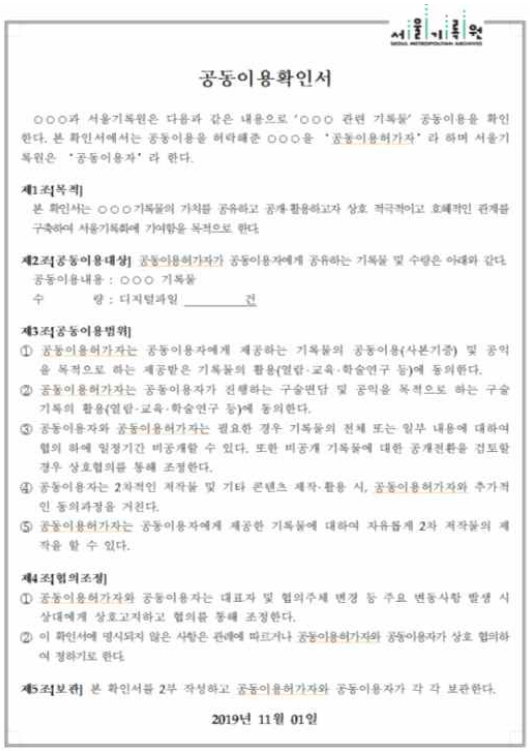
<table>
<tr><td>* 관리번호</td><td></td><td>* 소장자</td><td></td><td>* 유형</td><td>☐ 개인 ☐ 민간
☐ 공공 ☐ 협치</td></tr>
<tr><td>* 연락정보</td><td></td><td>* 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홈페이지</td><td colspan="2"></td><td>* 이메일</td><td colspan="2"></td></tr>
<tr><td>연관정보</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 활동연혁</td><td>생몰연도</td><td colspan="4">-</td></tr>
<tr><td>주활동지역</td><td colspan="4">-</td></tr>
<tr><td>주요활동</td><td colspan="4">-</td></tr>
<tr><td>접촉경과</td><td colspan="5"></td></tr>
<tr><td>* 소장기록</td><td colspan="5"></td></tr>
<tr><td>* 기록보관상태</td><td colspan="5"></td></tr>
<tr><td>* 소장기록 분석</td><td colspan="5"></td></tr>
<tr><td>* 수집대상 기록범주</td><td colspan="5">-</td></tr>
<tr><td>수집대상 기록 물리적 상태</td><td colspan="5">-</td></tr>
<tr><td>* 기록평가</td><td colspan="5">-
<table>
<tr><td>가치기준</td><td>매우 높음</td><td>높음</td><td>보통</td><td>낮음</td></tr>
<tr><td>기록가치</td><td></td><td></td><td></td><td></td></tr>
<tr><td>전시가치</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가치</td><td></td><td></td><td></td><td></td></tr>
<tr><td>창작소재적 가치</td><td></td><td></td><td></td><td></td></tr>
<tr><td>교육가치</td><td></td><td></td><td></td><td></td></tr>
<tr><td>상징적 가치(서사와 적합성)</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 수집시 유의사항</td><td colspan="5">-</td></tr>
<tr><td>* 최초작성</td><td colspan="5">-</td></tr>
<tr><td>* 최종갱신</td><td colspan="5">-</td></tr>
<tr><td>주기</td><td colspan="5">-</td></tr>
</table>

수집기록 평가서 양식

공동이용증서 교환

서울기록원 수집담당자는 수집기록의 평가가 완료되면 기록소장자(공유자)와 공동이용을 위한 '공동이용확인서' 및 '공용이용증서'의 교환 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위한 서울기록원은 공동이용 확인을 위한 핵심사항을 확인한다. 공동이용증서를 작성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기록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2) 구술이 진행되었을 경우, 구술동의 및 활용 동의 항목이 포함 되었는가
3) 저작자(원소장자)의 비공개 요청에 대한 조정 및 협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4) 저작자(원소장자)의 활용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가
5) 2차적 활용에 대한 협의 및 조정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서울기록원

공동이용확인서

○○○과 서울기록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 관련 기록물' 공동이용을 확인한다. 본 확인서에서는 공동이용을 허락해준 ○○○을 '공동이용허가자'라 하며 서울기록원은 '공동이용자'라 한다.

제1조[목적]
본 확인서는 ○○○기록물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개·활용하고자 상호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서울기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대상] 공동이용허가자가 공동이용자에게 공유하는 기록물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공동이용내용 : ○○○ 기록물
수 량 : 디지털파일 _____건

제3조[공동이용범위]
① 공동이용허가자는 공동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록물의 공동이용(사본기증)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공받은 기록물의 활용(열람·교육·학술연구 등)에 동의한다.
② 공동이용허가자는 공동이용자가 진행하는 구술면담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구술기록의 활용(열람·교육·학술연구 등)에 동의한다.
③ 공동이용자와 공동이용허가자는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협의 하에 일정기간 비공개할 수 있다. 또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공개전환을 검토할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④ 공동이용자는 2차적인 저작물 및 기타 콘텐츠 제작·활용 시, 공동이용허가자와 추가적인 동의과정을 거친다.
⑤ 공동이용허가자는 공동이용자에게 제공한 기록물에 대하여 자유롭게 2차 저작물의 제작을 할 수 있다.

제4조[협의조정]
① 공동이용허가자와 공동이용자는 대표자 및 협의주체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 발생 시 상대에게 상호고지하고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② 이 확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거나 공동이용허가자와 공동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5조[보관] 본 확인서를 2부 작성하고 공동이용허가자와 공동이용자가 각 각 보관한다.

2019년 11월 01일

기록 공동이용확인서 서식

'공동이용확인서' 및 '공용이용증서' 작성이 완료되면 수집대상자와 연락하여 증서교환 일정 등을 협의한다. 이때 서울기록원 담당자가 수집대상자와 첫 대면일 경우 수집팀 담당자가 증서교환 일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수집팀과의 일정도 조율한다. 수집대상자와의 수집 일정 조율 시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공유내용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드린다. 수집대상자가 생산기록 혹은 목록의 공유를 요청할 시에는 증서에 이를 표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수집대상자와의 증서 교환을 마지막으로 수집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 수집대상자와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서울기록원은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수집대상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수집관련 업무서식

[부록 1] 수집 소개자료

서울기록 수집 협조요청

주관 :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수행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사업 개요

○ **사업명** :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

○ **사업기간** : 2019.07~2019.11

【 서울기록원 수집사업 개요 】

◈ 2017년 수집사업 :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개발사업(1단계)
서울기록 수집 및 콘텐츠 개발 사업(2단계)

◈ 2018년 수집사업 :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 사업(3단계)

◈ 2019년 수집사업 :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4단계)

【서울기록원 연혁】
○ 2007.12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 2012. 9월: 정보공개정책과 신설
○ 2013. 8월: 「서울기록원」 건립 타당성 조사 완료
○ 2014. 1월: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2015. 1월: 정보공개정책과 내 전담팀 신설(기록문화팀)
○ 2016. 5월: 「서울기록원」 기공식
○ 2017. 9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서울기록원 조직 명문화
○ 2018. 1월: 「서울기록원」 조직 정식 출범
○ 2019. 5월: 「서울기록원」 개관

□ 추진 배경

ㅇ **(목적)** 서울기록원이 서울시의 공공아카이브로서 **서울과 서울시민의 기억을 모아 서울의 역사를 남기기 위함**

ㅇ 시민들의 기억을 모아 서울의 **역사 퍼즐**을 맞춰가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기록화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역사를 남기기 위함

ㅇ 서울에서 활동하고 운영되고 있는 개인·단체·공공기관들의 수집활동을 존중하고, 그들의 기록물을 남김으로써 서울의 다양한 민간·공공 기록들의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고 오래 기억하기 위함

□ 시기 및 대상

ㅇ 조사 및 수집 시기: 2019. 09. 01 ~ 2019. 11. 05
ㅇ 수집대상
1) 서울과 함께 역사와 맥을 함께한 서울 시민과 민간(협치)단체
2) 서울의 역사적 행정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공공기관

□ 조사 및 수집 내용

ㅇ 서울과 서울시민의 기억이란 시민의 **삶이 담긴 기록**. 일기나 사진, 동영상 혹은 기억의 흔적을 간직한 물건 등을 의미함

ㅇ 일방적·물리적으로 시민의 기억과 기록을 모으기보다, **기억과 기록을 모으는 활동**을 수집하고자 함. 서울에 대한 기록이 어디서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 활동들과 함께 상생하고자 함

- **(기록콘텐츠)** 시민의 기억을 보존하고 **스토리**를 구성해 컬렉션을 만들어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서비스

ㅇ 2019년 수집주제는 서울을 상징하는 4개의 영역에서 우선 수집을 진행하고자 함

- 서울의 옛것
  1)한양도성 안팎의 흔적들
  2)뉴트로 감성과 추억을 선사하는 다방, 극장, 이발소
  3)기억해야 하는 서울의 옛 것을 전승하는 장인들

- 콘트리트 '유토피아' 서울
  1)석조를 밀어낸 콘크리트
  2)콘크리트 랜드마크
  3)머리위로 올라간 콘크리트 도로
  4)콘크리트와 생태의 만남
  5)콘크리트의 재생산

-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1)지배 이데올로기의 표상, 이순신 동상
  2)소녀상을 통해 응집된 기억

- 광장의 외침:
  1)마로니에 공원의 자성과 문화적 열망
  2)희망의 외침, 광화문 광장
  3)장충단공원의 명과 암
  4)군사광장에서 시민광장이 된 여의도공원

□ 협조요청 사항

ㅇ 서울을 기록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록 주체들과 협력하고, **기록 활동을 하시는 분 또는 단체**와 연대하여 **서울기록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함. 이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되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기록문화 저변을 함께 넓혀가길 고대**

ㅇ 서울기록원은 시민들이 기록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며, 활동이 끝나더라도 모든 기록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것임

ㅇ 이러한 서울기록원의 활동에 함께 동참해주셔서 서울을 표상하는 다양한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고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희망

첨부1 서울기록원 비전 및 목표



서울기록원 비전 및 목표

첨부2 서울기록원 기록화수집 계획

서울기록화(수집) 1/2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전반의 기록화/ 서울기록(시정기록과 민간기록)의 체계적 수집과 축적

시정·민간기록의 맥락 연결 및 조직화하여 카탈로그 및 리서치가이드를 통해 웹에서 서비스

2019년 사업계획

- **기록활동 발굴 및 특별수집**
  - 서울의 공공·협치·민간영역별 기록활동 조사 및 면담
  - 특별수집 대상 선정·수집 및 민간기록기증이벤트
- **수집기록물 정리기술/ 아카이빙북 출판**
  - '18~'19년 수집기록물 물리적 정리 (목록작성, 관리번호 부여, 서가배치 등)
  - 수집기록 및 활동의 내용을 담은 아카이빙북 출판
- **추진일정**
  - 계획수립 및 사업자 선정 4월~5월
  - 조사/면담/기록수집/정리기술 6월~9월
  - 아카이빙 북 출판 9월~10월
- **소요예산 : 220백만원**

업무 흐름도



서울기록원 기록화수집 계획(1)

서울기록화(수집) 2/2

'시민기록 네트워크 수집을 통한 서울기록화'

기록 자체보다 자생적 기록 '활동 ' 에 집중하다.
⇨ Archives 보다 Archiving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 연대와 협력적 관점에서의 끊임없는 고민과 도전



서울기록원 기록화수집 계획(2)

[별지 제1호 서식] 현지조사보고서

현지조사보고서

관리번호		사업명	
조사대상			
일 시		조사장소	
조사자			
조사 주제			
조사 내용			
주기			
향후 계획			

[별지 제2호 서식] 리드/케이스

리드/케이스 정보

* 관리번호		* 리드명		* 유형	□ 공공 □ 민간 □ 협치 □ 개인
* 연락정보		* 주 소			
홈페이지			* 이메일		
연관정보					
* 리드상태	□잠재적수집대상자 □수집대상자 □기증예정자 □기증자 □기탁예정자 □기탁자 □매도예정자 □매도자 □관련 리드 소개 □기타( )				
* 활동연혁	생몰연도	-			
	주활동지역	-			
	주요활동	-			
* 수집대상자료					
수집대상자료 상태					
* 주요수집출처			주요생산시기		
* 접촉일시			* 조사자		
* 접촉경과	-				
참고자료 (첨부파일)	-				
* 최초작성	-				
* 최종갱신	-				
주기	-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이용확인서(구술동의 포함)

공동이용확인서

○○○과 서울기록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 관련 기록물' 공동이용을 확인한다. 본 확인서에서는 공동이용을 허락해준 ○○○을 '공동이용허가자' 라 하며 서울기록원은 '공동이용자' 라 한다.

제1조[목적]

본 확인서는 ○○○기록물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개·활용하고자 상호 적극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서울기록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의]

① 공동이용허가자는 공동이용자에게 제공하는 '○○○ 기록물' 사본의 공동이용 및 활용에 동의한다.

② 공동이용허가자는 공동이용자가 진행하는 구술면담 및 구술기록 활용에 동의한다.

제3조[공동이용대상] 공동이용허가자와 공동이용자가 공유하는 기록물 및 형태·수량은 아래와 같다.

공동이용내용 : '○○○ 기록물' 사본 및 구술기록

형태 및 수량 : 디지털파일 _____건

제4조[공동이용범위]

① 공동이용허가자와 공동이용자는 '○○○ 기록물' 사본 및 구술기록에 대하여 양측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 기록물' 사본의 열람·교육·학술연구 등의 활용
2. '○○○ 기록물'과 관련하여 생산한 구술기록의 열람·교육·학술연구 등의 활용

② 공동이용허가자와 공동이용자는 '○○○ 기록물' 사본 및 구술기록을 이용하여 2차적인 저작물 및 기타콘텐츠 제작 시 상호 동의과정을 거친다.

제5조[협의조정]

① 공동이용허가자와 공동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에 일정기간 비공개할 수 있으며, 비공개 기록물을 공개할 경우 협의·검토하여 정한다.

② 공동이용허가자와 공동이용자는 대표자 및 협의주체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 발생 시 상호 고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 확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거나 공동이용허가자와 공동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보관] 본 확인서를 2부 작성하고 공동이용허가자와 공동이용자가 각 각 보관한다.

2019년 00월 00일

○ ○ ○	서울기록원
대 표 ○ ○ ○	원 장 조 영 삼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이용확인서(구술동의 비포함)

공동이용확인서

○○○과 서울기록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 관련 기록물' 공동이용을 확인한다. 본 확인서에서는 공동이용을 허락해준 ○○○을 '공동이용허가자' 라 하며 서울기록원은 '공동이용자' 라 한다.

제1조[목적]

본 확인서는 ○○○기록물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개·활용하고자 상호 적극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서울기록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의]

공동이용허가자는 공동이용자에게 제공하는 '○○○ 기록물' 사본의 공동이용 및 활용에 동의한다.

제3조[공동이용대상] 공동이용허가자와 공동이용자가 공유하는 기록물 및 형태·수량은 아래와 같다.

공동이용내용 : '○○○ 기록물' 사본

형태 및 수량 : 디지털파일 _____건

제4조[공동이용범위]

① 공동이용허가자와 공동이용자는 '○○○ 기록물' 사본에 대하여 양측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 기록물' 사본의 열람·교육·학술연구 등의 활용

② 공동이용허가자와 공동이용자는 '○○○ 기록물' 사본을 이용하여 2차적인 저작물 및 기타 콘텐츠 제작 시 상호 동의과정을 거친다.

제5조[협의조정]

① 공동이용허가자와 공동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에 일정기간 비공개할 수 있으며, 비공개 기록물을 공개할 경우 협의·검토하여 정한다.

② 공동이용허가자와 공동이용자는 대표자 및 협의주체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 발생 시 상호 고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 확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거나 공동이용허가자와 공동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보관] 본 확인서를 2부 작성하고 공동이용허가자와 공동이용자가 각 각 보관한다.

2019년 00월 00일

○ ○ ○	서울기록원
대 표 ○ ○ ○	원 장 조 영 삼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이용증서

공 동 이 용 증 서

서울기록원에 다음과 같은 기록물을 공유합니다.

1. 공 유 일 : 2019. 00. 00.
2. 공유내용 : 0000 기록물

서울과 서울시민의 기억을 모아 연구, 교육, 콘텐츠 개발의 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라며 공유합니다.

2019년 00월 00일

공유자 000 (인)

이용자 서울기록원 (인)

[별지 제6호 서식] 구술 질문지

○○○ 구술자 질문지

관리번호	상징 S-NAP○.○_○ ○ ○_03_질문지		
구술자 명	○ ○ ○	면담자	○ ○ ○

본 구술은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과 서울 시민을 기억하는 주요 인물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생애, 업적, 견해 등을 구술, 영상화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영구히 보전되어 현시대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물려 줄 우리의 소중한 서울기록 자원이 될 것입니다.

본 구술 일시는 2019년 ○○월 ○○일 ○요일, 촬영 장소는 ○○○입니다. 구술자는 ○○○, 면담자는 ○○○입니다. 그럼 이제 구술을 시작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7호 서식] 구술 비공개검토서

○○○ 구술자료 비공개 내역서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			구술자	○○○	
순번	영상(원본)			사유	비공개 기간
	파일명	시작 (시:분:초)	마침 (시:분:초)		

[별지 제8호 서식] 구술 증언주요 정보

구술증언 주요 정보

<table>
<tr><td>구술자 이름</td><td colspan="3">(한글)</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d>생년월일</td><td>(음력/양력)</td></tr>
<tr><td rowspan="2">구술사유</td><td colspan="3" rowspan="2"></td><td>출생지(고향)</td><td></td></tr>
<tr><td>주요활동시기</td><td></td></tr>
<tr><td>현재상황</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구술횟수
및 일시</td><td>1회</td><td>0000년 00월 00일</td><td>구술시간</td><td colspan="2">1회 00:00:00</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구술자
활동 관련
주요사항</td><td>시기</td><td colspan="4">주요 내용</td></tr>
<tr><td></td><td colspan="4"></td></tr>
<tr><td></td><td colspan="4"></td></tr>
<tr><td></td><td colspan="4"></td></tr>
<tr><td></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 면담자 신상정보(이름, 연락처 등)</td></tr>
<tr><td>이름</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소속</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면담일지
공개여부</td><td colspan="5">☐ 공개 ☐ 비공개 ☐ 기타 조건부 공개( )</td></tr>
</table>

[별지 제9호 서식] 면담 후기

면 담 후 기

과제명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		
구술자			면담자	
면담 참여인		촬영 :	참여 :	
면담 일시 장소	횟수	일 시	장 소	
	1			
면담일지 공개여부		□ 공개 □ 비공개 □ 연구자들에 한하여 공개		

1) 구술 현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평가

2) 구술 내용의 특이성

3) 향후 보완사항

[별지 제10호 서식] 수집목록 요소

수집목록

관리번호	서사정보			기록정보										수집정보		
	영역	상위S-NAP	하위S-NAP	제목	생산자	법적지위	소장처	기록유형		날짜	설명	수집/이관 기관	접근 유형	참조 번호	수집기관 유형	수집 유형1	수집 유형2

[별지 제11호 서식] 입수 계획서

입수계획서

* 관리번호		* 입수처	
* 인계자			
* 인수자			
* 입수일정			
* 입수방식			
* 입수수량 및 규모			
주요 유형			
주기			

[별지 제12호 서식] 수집기록 평가서

수집기록 평가서

<table>
<tr><td>* 관리번호</td><td></td><td>* 소장자</td><td></td><td>* 유형</td><td>☐ 개인 ☐ 민간
☐ 공공 ☐ 협치</td></tr>
<tr><td>* 연락정보</td><td></td><td>* 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홈페이지</td><td colspan="2"></td><td>* 이메일</td><td colspan="2"></td></tr>
<tr><td>연관정보</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 활동연혁</td><td>생몰연도</td><td colspan="4">-</td></tr>
<tr><td>주활동지역</td><td colspan="4">-</td></tr>
<tr><td>주요활동</td><td colspan="4">-</td></tr>
<tr><td>접촉경과</td><td colspan="5"></td></tr>
<tr><td>* 소장기록</td><td colspan="5"></td></tr>
<tr><td>* 기록보관상태</td><td colspan="5"></td></tr>
<tr><td>* 소장기록 분석</td><td colspan="5"></td></tr>
<tr><td>* 수집대상 기록범주</td><td colspan="5">-</td></tr>
<tr><td>수집대상 기록 물리적 상태</td><td colspan="5">-</td></tr>
<tr><td>* 기록평가</td><td colspan="5">-
<table>
<tr><td>가치기준</td><td>매우 높음</td><td>높음</td><td>보통</td><td>낮음</td></tr>
<tr><td>기록가치</td><td></td><td></td><td></td><td></td></tr>
<tr><td>전시가치</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가치</td><td></td><td></td><td></td><td></td></tr>
<tr><td>창작소재적 가치</td><td></td><td></td><td></td><td></td></tr>
<tr><td>교육가치</td><td></td><td></td><td></td><td></td></tr>
<tr><td>상징적 가치(서사와 적합성)</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 수집시 유의사항</td><td colspan="5">-</td></tr>
<tr><td>* 최초작성</td><td colspan="5">-</td></tr>
<tr><td>* 최종갱신</td><td colspan="5">-</td></tr>
<tr><td>주기</td><td colspan="5">-</td></tr>
</table>

2.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상징 Symbol

S-NAP 1.2. 서울의 옛것

S-NAP 1.2.1 한양도성 안팎의 흔적들

“ 여기가 옛날에는 채석장이었어 … 그래서 돌산밑, 돌산마을로 불리지”

- 은지네 빨래방 사장 송정헌 님 구술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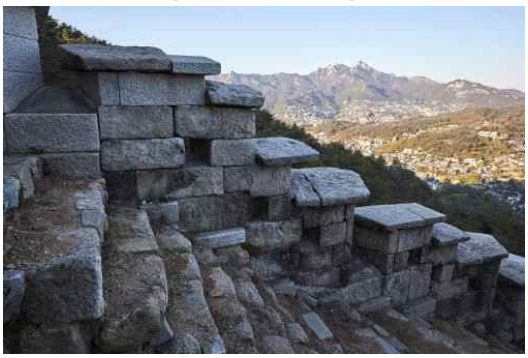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수도 서울은 600년의 두터운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의 선조들은 집을 지을 때도 자연을 중심으로 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사진기록을 통해서도 보이듯이 자연과 인공의 것이 함께 호흡하고 어우러지는 것을 중히 여겼다. 땅의 지형을 잘 이용하여 계획된 우리 수도의 성곽은 주변 산들의 능선을 따라 굽이굽이 흐른다.



공보처 홍보국. 사적 제10호 서울성곽1.1984.
[출처 :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서울성곽3.1978.
[출처 : 국가기록원]



한양도성도감. 인왕산 북쪽 성벽. 2016.11.



한양도성도감. 북정마을과 한양도성. 2016.11.

공보처 홍보국에서 촬영하여 현재는 국가기록원에서 다수 소장 중인 성곽 기록 사진은 자연과 조화된 성곽의 모습을 잘 나타낸다. 성곽을 타고 자란 넝쿨식물들, 그리고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하는 북한산의 위용과의 어울림, 성곽길을 걸었을 그 시대를 산 시민들의 편안함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도성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 2016년에 촬영된 서울시 한양도성도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 사진은 80년대와 흡사한 분위기를 보인다. 1984년에 촬영된 기록 사진 속 성벽의 모습은 2016년에 담긴 인왕산 성벽의 모습과 같이

산세를 따라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간을 담은 기록은 아니지만 87년의 사진에서 마을을 휘감은 성곽의 모습은 2016년의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과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가 지금의 한양도성을 볼 수 있는 것은 잘 보존된 것과 동시에 잘 복원한 것이기도 하다.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공보처 홍보국. 사적제10호서울성곽2. 1984. [출처 :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서울성곽1(홍지문). 1978. [출처 :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서울성곽2(흥인지문-동대문). 1978. [출처 :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준공된서울성곽모습.1976. [출처 : 국가기록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성곽복원위원회공포. 1975. [출처 : 국가기록원]
서울특별시. 서울성곽(장충,남산지구)복원공사착공보고. 1977. [출처 : 국가기록원]

서울 한양도성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한양도성 축약지도는 도성의 흐름과 유실구간, 복원구간, 그리고 순성가능한 길 등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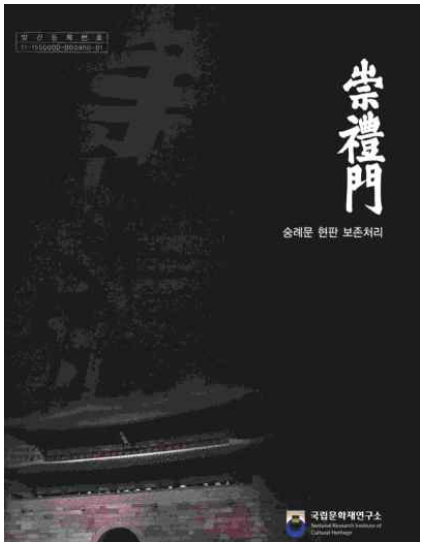
4대문과 4소문을 둔 한양도성은 현존하는 도성 중 가장 오랫동안 도성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620년 전(태조 5년, 1396) 처음 완공된 이후 보수와 개축을 반복한 도성은 시대별로 성벽 축조기술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학문적 기초자료가 되기도 한다. 근대화가 진행되며 성벽과 성문을 잃거나 훼손하는 일들이 되풀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아픈 사건도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존되어있고 중건되어 남아있는 한양 도성의 역사성은 세계적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

성곽의 과거 모습과 현존 모습은 한양도성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에게 사진으로 제공하고 있다. '도성의 옛 모습'과 '도성의 여러 모습'을 구간별로 볼 수 있다. 도성의 옛 모습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기록으로 사본 제공이지만, 사진과 함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보여준다.



서울한양도성 홈페이지- 한양도성 축약지도
http://seoulcitywall.seoul.go.kr/front/kor/sub01/course_all.do

서울한양도성 홈페이지 - 갤러리
http://seoulcitywall.seoul.go.kr/front/kor/bbs/imgBoardList2.do



국립문화재연구소. 숭례문 현판 보존처리, 2009.

[출처 :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1003410524&gubun=search

2008년 숭례문 화재사건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모두의 바람 속 불타버린 숭례문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모든 문화자원들을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국립문화재 연구소의 2009년 보고서는 불 속에서 전소(全燒)되지 않은 현판의 보존처리를 위한 과정과 결과를 담았다.

아래는 역사 도시 서울을 위하여 서울을 상징하는 유적 중 하나인 서울 성곽의 복원을 위한 연구 보고서이다.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오간수문 복원방안 연구. 2006.

http://seoulcitywall.seoul.go.kr/front/kor/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45&nttId=311

한양도성의 유네스코등재를 위해 2013년에 만들어진 전담부서 한양도성도감은 총 7권의 학술 총서를 발간하였다. 이외에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한양도성을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전승하기 위하여 2013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한양도성 보존 · 관리 · 활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학술총서 1책_역사도시와 도시성곽. 2013.

http://seoulcitywall.seoul.go.kr/front/kor/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45&nttId=323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서울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서울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보고서. 2012.
서울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제2차 한양도성 국제학술회의자료집. 2013.
서울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제2차 한양도성학술회의 '한양도성의 유산가치와 진정성'. 2013.
서울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정밀실측조사보고서 1단계. 2014.
서울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서울 육백년을 담다. 2016.

한양도성도감에서 2016년 발간한 두 보고서는 서울의 역사자원과 생활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성곽마을들에 대한 보고서이다. 각 권역의 생활문화기록화 연구팀이 약 2년 간 주민들과 교류하며 자료를 발굴하고 조사 연구한 결과물이다.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북정마을 생활문화기록. 2016.
http://seoulcitywall.seoul.go.kr/front/kor/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45&nttId=1282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삼선권 369마을 생활문화기록. 2016.
http://seoulcitywall.seoul.go.kr/front/kor/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45&nttId=1283

조선시대의 한양도성은 수도와 지방을 나누는 경계이자, 삶의 모습, 넘어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그 모습을 어렴풋이 남아 찾아볼 수 있다.

도성의 동쪽, 가파른 언덕에 자리한 낙산구간에는 성벽을 중심으로 이화동과 창신동으로 구분되는 곳이 있다. 이화동과 창신동 모두 가파른 산자락에 위치하고 낡은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모습은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나 어쩐지 모르게 이화동과 창신동을 걸으면 확연히 구분된 마을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문화관광부에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진행한 TF 회의와 워크숍, 심포지엄 등을 정리하여 2006년 발간한 정부간행물이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실무담당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매뉴얼 형식으로 만들었으며 같은 해 문화관광부는 소외계층 생활환경 가꾸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미술의 해로 지정하였다.

문화관광부에서 2006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발간한 백서이다. 본 정부간행물을 통하여 2006년 문화관광부 공공미술추진위원회의 기획사업인 'ART in City 2006 - 낙산 프로젝트'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화동은 이화벽화마을로 변신하였다.

문화관광부.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2006. [출처 :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041142053&gubun=search

문화관광부. 문화정책백서 2006, 2006. [출처 : 국가기록원]

성곽 안에 위치한 마을이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잠시 머물렀던 사저가 있는 마을이어서일까. 도성 안에 속하는 이화동은 작은 집들이 모여 있지만 정돈되고 깨끗한 인상을 안긴다. 70년대 이후 신규개발 사업이 없었던 이 마을에 활기를 부은 것은 뜻밖에도 2006년 문화관광부의 공공미술 사업이었다. 지금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벽화마을의 초창기 모습일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이화마을은 마을 자체가 박물관이자 미술관이 되어 정돈되기 시작하였다.

서울기록원에서 촬영한 창신동 로드뷰 영상을 보면 바로 옆 마을 이화동과 전혀 다른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작은 승합차와 원단을 나르는 삼발이만 지나갈 수 있는 이 길이 창신동 봉제마을의 가장 큰 도로이다. 예쁜 카페에서 여유로운 커피 한 잔은 사치일 뿐, 정돈되지 못한 건물과 가게들 사이로 일감을 실어 나르는 오토바이들이 오가기 바쁜 곳이다.



서울기록원. 창신동 로드뷰 영상 1. 2019.

이화마을 옆의 성곽을 넘으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도성 밖 첫 마을, 창신동이 펼쳐진다. 창신동이라는 마을을 잘 알지 못한 채 방문한다면 서울에 아직 이런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에 당황스러움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구불구불 정돈이 안 된 골목길, 그마저도 너무 좁아 마을버스조차 닿지 않는 마을이다. 그러나 창신동은 그저 오래된 동네가 아닌 우리 역사의 흔적들이 축적되고 얽혀있는 곳이다.



서울기록원. 창신동 채석장 영상. 2019

일제강점기에 채석장이 있던 창신동은 '돌산밑'으로도 불렸다. 오래 전부터 '낙산 산신령'이 모셔져 깊은 신앙에 대상이었던 돌산은 일제가 대형건축물들을 짓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였다. 돌산에서 떠진 돌들은 조선은행, 경성역, 경성부청, 그리고 조선총독부 건물의 주요 자재가 되어 일제의 아픈 흔적이 되었다.

2019년 서울기록원에서 촬영한 본 영상은 창신동 채석장의 현재 모습을 담은 것이다. 실제로 보면 더 웅장한 느낌을 주면서도 그 아래 자리한 폐기물처리장이 도성 밖 마을의 씁쓸한 운명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때는 동네가 살벌하고 삭막했어요, 건물은 전부 허름한 한옥집이었죠."

-봉제공장 명은사 사장 이규명 님 구술 中-

60년대에 접어들며 서울은 급격한 산업화와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모여드는 사람들로 점점 복잡해져갔다. 창신동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 어느 곳보다 복잡한 동네였을지도 모른다.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하여 상경한 어린 청소년들이 창신동으로 밀려왔다. 작은 봉제공장들이 밀집된 골목들 사이에서 봉제기술을 배워나갔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집된 탓인지 골목을 더 여유가 없어 자전거로 원단을 실어 날랐다.

1989년에 생산된 이 기록은 창신동에서 은지네 빨래방을 운영하는 송정헌 님의 소장기록이다. 어둡지만 좁은 창신동 골목이 보이며 자전거 뒤에 높이 쌓아올린 원단이 눈에 띈다. 지금은 자전거가 아닌 삼발이로 원단이 창신동 골목을 오간다.



송정헌. 시아게를 위해 자전거로 봉제의류 운반하는 모습 1. 1989.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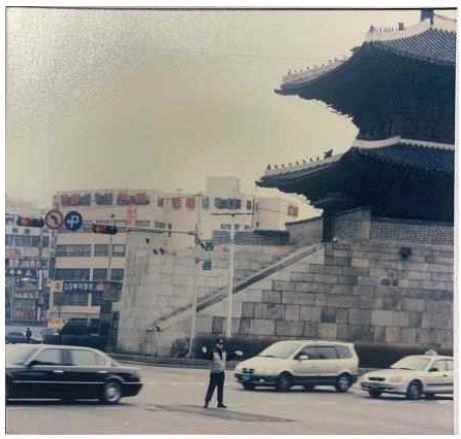
송정헌. 시아게를 위해 자전거로 봉제의류 운반하는 모습2. 1989.
송정헌. 시아게를 위해 오토바이로 봉제의류 운반하는 모습. 1990년대.
송정헌. 2002년 창신동 골목 소독 풍경1. 2002.
송정헌. 2003년 창신동 골목 소독 풍경. 2003.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안전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추진계획. 2015.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흥인지문, 광희문 일대의 단절된 성곽의 제 모습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흥인지문, 광희문 주변 단절된 성곽 복원 및 연계성 회복사업」의 공사 추진을 의뢰하오니…"

- 흥인지문 성곽복원 사업 관련 공문 中-



송정헌. 동대문교회 전경사진1. 1999.



송정헌. 동대문 로터리(창신동입구) 교통봉사 모습8. 1999.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송정헌. 동대문교회 전경사진2. 1999.
송정헌. 동대문 로터리(창신동입구) 교통봉사모습2. 2002.
송정헌. 동대문 로터리(창신동입구) 교통봉사모습 9. 2000년대 초반
송정헌, 동대문 로터리(창신동입구) 교통봉사모습 10. 2000년대 초반

위의 두 사진 기록은 같은 날 촬영된 것으로, 사진을 기증한 송정헌 님이 교통봉사를 하는 모습이다. 본 기증자는 지금은 사거리지만 과거 교통이 매우 혼잡했던 로터리에서 출근시간에 20년 간 교통봉사를 해왔다. 첫 번째 사진 뒤쪽으로 지금은 철거된 동대문 교회와 좌측의 이대동대문병원이 보인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양도성박물관과 흥인지문공원이 조성되어있다.

한양도성도감. "흥인지문, 광희문주변 단절된 성곽복원 및 연계성 회복사업" 공사 의뢰. 2014.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opengov.seoul.go.kr/sanction/3261114

한양도성도감 부서의 문서는 '흥인지문, 광화문주변 단절된 성곽 복원 및 연계성 회복사업' 관련 기록이다. 해당 사업을 계기로 동대문교회가 최종 철거되었다.

도성의 밖, 일제 착취의 현장, 돈을 벌기위해 모여든 노동자들이 만든 봉제마을 …. 낡은 한옥들 사이로 난 좁은 길들로 이루어진 창신동 마을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도가 넘어서의 일이다. 판잣집이 빌라가 되고, 시에서는 성곽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며 흥인지문과 돌산마을은 지금의 모습을 갖춰갔다.

창신동은 지금까지도 봉제장인들과 재단장인들이 모여 있는 치열한 삶의 터전이자 삶의 예술의 현장이다. 동대문시장과 가까운 지리적인 특성으로 지금까지 봉제마을을 유지하고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과거의 기왓장을 올린 한옥양식의 건물들이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우후죽순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어 마을의 주를 이루는 건물의 양식 정도이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양장점과 양복점들, 간판이 없는 곳도 많고 간판을 바꾸지 못한 채 재봉틀을 돌리는 장인들의 모습은 과거의 이곳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서울기록원. 창신동 봉제공장(명은사) 구술 영상. 2019.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서울기록원. 은지네빨래방 구술영상. 2019.

1978년도부터 창신동에 자리 잡은 명은사 봉제공장은 가족이 운영하고 아주 적은 수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기록원과 2019년 진행한 본 구술 영상을 통해 사장 이규명 씨는 과거 90년대에는 십여 명의 직원이 있을 정도로 공장 규모가 매우 컸으나 지금은 가족 이외의 20년 넘게 함께 하는 한 명의 직원만 남았다. 지금은 봉제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도 없고, 오래 일하려는 사람도 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앞으로 창신동에 바라는 점으로 봉제마을 조성, 문화 확산 사업보다 창신동에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봉제인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곳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래 사진 기록에는 명은사 봉제공장에서 20년 넘게 근무하고 계신 베테랑 봉제장인과 공장 내부의 모습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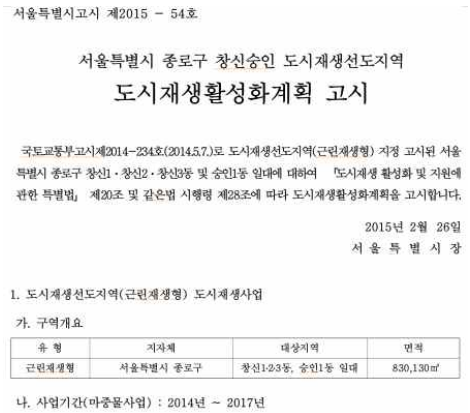


서울기록원. 창신동 봉제공장(명은사) 작업환경4. 2019.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이규명. 창신동 봉제공장(명은사) 송장원부. 2019.
이규명. 창신동 봉제공장(명은사) 작업노트. 2019.
서울기록원. 창신동 봉제공장(명은사) 작업환경1. 2019.
서울기록원. 창신동 봉제공장(명은사) 미싱기1. 2019.
서울기록원. 창신동 봉제공장(명은사) 현장음 오디오. 2019.
서울기록원. 창신동 은지네빨래방 작업모습1. 2019.
서울기록원. 은지네빨래방 작업모습13. 2019.

창신동은 2015년에 서울시에서 고시한 문서와 같이 도시재생 활성화 1단계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해당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관련 계획 보고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 - 5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34호(2014.5.7.)로 도시재생선도지역(근린재생형) 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1·창신2·창신3동 및 숭인1동 일대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재생선도지역(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가. 구역개요

유 형	지자체	대상지역	면적
근린재생형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1·2·3동, 숭인1동 일대	830,130㎡

나. 사업기간(마중물사업) : 2014년 ~ 2017년

도시재생본부 주재생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2015.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s://uri.seoul.go.kr/surc/archive/policyView.do?tab_se=POLICYTAB005&bbs_master_seq=POLICY&bbs_seq=2757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창신숭인 소식지 1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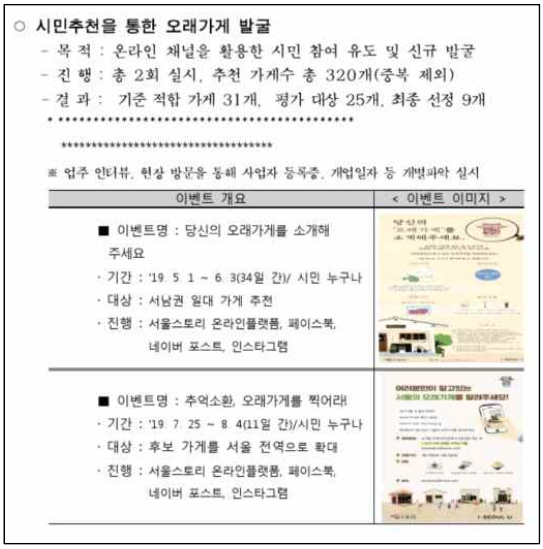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월간으로 창신숭인 소식지를 발행하였다. 1단계 지역으로 지정된 창신숭인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등을 담으며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서울의 한복판, 우리에게는 미지의 지역인 그곳의 사람들도 질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 한양이 아닌 서울에서 도성 하나를 둔 삶의 모습이 격차가 아닌 융화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S-NAP 1.2.2 뉴트로 감성과 추억을 선사하는 다방, 극장, 이발소

"New + Rerto = New-tro"

복고열풍이 한창이더니, 이제는 복고를 새로 해석해서 현대 스타일로 즐기려는 시도가 등장했다.


○ 시민추천을 통한 오래가게 발굴
- 목 적 :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시민 참여 유도 및 신규 발굴
- 진 행 : 총 2회 실시, 추천 가게수 총 320개(중복 제외)
- 결 과 : 기준 적합 가게 31개, 평가 대상 25개, 최종 선정 9개

※ 업주 인터뷰,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자 등록증, 개업일자 등 개별파악 실시

이벤트 개요	< 이벤트 이미지 >
■ 이벤트명 : 당신의 오래가게를 소개해 주세요 · 기간 : '19. 5. 1 ~ 6. 3(34일 간)/ 시민 누구나 · 대상 : 서남권 일대 가게 추천 · 진행 : 서울스토리 온라인플랫폼, 페이스북,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 이벤트명 : 추억소환, 오래가게를 찍어라! · 기간 : '19. 7. 25 ~ 8. 4(11일 간)/시민 누구나 · 대상 : 후보 가게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 · 진행 : 서울스토리 온라인플랫폼, 페이스북,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서울이야기 발굴 및 확산 2019 서울 오래가게 발굴 결과 보고. 2019.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8610802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서울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만큼 많은 것들이 빠르게 등장했다가 또 사라졌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더 새롭고 편리한 것들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여 무언가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7080세대에게는 그것이 추억일 수 있고, 보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레트로를 넘어 '뉴트로'라 불리는 새로운 바람으로 다가온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오래가게를 발굴하며 뉴트로와 연결지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좌측의 문서는 2019년 발굴한 오래가게의 결과 보고 문서로 오래가게 선정을 위하여 진행된 이벤트 내용을 포함하여 오래가게 선정 결과의 내용이 담겨있다.

2018년에 오래가게로 선정된 가게에 부착할 현판 제작 계획 문서 기록이다. 오래가게를 방문하게 되면 입구에서 현판을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2018 오래가게 인증현판 제작 계획. 2018.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6301294

2019년도 오래가게 선정 지역인 서남권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의 결과 보고 문서이다. 오래가게는 단순히 오래되거나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본 기록에서는 자치구별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동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의견이 오간 것을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오래가게 발굴을 위한 자치구 간담회 결과 보고. 2019.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8012053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기록하거나 표현하거나. 2018. [출처 : 서울사랑]
http://love.seoul.go.kr/asp/articleView.asp?intSeq=6166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오래가게]서남권1 뉴트로 감성 가득!. 2019. [출처 : 서울사랑]
http://opengov.seoul.go.kr/seoullove/18850796

위의 두 기록은 선정된 오래가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콘텐츠로 만든 것이다. 여러 오래가게들을 연관 지을 수 있는 주제로 묶어서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좌측의 기록은 오래가게 중 '기록'과 '표현'을 주제로 사진관, 서점, 극장 등을, 우측의 기록은 '뉴트로 감성'을 소재로 상회, 미용실, 호프집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서울미래유산 발굴 및 스토리텔링 조사용역 최종보고회 알림. 2014.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17년도「서울 미래유산」선정 알림_2017년도 서울 미래유산 선정 목록. 2017.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오래가게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 2018.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18년도「서울 미래유산」선정 알림_2018년도 서울 미래유산 선정목록. 2018.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오래가게 발굴을 위한 자치구 간담회 결과 보고. 2019.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19년『서울 미래유산』선정 안내. 2019.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19년『서울 미래유산』인증서 교부 안내. 2015.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2019 시민과 함께 오래가게 스토리 투어 운영계획. 2019.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젊은 세대들이 뉴트로 감성을 찾고자 계란 노른자를 얹은 쌍화탕을 파는 다방, 오래 갈고 닦은 기술로 정성껏 머리칼을 다듬어주는 이발소, 내 몸에 꼭 맞게 재단할 수 있는 양복점 등을 찾고 있다. 오늘날 차를 마시고 머리를 하고 옷을 사고, 영화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처음 이 문화들이 서울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는 서민들은 쉽게 누릴 수 없는 고급문화였다. 값을 지불하고 머리카락을 다듬는 것은 일 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싶은 연례행사였고, 다방은 문학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었으며, 마당놀이가 아닌 번듯한 극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과 영화는 서민에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무엇이든 처음이 낯설 뿐 익숙해지면 보편의 것이 된다.



공보처 홍보국. 5.16 군사혁명 이후 다방 내부 전경 1. 1961.
[출처 : 국가기록원]

위의 사진은 공보처 홍보국에서 촬영하여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소장 중인 1961년의 다방 모습을 담은 기록이다. 뉴트로 유행에 따라 사람들이 다시 찾고 있는 다방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발소

고종 32년, 조선에 처음 단발령이 내려진 이후 들어온 이발 문화는 학생들을 통해, 그리고 위생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아가며 확산되는 듯했다.

그러나 60년대부터 제소자들에게 이발기술을 교육한 정책으로 인하여 퇴폐업소가 성행하게 되었다. 당시를 기억하는 이발사는 그 때 사람을 새로 쓰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 결국 혼자 유지해왔다고 회상한다.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교도소재소자이발교육. 1961.
[출처 : 국가기록원]

위의 사진 기록은 재소자들에게 이발 교육을 시행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다. 이 당시 교도소에서 이발 기술을 배운 재소자들이 출소하여 이발소를 운영하게 되면서 퇴폐이발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 외국인도 많이 오고 …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은 이런 경험 다른 데서 못하니까"

-성우이용원 이남열 이용사-

성우이용원 전경을 담은 사진 기록이다. 쓰러질 것 같은 외관이 성우이용원을 잘 모르는 사람도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다. 이 자리에서 1927년부터 줄곧 운영해 온 성우 이용원은 건물에서도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 운영 중인 이용원이다.



서울기록원. 성우이용원 전경 1. 2019.

만리동의 오랜 동네 한쪽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오래된 이발소 하나가 있다. 마을의 단골들만 찾아오던 곳이 조금씩 알려지며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젊은 청년들,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종종 찾아오는 곳, 1927년부터 줄곧 같은 자리를 지키며 3대째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성우이용원이다. 오래된 건물 그대로 고장 나면 조금씩 고치며 자리를 지켜온 탓에 지붕에는 초가지붕과 기왓장의 흔적도 보인다. 지금까지 성우이용원을 지켜오는 이발사 이남열 씨는 현재 유일하게 남은 이발사라 자부한다. 두상을 파악하기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왼손과 머리카락 굵기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가위를 비롯한 도구들, 오랫동안 이발이라는 일을 하기 위하여 수년간 고민하여 만들어진 그만의 노하우가 만나 최고의 기술을 선보인다. 어느 두상, 어느 스타일에도 결코 촌스럽지 않게 조금은 오래 걸려도 만족감은 높은 결과를 완성한다.

아래는 성우이용원의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기록들을 사진으로 담은 것이다. 지붕은 초가, 나무, 판자, 기와의 흔적이 모두 느껴진다. 우리나라 서민들의 집의 변천사가 여기에 모두 담겨있다.

그 옆의 사진 속 가위들은 성우이용원에서 지금도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고객의 모발 두께나 그 성질, 이발 방식에 따라 사용하는 가위가 다르다. 서랍 아래에는 동전을 깔아두었는데 가위 날이 산화되어 녹스는 것을 막기 위한 이남열 이발사만의 노하우라고 한다.

성우이용원이 제목인 좌측 하단의 시는 이곳의 단골이었던 시인 김영환이 지어 선물한 것으로, 이용원 내부 거울 좌측에 걸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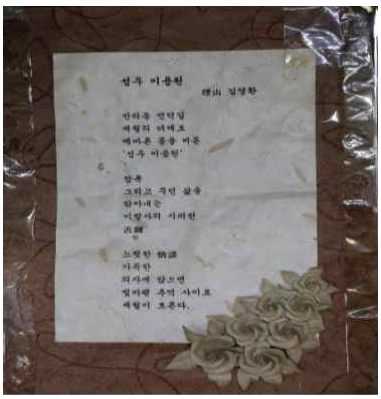
이용원에 들어서면 거울 오른쪽 상단에 사업자 등록증과 모범이용업소지정증이 걸려있다. 실제 운영을 시작한 것은 1927년부터이지만, 현재 이용원에서 보관 중인 사업자 등록증은 2000년 발행인 것을 알 수 있다.



서울기록원. 성우이이용원 가게외부2. 2019.



서울기록원. 성우이용원의 가위들. 2019.



이남열. 김영화의 시 '성우이용원'. 미상.



이남열. 성우이용원 사업자등록증과 모범이용업소지정증. 1994, 2002.

아래 영상은 서울기록원에서 촬영한 이남열 이발사의 이발과 면도 기술을 담은 기록이다. 아버지를 포함한 많은 이발사들이 진폐증에 걸리는 것을 보고 활석가루를 대신 할 전분가루를 찾아 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어느 두상의 손님이 와도 가장 알맞은 헤어스타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이발 기술도 스스로 개발해 위에서부터 자르지 않고 아래서부터 자르며 올라간다. 자신의 이발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닌 '왼손'이라고 알려준다. 그의 이발은 가위선이 남지 않는 것이 특징. 이발이 끝나면 손님은 세면대에 엎드려 앉아 머리를 감게 된다. 머리는 비누로 감고, 식초를 조금 탄 물로 마무리한다.

면도를 요청하니 수염 두께에 맞는 면도날을 골라 가죽에 가져가 날을 매끈하게 한다. 면도 거품은 비누로 만드는데, 그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 면도도 해왔는지 스테인리스 통 겉면에 선명한 비누거품 자국이 증명해준다. 그의 면도는 '앞면도', 단지 수염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귓불의 털을 포함하여 얼굴 전면의 솜털까지 매끈하게 제거해준다. "내 면도 한 번 받으면 중독되는데" 라는 그의 말처럼 면도를 받은 고객의 표정은 매우 환해진다.



서울기록원. 성우이용원 이남열 이발사 이발 면도 영상 1. 2019.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서울기록원. 성우이용원 내부 영상1. 2019.
서울기록원. 성우이용원 담벼락에새겨진주소. 2019.
이남열. 성우이용원 이용요금표2. 2019.
이남열. 성우이용원 신문기사스크랩. 2019.
이남열. 성우이용원 받은편지1. 2019.
서울기록원. 성우이용원 면도붓거품. 2019.
서울기록원. 성우이용원 이남열 이용사 이발 면도 영상2. 2019.
서울기록원. 성우이용원 이발도구 영상. 2019.

극장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시내일류극장외부전경 5(아카데미극장). 1961. [출처 : 국가기록원]

극장 간판화가 전성기의 기억을 떠올리자 그는 그리운 듯 눈시울을 붉혔다. 이제 다시 '간판장이'들이 활동하기는 어렵겠지만 마음 한구석 작은 바람은 감출 수 없었다.

한국영화는 '충무로'라는 말을 만들게 된 6, 70년대, 그 중심에는 '간판장이'라 불리는 극장 간판화가가 있었다. 영화가 개봉하면 충무로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영화관 외부에 너비만 30미터에 이르는 커다란 극장 간판을 보며 그날 볼 영화를 선택한다. 그러나 실제로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은 충무로에 모인 사람 중 일부이다. 대부분은 극장 간판 자체를 보러 온 경우가 허다했으며 시민들의 반응을 살피러 나온 간판화가들과 영화관계자들이 있었다.

위의 사진은 국가기록원에서 소장 중인 1961년의 아카데미극장 전경을 담은 기록이다. 당시에는 극장들이

단독건물에 단일 상영관을 가지고 있어, 최대 폭 30미터의 대형 간판을 걸게 되었다.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공보처 홍보국. 시내일류극장내부1. 1961. [출처 :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시내일류극장외부전경4(대한극장). 1961. [출처 : 국가기록원]
국립중앙극장. 국립극장50년사. 2000.
서울역사박물관. 2009년 재개관한 명동예술극장. 2009.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11년부터 진행한 '근현대 직업인 생애사' 사업의 일환으로 펴낸 정부간행물 기록이다. 해당 기록에서는 백춘태 화백의 극장 간판 작업 과정을 포함하여 작업 도구들 그리고 작업 결과물인 극장 간판의 모습들이 섬세하게 사진으로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의성 성광성냥공업사와 극장 간판화가 백춘태 - 사라져 가는 직업. 2012
[출처 : 국가기록원]

간판을 누가 그렸는지에 따라 영화의 성패가 좌우되던 60년대 충무로 극장 간판의 중심에 백춘태 화백이 있었다. 굴지의 간판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작품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배우들의 이미지를 그린다. 작품에 대한 분석능력에 그림실력이 갖춰져야 한다. 많은 영화사와 배우들이 그에게 찾아왔으며 충무로의 여러 극장에 그의 작품이 걸렸다. 이제는 사라져버린 직업이 되었고 당시의 부귀영화는 누릴 수 없지만 그에게 영화는 그림만큼 열정의 대상이었다.



서울기록원. 백춘태 화백의 극장간판 화구들. 2019.



백춘태. 왓위민원트 극장간판. 2001.

위의 좌측 사진은 백춘태 화백이 전성기부터 사용해 온 화구들을 담은 기록이다. 우측 사진은 2001년 개봉작 '왓 위민 원트'의 극장 간판을 담은 기록이다. 백춘태 화백이 직접 작업한 것으로 인물 묘사가 돋보이며 그림 한 장으로 영화의 분위기를 담았다.



양두환. 프린스호프 간판. 2019.



양두환. 일신유리 간판. 2019.

취미를 만들고 싶어 2018년 겨울부터 오래된 간판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는 양두환씨는 그 덕분에 자주 걷게 되며 건강도 얻었다고 말한다. 좌측의 프린스 호프는 연희동에 있는 가게로 지금은 보기 어려운 네온사인 간판을 고수하고 있다. 우측의 해방촌에 위치한 일신유리는 지금과는 다른 알미늄(알루미늄), 샷다(셔터) 등의 표기법이 인상적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양두환. 왕가구 수리전문 간판. 2018.
양두환. 명동상회 간판. 2018.
양두환. 선미장식, 제일제화 간판. 2018.
양두환. 백양크리닝세탁 간판. 2018.
양두환. 진양슈퍼마켙 간판. 2018.
양두환 상원절단절곡 간판. 2019.
양두환 진성빠우 간판. 2019.

옛것은 무엇이든 '빠르게, 편하게'를 추구하는 현대 기술의 발달방향과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쉴 틈 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를 주기도 하는 것이 뉴트로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뉴트로는 특정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는 골목 어귀에서 옛 감성과 추억은 생각보다 쉽게 마주한다. 조금 느리고 손이 많이 가도 정감 있었던 옛 감성이 그립다면 여유를 가지고 길을 나서보자.

S-NAP 1.2.3 기억해야 하는 서울의 옛 것을 전승하는 장인들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는 그만큼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배우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면,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 가고, 또 잃어버린 오래된 기술들이 있다. 그럼에도 묵묵하게 늘 같은 자리에서 그 기술들을 지켜오는 장인들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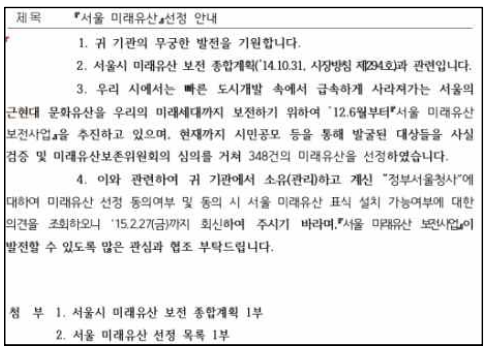
장인 :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명인 : 기술이 뛰어난 장인

장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으레 무형문화재나 전통 기술 정도 전승하는 이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장인의 사전적인 뜻을 통해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너무 거창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듯하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장인의 의미는 명인에 가깝다. 혹은 거창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만이 아닌, 자신이 가진 기술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기술자들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장인이다.

서울미래유산과 오래가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장인들과 그 기술, 가게를 함께 기억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백년가게 등 국가차원의 지원사업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 역시 서울 안에 남아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거나 잊혀져가는 장인들을 찾아 시민들과 공유하며 함께 기억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한 '서울미래유산' 프로젝트와 2017년부터 이어져 오는 '오래가게' 선정 사업이다.

아래는 2015년에 서울미래유산으로 348건이 선정된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장인들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이 모두 포함 되었다. 선정된 미래유산은 문화예술 · 정치역사 · 시민생활 · 산업노동 · 도시관리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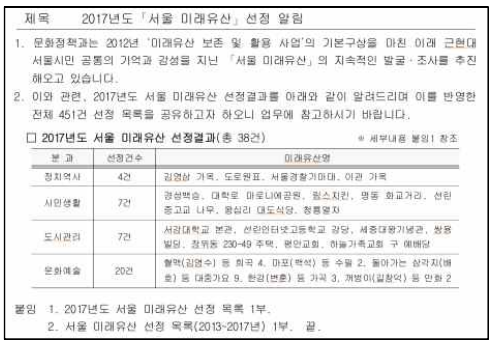
제목 『서울 미래유산』선정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미래유산 보전 종합계획('14.10.31. 시장방침 제294호)과 관련입니다.
3. 우리 시에서는 빠른 도시개발 속에서 급속하게 사라져가는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우리의 미래세대까지 보전하기 위하여 '12.6월부터『서울 미래유산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민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대상들을 사실검증 및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48건의 미래유산을 선정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정부서울청사"에 대하여 미래유산 선정 동의여부 및 동의 시 서울 미래유산 표식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15.2.2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서울 미래유산 보전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 부 1. 서울시 미래유산 보전 종합계획 1부
2. 서울 미래유산 선정 목록 1부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체육기획관 문화정책과.『서울 미래유산』선정 안내. 2015.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아래 두 기록은 2017년과 2018년에 새로 선정된 서울미래유산 결과 기록이다. 서울시 문화화정책과 미래유산팀에서는 매년 서울미래유산을 꾸준히 발굴하고 선정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2019년 11월까지 총 461개의 미래유산이 선정되었다.



제목 2017년도 「서울 미래유산」 선정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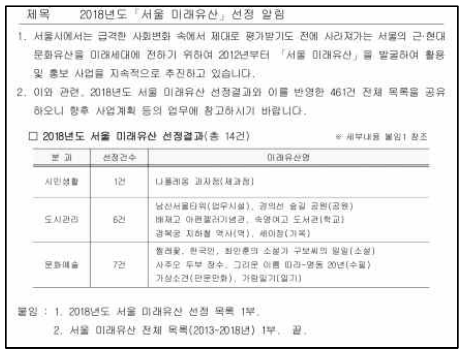
1. 문화정책과는 2012년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의 기본구상을 마친 이래 근현대 서울시민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서울 미래유산」의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17년도 서울 미래유산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이를 반영한 전체 451건 선정 목록을 공유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서울 미래유산 선정결과(총 38건)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분 과	선정건수	미래유산명
정치역사	4건	김영삼 기록, 도로원표, 서울경찰기마대, 이관 가옥
사인생활	7건	경성백승,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소지킨, 명동 화교거리, 선린중고교 나무, 용산리 대도식당, 청룡열차
도시관리	7건	서강대학교 본관,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강당, 세종대왕기념관, 쌍용빌딩, 잠원동 230-49 주택, 명인교회, 하늘가족교회 구 예배당
문화예술	20건	혈액(김영수) 등 희곡 4, 마포(책석) 등 수필 2, 돌아가는 삼각지(배호) 등 대중가요 9, 환경(변훈) 등 가곡 3, 개벽이(김창억) 등 만화 2

붙임 1. 2017년도 서울 미래유산 선정 목록 1부.
2. 서울 미래유산 선정 목록(2013-2017년) 1부. 끝.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17년도「서울 미래유산」선정 알림. 2017.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제목 2018년도 「서울 미래유산」 선정 알림

1. 서울시에서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재대로 평가받기도 전에 사라져가는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 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서울 미래유산」를 발굴하여 활용 및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18년도 서울 미래유산 선정결과와 이를 반영한 461건 전체 목록을 공유하오니 향후 사업계획 등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서울 미래유산 선정결과(총 14건)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분 과	선정건수	미래유산명
사인생활	1건	나폴레옹 과자점(제과점)
도시관리	6건	남산서울타워(업무시설), 경의선 숲길 공원(공원) 배재고 아펜젤러기념관, 숙명여고 도서관(학교) 경복궁 지하철 역사(역), 세이청(가옥)
문화예술	7건	동래학, 한국인,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소설) 사주오 두부 정수, 그리운 이름 따라-명동 20년(수필) 가상소간(판문만화), 가람일기(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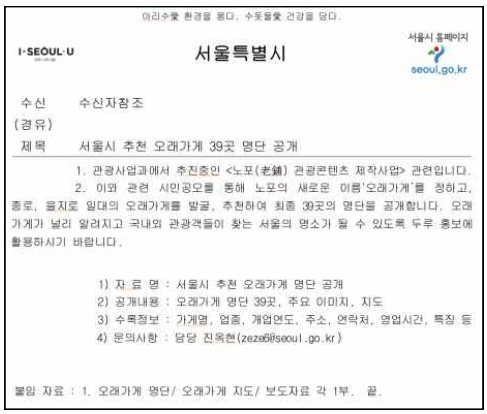
붙임 : 1. 2018년도 서울 미래유산 선정 목록 1부.
2. 서울 미래유산 전체 목록(2013-2018년) 1부. 끝.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18년도「서울 미래유산」선정 알림. 2018.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서울특별시. 서울미래유산 발굴 및 스토리텔링 조사용역 최종보고회 알림. 2014.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서울특별시. 2018년도「서울 미래유산」선정 알림_서울 미래유산 선정목록(2013~2018). 2018.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오래가게 선정사업은 상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일부 가게들은 그 성격상 서울미래유산과 오래가게에 모두 선정되기도 한다.



아리수물 환경을 품다, 수돗물로 건강을 담다.

I-SEOUL-U 서울특별시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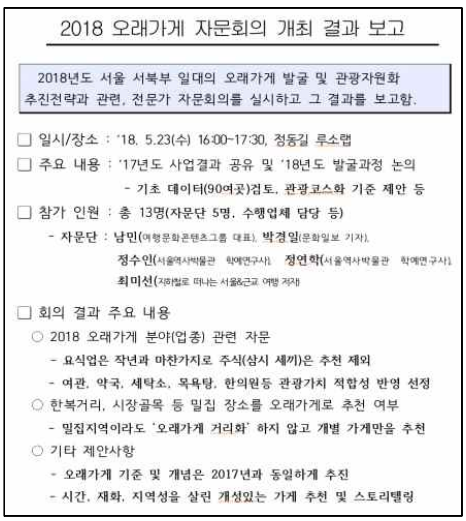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추천 오래가게 39곳 명단 공개

1. 관광사업과에서 추진중인 <노포(老鋪) 관광콘텐츠 제작사업>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 시민공모를 통해 노포의 새로운 이름'오래가게'를 정하고, 종로, 을지로 일대의 오래가게를 발굴, 추천하여 최종 39곳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오래가게가 널리 알려지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서울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두루 홍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자 료 명 : 서울시 추천 오래가게 명단 공개
2) 공개내용 : 오래가게 명단 39곳, 주요 이미지, 지도
3) 수록정보 : 가게명, 업종, 개업연도, 주소, 연락처, 영업시간, 특징 등
4) 문의사항 : 담당 진옥현(zeze6@seoul.go.kr)

붙임 자료 : 1. 오래가게 명단/ 오래가게 지도/ 보도자료 각 1부. 끝.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서울시 추천 오래가게 39곳 명단 공개. 2017.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2018 오래가게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8년도 서울 서북부 일대의 오래가게 발굴 및 관광자원화 추진전략과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일시/장소 : '18. 5.23(수) 16:00~17:30, 청동길 루소랩
□ 주요 내용 : '17년도 사업결과 공유 및 '18년도 발굴과정 논의
- 기초 데이터(90여곳)검토, 관광코스화 기준 제안 등
□ 참가 인원 : 총 13명(자문단 5명, 수행업체 담당 등)
- 자문단 : 남민(여행문화콘텐츠그룹 대표), 박경일(문화일보 기자),
정수인(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정연학(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최미선(지하철로 떠나는 서울&근교 여행 저자)
□ 회의 결과 주요 내용
○ 2018 오래가게 분야(업종) 관련 자문
- 요식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식(삼시 세끼)은 추천 제외
- 여관, 약국, 세탁소, 목욕탕, 한의원등 관광가치 적합성 반영 선정
○ 한복거리, 시장골목 등 밀집 장소를 오래가게로 추천 여부
- 밀집지역이라도 '오래가게 거리화' 하지 않고 개별 가게만을 추천
○ 기타 제안사항
- 오래가게 기준 및 개념은 2017년과 동일하게 추진
- 시간, 재화, 지역성을 살린 개성있는 가게 추천 및 스토리텔링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2018 오래가게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8.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오래가게는 시민들의 추천을 받고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선정된다. 시민들의 추천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는 가게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오래가게들을 살펴보면 '서울(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몇 대가 이어오는'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가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거창한 타이틀을 가진 곳만 오래가게이고, 오래가야 할 가게이고, 장인일까?

우리 가까이 자리를 지키는 장인들 이야기

며칠 전 음식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한 방송인이 자신의 로망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갔던 단골 가게를, 미래에 내 아이를 데리고 또 가고,
그 아이가 커서 그 집의 단골이 되는 것이 작지만 큰 제 로망이에요."

한 방송인의 작은 바람이지만, 누구나 한 번쯤 아주 마음에 드는 가게, 솜씨 좋은 장인을 만났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것이다. 단순히 음식점에 국한할 수도 없다. 우리 동네 30년 된 구두수선가게, 나의 첫 증명사진을 찍었던 스튜디오 사진관, 한결같은 모습의 상냥한 세탁소 등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우리 주변에도 그들의 기술을 꾸준히 이어오는 장인들이 있다. 방송에서 인터뷰한 적도 없고, 유명세를 탄 적도 없지만 제 자리를 묵묵히 지켜오는 장인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창신동으로 향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깔끔한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이 대접을 받는 일 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장인은 창신동에서 40년 넘게 양복을 만들어 온 재단장인, 양복점 태극라사의 박창규씨이다. 옷 한 벌을 만들어도 한두 해 입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간직하면서 입을 수 있는, 손바느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옷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한다.



서울기록원. 2019년 창신동 태극라사 구술영상. 2019.

양복 한 벌을 맞추는 것이 모두에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잘 만들어진 양복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양복점을 하는 그는 양복 자체가 작업복이 되어 이 일을 선택한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이 양복 장인은, 손님들이 완성된 양복을 보며 행복해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할 때 이 기술을 가졌음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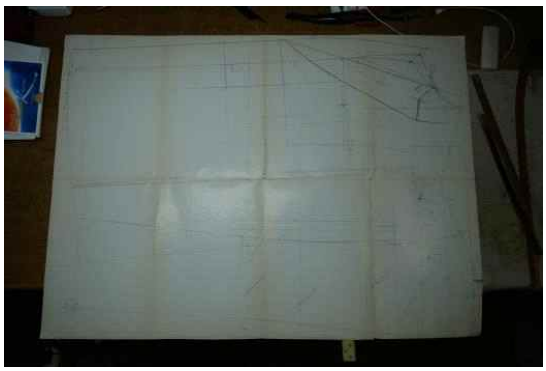
박창규씨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보면 세월과, 한결같은 기술 방식을 볼 수 있다. 해마다 모아놓은 고객 장부, 낡고 헤진 만큼 그의 땀이 느껴지는 작업 도구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큰 종이에 스케치한 옷본들까지 ….



서울기록원. 2019년 창신동 태극라사 고객장부모음1. 2019.



박창규. 2019년 창신동 태극라사 작업도구2. 미상.



박창규. 2019년 창신동 태극라사 옷본 상(자켓)2. 미상.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박창규. 창신동 태극라사 고객장부 56권(801-850). 2006.
박창규. 2009-2011년 창신동 태극라사 고객장부낱장. 2011.
박창규. 2019년 창신동 태극라사고객장부모음1. 2019.
박창규. 창신동 태극라사 재단가위. 미상.
서울기록원. 창신동 태극라사 다리미받침대1. 2019.
서울기록원. 창신동 태극라사 작업대4. 2019.
서울기록원. 창신동 태극라사 완성품. 2019.

누군가는 요즘 기성복도 잘 나오는데 이렇게 낡은 방식을 고집해야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손님의 치수를 재고, 재단을 하고, 손바느질과 미싱으로 정성스럽게 완성한 맞춤 양복은 기성복에서 느낄 수 없는 내 몸에 꼭 맞는 만족감을 선사한다.

창신동의 봉제마을에서도 작은 봉제공장들이 촘촘히 들어 선 좁은 골목에, 4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스타의상실이 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옷들을 만들어낸 작업실이라기에는 협소한 공간, 그러나 봉제장인 권영숙 씨를 대변하듯 미싱 위로 실타래들이 빽빽하게 꽂혀있다.



서울기록원. 2019년 창신동 스타의상실 작업모습3. 2019.



권영숙. 2019년 창신동 스타의상실 미싱3.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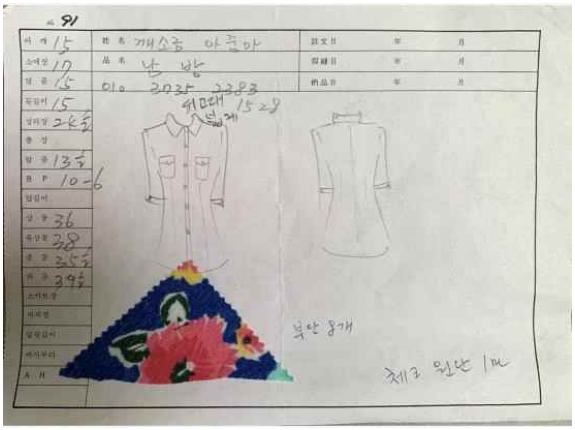
서울기록원. 2019년 창신동 스타의상실 실 모음. 2019.

어린 나이에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창신동으로 올라와 봉제기술을 배운 권영숙 씨는 17년 만에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40년이 넘는 시간 많은 단골들의 옷을 만들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단골손님이 딸을 데리고 왔을 때, 그리고 그보다 더 기억의 남는 순간도 있다고 한다.

"우리 딸 웨딩드레스를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직접 옷을 디자인하기보다는, 손님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옷에 최대한 맞춰 만들어준다. 더 빨라진 유행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스타의상실을 꾸준히 찾아주는 '멋쟁이' 단골손님들이 있어 자신의 기술에 자부심

을 갖는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단골손님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지만, 그냥 같은 자리에서 여전히 찾아주는 단골들, 그리고 주위의 다른 봉제장인들과 지금처럼 사는 것이 권영숙 씨의 작은 꿈이다.



권영숙. 2019년 창신동 스타의상실 의상실 주문서. 2019.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서울기록원. 창신동 스타의상실 외부전경. 2019.
서울기록원. 창신동 스타의상실 작업책상. 2019.
권영숙. 창신동 스타의상실 스팀다리미 물통. 미상.
서울기록원. 창신동 스타의상실 내부모습. 2019.
서울기록원. 창신동 스타의상실 작업물1. 2019.

봉제장인들과 재단장인들로 가득한 창신동의 골목 한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4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진관이 있다. 라라포토샵. 이 사진관이 자리를 잡았던 초기에는 창신동에는 3개의 사진관이 있었다고 한다. 시대가 변하고 누구나 손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게 되면서 창신동만이 아니라 많은 곳의 사진관이 사라져 갔다.

라라포토샵의 라종찬씨는 역도를 하다가 부상을 입고, 원래 이 사진관을 운영하던 매형에게 사진기술을 배웠다. 기술을 빠르게 습득한 그는 사진관을 인수받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의 명함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는 '프로인상사진 추천작가'라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그는 사진기술을 익혀오고, 자신만의 기술을 만들어갔다.

담배 연기 사진은 그에게 사단법인 대한직업사진가협회에서 프로인상사진 추천작가 인증을 받게 한 작품이다. 담배 연기가 생생하게 담긴 사진 한 장을 남기기 위해 많은 사진들을 찍었다고 한다. 담배 연기 사진만큼 그의 사진기술이 느껴지는 것이 오른쪽의 이중촬영기법이 담긴 사진이다. 같은 인물을 쌍둥이처럼 담은 이 사진은 요즘같이 컴퓨터그래픽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순수 그의 촬영기술로 이루어낸 작품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진가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편집기술도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는 밤



라종찬. 라라포토샵 담배 연기사진. 1995.



라종찬. 창신동 라라포토샵 이중촬영기법2. 1995.

늦은 시간 사진관 문을 닫고 포토샵을 배우러 다녔다고 한다. 이제 사진관에는 주로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오는 손님들뿐이지만, 사진관 벽에 걸린 그의 '작품'들은 그가 사진 장인이라고 말해준다.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라종찬. 창신동 라라포토샵 디지털현상기매뉴얼. 2019.
라종찬. 창신동 라라포토샵 프로인상사진추천작가1. 1955.
서울기록원. 1987년 창신동 라라포토샵 두 어린이 사진1. 2019.
라종찬. 2019년 창신동 라라포토샵 사진봉투2. 미상.
라종찬. 2019년 창신동 라라포토샵 작업장비1. 미상.
라종찬. 2019년 창신동 라라포토샵 작두식사진커터기. 미상.

S-NAP 1.4 콘크리트 유토피아

S-NAP 1.4.1 석조를 밀어낸 콘크리트

오늘날 서울을 사는 사람들은 콘크리트로 만든 공간 속에서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식사를 한다.

대한민국의 압축성장을 상징하는 메트로폴리탄 서울은 양적 성장의 반작용으로 더 많은 도시지원시설을 필요로 했다. 늘어난 인구를 수용할 주거시설과 늘어난 자동차를 감당할 도로는 콘크리트에 의존했다.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 낸 전통적인 건조물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급격히 사려졌고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은 석조건물로 대체되었다.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과 도로는 튼튼하면서도 효율적이었다. 좁은 공간에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다른 건축자재로 대체할 수 없는 커다란 크기의 건축도 가능하다. 콘크리트는 압축성장을 겪은 시민에게 축복과 같은 존재였다. 건축과 토목은 곧 콘크리트라는 공식을 머릿속에 가진 시민들은 콘크리트로 만든 것들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인식하지 않는 동안 콘크리트는 서울의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있다.

콘크리트가 주요한 재료로 사용되기 전에 만들어진 서울의 주요한 석조건물들은 일제 강점기 이후에도 기능상의 이유로 오랜 시간 유지되었다. 이들 건물들은 어느새 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를 기억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돌을 사용한 건물은 해방 이후 역, 관공서, 은행 등 도시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며 폐허에서 시작한 낮은 스카이라인 사이 단연 위용 있는 모습을 봄냈다. 가장 세련된 형태의 건물로 일제가 만들어낸 선진적인 건물로 받아들여졌다. 석조 건물들은 일제 강점기 이후 남겨진 건물이었고, 도시를 다시 일으키는 중심점이 되었다. 도시의 주요한 도로와 지하철 착공은 서울시청, 서울역, 한국은행 인근에서 시작하였다.



서울사진아카이브. 서울역 앞 자유의 집 전경. 1975.

그중 서울역은 그 기능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 철도는 도시에 계속해서 사람을 공급했다. 서울역은 일제가 떠난 이후에도 가장 번화하고 일제강점기 시기와 동일한 역할을 하며 유지되었다. 서울역 주

변의 많은 통행량으로 서울은 이내 고가도로를 만들고, 도로를 확장하고, 지하도로를 착공하였다. 서울역 앞은 간첩신고센터부터 부랑자까지 모이는 가장 번화한 곳이 되었다. 서울역 앞 자유의 집 전경 사진은 간첩을 신고하는 시설로 시대정신인 반공을 표현하고 있다. 반공을 선전하는 데 있어서, 또 반공을 기치로 시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절한 장소였다.

서울역 구역사처럼 사적으로 등록된 건물은 낡음과 오래됨을 무기로 도시에서 보호받는 존재로 유지된다.



이상권. 서울역 구역사(현 문화역284). 2018.



이상권. 신축 서울역과 문화역284. 2018.

현재 서울역 앞에는 구역사로 사용하던 건물이 2011년 8월 사적번호를 따 문화역284라는 이름으로 서 있다. 역(驛)의 기능을 하지 않고 전시 기능을 하면서 보이는 것이 주요 기능이 되었다. 바로 옆으로 빠르고 많은 철도 노선이 들어오면서 몇 배나 되는 크기의 새로운 서울역이 들어섰고 지하로 철도가 다니고 있다. 돌과 벽돌로 지어진 과거의 서울역은 문화재란 이름으로 겨우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스펙터클한 신역사와 압도적 규모의 차이를 보인다.

두 역사의 대비는 콘크리트 시대의 위용을 느끼게 한다. 과거 서울역은 도시에서 생산성을 담당하기보다 미관을 담당하고 있다. 아름다움을 중시한 조명은 도시의 야경을 빛내고 콘크리트 서울을 살고 있는 시민에게 추억의 매개로 작동하고 있다.

서울역 구역사의 야경사진은 서울역 구역사에 대하는 도시 운영자에 시선을 보여준다. 서울의 도시지원 시설로서 대우하기보다 주광색 조명으로 일종의 '무드 매니지먼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드러내기보다 주변의 분위기를 위한 일종의 소품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대비되는 현재역사는 상업시설과 함께 현재 가장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이다. 쇼핑시설과 음식점, 그리고 과거보다 많아진 철도노선들은 구 역사를 압도하는 규모를 만들었고, 주변의 대중 교통체계 역시 현재 서울 역사 입구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유리마감의 가장 현대적인 건물과 석조마감의 과거지향적 건물의 대비는 콘크리트 서울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이상권. 봉래동 서울역 구역사(현 문화역284) 후면. 2019.
이상권. 봉래동 서울역 구역사(현 문화역284) 측면 야경. 2019.
이상권. 봉래동 서울역 구역사(현 문화역 284) 광장 전경. 2018.
이상권. 봉래동 서울역 구역사(현 문화역 284) 상단부 사진. 2018.
이상권. 봉래동 신축 서울역과 구역사 (현 문화역 284). 2018.

석조시대 서울을 대표하는 다른 건물로 과거 서울시청을 꼽을 수 있다. 해방 직후부터 서울시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길은 서울의 중심도로였으며 시청과 서울역은 서울의 거점 역할을 하였다. 서울여고가 마찬가지로 서울시청 역시 도시의 양적 성장과 함께 더 크고 화려한 새로운 청사를 필요로 하였다.

서울도서관으로 사용되는 서울시청 구 청사는 주변의 웅장한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서 과거가 모두 잊힐까 두려워 남겨둔 기억의 잔해처럼 서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서울시의 청사는 일제강점기에 사용하던 건물을 대체하여 기존 건물 바로 옆에 만들어졌다. 옛 서울청사는 1926년에 만들어진 건물을 개조하여 현재 서울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더 크고 웅장한 현재의 서울청사는 과거의 서울청사인 서울도서관 바로 옆에서 웅장함을 뽐내고 있다. 과거 청사였던 현 서울도서관 건물은 가장 위용 있는 건물에서 초라하게 신청사 건물의 부속물로 격하되어 유지되고 있다.



이상권. 서울시청과 서울도서관. 2019.



서울사진아카이브. 구 서울시청 모습. 1986.

2012년 새롭게 문을 연 신청사는 이미 구 시청을 향해 자랑하듯 규모를 뽐내고 있다. 흡사 신축 서울역이 문화역284를 압도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과거 서울시청은 메트로폴리탄 서울의 청사로서 이미 수명을 다해 시청은 주변의 건물을 임차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과거 서울의 중심이던 시청사와 앞 광장은 아직 그 자리에서 스스로 서울의 중심부임을 외치고 있다.



정보공개정책과. 서울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中 한강건설 이동시청 개청). 1968.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정보공개정책과. 서울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中 시무식 01). 1967.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서울시청과 서울도서관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은 더 높고 더 세련된 현재의 서울시청이 과거의 청사건물을 위협하는 듯 보인다. 현 서울시청의 윗부분은 구 청사의 지붕 위를 점유하여 자신이 이 곳의 주인임을 표현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구 청사만 있을 때를 비교해 보면 그 지위가 축소됨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建設하고 改革한다." *-서울시청 앞 표어 中-*

과거 이동시청 개청이나 시무식과 관련된 사진은 그 배경을 청사로 두어 실제 사진의 주인을 청사로 보이게 하였다. 청사건물은 곧 시청이라는 행정관청을 상징했기 때문에 청사의 행사는 청사건물을 통해 그들의 주체를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이미지의 사용은 시청청사가 이미지로 소비되고 지배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기여하였다. 청사의 사진이미지는 서울을 지배하는 공권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도시를 사는 누구나 건물의 이미지만으로 서울시의 행정권력을 떠올리게 하였다.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정보공개정책과. 서울시청 현관 표어. 1968.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정보공개정책과. 서울특별시청사 건립. 2009.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이상권. 서울시청과 서울도서관. 2019.
이상권. 태평로 서울시청 현청사와 서울도서관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2018.
이상권. 태평로 서울도서관과 서울시청 현청사. 2018.

이후 석조에서 콘크리트로 무게중심이 옮겨 온 이후에도 여전히 시청을 배경으로 많은 행사와 집회들이 열리고 있다. 광화문 광장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서울의 중심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서울 심장부의 새 주인은 유리의 외관을 한 콘크리트를 숨긴 새로운 건물이었다. 서울의 콘크리트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또 변신하고 있다. 콘크리트로 만들고 돌로 마감한 과거 서울시청과 달리 현재 서울시청은 다시 콘크리트로 만들고 유리로 마감하였다. 콘크리트는 사실 일제강점기 석조의 모습으로 등장해 서울에 정착했고 서울 어디에서나 보일 정도로 뒤덮고 나서야 다시 형태를 숨겼다.

유사한 사례로 한국은행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석조건물의 전형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은행으로 만들어져 해방 이후 한국은행으로 중앙은행이라는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아 수행하였다. 르네상스 양식의 한국은행 건물은 여전히 과거의 수호자인 박물관 역할을 하며 현재의 한국은행 사옥 앞에 있다. 화폐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사진아카이브. 한국은행 앞 분수 통수식. 1978.

서울역이나 서울시청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로 건축되었으나 돌을 이용해 마감하여 콘크리트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국내에서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이기도 하였다. 한국은행의 본점빌딩은 과거 한국은행 바로 뒤에 콘크리트 빌딩의 전형적 모습을 하고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행 사옥을 포함하여 돌로 마감한 식민지 시대의 건물들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일제는 제국주의의 주체로 서양열강의 한 축으로 자신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조선에서 가장 서구적인 건물을 짓고 조선을 통치하였다. 서울역과 시청, 한국은행은 모두 르네상스 시대 건축을 흉내 내었으며 가장 '모던'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들 건물은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건물로 손꼽히며 사진의 배경이 되고 있다. 여전히 문화적인 장소로 간주되어 도서관이나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르코르뷔제를 추종하듯 철저히 기능적인 신청사 건물은
구 한국은행 청사를 역시 높이와 규모 면에서 압도하였다.

1978년의 한국은행 앞 분수 통수식 사진은 한국은행 청사 건물의 여전한 우월적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도 과거 석조건물에 대한 존중을 석조 분수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주변의 분수공간까지 한국은행 청사에 종속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1987년에는 한국은행도 서울역이나 서울시청과 마찬가지로 신청사가 생기면서 현재 본관전경 사진과 같은 전경이 되었다.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유리와 달리 콘크리트 사각빌딩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콘크리트를 그대로 드러내며 그 위용을 드러내는 것은 당시 콘크리트의 지배적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상권. 한국은행 본관 전경. 2019.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이상권. 남대문로 한국은행 회폐박물관 상단부 사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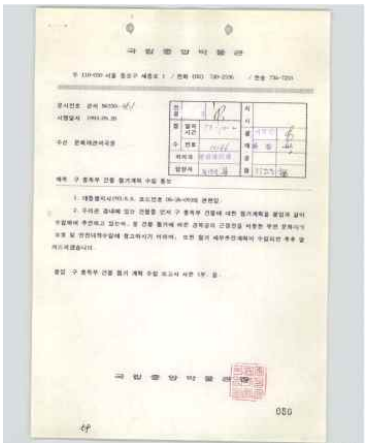
이상권. 남대문로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외벽. 2018.

한국은행이나 문화역과 같이 일제 강점기 건물이 박물관으로 사용되던 대표적인 건물은 구 조선총독부 건물이다. 식민지 수탈의 중심축 역할을 했던 총독부 건물은 이후 해방된 대한민국의 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었다. 앞선 사례와 같이 '문화적'이라는 인식이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긴 시간 서울의 중심부에서 여전한 위상을 뽐내던 조선총독부 건물은 해방 50여년이 지나서야 논란과 함께 철거가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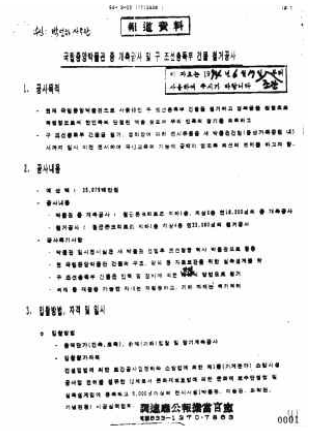
조선총독부 건물은 광화문과 서울시청 사이에서 위치해 서울의 거니는 보행자에게
서울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공간의 시퀀스를 제거하면서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감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석조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에 자리를 내어 준 상징적인 사건은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행사였다. 과거 조선총독부에서 시작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의 철거는 식민지 잔재의 청산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석조건물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의식이었다.

문화재청의 총독부 철거계획 수립 문서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철거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측의 총독부 건물 철거공사와 관련된 기록은 총독부 건물의 철거가 경복궁의 복원으로 한민족의 단절된 맥을 찾고 정기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식민지 청산이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기존의 박물관 기능은 용산공원 내로 이전하려는 계획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석조건물과 같이 문화재로 남겨 도시의 미관을 가꾸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신 철거를 선택하여 경복궁 중심의 공간 시퀀스를 복구하였다.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구 총독부 건물 철거계획 수립 통보. 1994.
[출처 : 국가기록원]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2005광복60년추진기획단.
보도자료(국립중앙박물관 중 개축공사 및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공사). 1994.
[출처 :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건물은 서울역이나 서울시청과 달리 위상을 축소하여 보존되기보다 완전한 산화가 선택되었다. 경복궁이라는 더 중요하게 보존되어야 할 문화재가 있었으며 일제강점기를 지휘하던 기관의 청사로 사용된 건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이었다.

일반적 건물의 철거와 달리 언론에 생중계되며 폐허의 모습을 전 국민에게 전달하였다. 식민지 과거와의 완전한 종말을 선언하는 세레모니였으며 동시에 서울의 중심부에서 콘크리트 서울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승전보와도 같았다.



공보처. 경복궁 앞의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잔해. 1996.
[출처 : 국가기록원]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국가기록원 소장. 총독부건물도31매. 미상
국가기록원 소장. 총독부 청사 및 부속건물 배치도 축척1/200. 미상
문화재청. 구 조선총독부 청사(현 국립중앙박물관) 철거에 따른 업무협조요청. 1994. [출처 : 국가기록원]
조달청. 국립중앙박물관 증.개축 및 구 조선총독부건물 철거공사. 1994. [출처 : 국가기록원]
문화재청.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공사 현황 통보. 1995. [출처 : 국가기록원]
문화재청. 보고서 : 구 조선총독부건물 철거 자문회의 결과 보고. 1995. [출처 : 국가기록원]
공보처. 구 총독부 건물 철거현장1. 1996. [출처 : 국가기록원]

S-NAP 1.4.2 콘크리트 랜드마크

서울의 랜드마크는 역사와 전통보다 다른 가치가 우선되었다. 시민들이 더 크고 웅장한 것에 대해 주목하면서 서울의 랜드마크는 자연스럽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차지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의 랜드마크를 더 크고 높은 것으로 타인에게 표현하려는 성향은 성장에 대한 콤플렉스가 낳은 산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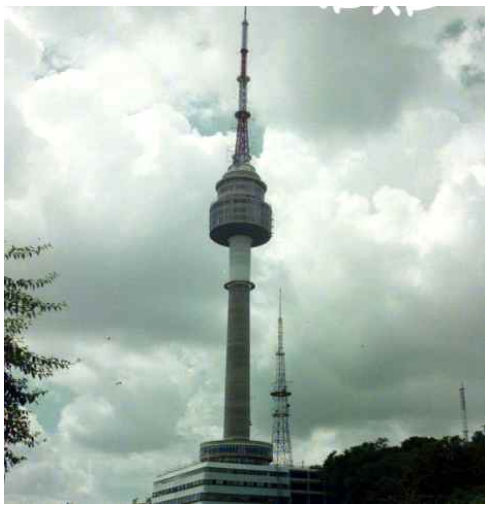
600년 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아이러니하게도 해방 이후의 건축물들이다. 아주 높거나 웅장한 건물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모두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 남대문이나 동대문, 그리고 궁궐과 같은 과거의 랜드마크들은 높은 콘크리트 빌딩 사이에서 문화재란 이름으로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 서울의 랜드마크는 규모가 아닌 사람들의 인식으로 결정된다. 서울의 랜드마크는 서울을 사는 시민들이 결정하지만 공권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국립방송, 대한늬우스, 1980.
[출처 : e영상아카이브]

해방 이후 서울의 랜드마크로 가장 많은 사랑은 받은 건물은 남산타워라고 볼 수 있다. 현재 N서울타워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서울의 중심부인 남산 정상에 설치되 서울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랜드마크의 역할에 가장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남산타워는 1980년 10월에 개장하여 서울의 명소로 소개되었다.

남산타워 준공은 1975년에 종합전파탑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의 전망대를 설치하여 개장한 것은 안보상의 이유로 제5공화국 출범 이후였다. 군사정부시대의 대한늬우스는 남산전망대 개장을 보도하였고, 이는 이미 랜드마크가 된 남산타워에 접근성을 높여준 계기가 되었다.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남산타워전경.
1975. [출처 : 국가기록원]

남산타워는 남산이 유원지로 개발된 이후 이루어졌다. 남산에 케이블카가 1962년 개통되며 남산은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이 되었고 남산타워가 복합문화공간이 되며 서울의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가 보는 곳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남산타워의 서울을 떠 올리며 느끼는 높게 솟은 탑과 같은 형상은 상승 지향적인 과거 석탑과 닮아있다.

콘크리트 서울은 콘크리트로 모든 건물과 도로를 만들었음을 의미하기보다 더 웅장하고 더 높게 올라가는 건물과 무한대로 확장되는 메트로폴리탄 서울을 콘크리트가 지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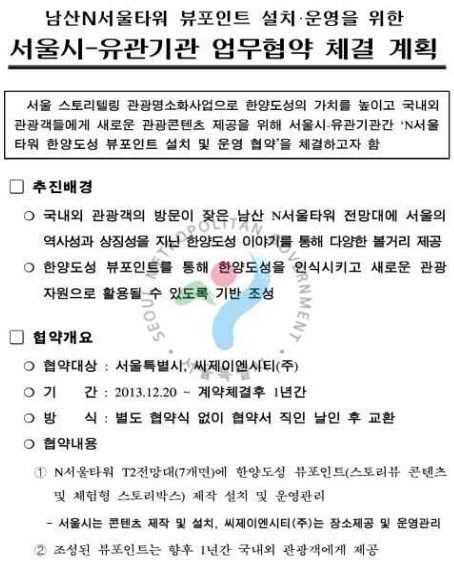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남산타워 홍보 전시관 개관식 참석관계자 상패 수여 2. 1985. [출처 : 국가기록원]

남산타워는 도시의 랜드마크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서울의 성장을 올림픽 개최를 통해 알리고 싶었던 정부는 올림픽 선정단을 남산타워로 안내하여 관람하게 하였다. 남산타워는 서울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공간이었으며 전망대 공간에서 울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공간이기도 하였다. 남산타워에는 서울의 홍보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세일즈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생산한 기록은 사무총장에게 서울을 소개하며 남산타워를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했는지 알 수 있다.

남산타워는 현재도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수많은 방송 등 매체에 노출되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서울을 홍보할 수 있는 장 역할을 하고 있다. 랜드마크 서울로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서울의 역사와 자랑거리들을 표현하고 있다.

남산타워의 전망대는 콘크리트 서울을 조망할 수 있게 한다. 높은 빌딩의 군집을 지칭하는 스카이라인이라 불리는 서울의 광경을 타지인들에게 자랑하듯 봄내는 자리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남산타워에 뷰포인트를 설치하여 남산타워를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려는 의지를 확실히 표현하였다.



남산N서울타워 뷰포인트 설치·운영을 위한
서울시-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계획

서울 스토리텔링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한양도성의 가치를 높이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콘텐츠 제공을 위해 서울시-유관기관간 'N서울타워 한양도성 뷰포인트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남산 N서울타워 전망대에 서울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한양도성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
- ○ 한양도성 뷰포인트를 통해 한양도성을 인식시키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협약개요
- ○ 협약대상 : 서울특별시, 씨제이엔시티(주)
- ○ 기 간 : 2013.12.20 ~ 계약체결후 1년간
- ○ 방 식 : 별도 협약식 없이 협약서 직인 날인 후 교환
- ○ 협약내용
  - ① N서울타워 T2전망대(7개면)에 한양도성 뷰포인트(스토리뷰 콘텐츠 및 체험형 스토리박스) 제작 설치 및 운영관리
    - 서울시는 콘텐츠 제작 및 설치, 씨제이엔시티(주)는 장소제공 및 운영관리
  - ② 조성된 뷰포인트는 향후 1년간 국내외 관광객에게 제공

서울특별시 문화광광디자인본부. 남산N서울타워 뷰포인트 설치·운영을 위한 서울시-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13.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관광객에게 관광콘텐츠를 제공하는 장소로 남산타워를 표현하고, 높은 곳에서 서울을 전망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관광자원으로 삼고자 하였다. 남산을 둘러싼 조망은 그 자체로 남산타워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남산타워는 이후에도 오랜 시간 서울의 랜드마크로 인식되며 누구나 서울을 떠올릴 때 쉽게 연상되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2018년에는 서울시에서 부여하는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서울시민이 제안하여 다음세대들의 서울에서도 함께 해야 하는 건물이었던 것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정보공개정책과. 남산 관광 기지 현황도. 1967.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이상권. 멀리 보이는 용산구 남산서울타워 모습. 2017.
이상권. 테헤란로에서 바라본 남산서울타워. 2018.

애초부터 높이 그 자체가 의미였던 63빌딩은 서울 최고층의 지위를 내려놓는 순간 랜드마크로서의 효용은 사라진다.

남산타워 이후 높이에 집착한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63빌딩이다. 1985년 7월 개장한 63빌딩은 그 이름부터 63층을 의미하는 63빌딩으로 명명되었다. 정부는 높은 빌딩을 건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술이 필요하며 지진을 대비하거나 기압에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하며 도시의 시민들에게 홍보하였고, 도시의 시민들은 기꺼이 초고층 빌딩의 등장을 자신들의 자부심으로 삼았다. 63빌딩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시민들의 자랑거리였고 이내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었다. 당시 동양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여러 언론의 보도는 일종의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의 표현이었다.

63빌딩은 올림픽을 거치며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 되었다. 여의도개발 시기와 맞물려 63빌딩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시각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남산타워와 같은 탑이 아니라 업무공간이자 문화시설의 역할을 하는 63빌딩은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구를 표현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문화공보부. 63빌딩 1. 1984. [출처 :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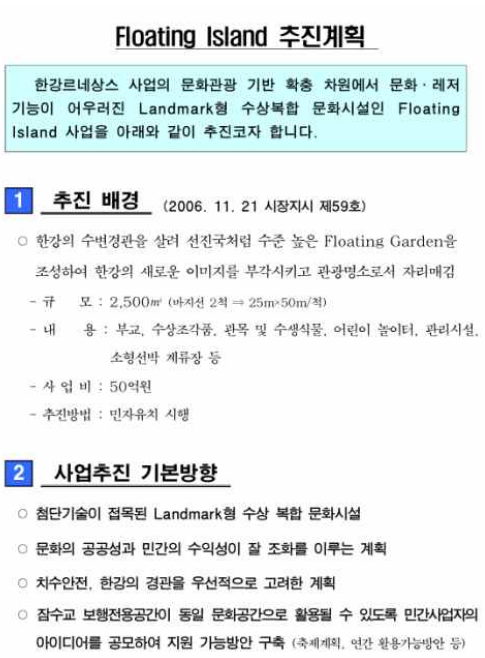
63빌딩은 현재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아니지만, 서울시민이 고층빌딩의 층수를 인지하고 있는 얼마 없는 건물이다. 63빌딩은 고도성장기 서울에서 서울의 자부심과 함께 올라갔고 현재 서서히 낡아가고 있다.

2000년 이후 서울은 더이상 고도성장국가의 중심도시가 아니었으며 서울 자체로의 정체성이 요구되었다. 동양에서 가장 높은, 서울이 잘 내려다보이는 건물은 서울의 랜드마크로는 부족해졌다. 고층빌딩에 둘러싸인 남대문이나 광화문은 서울시민의 자랑거리로 삼기에 너무나도 초라했다.

서울은 그들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역사와 전통을 선택하는 대신 과거와 단절하고 시각적 경관 자체로 파장을 줄 수 있는 방식을 원했다. 과거처럼 높이만으로는 눈길을 끌 수 없었다. 전 세계에 경쟁하듯 지어지는 초고층건물은 어느 날 높은 지위를 빼앗아 갈 수 있다. 서울은 컴퓨터의 힘을 빌려 콘크리트를 흙을 주무르듯 하면 예술작품과 같은 건물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더 이상 높이만으로 주목을 끌 수 없었고 어떤 의미도 제시하기 어려웠다. 서울은 콘크리트로 신기하고 예쁜 것을 만들어 도시의 랜드마크를 추가하는 선택을 하였다.

세빛섬은 새로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빛섬은 Floating Island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는데, 역시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진행되었다. 한강의 새로운 이미지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다는 의미는 역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첨단기술이 접목된 랜드마크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이었기에 세빛섬은 처음부터 시민을 위한 활용상의 이유보다 랜드마크로 자랑스러운 조형물이 되기를 원했다.

세빛섬은 새로운 방향의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었던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2000년대 중반 선진국과 같은 랜드마크를 가지고 싶었으며 이러한 욕구는 미래지향적이고 첨단기술이 들어간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건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Floating Island 추진계획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문화관광 기반 확충 차원에서 문화·레저 기능이 어우러진 Landmark형 수상복합 문화시설인 Floating Island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1 추진 배경 (2006. 11. 21 시장지시 제59호)

○ 한강의 수변경관을 살려 선진국처럼 수준 높은 Floating Garden을 조성하여 한강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명소로서 자리매김

- 규 모 : 2,500㎡ (야지선 2척 ⇒ 25m×50m/척)
- 내 용 : 부교, 수상조각품, 관목 및 수생식물, 어린이 놀이터, 관리시설, 소형선박 계류장 등
- 사 업 비 : 50억원
- 추진방법 : 민자유치 시행

2 사업추진 기본방향

○ 첨단기술이 접목된 Landmark형 수상 복합 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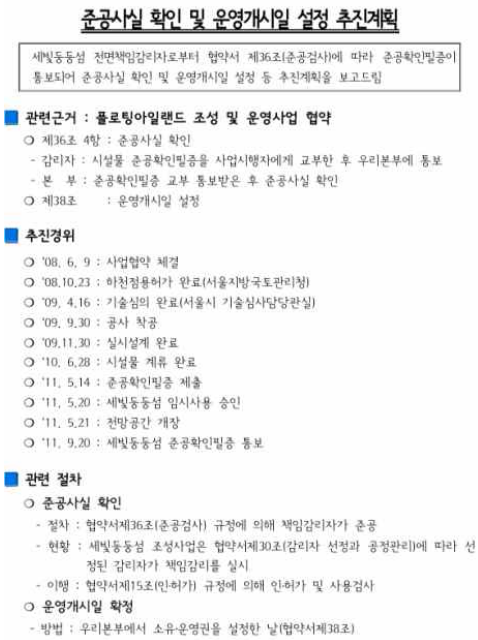
○ 문화의 공공성과 민간의 수익성이 잘 조화를 이루는 계획

○ 치수안전, 한강의 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계획

○ 잠수교 보행전용공간이 동일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지원 가능방안 구축 (축제계획, 연간 활용가능방안 등)

한강사업본부 사업총괄과.
Floating Island 추진계획. 2007.

이러한 이미지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어 영화 『어벤져스2』에도 세빛섬이 등장하였으며, 서울시 역시 적극적으로 촬영을 지원하였다. 새로운 서울의 랜드마크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다. 선진국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건물을 원했고 서울의 정체성의 고려는 포함되지 않았다. 더 눈에 띄고 더욱 자랑스러운 랜드마크를 가지려는 욕심은 높이에 집착하던 63빌딩에 비해 달라지지 않았다.



준공사실 확인 및 운영개시일 설정 추진계획

세빛둥둥섬 전면책임감리자로부터 협약서 제36조(준공검사)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이 통보되어 준공사실 확인 및 운영개시일 설정 등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협약
○ 제36조 4항 : 준공사실 확인
- 감리자 : 시설물 준공확인필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한 후 우리본부에 통보
- 본 부 : 준공확인필증 교부 통보받은 후 준공사실 확인
○ 제38조 : 운영개시일 설정

■ 추진경위
○ '08. 6. 9 : 사업협약 체결
○ '08.10.23 : 하천점용허가 완료(서울지방국토관리청)
○ '09. 4.16 : 기술심의 완료(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
○ '09. 9.30 : 공사 착공
○ '09.11.30 : 실시설계 완료
○ '10. 6.28 : 시설물 계류 완료
○ '11. 5.14 : 준공확인필증 제출
○ '11. 5.20 : 세빛둥둥섬 임시사용 승인
○ '11. 5.21 : 천망공간 개장
○ '11. 9.20 : 세빛둥둥섬 준공확인필증 통보

■ 관련 절차
○ 준공사실 확인
- 절차 : 협약서제36조(준공검사) 규정에 의해 책임감리자가 준공
- 현황 :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은 협약서제30조(감리자 선정과 공정관리)에 따라 선정된 감리자가 책임감리를 실시
- 이행 : 협약서제15조(인허가) 규정에 의해 인허가 및 사용검사
○ 운영개시일 확정
- 방법 : 우리본부에서 소유·운영권을 설정한 날(협약서제38조)

한강사업본부 사업총괄과. (Floating Island)
준공사실 확인 및 운영개시일 설정 추진계획. 2011.

세빛섬은 2011년 준공되어 세상에 공개되었다. 랜드마크 공간답게 문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며 민간위탁을 진행하였다. 하천점용허가에서부터 설계공모를 거쳐 착공되었으며 개장 당시 세빛둥둥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후 세빛섬으로 이름이 변경되며 2014년에 가서야 전면개장이 되었다.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쇼나 잠수교 보행화 등과 결합하여 세빛섬은 서울시의 바람과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는 데 성공했다. 세빛섬은 서울 도시의 문화적 랜드마크가 되었다.



이상권. 세빛둥둥섬 전경. 2016.

2016년에 찍은 전경사진에서 현재의 세빛섬은 높은 빌딩에 둘러싸이지 않도록 주변의 한강과 둔치를 활용하여 최대한 공간적 완충공간을 설정하였다. 충분히 공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한 배려이다. 한강의 기적은 여의도의 63빌딩에서 한강위에 서있는 세빛섬으로 상징대표물이 변경되었다. 세빛섬은 그렇게 서울에 정착하였다.

세빛섬은 이후 유사한 방식의 욕망에 의해 그 존재감을 위협받게 되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명 DDP로 불리는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더 크고 웅장한 공간, 더욱 미래적이고 문화적 이미지, 그리고 더욱 새로운 건물은 단순에 세빛섬이 짧게 점유하던 우월적 지위를 박탈시켰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다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고 현재도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 되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이라는 비교수사와 함께 등장했다.

서울은 전방위적으로 새로운 랜드마크를 홍보했다. 2014년 개장 직후 외신기자와 설계를 맡은 유명건축가를 초빙하여 홍보에 열을 올렸다. 더 크고 웅장하며 한편으로는 기괴한 콘크리트 덩어리는 다시 서울을 대표하게 되었다. 예상할 수 있듯 해외언론이 서울을 어떻게 보는지, 또 새로운 서울의 랜드마크를 어떻게 볼지는 최대의 관심사였다. 외신기자들은 그렇게 시민들보다 미리 서울의 랜드마크를 구경하고 저마다의 품평을 하게 되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홍보 결과 보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개관에 따라 해외 유력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홍보활동 및 해외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보고하고자 함

Ⅰ 주요 홍보 추진 일정

1. 개관 전 자료 제공
   - ○ 프레스투어 사전공지(2.21), 참가 신청 안내 (2.28)
   - ○ 보도자료 배포 : "지역경제 살리는 디자인 창조·지식 공간으로서의 DDP, 미래 건축의 방향의 총아 제시"
   - ○ 매체 : SFCC(서울외신기자클럽) 및 해외거주 외신 등 약 220개 매체(붙임 1)
2. 사전 프레스 투어 : 03.07.(금) 10:30~16:30
   - ○ 장소 : DDP 및 동대문 주변 상권 (광장시장 등)
   - ○ 대상 : 28개 매체, 기자 48명(붙임 2)
   - ○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45	DDP 운영방안 소개 및 Q&A	영·중·일 통역
11:50~12:20	DDP 투어	
12:25~13:30	오 찬	
14:00~15:00	DDP 주변 지역상권 투어 : 동대문 패션이야기	
15:20~16:30	광장시장 투어	

##
- ○ 취재지원 내용 : 자하하디드 기자설명회, Q&A
- ○ 참석매체 : AP, APTV, 블룸버그뉴스, Wall Street Journal, Lianhe Zaobao 등

4. 개관행사 & 패션위크 : 03.21.(금) 10:00~
   - ○ 취재지원 내용##
   - ○

##
############## 등

대변인 언론담당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홍보 결과 보고. 2014.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서울을 대표하는 건물이기에 건축과정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장소의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동대문야구장을 철거한다거나 성곽유물의 복원을 저해한다거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등의 여러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세계 최대라는 타이틀은 여전히 시민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다. 얼마나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지, 또 얼마나 세계적 수준인지를 자랑하며 새로운 콘크리트는 다시 자리를 잡았다.



서울디자인재단. DDP, 세계 최대'3차원 비정형 외장패널' 설치 中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설현황사진. 2011.

서울시청, 서울역, 세빛섬과 달리 새로운 랜드마크는 유리가 아닌 알루미늄과 노출콘크리트로 외벽을 이루었다. 콘크리트는 노출콘크리트란 이름으로 세련된 방식으로 건물 밖으로 나왔으며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에 적합하도록 회색 알루미늄이 외장재로 선택되었다.

개장 이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전시공간과 문화공간으로 사용되며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다. 시민들과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철역과 이어지도록 하였고, 관광객을 위한 버스 주차장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또한 야시장이나 문화행사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도록 지원하여 시민에게 다가가기도 하였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세계인들에게 서울의 자랑거리이자 구경거리가 되었다.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이상권.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공사모습1. 2016.
이상권.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부모습. 2016.
이상권.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외부모습.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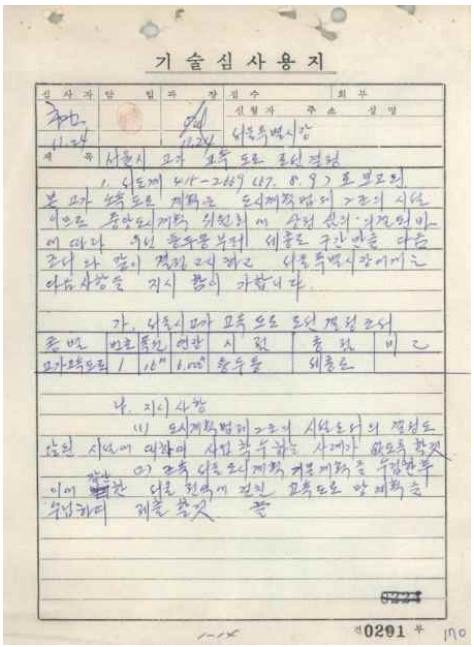
콘크리트는 랜드마크는 서울적인 것을 만들 수 없다. 다만 더 크고 웅장하거나 더욱 특별한 형태를 가지는 랜드마크를 원할 때 콘크리트는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

공간에 기억이 켜켜이 쌓여 시민들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공간은 오래된 공간이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서울의 랜드마크는 빠르게 변경되며 서울을 사는 시민들은 그것을 다시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의 랜드마크의 주인은 서울을 운영하는 공권력도, 서울을 사는 시민도 아닌 콘크리트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S-NAP 1.4.3 머리위로 올라간 콘크리트 도로

콘크리트가 만들어낸 도로는 지상을 약자인 보행자의 공간으로 만들고 간선도로가 내려다보이는 고층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어울리는, 세련된 도시인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스는 밀도 높은 개발이 필요하다. 높이 올라간 건물과 함께 도로 역시 위로 올라가 있다. 서울의 동맥과 같은 주요도로는 모두 머리위로 올라간 간선도로이며, 도시 곳곳에는 고가도로를 만들어 도로를 확장하였다. 콘크리트는 서울의 도로를 공중으로 올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길을 걷는 보행자들은 공중에서 달리는 것과 같은 자동차들을 마주한다. 보행자는 자신들의 시선 위에 있는 자동차에게 위압감을 느끼며 약자가 된 자신들의 모습을 경험한다.


기 술 심 사 용 지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서울시고가도로노선결정. 1965.
[출처 : 국가기록원]

압축성장한 서울은 획기적으로 도시규모가 확장되면서 더 많은 차량을 필요로 하였다. 도로는 자동차가 점령했고 콘크리트 빌딩은 계속해서 도시의 인구밀도를 높여갔다. 도시를 사는 사람들은 더 빠르게 이동하기 원했고 지상의 도로가 모자라자 지하와 함께 머리 위로 도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서울은 자동차에게 지상의 주인을 내주었다. 콘크리트는 도심을 둘러싼 경계와 같이 고가도로를 만들어냈고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자동차들만의 공간을 선물했다. 보행자는 도시의 빌딩 넘어 멀리 볼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고 차츰 도로의 주인 역할도 차들이 대신했다. 차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행자는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이용했으며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도로 위, 강변 위에 도로를 만들어냈다. 보행자들이 자신의 보행주권을 포기한 대가는 거침없는 도시의 확장이었고, 이는 곧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박탈감을 의미했다.

서울의 도심은 경제 성장 초창기부터 도로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당시 서울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고, 고가고속도로 노선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청계고가도로를 만들어냈다. 세종로에서 용두동을 잇는 고가도로는 서울의 첫 고가도로였으며 건설교통부가 서울시장에게 지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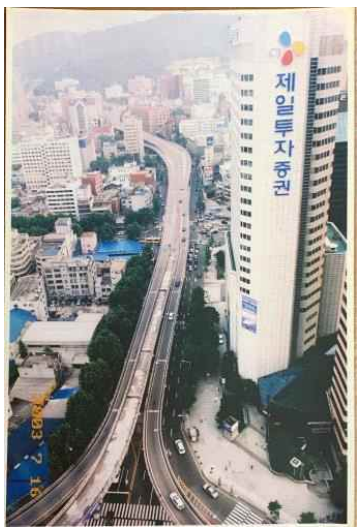
청계고가도로는 서울의 구도심 지역의 교통 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었으며 1971년에 개통되었다. 고가도로는 당시 판자촌이었던 청계천 일대의 복개와 함께 진행되었다. 이 역시 도시화의 첨병인 콘크리트를 앞세

워 진행되었으며, 이내 청계고가 일대에는 상점과 맨션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청계천의 복개는 콘크리트를 이용한 일종의 근대화 상징이었고, 이후 철거된 청계천 고가는 이러한 시도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었다.

현재 청계천 박물관 앞 고가도로는 아래 사진과 같이 현재 철거된 청계고가도로와 내부순환도로가 연결되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청계천은 아직 청계고가도로의 기둥을 일부 보존하고 있으며 대형 콘크리트 덩어리가 부식되는 현장을 기념하고 있다. 철거 직전 청계고가도로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높은 빌딩 사이에서 위용을 봄내고 있었다.



김영준. 청계천 박물관앞 고가도로. 2019.



나종찬, 청계고가사진, 2003.

초창기 도로인 청계고가는 콘크리트를 앞세운 국가주도 개발을 상징하기도 한다. 판잣집 철거사진은 콘크리트 준설을 앞두고 있는 구조물과 양복을 입은 철거주체, 그리고 어지러이 널브러진 물건들이 분쟁 없이 안전하게 철거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개발 결과 청계고가도로 주변에는 근대적 건물들이 하나 둘 생겨났다. 청계고가도로의 철거는 이러한 폭력적 개발에 대한 은폐이기도 하다.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청계천 판자집 철거 3. 1960. [출처 : 국가기록원]



정보공개정책과. 서울도시계획 - 청계고가도로 현황 2. 1968.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판잣집 철거 이후의 청계천은 현재 낡고 지저분하다고 여겨지는 청계천 인근 상가의 모습으로 당시 가장 모던한 건물이었다. 멋진 고가도로 옆에 어울릴만한 건물이었다. 공보처의 서울시 전경 사진은 당시로선 긴 건물들이 규모를 자랑하면서 개발된 모습을 자랑하듯 담아냈다. 또한 우측의 청계천 복개공사 준공 개통식 사진은 역시 맨션 건물들을 배경으로 그들의 근대화를 기념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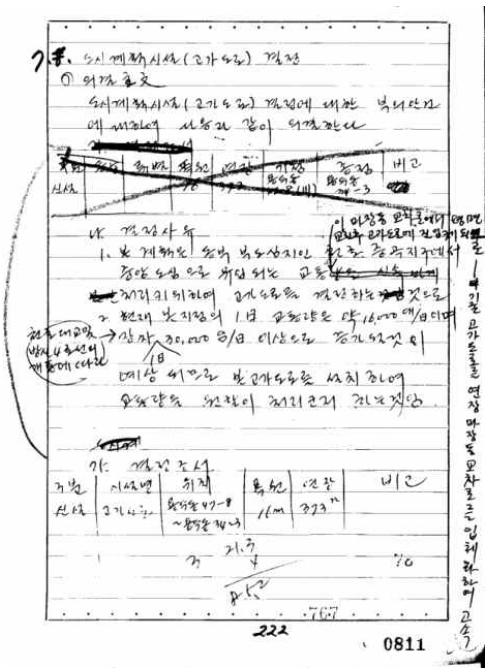
공보처 홍보국. 서울시전경 4(청계천복개도로변). 1965. [출처 : 국가기록원]



서울사진아카이브. 청계천 복개공사 준공 개통식. 1964.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공보처 홍보국. 청계천 판자집 철거2. 1960. [출처 : 국가기록원]
정보공개정책과. 청계고가도로. 1968.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정보공개정책과. 청계고가도로 현황01. 1969.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정보공개정책과. 청계고가도로(3.1고가도로) 개통. 1969.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도로관리과. 청계고가도로 통행금지변경 공고. 1998.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김영준. 청계고가도로 청계램프 흔적1. 201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시설(고가도로) 결정(제21회). 1975.
[출처 : 국가기록원]

이렇게 시작한 고가도로 형태의 간선도로는 도시의 주요 거점을 잇기 위해 더욱 확대되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고가도로 결정 문서를 보면 동부의 부도심인 천호와 도심을 연결하기 위해 용두동 일대에 고가도로를 연결하려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일 교통량을 16,000대에서 30,000대로 증가를 예측하면서 고가도로를 서울의 교통대책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가도로가 늘어가는 서울에서 점점 더 도로는 거점의 연결로만 기능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동과 정은 죽은 시간으로 변하게 되었다.

서울은 지상의 도로를 넓히지 않고 고가도로를 설치하여 그들의 교통수요에 대응했고, 서울의 시민들은 고가도로와 간선도로에 익숙해졌다. 자동차를 위한 도로는 낯선 만남이나 우연, 그리고 보행이 주는 익숙함과 안정성을 빼앗아 갔으며 더욱 자동차를 강요하게 되었다. 콘크리트 서울은 고가도로를 통해 자동차를 위한 도시가 되었다.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건설행정과. 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인가(군자동.송정동.면목동 동부간선도로공사(산본-화양동간)). 1974.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서울연구원. 간선도로 교통류 관리방안 연구:도시고속도로를 중심으로. 1994.
서울연구원. 간선도로 지능화 방안 연구 -- 서울시 도시고속도로를 중심으로. 1995.
도로국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공고. 1996.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자동차를 위한 도시가 되는 과정은 도심의 고가도로뿐만이 아니었다. 서울은 좌우 양측에 있는 중랑천과 안양천을 중심으로 하천 위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한강 위에도 강변북로라는 이름으로, 한강 아래에는 올림픽대로라는 이름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하였다. 특히 서울은 올림픽이 개최되는 88년을 기점으로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를 개통하기도 하였다. 서울이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로 자동차가 다니는 세계적인 도시임을 알리고 싶어 했다.



서울사진아카이브. 동부간선도로기공. 1985.



서울사진아카이브. 서부간선도로 개통식.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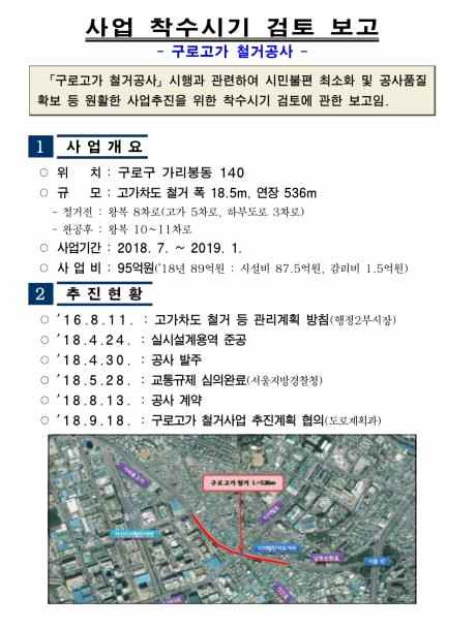
계속해서 늘어가던 고가도로는 다시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지상의 주인을 다시 보행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확대하거나 고가도로를 없애고 보행로를 확대하는 등의 보행자 중심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갑작스런 방향의 변경은 혼란은 가져왔다. 무제한으로 번식하는 콘크리트 도로에서 보행자를 구해내야 했고 콘크리트 도로들 서울의 수많은 운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서울은 우선 아현고가와 같이 구조적 수명이 다한 고가도로를 재설치하는 대신 철거를 선택하였다.



김영준. 한남동 강변북로 전경. 2018.

서울의 고가도로는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청계고가도로, 삼일고가도로, 미아고가도로, 혜화고가도로 등 서울의 대표인 고가도로들이 노후화나 버스전용차로의 흐름개선을 위해 철거되었다. 운전자들은 철거를 반기지 않지만 도시의 미관은 더욱 좋아지고 있다. 대중교통을 개선하면서 보행자는 다시 머리위의 도로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고 있다. 구로고가 철거공사문서는 철거이후 교통상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고, 아현고가 역시 수명을 다해 재건축하는 대신 전면 철거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착수시기 검토 보고

- 구로고가 철거공사 -

「구로고가 철거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및 공사품질 확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착수시기 검토에 관한 보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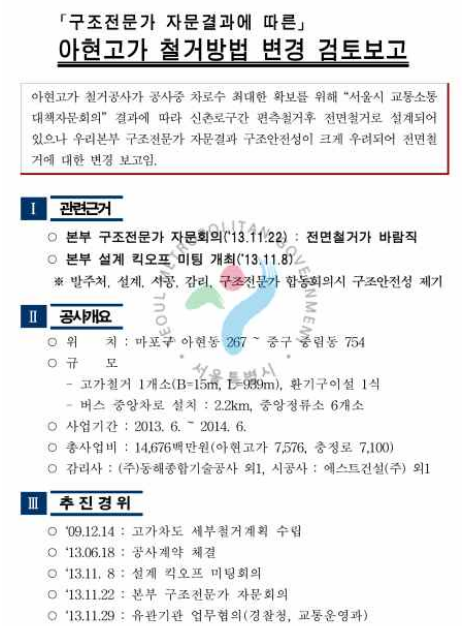
1 사 업 개 요

○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140
○ 규 모 : 고가차도 철거 폭 18.5m, 연장 536m
- 철거전 : 왕복 8차로(고가 5차로, 하부도로 3차로)
- 완공후 : 왕복 10~11차로
○ 사업기간 : 2018. 7. ~ 2019. 1.
○ 사 업 비 : 95억원('18년 89억원 : 시설비 87.5억원, 감리비 1.5억원)

2 추 진 현 황

○ '16.8.11. : 고가차도 철거 등 관리계획 방침(행정2부시장)
○ '18.4.24. : 실시설계용역 준공
○ '18.4.30. : 공사 발주
○ '18.5.28. : 교통규제 심의완료(서울지방경찰청)
○ '18.8.13. : 공사 계약
○ '18.9.18. : 구로고가 철거사업 추진계획 협의(도로제외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사업 착수시기 검토 보고(구로고가 철거공사). 2018.
[출처: 서울정보소통광장]



「구조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른」

아현고가 철거방법 변경 검토보고

아현고가 철거공사가 공사중 차로수 최대한 확보를 위해 "서울시 교통소통 대책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신촌로구간 편측철거후 전면철거로 설계되어 있으나 우리본부 구조전문가 자문결과 구조안전성이 크게 우려되어 전면철거에 대한 변경 보고임.

Ⅰ 관련근거

○ 본부 구조전문가 자문회의('13.11.22) : 전면철거가 바람직
○ 본부 설계 킥오프 미팅 개최('13.11.8)
※ 발주처, 설계, 시공, 감리, 구조전문가 합동회의시 구조안전성 제기

Ⅱ 공사개요

○ 위 치 : 마포구 아현동 267 ~ 중구 중림동 754
○ 규 모
- 고가철거 1개소(B=15m, L=939m), 환기구이설 1식
- 버스 중앙차로 설치 : 2.2km, 중앙정류소 6개소
○ 사업기간 : 2013. 6. ~ 2014. 6.
○ 총사업비 : 14,676백만원(아현고가 7,576, 충정로 7,100)
○ 감리사 :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외1, 시공사 : 에스트건설(주) 외1

Ⅲ 추 진 경 위

○ '09.12.14 : 고가차도 세부철거계획 수립
○ '13.06.18 : 공사계약 체결
○ '13.11. 8 : 설계 킥오프 미팅회의
○ '13.11.22 : 본부 구조전문가 자문회의
○ '13.11.29 : 유관기관 업무협의(경찰청, 교통운영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구조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른 아현고가 철거방법 변경 검토보고, 2013.
[출처: 서울정보소통광장]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정보공개정책과. 아현 고가도로 개통. 1968.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고가도로)지적승인(회현고가도로신설 3.1고가도로 연장시설). 1976.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충정로3가 444번지 일대(아현고가도로 입구). 1978.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도로계획과. 장승배기~여의도간 고가도로 건설 (2013 도로계획과). 2013.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김영준. 성수동1가 뚝섬역 고가구조물2. 2019.
도시안전실. 국내 최초 고가차도 아현고가도로 역사속으로. 2013.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서울역사박물관. "안녕 고가도로" 전시 계획(안). 2014.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도시기반시설본부. 30년 약수고가도로 철거, 20일부터 차량 전면 통제. 2014.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도시안전부 교량안전과. 고가도로 철거 및 활용 방안 수립(2015). 2015.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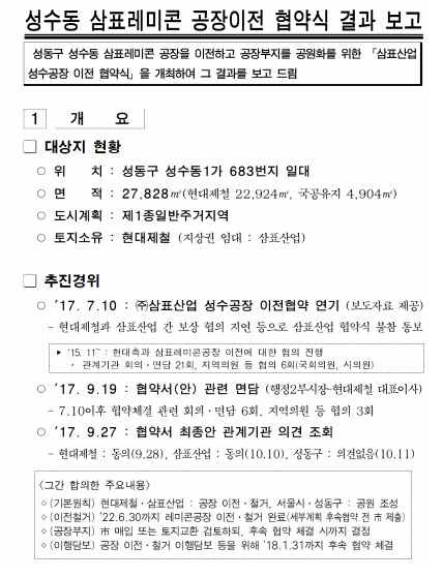
현재 서울은 어느 때보다 보행자 시선의 미관과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과 지역을 가로막는 콘크리트벽인 고가도로가 사라지면서 단절된 지역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고가도로의 급격한 설치와 철거과정은 달콤한 콘크리트 서울의 무한확장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했다. 서울의 고가도로와 간선도로는 도시의 무엇이든 만들 수 있지만 만들어지면 쉽게 없애지 못하는 콘크리트의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한계수명이 속속 다가오는 콘크리트 서울을 앞으로 우리가 통제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S-NAP 1.4.4 콘크리트와 생태의 만남

콘크리트는 어느새 '친환경'적이지 못한 자재로 취급되었다. 도시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지만 콘크리트를 숨기는 것을 세련된 것으로 포장한다.

콘크리트가 진화하고 있다. 반환경적이라 여겨지던 콘크리트는 흙과 나무와 결합하고 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와 지표면의 포장률 상승은 서울을 더 뜨겁고 황폐하게 만들었다. 도시가 자연과 분리되고 친환경적인 것이 희소한 자원이 되었다. 서울은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대신 콘크리트 위에 생태를 얹어내는 선택을 했다. 건물의 옥상에서 농사를 짓고 보행로에 화분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사용해 수중생명체가 사는 강을 복원했다. 서울에서 콘크리트는 반생태적 재료를 벗어나 또 한 번 진화하고 있다.

가장 좋은 포장재는 '생태'라는 이름의 포장이었다. 생태적인 것은 도시가 지속가능하고 선진적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좋은 도구이다. 도로의 가로수뿐만 아니라 건물의 옥상이나 자투리 공간에도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서울의 콘크리트는 차차 생태적인 것과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협약식 결과 보고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을 이전하고 공장부지를 공원화를 위한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식」을 개최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 대상지 현황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일대

○ 면 적 : 27,828㎡(현대제철 22,924㎡, 국공유지 4,904㎡)

○ 도시계획 : 제1종일반주거지역

○ 토지소유 : 현대제철 (지상권 임대 : 삼표산업)

❑ 추진경위

○ '17. 7.10 :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협약 연기 (보도자료 제공)

- 현대제철과 삼표산업 간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삼표산업 협약식 불참 통보

▸ '15. 11~ : 현대측과 삼표레미콘공장 이전에 대한 협의 진행
· 관계기관 회의·면담 21회, 지역의원 등 협의 6회(국회의원, 시의원)

○ '17. 9.19 : 협약서(안) 관련 면담 (행정2부시장-현대제철 대표이사)

- 7.10이후 협약체결 관련 회의·면담 6회, 지역의원 등 협의 3회

○ '17. 9.27 : 협약서 최종안 관계기관 의견 조회

- 현대제철 : 동의(9.28), 삼표산업 : 동의(10.10), 성동구 : 의견없음(10.11)

〈그간 합의한 주요내용〉

◇(기본원칙) 현대제철·삼표산업 : 공장 이전·철거, 서울시·성동구 : 공원 조성

◇(이전철거) '22.6.30까지 레미콘공장 이전·철거 완료(세부계획 후속협약 전 前 체결)

◇(공장부지) 市 매입 또는 토지교환 검토하되, 후속 협약 체결 시까지 결정

◇(이행담보) 공장 이전·철거 이행담보 등을 위해 '18.1.31까지 후속 협약 체결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협약식 결과 보고. 2017.
[출처: 서울정보소통광장]

먼저 인상적인 사건은 레미콘 공장의 추방이다. 삼표레미콘 공장은 1968년 정부가 한강개발을 시작하며 성수동 일대에 자리 잡았다. 일종의 골재산업 전진기지 역할을 하였으며 서울의 콘크리트를 적시에 공급하였다. 콘크리트는 쉽게 굳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빠르게 공급해야 했고 성수동의 레미콘 공장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서울은 레미콘 공장이 서울 내에 있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담당하는 시설을 서울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서울의 레미콘 공장은 콘크리트 서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원하는 시간 내 빠르게 콘크리트를 공급해서 건물과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가 이후의 서울에서 중요성을 잃어 간 레미콘 공장은 생태를 상징하는 숲의 확장이라는 명분하에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숲을 둘러싼 거대한 콘크리트 간선도로 사이에서 생태를 위해 밀려나는 레미콘 공장은 지금 서울의 지향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

삼표레미콘 이전에 대한 서울시의 문서를 보면 2022년 6월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서울시는 공장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음을 알 수 있으며 계속된 협의 끝에 완전한 이전을 약속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반환경'적인 레미콘공장을 '생태'적인 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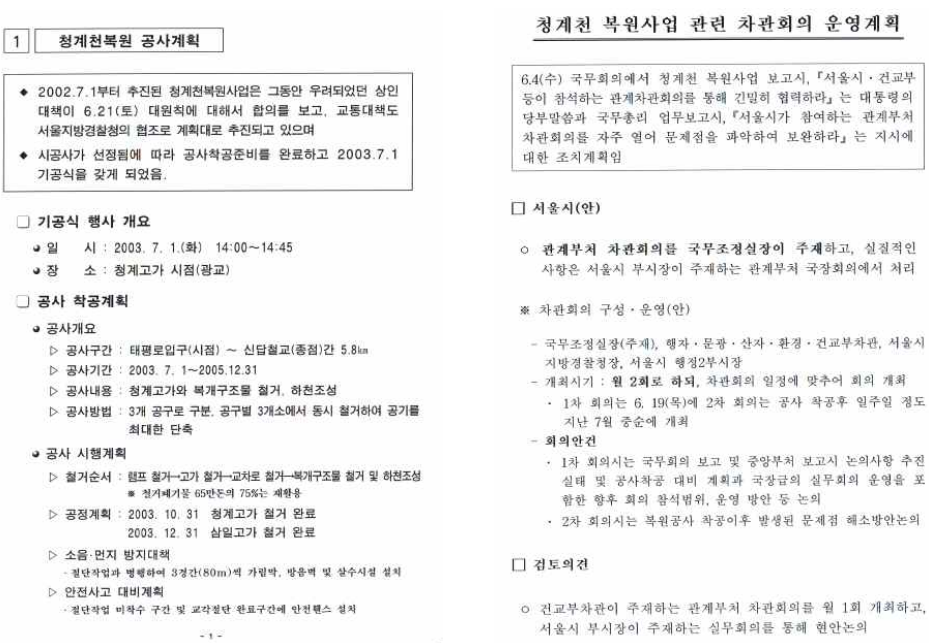


이상권. 성수동 레미콘 공장. 2019.

콘크리트로 뒤덮인 서울은 도시에 푸른색을 입히기 위한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다. 여전히 콘크리트로 빌딩과 공장, 아파트, 도로를 건설하면서도 녹지와 공원을 강조하는 콘크리트 서울의 새로운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2000년대 초 청계고가도로 철거와 함께 진행된 청계천 복원에서부터 주목받았다. 도시에 필요로 하는 자동차 시설대신 개천을 복원하고 나무를 심는 선택은 현재까지도 서울시민에게 우수한 업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도시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만으로도 시민들은 환호했다.

청계천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서울의 중심부에 있었으며 청계천의 변화는 항상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청계천 복원공사는 2003년 시작되어 상인과의 협의와 교통대책을 거쳐 추진되었으며, 대통령이 서울시와 협의하라는 지시를 할 만큼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 청계천복원 공사계획

◆ 2002.7.1부터 추진된 청계천복원사업은 그동안 우려되었던 상인대책이 6.21(토) 대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교통대책도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 시공사가 선정됨에 따라 공사착공준비를 완료하고 2003.7.1 기공식을 갖게 되었음.

□ 기공식 행사 개요
- 일 시 : 2003. 7. 1.(화) 14:00~14:45
- 장 소 : 청계고가 시점(광교)

□ 공사 착공계획
- 공사개요
  - ▷ 공사구간 : 태평로입구(시점) ~ 신답철교(종점)간 5.8㎞
  - ▷ 공사기간 : 2003. 7. 1~2005.12.31
  - ▷ 공사내용 : 청계고가와 복개구조물 철거, 하천조성
  - ▷ 공사방법 : 3개 공구로 구분, 공구별 3개소에서 동시 철거하여 공기를 최대한 단축
- 공사 시행계획
  - ▷ 철거순서 : 램프 철거→고가 철거→교차로 철거→복개구조물 철거 및 하천조성
    ※ 철거폐기물 65만톤의 75%는 재활용
  - ▷ 공정계획 : 2003. 10. 31 청계고가 철거 완료
    2003. 12. 31 삼일고가 철거 완료
  - ▷ 소음·먼지 방지대책
    - 절단작업과 병행하여 3경간(80m)씩 가림막, 방음벽 및 살수시설 설치
  - ▷ 안전사고 대비계획
    - 절단작업 비착수 구간 및 교각절단 완료구간에 안전펜스 설치

청계천 복원사업 관련 차관회의 운영계획

6.4(수) 국무회의에서 청계천 복원사업 보고시, 「서울시·건교부 등이 참석하는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라」는 대통령의 당부말씀과 국무총리 업무보고시, 「서울시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자주 열어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하라」는 지시에 대한 조치계획임

□ 서울시(안)

○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실질적인 사항은 서울시 부시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국장회의에서 처리

※ 차관회의 구성·운영(안)
- 국무조정실장(주재), 행자·문광·산자·환경·건교부차관, 서울시 지방경찰청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 개최시기 : **월 2회로 하되**, 차관회의 일정에 맞추어 회의 개최
  - 1차 회의는 6. 19(목)에 2차 회의는 공사 착공후 일주일 정도 지난 7월 중순에 개최
- **회의안건**
  - 1차 회의시는 국무회의 보고 및 중앙부처 보고시 논의사항 추진실태 및 공사착공 대비 계획과 국장급의 실무회의 운영을 포함한 향후 회의 참석범위, 운영 방안 등 논의
  - 2차 회의시는 복원공사 착공이후 발생된 문제점 해소방안논의

□ 검토의견

○ 건교부차관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월 1회 개최하고, 서울시 부시장이 주재하는 실무회의를 통해 현안논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농수산건설심의관.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보고. 2003.
[출처 : 국가기록원]

청계천은 고가를 철거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하천의 보행길과 옹벽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나무를 심고 정수된 물을 흘려보내면서 물고기와 새들, 그리고 곤충들이 찾아오는 하천이 만들어졌다. 시민들은 다시금 환호하였고 콘크리트는 생태와 결합하며 그 생명력을 이어갔다. 청계천은 고가도로의 철거모습과 같이 이미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청계천은 복원된 청계천 사진과 같이 풍성한 나무가 있는 아주 생태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콘크리트로 뒤덮던 도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콘크리트가 주는 열섬효과에 대해 강조하며 도시설계자들의 업적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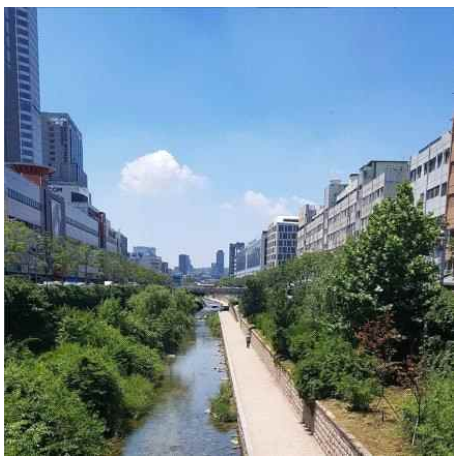
청계천 복원은 콘크리트와 생태가 결합하는 초기 모델이 되었다. 이후 서울은 여러 지방하천을 복원하면서 생태공간을 확장하였다. 사람들은 하천변을 걸으며 도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여유와 안정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 많은 녹지를 원했다. 청계천의 성공모델은 도시에 더 많은 생태결합실험을 불러왔다.



국정홍보처, 완전히 철거된 청계고가도로 4, 2003.
[출처 : 국가기록원]



국정홍보처. 청계천 복원 기공식 1. 2003.
[출처 :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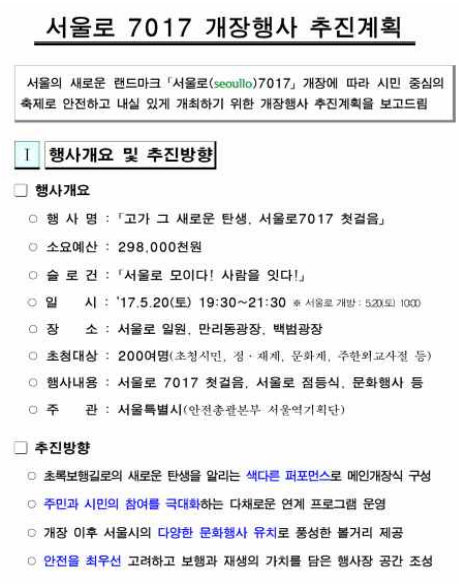
이상권. 복원된 청계천. 2018.6.21.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정보공개정책과. 청계천 주변 계획도로 지역 내 건물철거. 1966.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정보공개정책과. 1967년 청계천 복개공사. 1967.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보고. 2003. [출처 : 국가기록원]
국정홍보처. 청계천 복원 기공식1. 2003. [출처 : 국가기록원]
이상권. 창신동 청계청 서울빛초롱축제1. 2018.

새로운 실험은 청계천과 같이 다시 고가도로와 연결되었다. 고가도로를 전면적으로 철거하는 대신 보행로를

조성하고 보행로에 화분을 이용하여 녹지를 조성하는 방식이었다. 70년대 준공된 차량길을 17개 사람 길로 연결한다는 의미의 '서울로 7017'로 이름붙인 이 프로젝트는 콘크리트에 생태를 결합한 성공모델을 답습했다. 시민들은 늘어난 녹지공간에 만족하면서 더 많이 도시를 걸었고 도시의 보행자들이 늘어나자 그들을 위한 상업시설도 조성되었다.



서울로 7017 개장행사 추진계획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서울로(seoullo)7017」 개장에 따라 시민 중심의 축제로 안전하고 내실 있게 개최하기 위한 개장행사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행사개요 및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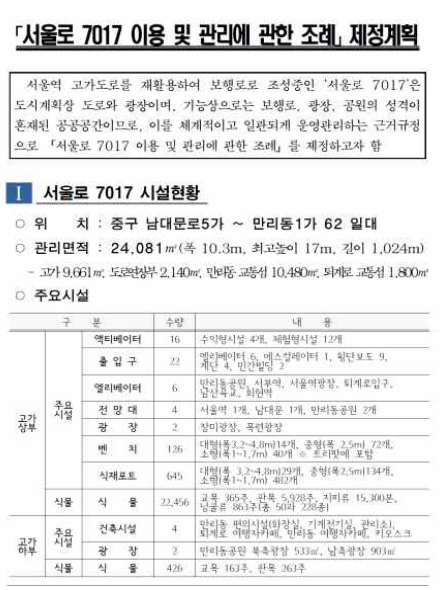
□ 행사개요

○ 행 사 명 : 「고가 그 새로운 탄생, 서울로7017 첫걸음」
○ 소요예산 : 298,000천원
○ 슬 로 건 : 「서울로 모이다! 사람을 잇다!」
○ 일 시 : '17.5.20(토) 19:30~21:30 ※ 서울로 개방 : 5.20(토) 10:00
○ 장 소 : 서울로 일원, 만리동광장, 백범광장
○ 초청대상 : 2000여명(초청시민, 정·재계, 문화계, 주한외교사절 등)
○ 행사내용 : 서울로 7017 첫걸음, 서울로 점등식, 문화행사 등
○ 주 관 : 서울특별시(안전총괄본부 서울역기획단)

□ 추진방향

○ 초록보행길로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색다른 퍼포먼스로 메인개장식 구성
○ 주민과 시민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다채로운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개장 이후 서울시의 다양한 문화행사 유치로 풍성한 볼거리 제공
○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고 보행과 재생의 가치를 담은 행사장 공간 조성

안전총괄본부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고가 그 새로운 탄생, 서울로7017 첫걸음 서울로 7017 개장행사 추진계획. 2017.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서울역 고가도로를 재활용하여 보행로로 조성중인 '서울로 7017'은 도시계획상 도로와 광장이며, 기능상으로는 보행로, 광장, 공원의 성격이 혼재된 공공공간이므로, 이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운영관리하는 근거규정으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Ⅰ 서울로 7017 시설현황

○ 위 치 : 중구 남대문로5가 ~ 만리동1가 62 일대
○ 관리면적 : 24,081㎡(폭 10.3m, 최고높이 17m, 길이 1,024m)
- 고가 9,661㎡, 도로연장부 2,140㎡, 만리동 교등섬 10,480㎡, 퇴계로 교등섬 1,800㎡
○ 주요시설

구 분			수량	내 용
고가 상부	주요 시설	엑티베이터	16	수익형시설 4개, 체험형시설 12개
		출 입 구	22	엘리베이터 6, 에스컬레이터 1, 휠단보도 9, 계단 4, 만간램프 2
		엘리베이터	6	만리동공원, 서부역, 서울역광장, 퇴계로입구, 남산목호, 회현역
		전 망 대	4	서울역 1개, 남대문 1개, 만리동공원 2개
		광 장	2	참이광장, 목련광장
		벤 치	126	대형(폭 3.2~4.8m)14개, 중형(폭 2.5m) 72개, 소형(폭1~1.7m) 40개 ※ 조리장에 포함
		식재포트	645	대형(폭 3.2~4.8m)29개, 중형(폭2.5m)134개, 소형(폭1~1.7m) 482개
	식물	식 물	22,456	교목 365주, 관목 5,939주, 지피류 15,300본, 넝쿨류 88(1주당 50와 75본)
고가 하부	주요 시설	건축시설	4	만리동 편의시설(화장실, 기계전기실, 관리소), 문체부 여행자카페, 남대동 여행자카페, 키오스크
		광 장	2	만리동공원 북측광장 533㎡, 남측광장 903㎡
	식물	식 물	426	교목 163주, 관목 263주

푸른도시국 조경과. 서울로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2016.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서울로 7017 개장행사 추진계획 문서는 서울시가 초록보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생태적 이미지를 강조함을 볼 수 있다. 또한 보행과 재생, 그리고 랜드마크로 기능시키고 싶어 하였다. 더 크고 멋있는 건물이 아닌 기존의 건물을 재생시키는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노후화된 콘크리트 서울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다.



이상권. 서울역과 서울로7017. 2018.

관련된 조례제정에 대한 문서를 보면 서울로 7017이 보행로와 광장, 공원의 성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의 보행자들은 서울로에서 전시된 나무들을 둘러보며 생태를 학습하고 경험한다. 나무와 꽃의 이름을 알아보기도 하며 다시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며 휴식을 갖기도 한다. 인공적인 도시의 녹지들은 인공적인 매력을 가지며 도시의 시민들을 유혹

한다.

높은 빌딩 사이에서 보행자 아래로 다니는 차들을 보며 생태적 공간을 즐기는 경험은 도시민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시민들은 도시의 스펙터클에 취했다.

도시의 기만성은 생태마저 그 전면의 이미지만 차용하여 시민들을 만족하게 만든다. 도시에서 분뇨처리를 구경하지 못하듯 시민들은 그들이 즐기는 생태적 오브제들이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서울로7017는 밤에도 다양한 조명을 이용해 멋진 분위기를 봄낸다. 보행자들이 제3의 장소로서 거리이자 공원을 즐기며 산책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콘크리트에서 차를 없애고 생태를 더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도시 설계자들의 바람대로 서울로 7017은 도시의 명소가 되었고, 철도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리는 여행객들은 생태도시 서울을 맞이하게 된다. 서울의 친환경적인 실험은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머리위로 다니던 차량을 내려다보면서 아름답게 조성된 일종의 정원은 도시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물론 이러한 콘크리트 생태들은 많은 시설관리를 필요로 한다. 자생적으로 살 수 없는 식물들을 가꾸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전지를 하기도 한다.



시민소통담당관. [서울 명소] 風景 서울로 7017(中 서울로 7017 전경사진). 2017.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서울연구원. '서울역 고가도로 활용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12(월) 개최. 2014.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서울역고가 '차량길'에서 '사람길'로 바뀐다. 2015.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이상권. 봉래동 밑에서 본 서울로 7017 모습. 2017.
이상권. 봉래동 서울로7017 공사 모습. 2017.
이상권. 봉래동 서울로 7017 슈즈트리 전시 모습2. 2017.

이러한 시도를 넘어 서울은 좀 더 본질적인 변화도 시도하였다. 생태적 이미지만 취하기보다 진짜 생태를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누군가가 관리해준 예쁜 식물이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지어 보는 일이었다. 작물과 꽃을 길러보고 양봉까지 시도하도록 지원하였다. 소비공간인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산공간인 농촌에서 사는 사람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은 이를 도시농업이라고 불렀다. 물론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만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생산을 위한 농업이 아닌 환경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방식을 지향하였다. 콘크리트로 덮인 서울은 이러한 시도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건물의 옥상이나 사무실 한켠, 작은 자투리땅을 지목했다. 도시 뒤편의 관리자가 만들어낸 생태가 아니라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직접 시도했다.


2 정책 방향

도시농업 주요정책 변화

○ 주민 참여형 텃밭	→ 주민 주도의 생활형텃밭
○ 개인·가족 중심형	→ 공동체 중심형(다양한 사회경제적 참여)
○ 변두리 주말농장형 텃밭	→ 도심 환경개선 틈새형 텃밭
○ 취미·여가형 도시농업	→ 취미·여가 + 수익모델형(시범단지 조성)
○ 소극적 자원순환 구조 (퇴비통 보급)	→ 적극적 자원순환 시스템 마련 (음식물퇴비화 처리장 시범 운영)

구 분	도시농업 1.0 ('12 ~ '14)	도시농업 2.0 ('15 ~ '18)
주요 사업방향	○실천공간 확보에 주력(量) 시 외곽 주말농장, 상자텃밭 보급 등 단기적 공간 확보에 주력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농업(質) 텃밭위치, 운영방식 등 시민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도시농업 대표유형	○서울근교 가족단위 주말농장형 분당호 주변, 목한산 주변 등 외곽 지역이 70%를 차지	○주거생활권 주변 도심텃밭 도보 10분 거리에 도심 틈새텃밭, 옥상텃밭 등 공동체 텃밭 조성
도시농업 활동목적	○취미 · 여가형 도시농업 취미·여가활동, 정서함양과 안전먹거리의 자급이 주 목적	○공동체문화 활성화와 힐링형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공동체문화 활성화 및 취미·여가와 힐링, 수익창출을 함께 도모
텃밭선정 및 조성방법	○官 주도형 선택 유사한 형태의 텃밭을 일괄적으로 市 · 區에서 조성	○民官 거버넌스 방식 유휴지 등 실천가능 도지 실태조사 후 민관커뮤니티와 사용자 맵핑 방식으로 조성
재배작물	○재배작물의 제한적 재배 엽채류, 과채류 및 감자, 고구마 등으로 재배작물 제한적	○작물의 다양화와 경제성 추구 기존 재배작물은 물론 약용작물 · 미나리 실수 · 화훼류 등 다양성 및 경제성 추구
홍 보	○획일적, 소극적인 홍보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서울시 도시농업행복대지 운영 등 행사 홍보에 치중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창의적인 홍보 도시농업 전문 포털사이트 구축, 우수사례 강연, 기획기사 등 다양한 매체와 문화가 결합된 창의적 · 적극적인 홍보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 서울아 농사짓자 -서울도시농업2.0 마스터플랜. 2015.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3 주요성과 및 개선방안

주요성과

□ 2012년 도시농업 원년 선포 이후,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수립('15.4월)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인프라 구축

○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시농업 전담부서를 신설('15.8월),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도시농업박람회, 국제컨퍼런스 및 축제 개최로 활동가, 시민단체들과 정보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계기 마련
- 도시농업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도시농업 축제(시 및 자치구별 추진)

□ 자투리텃밭, 옥상텃밭, 싱싱텃밭 등 다양한 텃밭 조성으로 도시농업 실천 공간 대폭 확대(2011년 이후 텃밭면적 6배 증가)

□ 농부의 시장, 도시가족 주말농부 체험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도농 상생도모

○ 농부의 시장 16개소, 182회(만모자을 62, 시 직접 95, 한양공원 25) 운영

○ 우호교류 협약 자매도시에 가족단위 농촌생활 체험활동 32회 2,254명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2018년 서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계획. 2018.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서울시의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문서는 그들의 지향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동체 중심, 주민주도, 취미와 경제성 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주말에 서울 밖에서 경험하는 간접적인 주말농장이 아니라 상자와 옥상, 화분에서 자라나는 작물에 주목했다. 공공시설들의 옥상은 작은 텃밭으로 변했고, 공동주택의 옥상이나 작은 땅에서도 농업이 진행되었다.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주도적 자신들의 회색 콘크리트 공간에 생태를 입혀 나가고 있다.

콘크리트는 현재의 도시인에게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콘크리트 건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반작용으로 녹지를 요구했다. 서울의 몇몇 실험들은 도시민들의 녹지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고 증폭시켰으며 거스를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콘크리트와 함께할 서울의 미래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서울은 앞으로도 콘크리트로 만들어낸 건물을 통해 도시가 유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콘크리트와 생태의 결합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안으로도 의미를 가진다.

S-NAP 1.4.5 콘크리트의 재생산 : 아파트 1세대의 향수

아파트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집이 아파트였기에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그들에게 특별한 안락함을 준다. 안락하다 여기는 우리들의 집은 누군가 닭장처럼 생겼다고 비난하는 아파트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화려한 성(城)이기도 하다.

콘크리트는 주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지만 회색빛이라는 이미지로 차갑고 세련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콘크리트로 건물을 구조를 완성하고 벽돌이나 타일로 마무리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마감한 건물을 흔히 '도시적'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공원을 산책하면서 흙 대신 콘크리트 보행로를 걸으며 나무를 바라보며 따스한 느낌을 가지기도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콘크리트 건물에서 살며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길을 겪은 젊은 세대는 콘크리트에 아무런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위·아래·옆에 누군가가 살고 있는 집에서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온 그들은 콘크리트 덩어리인 아파트에 향수를 느끼기도 한다.



김영준. 개포주공 4단지의 429동. 2019.

따스한 시골 기와집에 아랫목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의 이미지는 나이든 세대의 전유물이 되었다. 콘크리트의 보편성이 확대되어 낡은 '옛 것'과 새로운 것의 구분만 있을 뿐 존재에 대해 다른 건축자재와 구분되는 시선이 사라지고 있다. 인식 속에서 사라진 콘크리트는 더 이상 특별함이나 거부감 없이 우리들의 삶에 안착했다. 콘크리트 구조물인 오래된 공장이나 창고는 젊은 세대에게 특별함을 가지기도 한다. 콘크리트의 낡음이 주는 분위기에서 향수와 함께 따스함을 느끼기도 한다. 아파트 1세대들은 콘크리트가 특별히 삭막하지 않다. 오히려 기성세대들의 고정관념에 가깝다. 낭만을 집어삼킨 아날로그 매체가 디지털 시대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이러니와 같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개포주공 4단지는 개포프레지던스자이라는 이름으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429동과 445동 2개동의 일부는 서울시에서 미래유산으로 지정하면서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 흉물스런 콘크리트 덩어리로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에 대한 향수이기도 하다. 나무나 기와가 있는 집이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명분으로 보존되는 것과 다르게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향수는 아직 사치로 여겨지기도 한다. 아파트라는 정형적이고 미적 요소를 배제한 채 기능적으로만 가득 찬 공간에 대해 향수를 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할 수도 있다. 서울을 살던 많은 사람들이 느끼던 '우리 집'의 마지막 모습을 남겨두는 것은 여

전히 논쟁거리다. 철거 유무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콘크리트는 기억과 향수보다 기능의 재료로 간주되고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주택정책실.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강남구 개포1단지). 2013.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김영준.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1단지 개포종합상가. 2018.
송기헌.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1. 2018.
송기헌.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4. 2018..
송기헌.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26. 2018.

같은 구조의 평면도를 가진 공간에서 사는 사람을 이웃으로 하고 아파트 단지의 경계를 우리집의 경계로 인식하고 정문을 넘어 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기억의 장소가 재건축으로 인해 사라지게 된다고 느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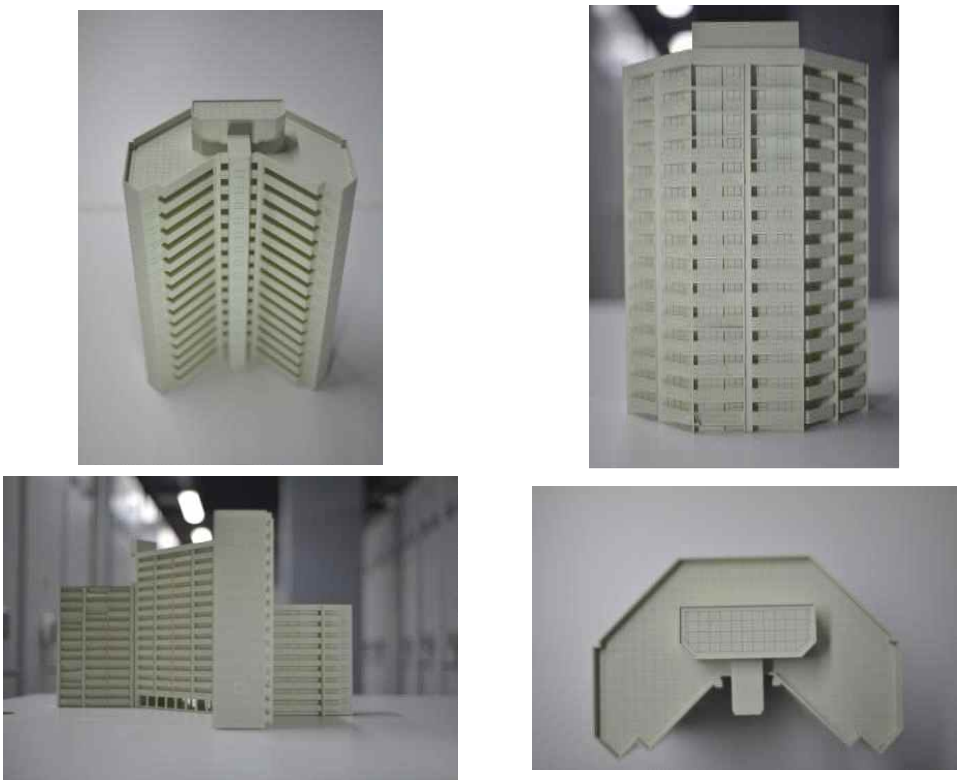
사실 어린 시절부터 아파트에서 보내고 현재 성인이 된 세대들은 대부분 비슷한 모양을 한 아파트에서 살았다. 국민주택이라고 지정된 비슷한 규모의 거실과 방이 있는 집에서 산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 자체를 집의 정형이라고 여긴다.

정부가 주도한 주공아파트는 대부분 유사한 모습을 한 채 보통의 가로수보다 울창한 나무들과 함께 성장하고 늙어갔다. 몇 십 년이 흘러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는 손자들은 재건축되지 않는 주공아파트를 원형으로 찾아가 그들의 공간에서 따스함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공동으로 난방을 하고 단지라는 경계 안에서 많은 것을 공유하던 구조는 사실 농촌의 마을과 유사하기도 하다.



김영준. 상계주공 5단지의 고가수조타워. 2019.

상계주공5단지의 고가수조타워는 현재 지어지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이다. 과거 수압이 충분하지 않아 사용하던 건물이다. 물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였던 것을 증명하는 건물이다.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유사한 생활을 하며 동질성을 만들어내던 것도 아파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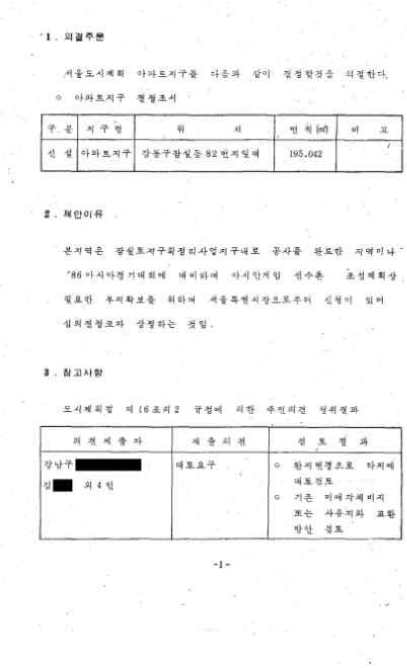
전홍필, 상계주공아파트 모형. 2010.

상계주공아파트는 당시에는 혁신적인 설계로 주목받았다. 지금 사람들이 떠올리는 천편일률적인 구조가 아니었다. 상계주공아파트 모형은 당시의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건물 사이에 휴게공간을 배치하거나 다양한 평형의 가구들을 하나의 건물에 배치한다거나, 복층이나 현관이 2개 이상인 구조들이 등장했다. 상계주공아파트는 사람들의 선호도에 대한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했고, 이내 자본논리와 함께 사람들이 선호하는 형태로 다양성이 배제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많은 아파트 거주민들은 이사 후에도 크게 생활방식이 달라지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정보공개정책과. 1966년 서부 이촌동 아파트 건립계획. 1966.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정보공개정책과. 마포 와우아파트 조감도. 1969.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정보공개정책과. 연희 A,B 아파트 현황. 1970.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김영준. 반포동 서초구립반포도서관에서 바라본 아파트. 2016.
김영준. 잠원동 신반포 한신 6차아파트 전경2. 2017.
김영준. 반포동 미도아파트 전경. 2017.
김영준. 효창동 효창맨션아파트. 2019.
송기헌. 반포동 반포주공아파트2. 2019.
송기헌.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13. 2019.
송기헌. 여의도동 삼부아파트3. 2019.
송기헌. 신천동 잠실미성아파트6. 2019.
이상권. 신천동 잠실장미아파트. 2019.

현재 서울에서는 콘크리트도 향수의 대상이 된다. 심지어 향수를 넘어 옛것이 주는 아우라를 뿜어낸다거나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공장이나 창고를 개조하여 카페나 전시장으로 활용하는데 열광하고 기꺼이 찾아가 사진을 찍고 남긴다.



1. 의결주문

서울도시계획 아파트지구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아파트지구 결정조서

구 분	지구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 설	아파트지구	강동구잠실동 82번지일대	195,042	

2.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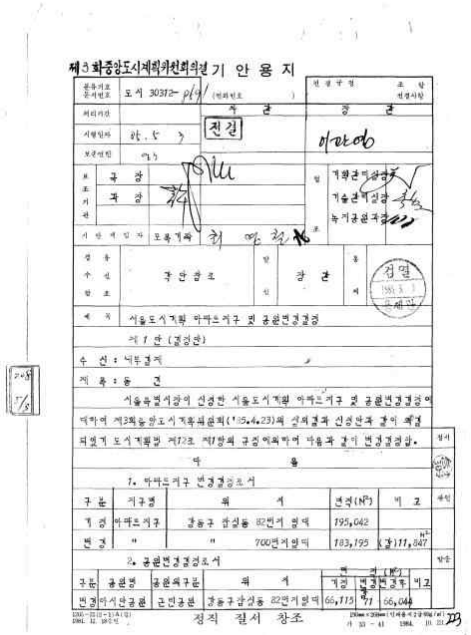
본지역은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로 공사를 완료한 지역이나 '86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하여 아시안게임 선수촌 조성계획상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신청이 있어 심의결정코자 상정하는 것임.

3. 참고사항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의 견 제 출 자	제 출 의 견	청 취 결 과
강남구 [redacted] 외 4인	대토요구	○ 환지방법으로 하지에 대토정도 ○ 기존 미래각제비지 또는 사유지와 교환 방안 검토

-1-



제3화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결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시 30312-	(연결번호)	보존기간	주	결	공	결
시행일자	1. 5. 9.		보존책임	진결			

수 신 : 내부결재

제 목 : 동 건

서울특별시장이 신청한 서울도시계획 아파트지구 및 공원변경결정에 대하여 제3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85.4.23)의 심의결과 신청안과 같이 확정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함.

아 래

1. 아파트지구 변경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아파트지구	강동구 잠실동 82번지 일대	195,042	
변 경	"	" 700번지일대	183,195 (공)171,947	

2. 공원변경결정조서

구분	공원명	공원녹구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또는폐지)	비고
변경(폐지)결정	근린공원	강동구잠실동 82번지일대		66,115	66,044	

정직 결서 창조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 서울도시계획 아파트지구 결정. 1983.
[출처 :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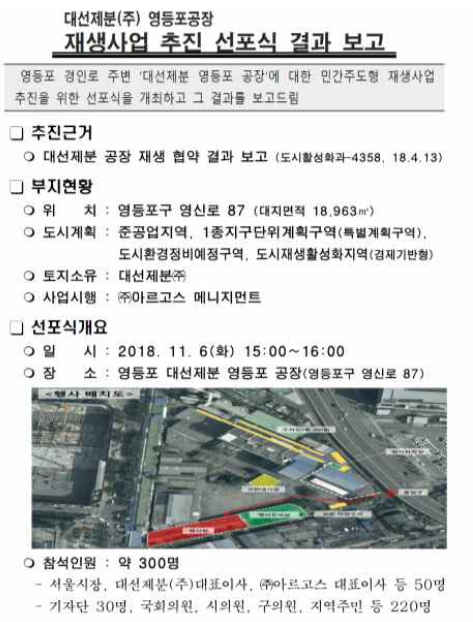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 서울도시계획 아파트지구 및 공원변경 결정. 1985.
[출처 : 국가기록원]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진 현재의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결정과 관련된 공문을 보면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건립은 주변에 공원 부지를 추가하여 그 쾌적함을 더하고자 하였다. 아파트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오는 손님들을 위한 고급 주거시설이었고 경기장 이외에도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하여 이후 중산층의 욕망을 자극했다.

시민들은 아파트를 갈망하면서도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닭장 같은 아파트대신 내 땅을 가지겠다고 말하지만 중산층을 상징하는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하지만 다음세대들은 온전히 중산층의 상징인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아파트만을 위해 만들어진 공원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온전히 이용하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를 경계로 커뮤니티를 이루었고 오랜 시간 이사를 가지 않는 몇몇 주민들은 그 자녀들이 함께 커 가며 친구가 되었다. 아파트 1세대들에게 그들의 아파트는 자신뿐 아니라 친구들이 사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아파트 담장을 경계로 커뮤니티의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앞선 서울로 7017의 성공도 생태의 결합뿐 아니라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변했다는 데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영등포의 대선제분 공장 부지를 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고자 했다. 전시나 공연, 카페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지역의 명물로 만들고자 하였다. 1953년 만들어져 60년이 넘은 건물로 산업유산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낡아가는 서울의 콘크리트에 대해 어떻게 무엇을 선별하여 남기고 재생하며 무엇을 철거하고 신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도시의 보행자들도 더이상 콘크리트 건물 자체를 흉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버려지고 방치된 건물이 아닌 콘크리트란 이유로 차별하지도 않는다.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재생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한다. 대선제분 공장은 근현대 산업전시관으로 활용이 계획되어 있다.



대선제분(주) 영등포공장

재생사업 추진 선포식 결과 보고

영등포 경인로 주변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에 대한 민간주도형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선포식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대선제분 공장 재생 협약 결과 보고 (도시활성화과-4358, 18.4.13)

❑ 부지현황

❍ 위 치 : 영등포구 영신로 87 (대지면적 18,963㎡)

❍ 도시계획 : 준공업지역, 1종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경제기반형)

❍ 토지소유 : 대선제분㈜

❍ 사업시행 : ㈜아르고스 메니지먼트

❑ 선포식개요

❍ 일 시 : 2018. 11. 6(화) 15:00~16:00

❍ 장 소 : 영등포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영등포구 영신로 87)

<행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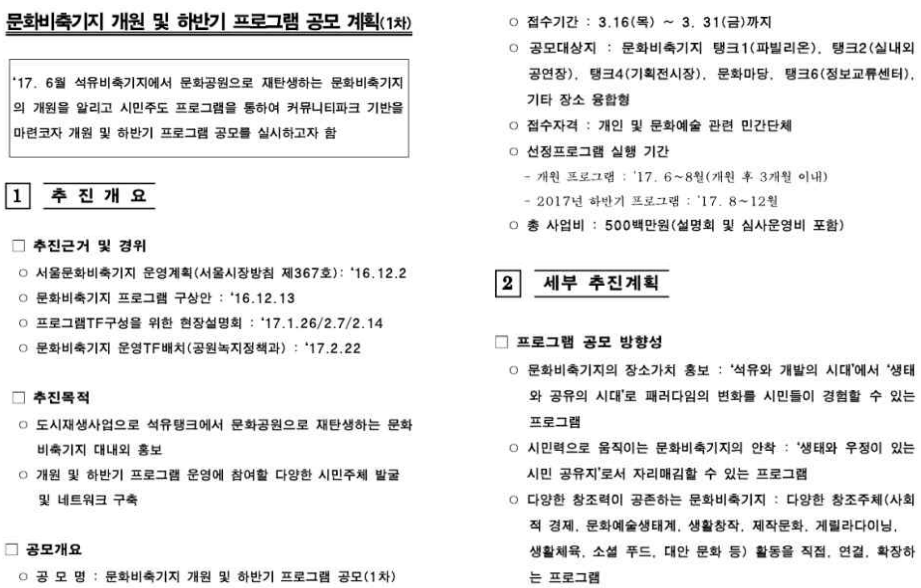
❍ 참석인원 : 약 300명

- 서울시장, 대선제분(주)대표이사, ㈜아르고스 대표이사 등 50명
- 기자단 30명,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지역주민 등 220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대선제분(주) 영등포 공장재생사업 추진 선포식 결과 보고. 2018.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대선제분 재생사업 추진 관련 실무 회의 결과. 2017.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대선제분 재생사업 선포식에 따른 간담회. 2018.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문화비축기지 개원 및 하반기 프로그램 공모 계획(1차)

'17. 6월 석유비축기지에서 문화공원으로 재탄생하는 문화비축기지의 개원을 알리고 시민주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커뮤니티파크 기반을 마련코자 개원 및 하반기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및 경위

○ 서울문화비축기지 운영계획(서울시장방침 제367호): '16.12.2
○ 문화비축기지 프로그램 구상안 : '16.12.13
○ 프로그램TF구성을 위한 현장설명회 : '17.1.26/2.7/2.14
○ 문화비축기지 운영TF배치(공원녹지정책과) : '17.2.22

□ 추진목적

○ 도시재생사업으로 석유탱크에서 문화공원으로 재탄생하는 문화비축기지 대내외 홍보
○ 개원 및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다양한 시민주체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공모개요

○ 공 모 명 : 문화비축기지 개원 및 하반기 프로그램 공모(1차)
○ 접수기간 : 3.16(목) ~ 3. 31(금)까지
○ 공모대상지 : 문화비축기지 탱크1(파빌리온), 탱크2(실내외 공연장), 탱크4(기획전시장), 문화마당, 탱크6(정보교류센터), 기타 장소 융합형
○ 접수자격 : 개인 및 문화예술 관련 민간단체
○ 선정프로그램 실행 기간
- 개원 프로그램 : '17. 6~8월(개원 후 3개월 이내)
- 2017년 하반기 프로그램 : '17. 8~12월
○ 총 사업비 : 500백만원(설명회 및 심사운영비 포함)

2 세부 추진계획

□ 프로그램 공모 방향성

○ 문화비축기지의 장소가치 홍보 : '석유와 개발의 시대'에서 '생태와 공유의 시대'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시민력으로 움직이는 문화비축기지의 안착 : '생태와 우정이 있는 시민 공유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다양한 창조력이 공존하는 문화비축기지 : 다양한 창조주체(사회적 경제, 문화예술생태계, 생활창작, 제작문화, 게릴라다이닝, 생활체육, 소셜 푸드, 대안 문화 등) 활동을 직접, 연결, 확장하는 프로그램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화비축기지 개원 및 하반기 프로그램 공모계획(1차). 2017.
[출처 : 국가기록원]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화비축기지(舊 마포 석유비축기지) 개원기념 시민맞이 운영계획(中, 사진자료). 2017.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마포구의 문화비축기지 역시 콘크리트의 건물 유산이다. 콘크리트 공장이나 창고는 층고가 높고 기둥이 적어 전시나 공연과 같은 문화적 용도로 쓰기 적합하다. 문화비축기지는 1976년에 석유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지어진 일종의 창고건물로 사용하다 월드컵을 앞두고 안전의 이유로 폐쇄되어 사용이 중지되었다. 문화비축기지는 도시재생을 토대로 '석유와 개발의 시대'에서 '생태와 공유의 시대'로의 전환을 추구하였다.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이상권. 성산동 문화비축기지1. 2018.
이상권. 성산동 문화비축기지3. 2018.

오래된 기지공간은 낡음에서 주는 고풍스러운 외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간을 찾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콘크리트 건물과 낡음, 녹지공간에서 주는 생태적 이미지는 도시의 새로운 지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다. 오래된 건물이 가진 장소성은 다양한 기억들의 집합들은 사람들에게 향수를 제공하는 등 그 자체로 기억의 매개가 되기도 한다.

콘크리트 서울은 쉽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다. 콘크리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의심은 아직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 콘크리트는 여전히 도시의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의 새로운 시도에도 늘 함께하고 있다. 오히려 콘크리트는 과거 석조건물이나 목조건물들이 가지는 문화적 기능까지 침범하였으며, 현상학적 안정감의 원천인 '우리집'에 대한 경험도 오늘을 사진 사람들에게 압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해방 이후 건설되고 있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은 그 완성을 위해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S-NAP 1.6.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S-NAP 1.6.1. 지배 이데올로기의 표상, 이순신 동상

"충무공(이순신) 장군 동상 제막식이 착공 7개월만인 20개월만인 27일 상호 10시 세종로 네거리 녹지대에서 박정희대통령을 비롯한 김종필 당의당, 3부 요인과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매일경제, 1968.04.27. -

나라를 지키는 '충'의 이데올로기 상징, 이순신 장군이 의미하는 것

1968년 4월 27일 광화문 네거리에 동상 하나가 세워졌다. 전체 높이 17m(동상 6.5m, 기단 10.5m)의 청동 입상 형태의 조형물. 박 대통령의 헌납으로 김세중 교수가 조각했다는 이 조형물 제막식에 각계 유명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동상을 덮고 있던 하얀 막이 걷히는 그 순간,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는 박수소리가 울려퍼졌다. 거대한 조형물을 올려다보고 있는 그들, 누군가가 그들처럼 이렇게 올려다봐 주길 바랐던 이의 마음이었을까?



공보처 홍보국. 박정희 대통령 내외 충무공 이순신 동상 제막 1. 1968
[출처 :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박정희 대통령 충무공 이순신 동상 감상. 1968.
[출처 :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박정희 대통령 내외 충무공 이순신 동상 제막식 참석 2. 1968
[출처 : 국가기록원]

"일제 때에 변형된 조선왕조의 도로 중심축을 복원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지만 그 대신 세종로 네거리에 일본이 가장 무서워할 인물의 동상을 세우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 -

당시 동양 최대 규모였던 이순신 장군 동상은 쓰러지는 국가민족의 운명을 뒤엎고자 했던 '충'의 상징이었다. 옥포대첩, 노량진해전, 당항포해전, 한산대첩, 명량대첩 등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왜적을 물리쳐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었기에 그가 가지는 국가적 상징성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다.



국립영화제작소. 받들자 민족의 얼. 1968
[출처 : e영상역사관]

〈받들자 민족의 얼〉

"쓰러지는 국가 운명을 한 손으로 바로잡아 일으켰으니 창생의 생명을 살리고 역사의 명맥을 잇게 한 크신 공로야말로 천추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만대의 겨레의 제사를 받으리라. 아, 이미 함께 계시는 이 나라여 복이 있으라."

"충무공이 가신지 500년, 장군의 나라를 사랑하신 공적은 날이 갈수록 우리 민족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종로와 태평로가 뻥 뚫려 있어 남쪽 일본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게 된다. 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풍수지리학자들의 말을 반영해 결정되었다는 이 동상이 지니고 있을 다분히 의도적인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공보처 홍보국, 박정희 대통령 내외 충무공 이순신 동상 제막 2. 1968.
[출처 :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충무공 이순신 동상 건립 조감도. 1967.
[출처 :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충무공 이순신 동상. 1976.
[출처 :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충무공 이순신 동상 전경. 1970.
[출처 :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충무공 이.순신 동상 1. 1973
[출처 : 국가기록원]

친필로 '충무공이순신장군상'이라고 새겼다는 박정희 대통령, 그가 이순신 장군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공보처 홍보국, 충무공 이순신 동상 제막식 전경 2. 1968. [출처 : 국가기록원]



서울사진아카이브. 충무공 이순신 동상 제막식. 1968.

위의 사진처럼, 이 제막식 행사에 여고생들과 군인들까지 동원되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신이 이 동상을 마주할 때마다 떠올리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누군가는 공공조형물을 왜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냐고 묻기도 하지만, 순수하게 바라볼 수 없는 이 시선을 탓하기엔 우리가 당시 겪어야 했던 이데올로기의 강요, 문화적 지배와 너무 맞물려 있진 않은가?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공보처 홍보국. 박정희대통령내외분충무공이순신장군동상제막식참석2. 1968. [출처 :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박정희대통령충무공이순신장군동상감상. 1968. [출처 :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충무공이순신장군상건립조감도. 1967. [출처 :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충무공이순신장군동상글씨1. 1975. [출처 : 국가기록원]
총무처. 충무공이순신장군상원형등록(문화공보부공고제258호). 1975. [출처 : 국가기록원]
문화공보부. 동상제작지도소위원회회의개최결과보고(충무공이순신장군상및세종대왕상). 1976. [출처 : 국가기록원]
문화공보부. 동상제작지도소위원회개최(충무공이순신장군동상). 1976. [출처 : 국가기록원]
문화공보부. 동상제작지도소위원회회의개최결과보고(충무공이순신장군동상). 1976. [출처 : 국가기록원]
문화공보부. 충무공 이순신장군 동상과 광화문. 1985. [출처 :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이순신장군동상1. 1973. [출처 : 국가기록원]
문화공보부.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 1985. [출처 : 국가기록원]

S-NAP 1.6.2. 소녀상을 통해 응집된 기억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지만 역사왜곡만은 절대 안 돼. 내 몸이 부서지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사죄를 받아내고 말 테야."

故 황금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말씀 중 -

"일본을 다 준대도 용서할 수 있을까? 내 인생 돌려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하신 말씀 중 -

욕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故 황금자 할머니의 기억 너머에…



김서경·김운성, 꽃 할머니. 2014.
[김서경·김운성 작가의 '꽃 할머니'(2014)로, 故 황금자 할머니를 본떠서 만들었다.]

1941년 꽃다운 18세에 일본 순경에게 끌려가 싱가포르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던 故 황금자 할머니. 2014년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위안부 생활 후유증으로 환청과 망상에 시달려야 했던 그녀의 삶을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

친절하게 다가갔지만, 할머니는 욕을 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달콤한 목소리와 인자한 목소리를 무서워했다. 일본군의 감언이설에 속아 저 먼 타국에서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던 할머니에게 사람들의 따스한 손길은 자신을 해할지도 모르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흉기와 다를 바 없었다.

끌려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할머니, 그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상상이나 했을까? 고작 18살의 나이에, 배불리 먹고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갔던 곳인데. 만약 그 말에 속아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소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김서경 작가가 소녀상을 작업하며, 고등학생들과 찍은 아래의 사진 속 소녀상과 해맑게 웃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얼굴의 대비에 알 수 없는 감정이 교차한다.

"얘야, 네가 잘 생각해야 해. 저기 가면 밥도 배부르게 먹고 돈도 벌 수가 있어. 가족에게 돈도 부치면 가족도 잘 살 수 있어."

- 김서경·김운성, 『빈 의자에 새긴 약속』, 도서출판 말, 2016, p.157. -



김서경, 김운성. 고등학생이 함께 한 평화의 소녀상 작업중인 동상과 기념사진. 2015.



김서경, 김운성. 부산 소녀상 철거 반대운동. 2010년대.

故 황금자 할머니는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였다.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홀로 사시면서 교복 입은 학생들을 일본 경찰로 착각하는 등 환청과 망상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며 외롭게 살아오셨던 할머니. 2006년 11월 강석 장학회에 4천만 원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쾌척하였고, 장례비를 치르고 남은 재산도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하루하루 병과 폐지를 팔아 벌은 푼돈을 쌀독에 넣어 모았다는 할머니는 언제 있을지 모르는 불안에 대비해 도피자금을 모았다고 한다. 위안부의 삶은 끝났을지라도, 위안부의 기억은 할머니의 전 생애를 옭아맸다. 그럼에도 할머니가 이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오랜 시간 할머니의 상처를 어루만져주신 김정환씨(강서구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팀장)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2002년 등촌3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담당으로 인연을 맺어 고인이 양아들이 되었으며, 평생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할머니를 세상과 이어줬다.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서울기록원. 소녀상 앞을 지키는 학생들을 지켜 주세요!. 2017.
서울기록원. 2015년 고등학생이 함께 한 평화의 소녀상 작업중인 동상1, 2015.
서울기록원. 2015년 고등학생이 함께 한 평화의 소녀상 작업중인 동상과 기념사진, 2015.
서울기록원. 2015년 정동 고등학생이 함께 한 평화의 소녀상 설치 후 단체사진1, 2015.
서울기록원. 2015년 정동 고등학생이 함께 한 평화의 소녀상 설치 후 모습1, 2015.
서울기록원. 2015년 정동 고등학생이 함께 한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위해 운반하는 모습1, 2015.
서울기록원. 2015년 고등학생이 함께 한 평화의 소녀상 참가 명단, 2015.

우리가 알아야 할 소녀상에 담긴 12가지 상징적 의미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졌던 소녀상. 그 소녀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소녀상 문제. 차디찬 거리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들을 보며 마냥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만 들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 생각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방문해 무엇이든 도울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윤미향 대표는 2011년 12월 14일 1000회를 맞이하는 수요시위를 앞두고 일본대사관 앞에 세울 비석 하나를 디자인해줄 것을 작가들에게 부탁했다.

"어쩌면 작은 비석은 물론 어떤 것이라도 세우는 게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비석도 좋지만, 우리는 조각을 주로 하는 사람이니 비석을 포함해 좀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 공감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작업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단 하루를 세워 놓고 나서 철거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의미심장한 조형물로 제작해 보면 어떨까요?"

-김서경·김운성, 『빈 의자에 새긴 약속』, 도서출판 말, 2016, p.19 -

소녀상은 작가들에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뼈대를 만들고 여기에 흙을 붙인 후 석고를 흙에 덮어 틀을 만든다. 석고가 굳으면 틀을 떼어내고 안에 있는 흙을 뜯어내어 석고틀을 만든다. 석고 틀에 합성수지와 돌가루, 경화제를 섞어 바른 후 굳으면 석고를 깨뜨린다. 그렇게 원형이 나오면 티를 없애는 주물 과정을 거쳐 브론즈로 된 소녀상이 나온다. 이후 좌대를 제작하고 완성이 되면 트럭이나 배, 또는 비행기를 이용해 소녀상을 설치 장소로 옮겨 설치한다. 이런 순서만 봤을 땐 일반적인 조각상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 작업은 단순히 조각을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

작가가 말했다. "이렇게 많이 아파하며 작업한 적이 또 있을까?" 작업을 하며 쉼 없이 밀려오는 분노와 아픔, 슬픔과 고통에 시시때때로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으며 답답함에 숨이 막히기도 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소녀상은 위안부 할머니가 느꼈던 수많은 감정들의 집합체이자 이를 통해 두려움과 공포, 무력감 등 온갖 감정들을 느끼며 작업한 작가의 고통스러우면서도 뼈아픈 고뇌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김서경, 김운성. 이대 앞 평화의 나비 소녀상 제작모습3. 2010년대.

이렇게 만들어진 소녀상에는 12가지의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김서경, 김운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공연 소녀를 위한 아리랑 6. 2010년대.



김서경, 김운성. 소녀상 맨발. 2010년대.

소녀. 할머니들이 전쟁터에 끌려갔을 당시의 나이가 13~18세였기에, 나이 어린 소녀들이 전쟁터로 끌려간 것을 상징하고 함축하는 의미를 담고자 했다.

한복. 타향에서 참담한 시간을 살아내면서도 조선 땅으로 돌아올 것을 희망하며 불렀을 아리랑. 소녀들에게 아리랑은 그리움이자 고국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작가는 아리랑을 소녀에게 입히고 싶었고, 그것을 한복으로 나타냈다.

머리카락. 저 먼 일본군 부대 안 위안소에 끌려가 댕기머리 긴 머리칼은 필요 없다며 댕강 잘라버린 머리카락은 끊겨버린 그리운 가족들과 고향 땅과의 인연을 상징한다.

새. 새에는 하늘로 돌아간 소녀들과 땅에 남은 소녀들을 이어주는 '자유, 해방, 평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 주는 '영매'의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다.

뒤꿈치. 땅에 닿지 못한 발뒤꿈치는 아픔의 세월 속을 떠돌듯 불안하게 살아온 할머니들의 삶을 표현한 것이다. '언제쯤이나 소녀는 불편한 뒤꿈치를 편안하게 내려놓고 땅을 디딜 수 있을까?' 작가가 묻고 있다.

할머니의 그림자. 소녀들이 할머니가 되기까지 걸어온 긴 시간 동안 겪은 아픔을 나타낸다. 이 그림자를 통해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지내온 시절, 할머니들의 원망과 한이 서린 시간을 표현했다.

나비. 나비는 다시 태어나는 '환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작가는 아픔 속에서 사무치는 한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다시 좋은 세상에 태어나시기 바라는 마음을 나비에 담아 할머니그림자의 가슴에 새겨 넣었다.

빈 의자. 세월이 흐르는 동안 떠나간 할머니들의 빈자리를 의자가 대신하고 있다. 모두 그 자리를 떠나셔도 우리 미래세대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 녹아있다.

두 주먹. 소녀상의 손을 바라보면 다소곳이 무릎에 놓여있던 소녀의 손이 두 주먹을 꼭 쥔 형태인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주먹에는 앞으로 다시는 전쟁으로 인해 여성과 아이들이 상처와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얼굴. 소녀상을 작업하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얼굴, 그만큼 할머니들이 겪었을 그 참상의 감정이 하나의 감정만으로는 표현되지 않았을 테다. 작가들은 소녀상의 얼굴을 슬프지만 슬프지 않게, 화가 나지만 화난 표정이 아닌, 어리고 여린 소녀지만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평화비 글씨. 길원옥 할머니께서 손수 써주신 '평화비'라는 이 글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일본대사관과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의 가장 중요한 재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일본대사관 앞이라는 장소일 테다. 언젠가 일본정부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깊이 헤아리고 참회할 날을, 소녀의 꼭 쥔 주먹을 잡으며 무릎 꿇고 사죄할 날을 기다려본다.



김서경, 김운성. 소녀상 그림자. 2010년대.



김서경, 김운성. 소녀상 나비. 2010년대.



김서경, 김운성. 소녀상 손. 2010년대.



김서경, 김운성. 소녀상 의자. 2010년대.



김서경, 김운성. 소녀상 평화비. 2010년대.



김서경, 김운성. 서울 안국역사 내 설치된 위안부 평화비 광고. 2012.

소녀상에 담긴 12가지의 상징적 의미, 다음에 소녀상을 마주할 땐 그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겨보면 어떨까?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김서경·김운성, 평화의 소녀상 작가노트 빈의자에 새긴 약속, 2016.
김서경·김운성, 2015년 정동 고등학생이 함께 한 평화의 소녀상 세부사진1-의자, 2015.
김서경·김운성, 2015년 정동 고등학생이 함께 한 평화의 소녀상 세부사진2-설명문, 2015.
김서경·김운성, 2015년 정동 고등학생이 함께 한 평화의 소녀상 세부사진3-나비, 2015.
김서경·김운성, 2015년 고등학생이 함께 한 평화의 소녀상 설명문, 2015.
김서경·김운성, 2015년 고등학생이 함께 한 평화의 소녀상 비문, 2015.
김서경·김운성, 2015년 고등학생이 함께 한 평화의 소녀상 신영복 글귀, 2015.
김서경·김운성, 2017년 광화문 빈의자에 새긴 약속 퍼포먼스 안내문, 2017.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강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기억과 행동의 약속'

2019년 11월 11일(월) 오후 3시에 강서구 양천로 311에서 강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진행됐다. 추운 날씨였음에도 많은 사람이 행사에 참석해 그 의미를 나누었다.



서울기록원. 강서구 소녀상 설치 작업. 2019



서울기록원. 소녀상을 만든 작가들. 2019

영구 임대주택이 많아 한때는 13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했다는 강서구. 강서의 소녀상은 강서구 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 결실이기에 의미가 깊다. 2017년 2월부터 시작된 소녀상 건립은 '강서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단체인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민우회와 추진단체인 마을생활전파소, 민중의집 사람과 공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서구지부 등 95개 시민단체가 참여했으며 총 6천 500만원의 성금이 모금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강서평화의 소녀상'이 들어서는 바닥돌에는 건립에 참여한 시민들과 단체의 이름을 동판으로 남겼고, 오른편에는 '강서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 위원회'의 비문과 함께 소녀상에 대한 의미를 새겼다. 다른 소녀상들과 달리 강서구 소녀상 옆에는 강서구에서 살다 세상을 떠나신 황금자 할머니상이 함께 세워졌다.





서울기록원. 강서구 소녀상 제막식 현장. 2019

[2019년 11월 11일(월) 강서구 소녀상 제막식 현장이다.]

소녀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치될 것이다.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짓밟힌 꽃들을 기리며, 멀리 날아간 할머니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픔에 그들이 손 내밀고 먼저 사과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소녀상을 조심스럽게 작업한다.

"소녀상 옆 빈 의자에 함께 앉아 보세요. 한때는 소녀였던 할머니들의 소원이 들립니다."

- 김서경·김운성, 『빈 의자에 새긴 약속』, 도서출판 말, 2016, -



김서경, 김운성. 성구로구 평화의 소녀상 단체사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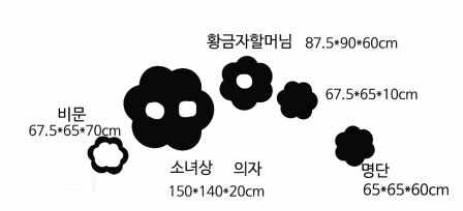
김서경, 김운성. 성동작구 평화의 소녀상 단체사진. 2016



김서경, 김운성. 성북구 한중 평화의 소녀상 단체사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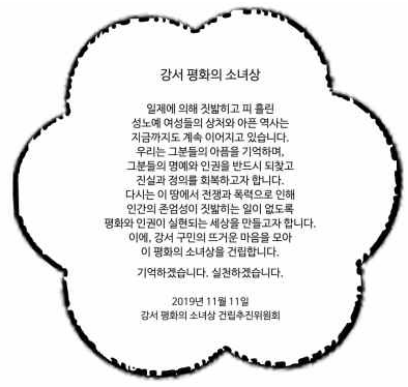
김서경, 김운성. 강서구 평화의 소녀상 예상 모습 3.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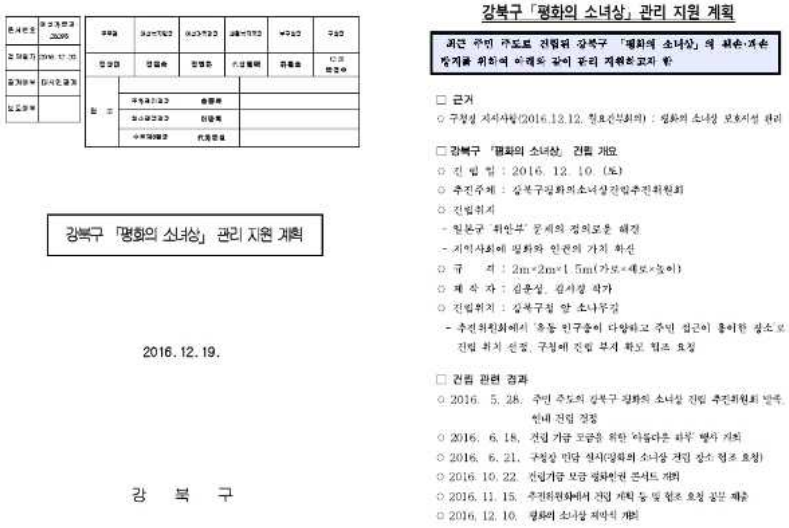
김서경, 김운성. 강서구 평화의 소녀상 배치도. 2019



김서경, 김운성. 강서구 평화의 소녀상 참여 명단. 2019



김서경, 김운성. 강서구 평화의 소녀상 비문. 2019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관리 지원 계획

2016. 12. 19.

강 북 구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관리 지원 계획

□ 근거

○ 구정성 지시사항(2016.12.12. 청요건부회의) : 평화의 소녀상 보호시설 관리

□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개요

○ 건 립 일 : 2016. 12. 10. (토)

○ 추진주체 : 강북구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 건립취지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 지역사회에 평화와 인권의 가치 확산

○ 규 격 : 2m×2m×1.5m(가로×세로×높이)

○ 제 작 자 : 김운성, 김서정 작가

○ 건립위치 : 강북구청 앞 소나무길

- 추진위원회에서 유동 인구층이 다양하고 주민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 건립 위치 선정, 구청에 건립 부지 확보 협조 요청

□ 건립 관련 경과

○ 2016. 5. 28. 주민 주도의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 현내 건립 결정

○ 2016. 6. 18. 건립 기금 모금을 위한 '아름다운 파두' 행사 개최

○ 2016. 6. 21. 구청장 면담 실시(평화의 소녀상 건립 장소 협조 요청)

○ 2016. 10. 22. 건립기금 모금 평화인권 콘서트 개최

○ 2016. 11. 15. 추진위원회에서 건립 계획 등 및 협조 요청 공문 제출

○ 2016. 12. 10.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개최

강북구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관리 지원 계획. 2016.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도봉구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평화의 소녀상 건립 검토보고. 2016.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반. 소녀상 설치관련 논의 간담회. 2018.

동대문구 기획재정국 경제진흥과. 동대문구 평화의 소녀상 설치 지원 계획. 2019.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S-NAP 1.7. 광장의 외침

S-NAP 1.7.1. 마로니에 공원의 자성과 문화적 열망

"누군가의 시선에 포착된 풍경은 의미를 부여받는다.
의미를 부여받은 풍경은 누군가의 내면이기도 하다.
내면이 연장에서 만나는 풍경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다.
마음을 움직이는 풍경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고,
둘이서도 용기를 낼 수 있다."

공연 〈광장, 사람 그리고 풍경(2019)〉 기획의도 중

응시하다: 서울시민이 포착한 대학로&마로니에 공원의 풍경

혜화역에서 나와 마로니에 공원으로 향하니 조각가 박실의 '세계연극제 상징조형탑'이 우리를 반긴다. 세 개의 계단 모양 기둥이 하나의 꼭지점에서 만나고, 그 아래에는 커다란 알을 형상하는 상징물이 있는 조형탑. 제11회 세계연극제를 기념하기 위해 현대그룹과 연극배우 박정자, 윤석화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이 조형물은 '공연예술을 통해 시공을 초월한 세계의 화합, 참 문화의 확산, 삶의 상승 등을 이루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기록원, 박실의 '세계연극제 상징조형탑' 사진. 2019



서울기록원, 마로니에 공원 비석 사진. 2019

조형물 아래에 서서 마로니에 공원을 응시한다. 조형물을 빠르게 스쳐지나가는 사람들과 달리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곳에 머물러 있다. 대학로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마로니에 공원, 시민들이 기억하는 대학로와 이곳에서 포착하고 있는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연극평론가이자 한국소극장협회 국장인 최윤우씨가 제공한 문서자료인 '대학로 연대기, 마로니에 공원만의 특별한 호흡법' 에는 그동안 변화를 거듭해 온 마로니에공원의 모습이 적혀있다.



최윤우, 대학로 연대기 1-2, 2019



최윤우, 마로니에 공원만의 특별한 호흡법, 2019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서울기록원. 2019년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 경관1. 2019
서울기록원. 2019년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 경관 문학주간 체험프로그램부스. 2019
서울기록원. 2019년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 경관 아르코예술극장. 2019
서울기록원. 2019년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 경관 아르코미술관. 2019
서울기록원. 2019년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 경관 구서울대학교본관 터. 2019
서울기록원. 2019년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 경관 놀이터1. 2019
서울기록원. 2019년 대학로 전경 영상1. 2019
서울기록원. 2019년 대학로 전경 영상2. 2019
서울기록원. 2019 대학로 가로수길 영상. 2019

부여하다: 연극/공연예술의 메카 대학로&마로니에 공원

공원 한켠에 놓인 조형물이 지금은 사라진 서울대학교 교정이 이곳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1975년 서울대학교가 관악구 신림동으로 이전하면서 서울대학교 본관 자리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들어섰다. 마로니에 나무가 있어서 마로니에 공원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이 공원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 미술관, 예술가의 집이 눈에 들어왔다. 1979년에는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 1981년에는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이 건립되면서 대학로 일대에는 각종 민간 문화예술단체 및 극장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대학로는 이곳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리대 정원이었던 곳은 마로니에 공원이 되고, 공원 안에는 조각품과 벤치들이 설치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대학로만의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1985년에는 '대학로'라는 이름이 공식화되고 주말이면 교통을 통제하고 거리에서 문화축제를 개최하였다. 서울사진아카이브를 통해 볼 수 있는 아래 사진처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앞 광장은 풍류마당이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졌다. 덕분에 대학로는 축제의 거리 문화예술의 거리, 젊음의 거리로서 부상하게 되고, 80년대 말에는 공연예술 및 문화의 중심지로 신촌의 명성을 넘어서게 되었다.

[대학로 마당놀이 축제_농악 등 가로예술제]




서울사진아카이브. 대학로 마당놀이 축제.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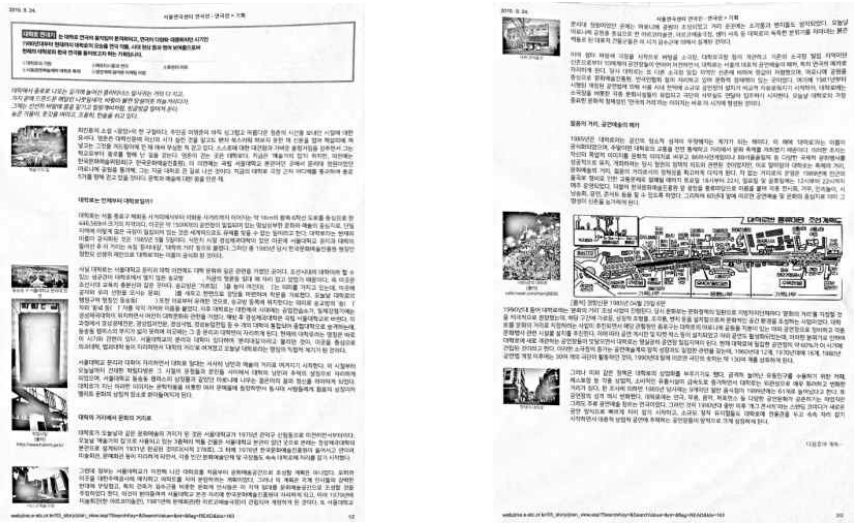
'여기가 극장이라고?'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규모가 작은 소극장들이 즐비한 대학로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연예술의 메카, 특히 연극의 메카이다. 문화예술인이라면, 연극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이곳의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다.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는 이들의 꿈을 먹고 사는 곳이다.

2003년부터 전문연극기자로 활동하며 한국소극장협회 국장을 임하고 있는 최윤우씨의 인터뷰 내용 및 그가 제공한 문서 기록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크고 작은 문화예술인들의 꿈이 모여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365일 쉬지 않고 생산되고 행해지는 이곳.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꿈이 이곳에서 싹을 틔우며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종로구는 마로니에 공원을 지붕이 있는 야외 공연장으로 정비하고 각종 문화행사 관련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 시기에 소극장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1980년대 30여 개의 극단에서 1990년대 말에는 극단의 수가 약 130여 개를 상회하게 되었다.

[연극·공연예술의 메카-대학로/마로니에 공원에 대한 인터뷰: 최윤우]


서울기록원. 최윤우 인터뷰 영상. 2019.


서울기록원. 최윤우 인터뷰 사진, 2019.



최윤우, 대학로 연대기 3-4. 2019.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서울기록원. 2019년 한국소극장협회 최윤우 인터뷰1. 2019.
서울기록원. 2019년 한국소극장협회 최윤우 인터뷰2. 2019.
서울기록원. 2019년 한국소극장협회 최윤우 인터뷰3. 2019.
서울기록원. 2019년 한국소극장협회 최윤우 한국소극장협회 최윤우님 오디오. 2019.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체육기획관 문화정책과. 문화지구 육성 지원. 2014.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2017.
문화정책논총. 대학로 연극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 연구. 2016.

마주하다: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다

2004년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연장이 양적으로 포화상태가 되었다. 공연 환경은 상업화되고, 공연장은 대형화·다관화 되었다. 주변에 들어선 상업시설 때문에 불법 노상행위 및 호객행위가 빈번해졌다. 대학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2016년 종로구에서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세웠다. 이와 더불어 그간 도제식으로 이루어진 연극·공연계의 시스템에서 누구도 이야기 하지 못했던 그들의 민낯이 폭로되기 시작했다. 도제식에서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변화하며 그동안 감추기 급급했던 연극·공연계의 성추행·성폭력 문제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마로니에 공원 일대는 연극계 미투운동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마로니에 공원 일대는 연극·공연계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미투운동에 지지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혼자서만 끌어안고 있어야 했던 숨기고 싶었던 그 비밀스러운 억압을, 그들을 옭아매며 그들의 심장을 갉아먹었던 잔인한 괴물을 그들 스스로가 맞서기 시작했다.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한국여성민우회의 '전국 동시다발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도 2018년 4월 21일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사진 속 사람들의 목소리가 느껴지는 현장 사진과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는 피켓의 문구가 그 당시의 현장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의 미투운동]



한국여성민우회, 전국 동시다발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포스터). 2018



한국여성민우회, 현장 사진. 2018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한국여성민우회. 2018년 마로니에 공원 한국여성민우회 미투운동문구작성1. 2018
한국여성민우회. 2018년 마로니에 공원 한국여성민우회 미투운동문구1. 2018
한국여성민우회. 2018년 마로니에 공원 한국여성민우회 미투운동포스트잇. 2018
한국여성민우회. 2018년 마로니에 공원 한국여성민우회 미투운동촛불집회. 2018
한국여성민우회. 2018년 마로니에 공원 한국여성민우회 미투운동거리행진1. 2018
한국여성민우회. 2018년 마로니에 공원 한국여성민우회 미투운동집회플랜카드1. 2018
한국여성민우회. 2018년 마로니에 공원 한국여성민우회 미투운동집회연설1. 2018

포용하다: 문화다양성을 품어내다

마로니에 공원과 그 일대의 대학로는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관객을 만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무대이자 꿈의 공간이다. 이곳에는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문화예술가들이 모여 있다. 누군가는 길거리에서 노래와 연주를 하며 버스킹을, 누군가는 마임이나 춤 또는 연기를, 누군가는 마술을, 누군가는 추모를, 누군가는 마켓을 열며 지나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그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마로니에 공원 공연장&버스킹 현장]



서울기록원, 마로니에 공원 공연장, 2019



서울기록원, 아르코예술극장 앞 버스킹, 2019

광화문 광장에 이어 김하은 작가가 제공한 '마로니에 공원에서의 기억의 벽'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아픈 기억을 상기시킨다.

"아들과 나왔어요.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겠습니다. 다짐!!! 약속!!! 기억할게요."



김하은, 마로니에 공원 기억의 벽. 2015



김하은, 마로니에 공원 기억의 벽.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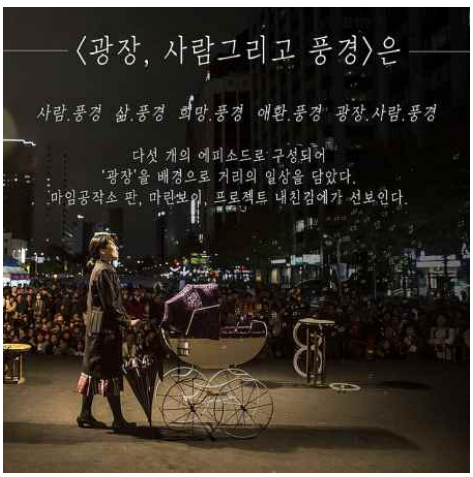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서울기록원. 2015년 대학로 김하은작가 기억의벽 웹자보. 2015
서울기록원. 2015년 대학로 김하은작가 기억의벽 행사참여를위해 모인시민들. 2015
서울기록원. 2015년 대학로 김하은작가 기억의벽 인터뷰하는 시민. 2015
서울기록원. 2015년 대학로 김하은작가 기억의벽 행사참여후사진찍는시민. 2015
서울기록원. 2015년 대학로 김하은작가 기억의벽 타일만드는아이. 2015
서울기록원. 2015년 대학로 김하은작가 기억의벽 타일만드는참가자들1. 2015
서울기록원. 2015년 대학로 김하은작가 기억의벽 타일1. 2015
서울기록원. 2015년 대학로 김하은작가 기억의벽 행사장 전경. 2015
서울기록원. 2015년 대학로 김하은작가 기억의벽 직접만든타일을 들고 사진찍는시민1. 2015

1년 365일 공연이 끊이지 않는 이곳, 세계에서 유례없는 소극장이 모여 있는 이곳. 늦은 밤 공연이 끝날 때면 마로니에 공원에는 배우, 감독, 스탭들이 모여 앉았고, 삼삼오오 지나던 사람들과 취재 기자들이 모이면 동그랗게 앉아 공연과 인생이야기를 나누며 새벽시간을 품었다. 마로니에 공원과 그 일대는 예술가들에게는 쉼의 공간이었고, 관객에게는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었던 공간이었다. 그들이 맞이한 매일의 새벽이슬이 모여 어디선가 심금을 울리는 공연으로 재탄생하였을지도 모른다. 2019거리공연예술축제에서 선보인 〈광장, 사람 그리고 풍경〉은 광장을 배경으로 하는 거리의 일상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거리공연예술축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19거리공연예술축제 공연 중 〈광장, 사람 그리고 풍경〉]





2019대학로거리공연축제, 2019거리공연예술축제 공연 〈광장, 사람 그리고 풍경〉 홍보물. 2019

대학로에서 오랜 기간 매주 일요일마다 이어져 오고 있는 필리핀 마켓에는 주변에 거주하는 필리핀인들뿐 아니라 필리핀에 관심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찾는 작은 길거리 시장이다. 한국에 온지 24년 정도 됐다는 필리핀인 아나리샤씨는 서툰 한국말로 판매하고 있는 필리핀 음식을 소개했다.

"까사마, 사삐사삐, 도론이에요. 필리핀 음식이에요. 새벽부터 만들었어요."

아나씨가 건네 준 음식을 맛보니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맛이 난다.

[필리핀마켓 판매인 필리핀인 ANNA 인터뷰]



서울기록원, 필리핀 마켓 사진, 2019



ANNA 인터뷰 영상, 2019.09.29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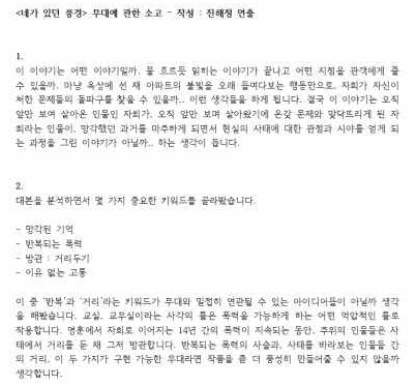
서울기록원. 2019년 마로니에 공원 필리핀마켓 방문 손님 영상1. 2019
서울기록원. 2019년 마로니에 공원 필리핀마켓 방문 손님 영상2. 2019
서울기록원. 2019년 마로니에 공원 필리핀마켓 외부 전경 영상1. 2019
서울기록원. 2019년 마로니에 공원 필리핀마켓 외부 전경 영상2. 2019
서울기록원. 2019년 마로니에 공원 필리핀마켓 운영 모습 영상1. 2019
서울기록원. 2019년 마로니에 공원 필리핀마켓 판매물품 영상1. 2019
서울기록원. 2019년 마로니에 공원 필리핀마켓 내부 전경 영상1. 2019
서울기록원. 2019년 마로니에 공원 필리핀마켓 상인 영상1. 2019

성소수자 연극 '네가 있던 풍경'과 '퀴어한 낭독극장'에서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가 제공한 기록물들은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에서 행해진 공연들을 통해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한다. 그녀가 제공한 공연의 연습장면, 연출노트, 사진, 팜플릿 등과 그녀가 직접 작곡한 음악들은 '왜 하필 성소수자 연극?'이라는 편견 어린 시선을 내려놓게 한다.

[성소수자 연극_네가 있던 풍경]



이재 음악감독. 공연 '네가 있던 풍경' 연습장면. 2018



<네가 있던 풍경> 무대에 관한 소고 - 작성 : 진해정 연출

1.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물 흐르듯 읽히는 이야기가 끝나고 어떤 지점을 관객에게 줄 수 있을까. 마냥 속상에 선 채 아파트의 불빛을 오래 들여다보는 행동만으로, 자희가 자신이 처한 문제들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오직 알만 보여 살아온 인물인 자희가, 오직 알만 보며 살아왔기에 온갖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 자희라는 인물이, 망각했던 과거를 마주하게 되면서 현실의 사태에 대한 관점과 시야를 넓게 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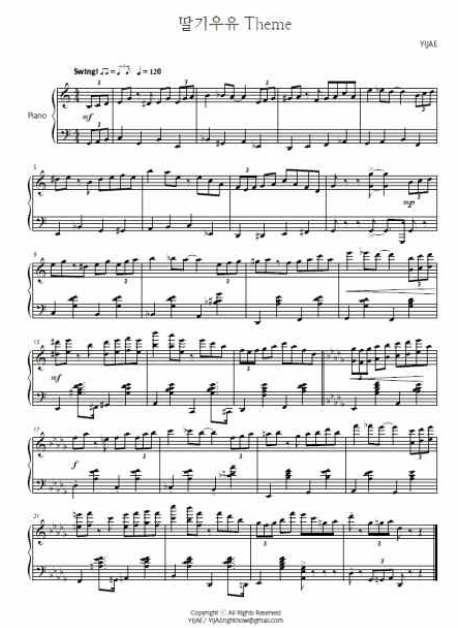
2.
대본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골라봤습니다.

- 망각된 기억
- 반복되는 폭력
- 방관 : 거리두기
- 이유 없는 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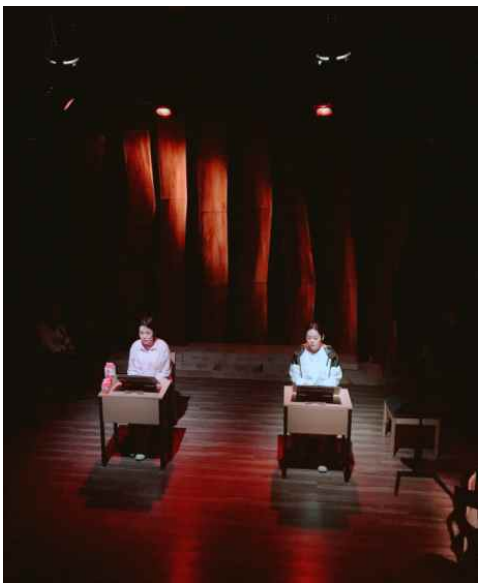
이 중 '반복'과 '거리'라는 키워드가 무대와 밀접히 연관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실, 교무실이라는 사각의 틀은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억압적인 틀로 작용합니다. 영훈에서 자희로 이어지는 14년 간의 폭력이 지속되는 동안, 주위의 인물들은 사태에서 거리를 둔 채 그저 방관합니다. 반복되는 폭력의 사슬과, 사태를 바라보는 인물들 간의 거리, 이 두 가지가 구현 가능한 무대라면 작품을 좀 더 풍성히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 음악감독. 공연 '네가 있던 풍경' 연출노트.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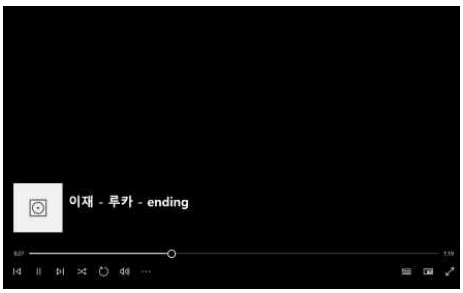
[퀴어한 낭독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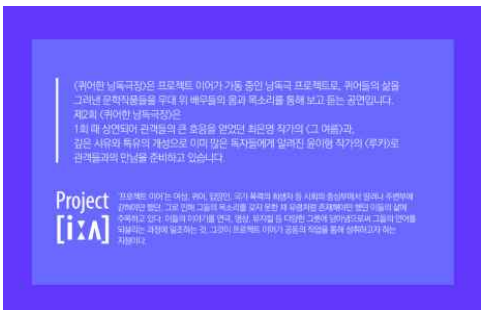
이재 음악감독. 공연 '퀴어한 낭독극장 1회' 음악악보. 2018



이재 음악감독. 공연 '퀴어한 낭독극장 1회' 무대 사진. 2018



이재 음악감독. 공연 '퀴어한 낭독극장 2회' 엔딩 음원. 2018



이재 음악감독. 프로젝트 이어 소개 팜플릿. 2018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서울기록원. 22018년 대학로 이재 연극 네가있던풍경 리플렛. 2019
서울기록원. 2018년 대학로 이재 연극 네가있던풍경 티켓이미지. 2019
서울기록원. 2018년 대학로 이재 연극 네가있던풍경 음원 성숙의기억. 2019
서울기록원. 22018년 대학로 이재 연극 네가있던풍경 음원 영훈의흔적. 2019
서울기록원. 2018년 대학로 이재 연극 네가있던풍경 음원 옥상-자희와영훈. 2019
서울기록원. 2018년 대학로 이재 퀴어한 낭독극장 기획의도. 2019
서울기록원. 2018년 대학로 이재 퀴어한낭독극장 1회 음원 그여름ending. 2019
서울기록원. 2018년 대학로 이재 퀴어한낭독극장 1회 프렐류드와푸가01. 2019
서울기록원. 2018년 대학로 이재 퀴어한낭독극장 2회 공연사진 루카01. 2019
서울기록원. 대학로 이재 퀴어한낭독극장 그여름큐시트. 2019

언제나 사람의 온기로 따뜻했던 장소, 마로니에 공원. 인간 본성을 고민하며, 나 혼자만의 공간이기보다 예술과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이길 꿈꾸는 곳. 다양한 콘텐츠들이 공존하며 자유로운 창작과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인종과 성별, 젠더, 나이, 장르 등의 경계를 허물며 문화다양성을 품어내며 문화적 열망을 손수 꽃피우고 있다. 그들이 피어낸 꽃들이 어여쁜 꽃밭을 이루며,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자연스레 머무르게 하는 날이 올 때면, 서울의 문화도 활짝 피어나지 않을까?

S-NAP 1.7.2. 희망의 외침, 광화문 광장

나아가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 시대의 도래를 꿈꾸며

조선 시대 육조거리였던 광화문 일대 거리는 2019년 현재 새로운 광화문 광장 시대의 도래를 꿈꾸고 있다. 차를 위한 공간이 아닌 시민을 위한 장소로 나아가고자 하는 광화문 광장은 2009년 조성된 이래로 수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대한민국 시민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제 광화문 광장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의 장소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우리만의 광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들리는 시민의 목소리가 희망찬 대한민국의, 서울의 미래를 그리게 한다. 서울시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광화문포럼을 운영하며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린 시민 중심 대한민국 대표공간 조성'을 목표로 국제공모를 진행했다. 약 3개월에 걸쳐 추진된 국제설계공모에 70개의 팀이 참여했으며, ㈜ CA조경기술사무소의 '과거와 미래를 깨우다'가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육조거리라 불리던 당시의 광화문 거리]



서울역사아카이브. 경복궁 광화문
『MANCHURIA&CHOSEN』(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RAILWAY. 1913.



서울역사아카이브. 경성관민의 대환영회(16일)
『朝鮮實業視察團』(民友社). 1912.

[새로운 광화문 시대를 향한 서울시의 여정]



광화문광장추진단. 당선작: 과거와 미래를 깨우다(Deep Surface : 깊은 표면. 2019.



광화문광장추진단.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설계공모 작품집. 2019.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광장포럼_광화문광장 개선의 방향과 원칙. 2017.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포럼 결과 보고서. 2017.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광장 개선 종합기본계획. 2018.
광화문광장추진단.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설계공모 현장설명회 발표자료. 2018.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 공모관리용역 최종보고서. 2019.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광장 조성 공모지침서(국문). 2019.
광화문광장추진단. Competition Rules&Guidelines English ver. 2019.

조성하다: 광화문 광장이 탄생했다

세종의 묘호를 따서 '세종로'로 불렸던 거리는 2009년 광화문 광장이 되었다. 1994년 한양 정도 600년을 맞이하여 수립한 '시민상징거리 조성계획'이 보류되었으나, 민선3기 시정 출범 이후 시민광장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시청 앞 서울광장과 숭례문광장, 청계광장 등이 조성되면서, 세종로를 국가대표 광장으로 조성하여 이러한 광장들과 연계함으로써 서울의 대표적 광장이자 역사문화의 축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민선 4기를 맞이하여 문화재청의 광화문 제자리 찾기 및 경복궁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육조거리의 역사성을 회복시키고 우리나라와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축을 복원하여 경복궁 및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조망권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광장~청계천~경복궁간 관광보행축을 형성, 서울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게 되었다.

[광화문 광장 옛 전경]



서울사진아카이브. 광화문 전경. 1966



서울역사아카이브. 세종로에 걸린 올림픽기. 1982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도시경관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상징거리조성계획. 1995. [출처 : 서울도서관]
기획담당관. Vision Seoul 2006 : 서울시정 4개년 계획 2003-2006. 2003. [출처 : 서울도서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http://opengov.seoul.go.kr/policy/30008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 종합계획. 2007. [출처 : 서울도서관]
서울연구원. 「도심재창조 종합계획」에 따른 서울시 도심부의 발전방향」. 2007.
광화문광장추진단. 2009 광화문 광장 백서: http://ebook.seoul.go.kr/Viewer/ZL7HKCEEV7E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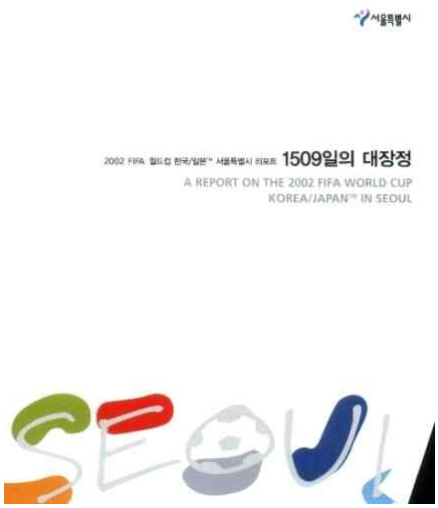
부상하다: 대한민국 시민문화의 중심지가 되다

2002년 월드컵의 함성을 들었는가? 붉은악마가 된 시민들의 뜨거웠던 응원 열기와 열띤 외침은 서울의 도심을 가득 메웠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붉은 옷을 입고 목청 높이 외치던 응원소리가 낯선 이들도 이웃처럼 느끼게 했다. 여기에서만큼은 대립도 갈등도 경계도 구분도 없었다. 우리는 한국과 세계를 응원하는 서울시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며, 세계가 주목한 열띤 응원단이었다. 그 당시의 길거리 응원은 대한민국의 시민문화가 한층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광화문 광장 일대가 시민문화의 중심지로 부각되어야 할 당위성을 증빙하는 이벤트였다.

한편으로 2002년은 슬픈 사건이 있었던 해이기도 하다. 그 해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심미선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했다. 시민들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미군의 사과를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며 붉은 촛불의 물결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4.19혁명, 6월 민주항쟁 등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염원의 공간이었던 광화문일대는 이후에도 중요한 국가적 사건이 있을 때면 광장으로 시민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비롯해 2016년 1700만 촛불을 일으킨 시민의 촛불집회는 광화문 광장을 소통과 화합의 일상적 민주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게 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길거리 응원. 2002.
[출처 : 국가기록원]



서울특별시,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TM 서울특별시 리포트 1509일의 대장정. 2003.
[출처 : 국가기록원]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국가기록원. 붉은 악마와 월드컵 세대_월드컵과 한국 사회. 미상.
서울특별시. 영상: [라이브서울-Full] 월드컵 벨기에전 광화문 거리응원 현장생중계. 2014.
서울특별시. 영상: 월드컵 러시아전 광화문 거리응원 현장생중계. 2014.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홍보정책관 홍보지원총괄과. 6.10 민주항쟁 촛불집회(광화문 사거리). 2008.
[출처 : 국가기록원]

함께하다: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의 장소가 되다

이제 광화문 광장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의 장소이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더 이상 우리의 목소리를 숨기려 들지 않는다.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모여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변화를 향해 외치며,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기억하고자 한다. “우리의 노력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들. 비가오고 눈이 와도, 강한 햇살이 내리쬐어도 365일 쉬지 않고 광장을 찾는 사람들.

광장을 지나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광장에 울려 퍼지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 누군가의 행위에 주목하고 동참하기 시작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우리만의 광장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들리는 시민의 목소리가 희망찬 대한민국의, 서울의 미래를 그리게 한다.

[광화문 광장에서의 ’세월호 추모‘]



김하은, 노란책1. 2014



김하은, 기억의 벽. 2014



김하은, 광화문 한뼘 걸개. 2014



김영오, 인터뷰 사진, 2019.10.10.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서울기록원. 2019년 김영오(유민아버님) 김영오 인터뷰모습1. 2019
서울기록원. 2019년 김영오(유민아버님) 김영오 인터뷰모습2. 2019
서울기록원. 2019년 김영오(유민아버님) 김영오 인터뷰모습3. 2019
서울기록원. 2019년 김영오(유민아버님) 김영오 인터뷰모습4. 2019
서울기록원. 2019년 김영오(유민아버님) 김영오 인터뷰모습5. 2019
서울기록원. 2014년 광화문 김하은작가 기억의 벽 행사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1. 2014
서울기록원. 2014년 광화문 김하은작가 기억의 벽 완성품1. 2014
서울기록원. 2014년 광화문 김하은작가 북콘서트 촛불집회. 2014
서울기록원. 2014년 광화문 김하은작가 북콘서트 세월호 이야기. 2014
종로구 자원봉사센터. 2016년 광화문광장 종로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모습. 2016

S-NAP 1.7.3. 장충단공원의 명과 암

투어를 하다: 호국공원이 된 장충단 공원

아침 10시, 장충단공원 '호국의 길' 투어가 시작되었다. 문화관광해설사 이승옥 씨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는 공원의 길은 서울의 여느 공원들과 같이 잘 가꾸어진 듯했다. 해설사와 첫 만남이 이루어진 정자, 반듯하게 다듬어진 길, 잘 심어진 잔디와 풀, 그리고 나무들, 곳곳에 있는 벤치, 전시되어 있는 옛 비석과 동상들 등, 이곳은 언제부터 공원이었던 걸까? 서울에 살며 장충단 체육관은 많이 들어봤지만, '장충단공원'이라는 말은 낯설었다. 더군다나 이 공원이 호국공원이라니?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중구청 홈페이지. 장충단공원을 호국공원으로 홍보.



서울기록원. 해설사 이승옥 씨 사진. 2019

독립과 자유의 동상이 안내하는 '호국의 길'

"2016년 조성된 '장충단 호국의 길'은 호국 정신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건축을 연결한 도보 탐방로이다. 장충단공원 입구에서 장충단 비, 한국유림 독립운동파리장서비, 이준열열사 동상, 이한응선생 비, 유관순열사 동상, 3·1독립운동 기념탑, 김용환지사 동상 등으로 이어진다."

장충단공원의 기억의 공간에 있던 호국의 길 안내 설명 中 -

장충단 호국의 길은 2016년 조성된 탐방로이지만, 본래 이 주변은 1900년 을미사변 때 순국한 많은 장병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이 있던 곳이다. 1908년까지 봄·가을마다 제사를 지내며,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에 절개를 지키고 목숨을 잃은 충신과 군인들도 함께 모셨다. 현재는 사당과 건물이 파손되고 장충단비만 흔적으로 남아있다.

투어를 따라가니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호인 장충단비와 수표교를 비롯하여 한국유림독립운동파리장서비, 유관순열사 동상, 이준열사 동상, 만해 한용운 시비, 사명대사 동상 등을 볼 수 있었다.



중구청. 장충단 호국의 길 지도. 2016.



서울기록원. 수표교. 2019.



서울기록원. 장충단비. 2019.

"학생들이 자원봉사 하러 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하며 애국심을 일깨워요. 학생들과 투어를 하면 질문도 많고 열심히 참여한답니다."

광복 후에 세워진 공원 안팎의 동상과 기념비들은 충절과 애국심을 일깨워 주며 호국의 길 투어를 이끈다. 그래서인지 초중고학생들이 역사교육현장학습으로 많이 찾는다고 한다. 학생들과의 투어가 즐겁다는 해설사의 말에서 무료 봉사와 다를 바 없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그분의 자긍심이 느껴졌다.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서울시사편찬자료. 서울독립운동의 역사현장 1책 신국판. 2008

서울기록원. 호국의 길 투어 영상. 2019

역사를 배우다: 일제의 만행이 서린 곳

투어 중간부터 비가 옴에도 우리는 우산을 쓰지 않고 장충단공원 내외부를 거닐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장충단 공원은 왠지 모르게 쓸쓸했다. 우중충한 회색빛의 날씨가 배호의 〈안개낀 공원〉의 가사를 떠올리게 했다.

〈안개낀 장충단공원〉

안개낀 장충단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송 고목을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날 이자리에 새긴 그 이름 뚜렷이 남은 이 글씨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떠나가는 장충단공원

비탈길 산길을 따라 거닐던 산기슭에
수많은 사연에 가슴을 움켜주고 울고만 있을까

가버린 그 사람이 남긴 발자취 낙엽만 쌓여 있는데
외로움을 달래 가면서 떠나가는 장충단공원

[가수 배호. '안개낀 장충단공원' 가사. 1967.]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한적한 공원이지만, 일제강점기에 이곳은 일본을 위한 공간이었다. 1908년부터 일제로부터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압력을 받으면서 1910년부터 장충단의 제사는 사라졌다. 우리에게는 현충원과 같았던 이곳을 일본은 1919년에 공원화했다. 운동장이 생기고, 벚나무와 광장, 연못, 놀이터, 찻집 등이 생겼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기 위한 사찰인 박문사를 지었다. 상하이 사변 당시에 죽은 후 육탄3용사로 일컬어지는 일본군의 동상이 세워지면서 장충단 공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모했다.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을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의 장충단공원 부지사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부지일부를 야구장으로 만든다거나, 육탄삼용사동상을 세운다거나 대궁장관리인숙사신축을 승인하고, 흥아일본전망대박람회부지로서 조선신문사에 유상대부하는 등과 관련된 보유 문건들이 남아있다.

장충단공원차입서류-경성부서사헌정동사헌정	미상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23
장충단공원내토지권리증서-경성부서사헌정	미상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23
장충단공원내육탄삼용사동상기부서류-경성부서사헌정(부유재산)(1923)	미상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23
장충단공원박문사부지반환서류-경성부중구서사헌정(부유재산)(1923)	미상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23
장충단공원부지일부연식야구장원상변경승인서-경성부중구서사헌정(부유재산)	미상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23
장충단공원		공공기록	서울역사아카이	사진그림류	전자	1926
잡종재산인장충단공원부지내에폭탄3용사의동상건설에관하건(도면첨부)	미상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37
장충단공원부지내중도장신축에관한건	미상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40
사직단공원장충단공원및파고다공원내에있어서공원시설계획에관한건(도면첨부)	미상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40
장충단공원부지의일부를흥아일본전망대박람회부지로서조선신문사에유상대부건(도면)	미상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40
장충단공원부지일부를흥아일본전망박람회부지로조선신문사에유상대부연기건	미상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40
장충단공원부지내대궁장관리인숙사신축승인건(도면)	미상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42
장충단공원연식야구장시설공사건(도면)	미상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42
장충단공원평면도1장	미상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44
장충단공원부지동건물일부사용에관한건	미상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44
장충단공원부지의일부원상변경승인원의건(도면첨부)	미상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43
장충단공원부지및건물일부사용에관한건(도면첨부)	미상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44

서울기록원, 일제강점기 장충단공원에 관한 공공기록물 목록. 2019


일반문서 장충단공원부지내대궁장관리인숙사신축승인건(도면)
공개 · 생산기관 : 미상 · 생산년도 : 1942년 · 관리번호 : CJA0022146
원문보기
상세정보

철제목	국유재산관계서류(1942-1944년)		
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간	영구
기록물유형	층독부기록물	페이지정보	115~122 / 8
유형	실물	표현형태	시각
서고정보	대전 행정기록관	공개구분	공개 내용에 따라 열람이 제한 됩니다.

기여자 정보 [서비스권자] 국가기록원

검색 만족도 조사

국가기록원 소장기록. 장충단공원부지내대궁장관리인숙사신축승인건. 1942.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록물로, 장충단 공원 부지를 일본이 어떻게 사용하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국가기록원 소장기록. 장충단공원차입서류-경성부서사헌정동사헌정. 1923
국가기록원 소장기록. 장충단공원내토지권리증서-경성부서사헌정. 1923
국가기록원 소장기록. 장충단공원내육탄삼용사동상기부서류-경성부서사헌정(부유재산). 1923
국가기록원 소장기록. 장충단공원부지일부연식야구장원상변경승인서-경성부중구서사헌정(부유재산). 1923
국가기록원 소장기록. 잡종재산인장충단공원부지내에폭탄3용사의동상건설에관하건(도면첨부). 1923
국가기록원 소장기록. 장충단공원연식야구장시설공사건(도면). 1923
국가기록원 소장기록. 장충단공원부지의일부를흥아일본전망대박람회부지로서조선신문사에유상대부건(도면). 1923

정쟁의 중심지가 되다: 정치 공간이 된 장충단 공원

광복 후 장충단 공원 내 일제의 흔적은 모두 철거되었다. 공원은 넓은 광장이 되었다. 텅 비어있는 넓은 부지는 정치연설의 장이 되기도 하고, 시위의 집합지가 되기도 했다. 6.25전쟁 및 정치정세 등의 변화에 따라 장충단공원은 전재민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정치 유세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이미지로 변화되었다. 1957년 전후에 있었던 자유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집회 방해 및 강연회 도중 테러 발생 등을 일으켰고, 집회와 연설이 있었던 장충단 공원은 '정치 집회' 및 '정치 폭력'이 감행되던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아래의 공공기록물을 통해 당시 사건에 대한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관백. 장충단공원강연방해방화사건에대하여. 1957. [출처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록물로, 장충단공원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장충단공원에서 있었던 유명한 정치 연설을 꼽자면, 제7대 대통령선거 연설일 것이다. 박정희와 김대중 후보는 이곳에서 유세 대결을 했다. 1971년 4월 27일 선거일을 앞두고 있었던 두 후보자의 유세는 수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끌었다. 박정희는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을 위해 마지막 한 번만 더 봅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고,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던 김대중은 '10년세도 썩은정치 못참겠다 갈아치자!'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구름떼 같은 군중을 몰고 다녔다. 1971년 4월 18일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 있었던 유세에는 야당 추산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여기 장충단 공원의 백만이 넘는, 대한민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유례가 없을 이 대관중이 모인 것을 보고, 서울 시민의 함성을 보고 이제야말로 정권 교체는, 우리의 승리는 결정이 났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충단 공원에서의 김대중 후보의 연설 중 -



서울사진아카이브. 정치연설이 있었던 장충단 공원의 현장. 1971



서울사진아카이브. 정치연설이 있었던 장충단 공원의 현장. 1971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윤과백. 장충단공원강연방해방화사건에대하여. 1957
서울사진아카이브. 장충단공원 공화당 유세장. 1967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기획과. 박정희 대통령 제7대 대통령선거 서울 유세(장충동). 1971

다시 공원이 되다: 사라져 버린 광장과 추억의 장소들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에 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을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것이 있죠. 광장은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색을 입힐 수 있잖아요."

임진원씨 인터뷰 내용 중 -

넓디넓어 입구에서 저 끝을 바라보면 누가 있는지 다 들어왔던 광장 같았던 이곳은 현재 푸르른 공원으로 변화했다. 남산까지 못 올라가는 근처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한다. 누군가는 숲을 산책하며 힐링을 하기도 한다. 장충단 공원은 공식적으로는 호국 공원이지만, 숲이 조성되어 있어 호국의 길을 투어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원을 산책하거나 운동과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찾는 생활복지시설이기도 하다.



서울기록원. 장충단 공원 임진원 사진작가와 이승옥 해설가 인터뷰. 2019.
[장충단 공원에서 이 일대 주민인 임진원 사진작가와 이승옥 해설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앞서 살펴봤지만, 장충단 공원은 장충단과 일제의 만행과 관련된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면서 근현대 정치사의 중요한 자리이기도 했던 곳이다. 한편으로는 여기에 롤러스케이트장, 분수대, 농구장, 배트민턴장, 매점과 파라솔, 투견장 등도 있었고, 배호가요제나 크고 작은 동네 행사들이 열렸던 주민들의 장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한 이승옥, 임진원씨는 지금은 그 흔적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는 말을 전했다.

장충단 공원에 많은 추억이 남아있다는 임진원씨는 어릴 때는 장충단 공원에 있던 놀이터나 그 당시 있었던 분수대에 들어가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소금쟁이나 물방개를 잡으며 놀았다고 했다. 10대 때는 학교별 농구

리그가 있어서 농구장에 모여서 친구들과 농구를 많이 했었다. 그리고 20대 때는 이곳에서 여자 친구와 데이트를 했다고 했다. 위의 사진은 어릴 적 임진원 씨가 장충단 공원에 형제, 친구들과 함께 놀러 와서 찍은 사진이다. 지금은 사라진 분수대를 사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경관이다.



임진원. 장충단 공원 수포교와 분수대. 1980년대.
[지금도 볼 수 있는 수포교와 사라진 분수대를 볼 수 있다.]

광장의 기능이 사라져버린 공원을 바라보며, 임진원 씨의 인터뷰를 떠올려본다. 무엇이 주민들을 위한 것일까?



[어린 시절 장충단 공원에서의 임진원씨]
임진원. 어린 시절 장충단 공원에서의 임진원씨. 1980년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했을 때 생산되는 것이 있죠. 현재는 물론 쉴 수 있어서 이 주변 원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복지공간이 조성되어서 그거 나름대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기능들이 많이 사라진 것도 있어요.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에 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을 못하게 된 것은 아쉬워요. 광장은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색을 입힐 수 있잖아요. 어떤 모임들은 문화예술을 목적으로 올 수도 있고,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등등 다양한 기능이 한 장소에서 되는데 지금은 많이 제한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임진원 씨 인터뷰 내용 중 -

이승옥씨가 덧붙여 이야기했다. 예전에 변하기 전에는 중구민 한마당도 여기서 했었다. 그 때 각 동에서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와서 나누어 먹기도 하고, 달리기도 했었다. 모든 행사를 여기서 했었다. 하지만 광장 기능이 사라지면서 주민들이 모여서 행사를 할 만한 공간도 함께 사라졌다. 중구민 행사를 진행하려면 장소를 빌려야 했고, 그때마다 동네나 학교 운동장을 빌려야만 했다. 지금은 그 마저도 없어져서 주민들이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공원이 조성되어 좋은 점도 있지만, 이곳에 다 같이 모여노래자랑도 하고 축제도 하고 했던 광장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진 것은 이곳에서 추억을 쌓아온 주민들에게는 아쉬운 일이다.

S-NAP 1.7.4 군사광장에서 시민광장이 된 여의도 공원

여의도 상공에 비행기가 날아오르다

경성(서울)의 하늘! 경성(서울)의 하늘!...

이 하늘에 내몸을 날리울 때 내몸은 그저 심한 감격에 떨릴 뿐이었습니다. ... 독립문 위에 떴을 때 서대문 감옥에서도 자기네 머리위에 뜬 것으로 보였을 것이지만은 같이 있는 형제의 몇사람이나 거기까지 찾아간 내 뜻과 내 몸을 보아주었을는지...

'어떻게나 지내십니까?' 하고 공중에서라도 소리치고 싶었으나 어떻게 하는수 없이 그냥 돌아섰습니다. ...(공중에서 본 경성과 인천, 1922년 '개벽' 31호)

여의도 비행장 역사의 터널에 있던 전시 패널 내용 중 '떴다 보아라 안창남 비행기'-

안창남의 비행기가 서울의 하늘 위를 날고 있을 때, 서울 하늘 아래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서울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1922년 12월 10일 여의도 상공에서 안창남이 고국방문 곡예비행을 했을 당시, 서울인구의 6분의 1인 5만 인파가 여의도 한강변에 모여 환호하였다. 이 비행은 일제강점기 절망 속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었다고 한다. 어쩌면 '여의도 비행장 역사터널' 이라 칭하는 어두운 터널 안을 거닐어야 하는 지금 이순간, 터널의 맞은편으로 들어오는 저 밝은 빛이 안창남의 비행이 준 선물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짐작해본다.

이 터널은 한강공원에서 여의도 공원으로 향하는 길목에 이 위치하고 있다. 터널 안에는 이곳이 한때는 비행장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패널과 안창남이 탔던 비행기 조형물들이 양옆으로 전시되어 있다.





서울기록원. 여의도 비행장 역사의 터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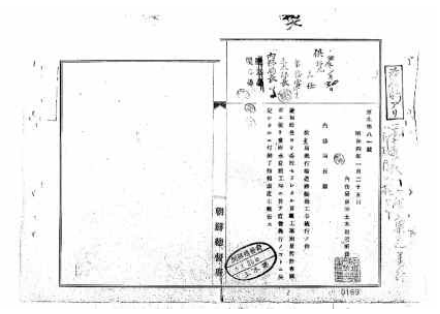
"영등포도 지났는지 창밖으로는 불빛이 드물게 흘러갔다. 멀리 비행장 있는 쪽에서 서치라이트의 비단결 같은 빛살이 밤하늘을 스쳐가고 또 스쳐가고 있었다."

김승옥의 소설 〈환상수첩〉 중 -

1916년 일본이 만든 여의도 비행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장이다. 도심 속에 위치했지만, 오랜 기간 공군기지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는 낯선 곳이었다. 김승옥의 소설 '환상수첩'에 묘사된 문구처럼 그저 먼발치에서 비행장을 목격할 뿐이다. 김포공항이 생기고, 공군기지가 성남시로 이관되면서 자연스레 폐쇄된 여의도 비행장은 오랫동안 그 사실이 잊혀졌다.

안창남	국방부 공군본부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21
조선비행계의 제일인 안창남군의 웅지	국방부 공군본부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21
어린 공중용사 안창남군 졸업장의 비애	국방부 공군본부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21
어린 공중용사 안창남군 비행가 지망	국방부 공군본부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21
어린 공중용사 안창남군 천재의 호기회	국방부 공군본부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21
공전의 대환영중 안창남군 입경	국방부 공군본부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21
안창남 묘비 및 묘이장 요청에 대한 민중문화재청 사절명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84
고국방문대비행에 대하여(안창남씨)	국방부 공군본부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21
어린 공중용사 안창남군, 천붕지양의 변	국방부 공군본부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21
현해가 동하는 만세성중 안창남군 부산	국방부 공군본부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21
동경-대판간 우편 비행에 대한 안창남시	국방부 공군본부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21
여의도 공항 여객기(다그라스) 3	철도청 공보담당관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사진그림류	전자		1953
여의도 공항 여객기(다그라스) 4	철도청 공보담당관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사진그림류	전자		1953
여의도 공항 여객기(다그라스) 8	철도청 공보담당관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사진그림류	전자		1953
넓은 모래사장과 목축장이 있었던 여의도		공공기록	서울역사박물관	영상음성류	전자		2016
미디어파사드 c-47/[LIVE] 국내최초 비행기 영상쇼_라이		공공기록	서울시	영상음성류	전자	2018.08.17	
6.25사변전 여의도비행장(1950년대)		공공기록	영등포구(여의도디	사진그림류	전자		
여의도공군부대비행장	공보처 홍보국 사진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사진그림류	전자	1956.09.29	
이승만대통령내외여의도비행장도착	공보처 홍보국 사진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사진그림류	전자	1956.12.31	
여의도비행장도로축조공사	미상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28
여의도비행장도로축조공사준공건	미상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일반문서류	전자		1928
이승만대통령내외여의도비행장에도착	공보처 홍보국 사진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사진그림류	전자	1957.04.15	
이승만대통령내외여의도비행장도착이	공보처 홍보국 사진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사진그림류	전자	1958.11.08	
이승만대통령여의도비행장도착환동에	공보처 홍보국 사진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사진그림류	전자	1958.11.08	
이승만대통령진해출발여의도비행장도	공보처 홍보국 사진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사진그림류	전자	1955.12.19	
이승만대통령내외여의도비행장도착환	공보처 홍보국 사진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사진그림류	전자	1958.11.08	
이승만대통령내외여의도비행장도착환	공보처 홍보국 사진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사진그림류	전자	1958.11.08	
이승만대통령내외여의도비행장도착환	공보처 홍보국 사진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사진그림류	전자	1958.11.08	
이승만대통령내외부여의도비행장도착환	공보처 홍보국 사진	공공기록	국가기록원	사진그림류	전자	1958.11.08	

서울기록원. 여의도 비행장과 관련된 공공기록물 목록. 2019.



국가기록원 소장기록. 여의도비행장도로축조공사. 1928.



공보처 홍보국. 여의도공군부대비행장. 1956. [출처 : 국가기록원]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국방부 공군본부. 조선비행계의 제일인 안창남군의 웅지. 1921. [출처 : 국가기록원]
국방부 공군본부. 어린 공중용사 안창남군 졸업장의 비애. 1921. [출처 : 국가기록원]
국방부 공군본부. 어린 공중용사 안창남군 천재의 호기회. 1921. [출처 : 국가기록원]
국방부 공군본부. 공전의 대환영중 안창남군 입경. 1921. [출처 : 국가기록원]
국방부 공군본부. 고국방문대비행에 대하여(안창남씨). 1921. [출처 : 국가기록원]
국방부 공군본부. 어린 공중용사 안창남군, 천붕지양의 변. 1921. [출처 : 국가기록원]
국방부 공군본부. 동경-대판간 우편 비행에 대한 안창남시의 수기 선전문. 1921. [출처 :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이승만대통령내외여의도비행장도착이동. 1958. [출처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소장기록. 여의도비행장도로축조공사. 1928
국가기록원 소장기록. 여의도비행장도로축조공사준공건. 1928

5.16광장, 군사 광장이 그린 그림

비행기가 다닌 아스팔트 활주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여의도 도시개발과 함께 “여의도에 대광장을 만들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12만 평 규모의 초대형 아스팔트 광장이 되었다. 국가기록원의 공공기록물

을 확인해보니, 아래의 사진 및 문서 기록물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왼쪽은 1971년 박정희대통령이 양택식 서울시장으로부터 5.16광장 준공 보고를 청취하고 있는 사진이다. 가운데 사진은 박정희대통령이 5.16광장 개관식에 참석하여 테이프를 절단하고 있는 사진이며, 마지막 사진은 1972년에 이루어진 서울특별시 5.16광장 사용 조례 제정과 관련된 문건이다.



공보처 홍보국. 박정희대통령양태식 서울시장으로부터5.16광장준공보고 청취. 1971. [출처 :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박정희대통령5.16 광장개관식참석테이프절단. 1971. [출처 : 국가기록원]



행정조정실. 서울특별시5.16광장사 용조례제정. 1972. [출처 : 국가기록원]

"친애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향토 예비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국군도 오늘로서 창군 스물세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토 방위의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우리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전장병, 그리고 250만 향토 예비군 장병들이 조국과 겨레를 위하여 쌓은 위대한 공훈과 노고를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새로 다듬어진 이 『5.16광장』에 정렬된 위용당당한 대오와 여러분의 늠름한 모습을 볼 때, 지난 23개 성상 우리 국군이 걸어온 시련과 수난과 또한 영광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다만 감개가 무량할 따름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국군이 걸어온 발자취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산 침략자들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봉사와 투쟁을 통해 쟁취한 승리와 영광의 기록이었습니다."

제23회 국군의 날 유시 중(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8집 10월편 / 대통령비서실) -

5.16광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광장은 녹지공간으로 계획되지 않았다. 남북한 간의 체제경쟁 속에서 국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필요했고, 이 광장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적합지였을 뿐이다. 북한에 김일성 광장이 있다면, 남한에는 그 광장의 5배에 달하는 5.16광장이 있는 것이다.

광장은 71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하지만 그 당시의 광장은 시민들을 위한 광장이기보다는 대규모의 군중집회나 군사 퍼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매년 국군의 날 행사가 거행되었고, 퍼레이드의 규모와 위용은 점점 커져갔다. 70년대의 공공기록물 대다수는 이와 관련된 사진들이다. 서울사진아카이브에서 살필 수 있는 옆의 사진들처럼, 5.16광장에서는 군인들이 퍼레이드(2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1973)를 하거나 대규모의 군중이 모여 행사를 진행(예비군 창설 제10주년 행사/1978)하며 강력한 국권과 체

제의 우위를 과시하며 광장의 위상을 높였다.



서울사진아카이브. 2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 1973



서울사진아카이브. 예비군 창설 제10주년 행사. 1978



문화공보부. 1981 국풍 10. 1981. [출처 : 국가기록원]



문화공보부. 국풍 1981 스케치 34. 1981. [출처 : 국가기록원]

광장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국풍81, 이산가족 찾기 만남의 광장 등 수 백 만 명이 참가하는 각 종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들 행사는 어디까지나 누군가에 의해 그려진 그림일 뿐, 이곳을 이용하는 자는 몸도 마음도 허울뿐인 꼭두각시에 불과했으리라. 아스팔트의 차가운 바닥과 맞닿아 울려 퍼지는 발소리와 광장에 널리 퍼지는 함성 소리를 들으며 이곳을 어느 누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국가에 있는 광장으로 보았겠는가?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공보처 홍보국. 여의도 '5.16광장' 준공. 미상. [출처 : 국가기록원]
공보처 홍보국. 박정희대통령제26주년국군의날기념식장여의도5.16광장도착 1. 1974. [출처 : 국가기록원]
e영상역사관 소장기록. 여의도 5.16 광장 반공 국민 총궐기대회. 1972.
대통령비서실. 5·16혁명 제10주년 및 제6회 5·16 민족상 시상식 치사. 1971. [출처 : 대통령기록관]
대통령비서실. 제26주년 국군의 날 유시. 1974. [출처 : 대통령기록관]
서울사진아카이브. 제24회 국군의날 기념식. 1972
서울사진아카이브. 박영수 서울시장, 국풍81 시찰. 1981

여의도 공원, 도심 속 생태공원이 되다

1999년 1월에 개장한 여의도공원에는 여전히 아스팔트 광장의 흔적이 남아있다. 아스팔트 광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나 보드,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들, 친구나 가족과 함께 농구를 하는 사람들,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아스팔트의 차가움이 시민들의 동적 움직임에 의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다.



서울기록원. 여의도 공원에서 운동 중인 시민들. 2019.

이제는 한국 전통의 숲, 잔디마당, 문화의 마당, 자연생태의 숲 등 4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의도 공원. 이곳은 언제부터 공원이었을까?

1997년부터 여의도광장의 공원화사업이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1995년부터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방향 연구'를 진행하고, 1996년에는 공원녹지확충 5주년계획(公園綠地擴充 5個年計劃 :1996-2000), '여의도광장의 공원화계획에 따른 시민제안공모 및 기본구상안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는 등 공원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 울 특 별 시

조 정 과 장

공 고 (안)

여의도광장의 공원화에 관한 시민제안 공모

서울특별시장

공원녹지기획관 조경과. 여의도광장의 공원화계획에 따른 시민제안공모 및 기본구상안 현상설계 공모. 1996.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여의도광장의 공원화계획에 따른 시민제안공모 및 기본구상안 현상설계 공모기록물이다.]

녹지공간에는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가롭게 산책을 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정자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등이 있었다. 그들에게 지금의 여유는 잠깐의 휴식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순간일 것이다.

서울의 과거의 흔적과 현재의 비전이 공존하는 여의도 공원. 금융가와 방송가, 정치가의 보이지 않는 힘을 상징하는 거대한 빌딩과 건물들에 둘러진 도심 속 푸른 숲은 다소 이질적이다. 그럼에도 힐링과 푸르름으로 가득한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이 엿보이는 만큼, 이 녹지 공간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래의 여의도 공원이 문뜩 궁금해졌다.






서울기록원. 여의도 공원 산책로와 작은 연못. 2019.

[아스팔트 광장의 반대편에는 푸른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기록들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여의도광장내부. 1996.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여의도 광장 인근지역. 1996.

한국정책방송원. 여의도광장 스케치. 1987. [출처 : e영상역사관]

서울도서관 보존서고. 公園綠地擴充 5個年計劃 :1996-2000. 1996.

3. 보고 자료

1.1. 착수보고 자료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 콘텐츠 개발 사업

-착수보고-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2019. 07. 17

목차

1 사업 개요

1.1 연구 소개
1.2 사업 목적
1.3 사업추진 전략
1.4 영역별 업무흐름 및 관계
1.5 연구추진체계
1.6 과업 재구조화

2 수행 계획

2.1 연구설계(T1, T2)
2.2 특별수집실행 및 정리(T3, T5)
2.3 네트워크 기획 및 운영(T4)
2.4 출판(T6)

3 사업일정

3.1 사업 수행 추진 일정
3.2 보고 및 검토계획
3.3 기대효과

1. 사업 개요

1.1 연구 소개
1.2 사업 목적
1.3 사업추진 전략
1.4 영역별 업무흐름 및 관계
1.5 연구추진체계
1.6 과업 재구조화

1.1 사업 소개

연구 소개

- 연 구 명 :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
- 주관기관 : 서울기록원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수행기간: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수행 내용

- 서울기록원 **수집 매뉴얼** 개발
- 서울의 **기록활동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성
- 서울기록 특별수집
- 수집기록 인수·등록·정리·기술
- 서울기록 수집 **아카이빙 북** 출판

1.2 사업 목적

'Archival Semantic Navigation Map' 을 통한 수집체계 안정화

- 서울의 변화상(물리적 변화, 사람들의 시선의 변화)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장소' 기반으로 장소와 관련된 인물, 사건, 단체를 바라볼 필요성 인식 →서울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 인물, 사건을 **서울형 OSP 형태로 논리화** →맵 형태로 관리/운영
- 서울형 OSP는 → 수집, 매뉴얼, 로드맵, 네트워크 기획/운영 등의 기반 지표로 활용
- '**Archival Semantic Navigation Map**'은 수집을 위한 네비게이션이자 서울기록 식별과 보완수집의 도구로 **수집체계 안정화**에 기여하며, 다양한 수집활동을 통해 서울시 전체를 망라하는 지도로 활용

네트워크 기반의 '서울기록 생태계' 균형유지

- 서울기록원이 **시민 참여형 아카이브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진행하여 공동체들이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
- 서울시와 '관계'를 형성해야 할 네트워크의 핵심 주체를 **마을, 시민단체, 서울시 네트워크 단체, 활동가 등으로 넓게 위치**시키고 **관계 기반**으로 네트워킹 주체들의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지원 방안' 마련

거버넌스적 아카이브 운영

- 본 연구는 기존 서울기록원 아카이브 사업의 총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인 서울기록원의 성장 발전의 토대**로 작용
- 다원적 네트워크 주체의 식별과 공감대 형성과 협업, Archival Semantic Navigation Map을 통한 안정화는 **서울 구성의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역할**을 함
- 이러한 기반은 서울기록원의 **거버넌스 운영의 기반조성 및 장기적 업무 실행능력 증진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
- 다원적 주체와의 거버넌스적 아카이브 운영으로 서울기록원의 성장 발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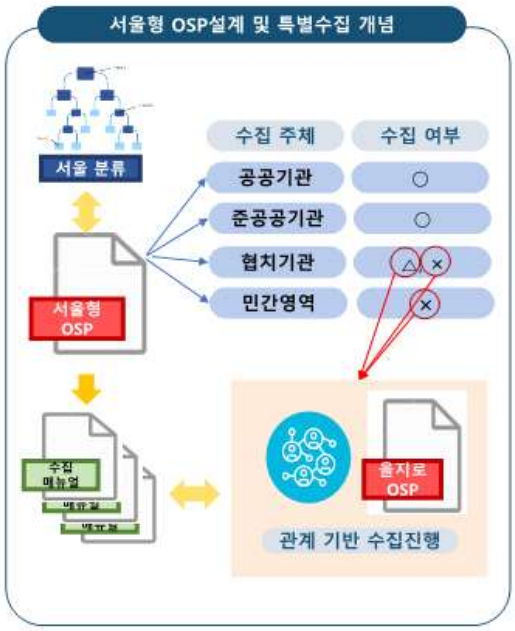
1.3 사업 추진 전략[1/2]

연구설계 (T1 수집기획 ~T2 마스터플랜 매뉴얼 개발)

- 인류학, 일상연구, 문화 영역 에서 **서울을 연구하는 기준과 분류**를 조사·연구하여 '서울 분류 트리(표상분류)'를 설계함
- 서울의 서사, 사례, 이론(기록, 거버넌스 연구)등을 기반으로 OSP설계 기준마련 → 기준, 분류를 고려 **서울형 OSP설계**
- 서울에 실재하는 것(OSP)과 논리체계(서울 분류)를 크로스 체킹 하는 방식으로 서울형 OSP를 설계/관리함
- 수집주체와 OSP를 고려한 매뉴얼 및 로드맵 설계

을지로 기록 특별수집(T3)

- 을지로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을지로의 변화상(서사) 기반**의 사건, 인물, 단체와 관련된 기록 수집 실행
- 청계천 을지로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 장소성이 상실될 위험이 높은 지역과 대상을 중심으로 수집을 진행
- 현재 추민공모사업의 결과물 검토 및 관련인과 연계하여 수집을 진행
- 을지로 일대 활동가들 중심으로 수집팀을 구성하여 공동체 시선에서의 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함



6

1.3 사업 추진 전략[2/2]

네트워크 발굴 운영(T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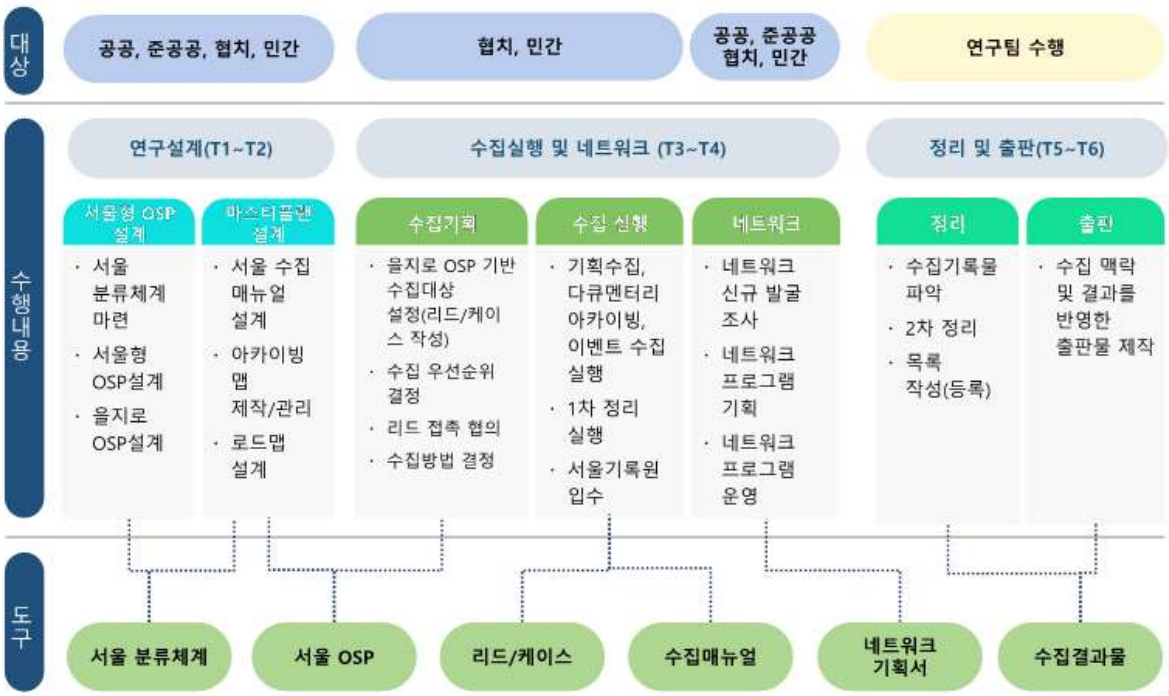
- 공공, 협치, 민간 영역에서 기록활동의 근거, 지속성, 자발성, 시급성 등을 근거로 기록활동 조사 진행
- 신규 발굴 네트워크 **대상 공공기관(30곳), 협치기관(20곳), 민간기관(50곳)**을 목표로 함
- 자기역사쓰기 등 기록활동 조직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활동을 공유기록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운영

정리 및 출판(T5~T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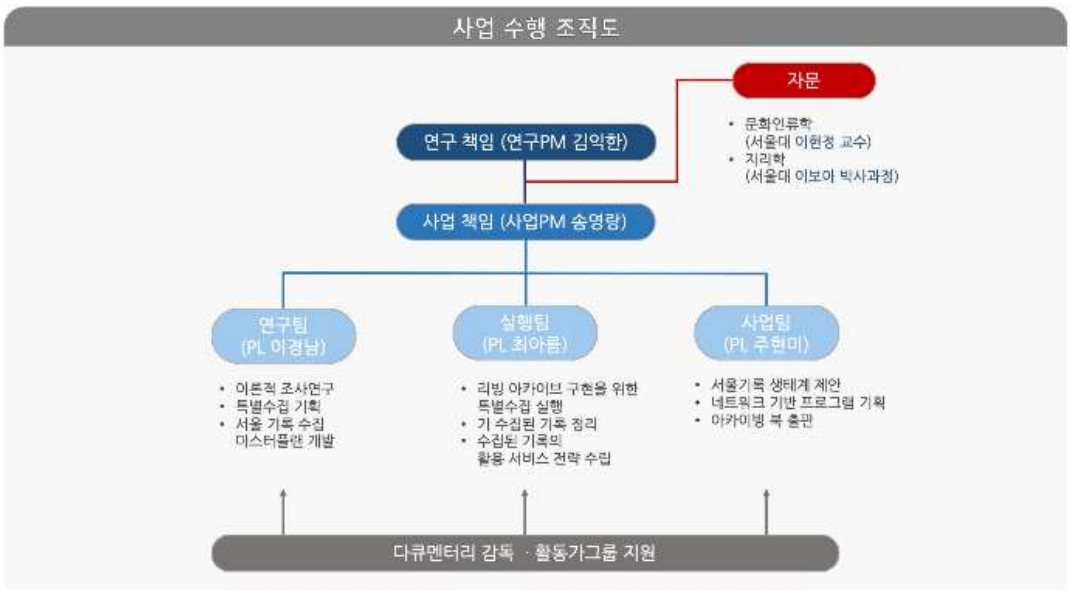
- 을지로 기록 특별 수집 결과에 대한 정리/등록 진행
- 서울기록원 SDA의 기술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건 등록 진행
- 수집 및 네트워크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출판 진행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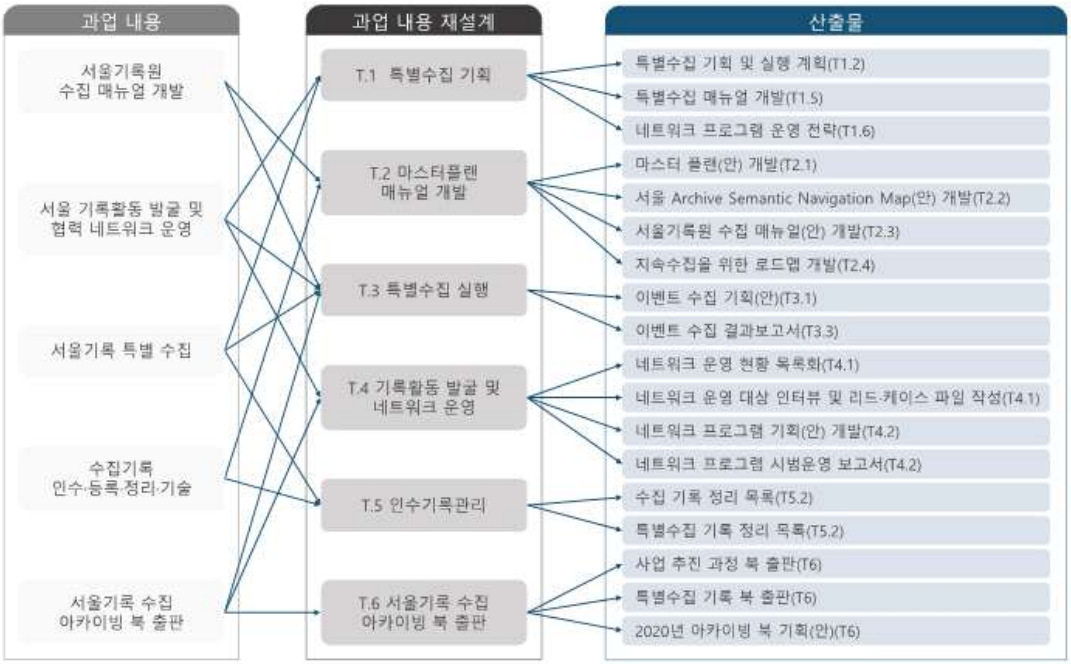
1.4 영역별 업무흐름 및 관계



1.5 연구 추진 체계



1.6 과업 재구조화



10

2. 수행 계획

2.1 연구설계(T1, T2)

2.2 특별수집실행 및 정리(T3, T5)

2.3 네트워크 기획 및 운영(T4)

2.4 출판(T6)

11

2.1 연구설계 (T1, T2)

연구 설계 목표

- 서울의 다층적 경관을 기록화 하기 위한 서울형 OSP를 개발하여 서울기록원의 지속적 수집 업무를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
- 수집 대상과 기록 활동 커뮤니티를 네트워크로 조직화 하여 네트워크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자생적 기록 생태계 기반 마련
- 수집 대상 기록의 관리, 활용, 저작권 관련 이슈를 포괄하는 수집 유형별 맞춤형 수집 매뉴얼 개발

연구 내용		산출물
서울을 표상하는 다양한 기록화 주제 식별	→	서울분류체계 / 서울 OSP
기록 수집을 위한 도구 개발	→	의미기반 수집 기록 지형도
기록 유형별 수집 프로세스 정의	→	서울기록 수집 매뉴얼
서울 기록회를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 방안	→	서울 기록화 마스터플랜

2.1 연구설계 (T1, T2)

2.1.1. 서울 OSP 도출 - 서울 분류체계 마련

서울 분류체계 목적

- 행정중심의 기능분류체계, 기록분류체계가 아닌 서울의 지리.인문.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을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서울의 경관을 기록화 할 수 있는 분류체계 마련
- 서울이라는 공간을 영위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들의 일상 생활이 의미를 갖도록 아카이빙 하는 것을 목적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층적인 기록화가 가능하도록 서울형 분류체계를 제안

서울 분류체계 특성

- 사회관계, 의미구조와 상징, 문화적 삶의 방식들이 총체적으로 형성되는 장소로서 서울을 범주화
-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인문사회과학의 분류 범주를 종합하여 서울이라는 도시의 광범위한 주제 영역 설정
- 기록화 대상으로서 주제 영역을 귀납적 방식으로 보완하여 주제 분류 체계 도출

서울 분류체계(안)

상위분류	하위분류
자연 환경	도시의 지형과 지질도
	도시 내 자원
	재해 기록
	생태/식생
	도시 전경 변화상
인문 환경	행정
	주거지
	주요 건축 구조물
	상징물
	거리
	인구증가, 인구분포
역사와 문화	도시의 역사
	역사적 건축물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음식 문화
	문화 관광, 문화 정책
사회와 교육	문화 시설 관련
	의료 및 복지시설 관련, 보건.복지
	교육 시설 관련, 교육정책
	환경과 자연 보전 정책
산업과 경제	도시 재정
	상업 및 업무지
	주요 산업
	도시민의 직업별 분포, 노동, 근로조건
	지역 산업의 등장 및 변화
교통과 통신	도로
	철도
	수상
	터미널
	도시 내 교통
	도시 교통과 정보 통신의 시대별 발달 양상

* 여건형, 장우권 (2017.5). 도시 기록화 구성요소 도출을 위한 실험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재구성

T1-T2 서울 OSP 프레임워크

서울 OSP 도출 방법론

- 활동의 지속적 재현물로서 기록의 Affordance 고려
- 서울학 연구, 서울 미래 유산 선정 기준, 문화재 지정 기준 등의 연구를 검토하여 서울의 심도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주제 추출
- 지역 기반의 기록화 활동 사례 분석 및 거버넌스 연구 분석

서울 OSP 타당성 검증

- 문화유산선정기준, 문화재지정기준 등의 분석을 통해 기준을 선정하고 OSP의 타당성 검토
- 도출한 OSP는 문화인류학, 지리학, 역사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면담을 거쳐 OSP 검증
- 토론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프로세스로 최종 확정

기존 OSP 개발의 한계 보완

- TNA OSP 분석
  - 8가지 주제 영역과 61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
  - 미시적 관점에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조망하는 측면 부족, 시민 주체의 일상이라는 관점에서의 기록화 주체를 보완
- 서울기록 수집 및 콘텐츠 개발 사업 결과 중 선별기준 분석
  - 정보소통광장 12개 영역에서 1차 주제 52개 선정
  - 주제(안)이 표상하는 범위가 균일하지 않으며, 서울의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성의 측면에서는 보완 필요

서울 OSP 체계

- **사건, 인물, 사회 문화적 현상,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물 등 다양한 층위에서 서울을 표상하는 상징성을 갖는 요소들을 선정**
- 계층화된 OSP 구조 설계
  - 포괄성을 갖기 위해 인문사회, 문화인류학적 접근 방식으로 상위영역 OSP 주제 구성
  - 표상성을 갖는 구체적 상징을 하위영역 OSP로 구성
- 서울 OSP는 그 자체로 기록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구성
- 특히 공공영역 외의 협치 영역의 활동이 기록화 될 수 있도록 OSP요소로 포함

14

T1-T2 서울 OSP의 수집 활용

서울 OSP 분포도 작성

- 서울분류체계와 서울의 각 지역 장소를 기준으로 서울 OSP 분포도를 작성하여 결락부분을 파악
- 서울의 총체적 기록화가 가능하도록 OSP 보완

분류-지역-OSP 분포도

	역사와 문화						사회와 교육 …	
	도시역사	건축물	유형문화	무형문화	융시문화	문화관광	의료복지	…
강남구	++	++	+++	++				
강동구	+	+++	+	+				
강북구	+	+	+				+++	++
강서구	+		++				+	+
구로구	++	+++	+	+		+		+
관악구	++	+	++	+		++	+++	+++
광진구	+		+	++	++	+	+	+
금천구	++	+++	+		+		+	+++
노원구	++	++	+		+	++	+	+
도봉구	++	++		+	++		++	
동작구	++	+		++		++	++	++
…								

결락부분 파악하여 OSP 보완

* 범례 : 가로축-서울분류, 세로축-지역, *-서울OSP

서울분류체계와의 관계



15

T1-T2 서울 OSP 산출물

서울 OSP 개발 예시



LV1	LV 2
공장	청계공장
	서울 시청공장
	광화문 사거리
	대학로 대학니에공원
	장충장 공원
	동산공원
	낙산공원
	월드컵공원
식문화	음지로 노가리골목
	음지로 골뱅이골목
	다방
	구제가게
	서점의 감식
	대림 레시피
축제	노적축제
	전통예술대음축제
	서울을 웃자리 페스타
서울의 이름	세운상가 장인의 언어
	음지로 금속가공 용어
서울을 누비는 발	음지로 슈퍼선(2호선)
	실지로 공예미술수단
	상권자전거 따릉이
	청장 수상택시
시장	통인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영산시장
	마석리고개 마을장터
	육민 시장
노무	음지로 노무
	장충장 노무

LV1	LV 2
서울의 에어커스	장인의 손
	세운상가의 장인들
	만돌상
	장인의 도구
서울의 소리	음지로의 소리
	강하운의 소리
서울의 제조업	실공플로
	인쇄골목
지하로 들어온 사업들	음지로 지하상가 사람들
공동체 예술	힙넌 문화예술가
	청동 예술마을
	공동 예술
업&컨스티	입지로
	음지로 복합문화공간
	음지로 어바니즘
서울의 역	서울역
	강남역
	영등포역
	신촌역
도시건축	유네스코 회관
	세운상가
	한국전력공사
	산동관
	그레엠 유지섭(구 미국 문화원)
공동체의 삶	세운상가 여성의 노동
	엔트리피아선
	음지로의 여성들
	힙거인
서울의 길	음지로 골목
	기로수길
	강남대로
스카이라인	서울의 전면 풍경

서울 OSP 수집지침 예시



S-OSP-278

S-OSP-278 만물상

16

T2 Archival Semantic Navigation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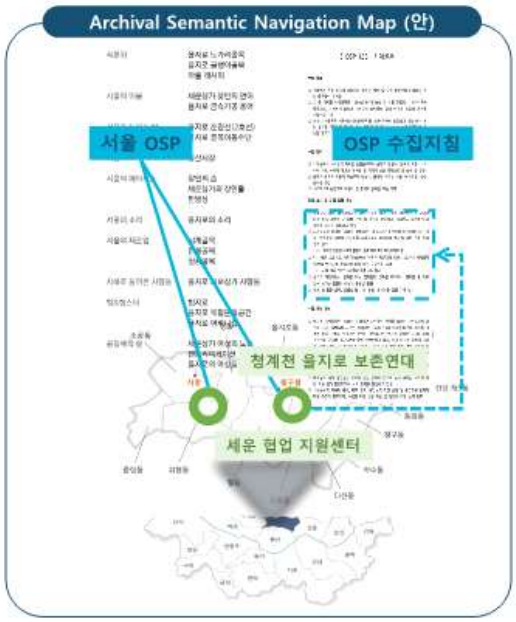
Archival Semantic Navigation Map 개념

- **서울 OSP와 서울 지역의 기록활동 현황 및 네트워크 운영 현황을 기반으로 개발**
  - 서울 OSP의 상위 영역을 확인하여 수집 대상을 식별
  - 서울 OSP의 하위 영역별 분포도 및 맥락정보를 활용하여 수집의 우선순위와 결락부분을 파악
  - 중요도와 시급성을 판단하여 단계적 지속적 수집 실행

Archival Semantic Navigation Map 활용

- 기록과 주체 간의 네크워킹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집 활동 지원 도구로 활용
  - 단계적 수집 전략에 따라 정기적 수집 업무 진행
  -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수집 및 이벤트 수집 진행
  - 자립적 아카이빙을 지원하는 전략 수립
- 기록 활동 네트워크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Archival Semantic Navigation Map의 상시 업데이트 유지

Archival Semantic Navigation Map (안)



17

T2 서울기록 수집 매뉴얼 개발

기록 수집 환경 조사

- 서울 Archival Semantic Navigation Map에 기초하여 수집 우선순위 선정, 기록 수집의 결락 부분을 판단하여 단계적 수집계획 수립
- 수집 대상 기록과 기록활동 네트워크와의 연계 현황을 파악하여 네트워킹을 통한 수집 전략 수립

수집 매뉴얼 개발

- 서울 OSP에 따른 수집 지침을 기초로 수집 영역·대상에 따라 세부 수집 프로세스 수립
- 서울 Archival Semantic Navigation Map을 활용하여 수집 대상 기록과 관련 기록 활동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한 수집 방법 마련
- 기증, 위탁, 구매, 대여 등 수집 프로세스 및 세부 협약서 양식 개발 및 제공, 저작권 협의에 관한 **이슈 파일 포함**
- 리드 파일, 케이스 파일 양식, 사전질문지, 인수인계서, 업무 협약서 등의 **수집 키트 개발**

수집 도구 제공



18

T2 기록화 마스터플랜 기획

서울 기록화 마스터플랜 개요

- 마스터플랜 목적
  -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화를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서울 기록화 마스터플랜 개발
- 마스터플랜 범위
  - 기록된 정보가 존재하는 모든 조직이나 실체를 대상
  - 시공간적으로 과거와 미래의 서울을 기록화 할 수 있는 범위로 확장하여 OSP와 연계
- 마스터플랜 의의
  - 서울 시민 공동체, 시민 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킹을 통한 아카이빙 방식을 표방
- 마스터플랜의 구성
  - 서울 OSP에 따른 서울 기록화 전략 수립
  - Archival Semantic Navigation Map을 수집도구로 활용하여 기록 활동 네트워크 역량 강화
  - 서울 기록화의 단계적 추진 계획 및 실행 계획

수집 유형별 수집 전략 수립

수집 대상 유형	수집 전략
협치 영역 수집 대상	기록화 중요성과 우선순위 판단하여 수집
OSP 수집 유형A	기록활동 네트워크를 통해 OSP로 수렴하여 수집
OSP 수집 유형B	휘발성 기록의 주기적 이벤트 수집
자립적 기록 활동 네트워크	기록활동 주체들의 in house archives 지원 정책

단계별 추진 전략 마련



19

2.2 특별수집 실행 및 정리(T3, T5)

특별수집 지역 : 을지로

- 청계천 을지로 일대는 도시·건축·생활사적 가치, 산업생태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철거로 인한 장소성 상실의 위험이 높음
- 이전에 수집된 기록물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기록물을 추가 수집할 필요가 있음

기획수집

- 특별수집 지역의 활동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리드를 선정, 가가호호 방문하여 기록 수집
- 리드와의 라포 형성을 위하여 활동가와의 협력 진행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 개인의 서사에 집중한 수집을 위하여 다큐멘터리 촬영 방식에 기록학적 수집방법론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기록 수집**을 시도
- 옴니버스 방식의 다큐멘터리 제작

이벤트 수집

- 대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반적인 이벤트 수집
- 저작권 등 권리관계 확보 방안 마련

2.2 특별수집 실행 및 정리(T3, T5)

2. 수행계획

T3.1 기획수집 (1/2)

기획수집 세부(안) 1. 세운상가 – 장인

- 가치 및 현 상황
  - 본 지역은 다양한 업종(금속기계/인쇄/시계수리)과 공정이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지역임
  - 해당 기술과 도구는 산업유산적 가치가 있음
- 방법
  - 각 업종별 대표업체 선정 : '비영리공익단체지원사업'과 연계
  - 배치도면, 도구의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통한 디지털화, 인터뷰
- 산출물
  - 공정 및 도구 관련 기록물

세운상가 기술장인



출처 : tbs(2016).
주역이 된 전자제품, 세운상가 장인이 고쳐요

기획수집 세부(안) 2. 골목길

- 가치 및 현 상황
  - 한양 도성 내에서 조선시대 도시조직(골목길, 필지형태)이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지역. 좁은 골목·건물 내 속골목 등 로드뷰로 촬영이 불가한 다수의 골목이 있음
  - 전체 8개의 블록 중 1개의 블록을 서울시 청년허브 용역으로 작년에 수행했으며 나머지 7개의 블록에 대한 추가 작업 필요
- 방법
  - VR 촬영 → 촬영된 영상에서 업체별 이미지 확보 → 이미지에 등장하는 단어 수집 및 분류
- 예상 산출물
  - 골목길 동영상, 각 업체별 이미지, 단어 목록

을지로 골목길 VR



출처 :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 생산활동 촉진을 위한 산업 생태계 현장 연구.
https://youtu.be/gqdqi5l3RLI (임정동, 2018)

T3.1 기획수집 (2/2)

기획수집 세부(안) 3. 골목길 – 시계수리특화골목

- 가치 및 현 상황
  - 세운4구역은 창계천을지로 일대에서 유일한 시계수리특화골목
  - 8블록 중 가장 먼저 대규모 전면 철거될 예정으로 현재 공실이 많아 긴급 수집 필요
- 수집대상
  - 예지동 · 산업 관련 물품, 문서, 관련 구술, 건출물의 부재
  - 폐기물 중 가치 있어 보이는 물품, 점포를 운영 중이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골동품, 기증의사가 있는 물품
- 예상 산출물
  - 골목 수집물 실물 사진, 관련 이미지 파일, 목록 등

시계수리특화골목의 공실



출처 : 아시아경제(2018). [한국의 골목길] 시계들 사이로 시간이 멈춘 공간, 예지동 시계골목

기획수집 세부(안) 4. 골목길 - 상인

- 가치 및 현 상황
  - 지역 내 다양한 주민조직, 상인조직, 동호회 등이 있음
  - 기록주체별 보유기록물 현황 파악 및 목록화 필요
- 방법
  - 보유기록물 현황 파악, 목록화, 수집
- 예상 산출물
  - 각 주체별 리드파일, (가능 시) 수집 실물

T3.2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1/1)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 기획수집을 위하여 파악된 리드 가운데, 주민과 상인들로 구성된 조직을 파악하여 다큐멘터리 제작에 적합한 대상 선정
  - 을지로의 근현대사와 개인의 서사가 밀접한 집단
  - 특별수집에 관심과 참여의사가 높은 집단
-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대상 예시
  - 청심회 (90년대 초 창설. 세운상가 친목모임)
  - 인쇄문화인선교회 (88년 창설. 신우회)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제작 계획안

제작 포맷			
작품명	숨은 지혜 찾기 (가칭)	구분	□ 극영화 ■ 다큐멘터리 ■ 아카이브
작품정보	제작사양	작품길이(분)	색채
	4K	(20) 분	컬러
제작정보	제작기간	촬영회차	제작진구성
	2019년 6월~11월	(50) 회차	새얼프로덕션 (연출 카메라·오디오 조명 각 1인)

청계천-을지로 주민 조직 목록 예시

단체명	구분	세부주제	창설연도	인원수	모임주기	회비	주소	연락처	특징
(사)한국산업용재협회	인증업 협의체		1975				청계천로 124 동평상가 5층	02-2275-4070	
청계축구동우회									대진영일 김형구
한국베어링공예협회 종로지부	업종별 협의체	베어링 연합단체	1973						
한마음회	친목 단체	축구							기계제조업 관련 종사자들의 축구모임
청풍산악회	친목 단체	산악		26(2010년)					
청심회	친목 단체	세운상가 친목모임 1990년대 초							청계상가 3층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으
등불회, 기자씨회	친목 단체	봉사활동 단체							
베어링협회 종사자부	친목 단체	지역단위 골목 모임							
구사 모임	친목 단체	송친회							

T3.3 이벤트 수집 (1/1)

이벤트 수집 (안)

- 다양한 홍보 방법과 온라인 기증으로 전략 기획
- 사업 홍보와 자발적 기록물 기증을 위한 방안 검토
  - 포스터, 홍보용 엽서 및 스티커, QR 코드 제작
  - 을지로 관련 단체 또는 현재 수행(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연계를 통한 홍보
  - 을지로 내 사업장(카페, 갤러리, 문화예술인 작업소 등)에 홍보물 비치
  - 新을지유람 투어 참가자 대상 홍보 및 참여 유도
  - AtoM/Omeka를 활용한 온라인 기증

이벤트 수집 일정

일정	내용
7월	이벤트수집 기획서 작성
8월	Omeka 기반 페이지 구축 및 홍보
8월 말~9월 말	수집
10월	수집된 기록 내부적 관리 (등록, 기술, 분류 등)

기증 사이트 기능 요건 (기증자)

기능	기능요건
로그인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업로드	기능, UI, 공개 설정, 저작권
열람/검색	열람, 검색, 통계

기증 사이트 기능 요건 (관리자)

기능	기능요건
기증물 관리	아이템 관리, OSP 관리
사용자 관리	사용자(기증자) 관리
공유	리포팅, 내보내기, Open API 제공
품질	바이러스, 품질 체크

홈페이지 제출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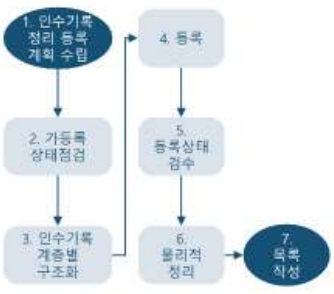
T5 인수기록 정리 전략 및 등록 실행(1/1)

인수기록 관리 전략 수립 및 실행

- 특별수집을 통하여 수집된 기록 정리



인수기록 정리 등록 업무 프로세스 예시



메타데이터 항목

구분	메타데이터 항목	항목 설명
시스템 메타 데이터	Code	등록 시 부여되는 식별번호
	* Type	기록집합체의 상태
	* Published Status	집합체의 발행현황
	* Title	해당 기록집합체의 제목
맥락 메타 데이터	Provenance	출처명
	Creator	생산자명
	Reference Code	참조코드
	Date of Creation	생산기간

출처 :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SDA)에 기록집합체 등록 시 메타데이터 항목
(서울기록원, 기억발전소, 2018) (* 표시한 항목은 필수 입력 값)

T4.1 네트워크 관리체계 설계 (1/1)

네트워크 대상 조사

- 서울 기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체계 필요**
- 네트워크 활동을 **발굴, 지원, 공유**로 나눠 네트워크 대상에 따라 MOU 등 협력체계 구축, 기록화 지원, 소통과 공유의 장 마련 등으로 관리체계 구축

네트워크 구축 방향과 주요 활동

구분	활동	주요 내용
발굴	기록 활동 발굴	공공·협치·민간영역의 기록활동 사업 및 결과물 조사
	협력체계 구축	MOU 등을 통해 기록의 공유, 모니터링, 컨설팅 등 진행
지원	기록화 사업 지원 및 운영	서울형 OSP와 연결하여 기록화가 필요한 영역과 관련한 활동을 기록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발, 운영
	위탁 관리 지원	기록 활동의 결과물의 보존, 관리를 위해 위탁 관리 함
	기록화 방법 교육 지원	민간 영역의 자생적인 기록 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록 시스템, 매뉴얼 등의 보급
공유	인디 아카이브 페스티벌(안)	기록 활동 공유의 장

네트워크 대상 그룹핑

- 조사한 대상을 **특징에 따라 그룹핑**
- 그룹별 심층조사를 통해 사업으로 연결하는 방법 모색

네트워크 그룹핑 예시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

- 유사사례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기획안 도출**

T4.2 기록활동 발굴(1/6)

기록활동 발굴 기획

- 조사 영역 설정 : 서울시 기록 생태계 조성과 유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기록활동의 근거, 지속성, 자발성, 기록의 가치, 기록화 시급성** 등에 따라 영역을 구분하고 영역별 네트워크 방법을 설정하기 위해 기록활동 조사 영역을 설정함

구분		서울과 관련 활동의 근거	기록활동의 특성
공공영역	본청	지방자치법,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조례, 규칙 등에 의거해 서울과 관련한 활동을 하며 기록을 생산, 관리하고 있음 · 기록활동이 사업화되어 운영, 관리됨 · 기록화에 대한 시급성 낮음
	본부·사업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공사·공단	각 공사·공단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자·출연기관	각 기관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협치영역	민간위탁 기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시설, 사업 등을 민간기관이 위탁 받아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업 진행됨 · 기록활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부 사업화됨
민간영역	마을, NGO, 조직	자체 규정 자발적인 참여	· 기억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 활동이 기록화되지 않고 휘발되거나 개인이 보관하면서 관리되지 않음 · 기록화 시급성 높음
	개인, 모임		

2.3 네트워크 기획 및 운영(T4)

T4.3 기록활동 발굴(2/6)

기록활동 현황조사(7월)

· 공공영역의 기록활동 기본조사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조사 기준
본청	과108개/담당관46개	2017,2018년 기조사 활동의 후속 활동 조사 (검색, 인터뷰)	• 서울시 주요 시정(행정사무로 위임된 조직 및 업무) 관련한 기록화 사업 • 서울시라는 공간과 관련하여 공공영역에서 진행하는 기록화 사업 • 서울시민의 활동과 관련하여 공공영역에서 진행하는 기록화 사업 • 검색어 : 기록, 기록화, 아카이빙, 백서, 생활사자료조사, 자료수집, DB구축 등
본부·사업소	37개		
공사·공단	5개	2019년 신규 기록활동 조사 범위 : 2018년 7월~ 2019년 7월 검색 :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나라장터 등	
출자·출연기관	19개		

2019년 공공영역 기록활동 목록
신규 조사 대상 목표 : 30개 이상

2.3 네트워크 기획 및 운영(T4)

T4.4 기록활동 발굴(3/6)

기록활동 현황조사(7월)

· 협치영역의 기록활동 기본조사(데이터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현황. 자료 기준 2019년 6월. 관련시스템 :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조사 기준
시설 위탁		사무 위탁		서울시 위탁기관의 위탁분야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목록화 주요 사업 조사 조사방법 : 기관 홈페이지 검색	• 서울시 위탁분야 중 서울시민의 활동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 부여 • 사업화(사업명, 담당자, 예산이 있는 경우)되어 있는 활동과 예산만 지원되는(활동 결과 취합이 어려운) 사업으로 구분해서 기록화 정도에 대한 가치 부여 • 기록화가 시급한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체계 마련
복지	71개	여성가족	24개		
여성가족	49개	복지	23개		
산업경제	27개	산업경제	17개		
청소년	19개	보건의료	11개	주요사업 중 기록활동 조사 구분 : 소식지, 웹진, 간행물제작, 미디어활동, 아카이빙 등	
문화관광	16개	문화관광	9개		
환경	12개	기타	45개		
보건의료	7개	수익창출형			
공원체육	6개	21개			
도로교통	1개				
기타	30개				

2019년 협치영역 기록활동 목록
신규 조사 대상 목표 : 20개 이상

T4.5 기록활동 발굴(4/6)

기록활동 현황조사(7월)

· 민간영역의 기록활동 조사(조사자료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등)

조사 대상

- 마을공동체·지역조직
- 서울시 등록 민간단체
- 문화 예술 조직
- 소모임·개인

조사 방법

- 2017,2018년 리드 갱신
- 조사, 검색을 통한 신규 목록화
- 조사대상의 주요 활동과 OSP 맵핑

조사 기준

- 중간지원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활동과 자체예산으로 운영되는 활동 구분(자립성 및 지속성에 대한 판단)
- OSP 주제와 맵핑하여 기록화가 시급한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체계 마련
- 서울시 지역에 대한 출판, 전시, 축제 목록조사 및 관련 조직 목록화

신규 조사 대상(예시)

연번	리드	주요 기록활동 및 특징	유형	기록물
1	시민나루	<인터뷰,마을이슈> 발간 마을미디어에 대한 강좌 진행	지역공동체	간행물(잡지)
2	남산골해방촌	<남산골해방촌> 발간 해방촌 주민이 해방촌에 대한 잡지를 발간 잡지 제작 워크숍, 글쓰기 강좌 진행	지역공동체	간행물(잡지)
3	아는동네	비정기 간행물 <아는 동네> 발간	지역공동체	간행물(잡지)
4	비온지방생활공동체 공작동하우스	계간 <공작동하우스> 발간 '비혼'이 기존 사회에 대한 반항이 아닌 한 세대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알리고자 함	생활공동체	간행물(잡지)
5	관악FM	12개 라디오 프로그램 송출 라디오 진행자의 연령대 및 문화적 배경이 다양함	지역공동체	음성(라디오)
6	구로FM	구로구 주민들이 직접참 사회적 이슈나 육아 등 4개 프로그램 진행	지역공동체	음성(라디오)
7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도봉구 방학3동에서 제작하는 라디오 유튜브 동영상 컨텐츠도 있음	지역공동체	음성(라디오) 영상

2019년 민간영역 기록활동 목록
신규 조사 대상 목표 : 50개 이상

T4.6 기록활동 발굴(5/6)

문화 예술 조직

· 문화 예술 조직은 느슨하면서도 자유로운 조직을 가지고 있음

조사 대상

- 출판물
- 예술가 중심 조직
- 공간 중심 조직
- 소모임·개인

조사 방법

- 검색어 선정
- 검색 실행 및 검색어 추가
- 검색결과 목록작성

문화지형연구소 씨티알
CTR CULTURAL TOPOGRAPHY RESEARCH







STACCATO H

T4.1 기록활동 발굴(6/6)

영역별 면담 진행(8월)

· 기록 활동 현황조사 및 영역 유형분석을 기초로 기존 조사 대상 이외의 대상을 선정하여 면담 조사 진행

수행 과정

- 영역별 기록활동 목록 우선순위 책정
- 영역별 면담대상 선정
- 담당부서 협조 하에 면담대상 접촉
- 면담대상별 면담 일정 수립
- 면담 진행(조사 양식)
- 리드파일 및 케이스 파일 정리

면담조사 양식

구분	내용
영역	공공 / 협치 / 민간
기관 유형	본청 / 사업소 / 소속기관 중간지원조직 / 마을지원조직 / 협회 마을공동체 / NGO / 사회적기업 / 소모임 / 개인
기관명	기관명 또는 모임명
기록 활동 소개 및 현황	기존 기록 활동 경과 및 결과물, 향후 계획
보유 기록	보유하고 있는 주요 기록물의 내용, 수량 등
보존·관리 환경	자체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정리
서비스 환경	기록 공유 방법 및 계획
주요 면담 내용	면담 대상의 기록 활동 관련 요구 사항 등
네트워크 유형	협약 / 기록 공유 / 프로그램 공유 등 기대되는 네트워크 유형
기타 사항	네트워크 구축 또는 기록화 지원과 관련한 요구 사항

리드파일 및 케이스파일 작성 목표 : 30개 이상

32

T4.2 네트워크 운영(1/4)

네트워크 전략 기획(8월)

· 네트워크 구축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략 수립
  - 이미 기록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협치·민간 영역의 다양한 사업 및 수행 주체들을 발굴하고 협약·정보공유·공동 사업 진행 등을 수행하는 것 : 협조전, MOU 등을 통한 기록 활동 및 기록 목록 공유, 지속적인 모니터링
  - 다양한 주체들이 스스로의 활동을 기록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사업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기록화 방법론 지원

· 네트워크 대상 그룹의 범주를 크게 **공공영역**과 **협치영역, 민간영역으로** 영역별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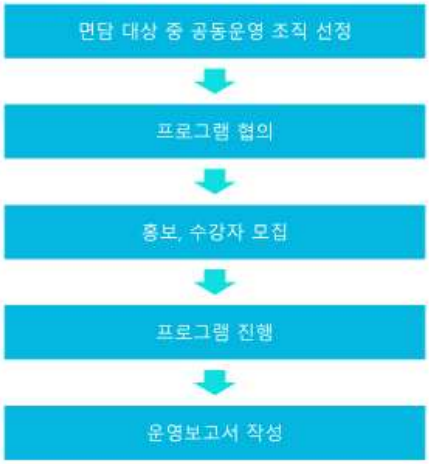


33

T4.2 네트워크 운영(2/4)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9~10월)

- 네트워크 전략 방법 중 향후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 운영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혁신센터, 청년허브 등의 중간지원 조직과 **공동프로그램** 운영
  - 기록화 교육 프로그램



기록화 교육 프로그램 예시

구분	주제	주요 내용
기본강의	마을 기록화란	마을 기록화의 개념과 사례
	마을 기억과 마을 운동	공동의 기억을 통해 마을 정체성 찾기
	서울기록화와 아카이빙	서울기록화에 대한 이해와 마을 아카이빙을 통한 서울기록화 방안 논의
심화강의	마을 기록화 전략 수립	기억하고 공유할 주제 선정하기 주제별 기록화 방법 습득하기
	마을 기록화 방법	사진, 영상으로 기록하기 구술하기
	수집 기록 정리하기	기록의 구조화와 목록화, 기술 등
	수집 기록 활용하기	마을신문, 마을지, 아카이빙북 만들기 마을기록 생산, 수집 이벤트 운영 등
워크숍	마을 아카이빙 공유	마을별, 주제별 기록화 발표, 의견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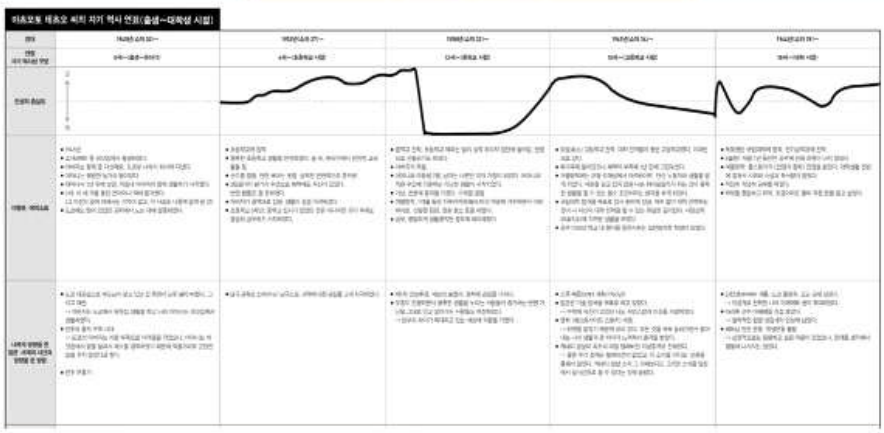
34

T4.2 네트워크 운영(3/4)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9~10월)

- 기록 문화 확대를 위한 강의 프로그램 기획 : 자기 역사 쓰기 강의(안)
  -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기 역사 연표를 통해 아카이브 문화의 저변 확대 가능
  - 기록생태계 정착을 위한 기록 문화 만들기

자기 역사 연표 예시



35

2.3 네트워크 기획 및 운영(T4)

T4.2 네트워크 운영(4/4)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9~10월)

· 서울 아카이브 페스티벌(안) 기획
- 서울 기록생태계의 자생적인 순환을 위해 기록활동 조직들의 활동 및 기록 **공유프로그램 기획**
- 기록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 NGO, 소모임, 개인 등이 참여하여 기록 활동을 소개, 기록 전시 등을 진행
- 아카이브 문화 확산, 기록화 방법과 기록 활동 공유, 지원 기능, 네트워크 허브로써 서울기록원의 역할 및 비전 확인 가능

서울 아카이브 페스티벌 기획안

구분	주제	비고
참여 대상	기록활동 조사대상	홍보물 발송
	마을, 지역공동체	라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참여 권유
	기록활동가	문화, 예술, 지역 활동 분야의 개인 기록활동가 참여 유도
일정 / 장소	연 1회	서울기록원 또는 혁신센터 내 공간 활용
프로그램	전시	마을기록단 등 다
	포스터세션	개인 기록활동가의 기록 활동 공유
	라운드테이블	활동가들의 서울 기록화와 기억의 기록화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나눔
산출물	기획안	프로그램 상세 기획안 및 기대효과 등 포함

2.4 출판(T6)

T6.1 아카이빙 북 출판 기획

아카이빙 북 사례연구 수행

· 사례연구 1: HUMA White Paper
· 사례연구 2: 자영업자
· 사례연구 3: 안녕, 둔촌주공아파트



자영업자



안녕, 둔촌주공아파트

기획 방향성 설정

· 원고 컨셉 모색
· 기록화 방법 모색
· 원고 목차 설계

원고 목차 설계

· 프롤로그
·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 주요 과정
· 수집 기록 및 기록활동
· 에필로그

디자인 편집 및 인쇄

· '다다름 스튜디오'와의 협업

'다다름 스튜디오' 작업유형

(예) 팜플렛, 굿즈



2.4 출판(T6)

T6.2 아카이빙 북 출판 기획(안)

표지 예시	내지 ('주요 과정' 참고 도안) 예시	내지 ('수집기록 및 기록활동' 참고 도안) 예시
		

아카이빙 북 컨셉

· **'얽히고 설키다'**
- 을지로는 한 가지 색으로 정의할 수 없고 다양한 색이 만나 특유의 생태계를 형성한 공간이라는 데에 착안
- 글자, 그림, 사진 이외에 QR코드를 이용하여 수집한 을지로의 영상 및 소리를 담고 있는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함

3. 사업 일정

3.1 사업 수행 추진 일정
3.2 보고 및 검토계획
3.3 기대효과

3.1 사업수행 추진 일정



3.2 보고 및 검토계획

정기보고

- 주간단위 정기보고 : 온라인(e-mail)
- 격주단위 정기회의 : 대면보고. 사업 PM과 PL급 참석
- 월간보고 : 연구책임 및 PM, PL급 참석 회의
- 상시적인 사업담당자와의 소통

검토회의

- 과업 수행 기간 중 자문단의 자문회의와 서울기록원 검토 회의를 3회 이상 개최
- 과업 수행 기간 중 1회 이상의 공개 워크숍 진행

중간보고

- 과업 수행 계획 및 일정표에 정한 시점에 과업 수행사항을 요약한 중간결과 보고
-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회 개최 시 전문 자문단과 서울기록원 사업담당자 및 관련자가 참여하도록 함
- 중간보고의 회의 자료와 회의 결과 검토사항을 반영한 중간보고서 작성

완료보고

- 완료보고회 개최 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함
- 완료보고 회의 자료와 회의 결과 검토사항을 반영한 완료보고서 작성

3.3 기대 효과

다양한 주체와의 네트워킹으로 기록학 저변 확대

- 네트워크를 만들어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학제 간 연계 계기 마련
- 현장 인터뷰, 특별수집 과정에서 공동체 혹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형 아카이브의 기반** 마련

새로운 서울기록 수집 모형 창출

- 다양한 전공과의 협업으로 이뤄낸 연구 성과는 수집방법론으로 적용될 것이며, **새로운 아카이빙 방법론**으로 자리매김 가능
- 서울의 일상기록을 아카이브에 기초한 귀납적 방법으로 조사하고 수집 → 서울다움을 유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수집모형 제공

서울 보통사람의 '이야기 개발'과 맥락화를 통한 서울 일상의 연구 증진

- 서울시민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사라져가는 삶의 흔적을 기록화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 서울기록 수집은 **서울시민의 이야기의 '저장고'**로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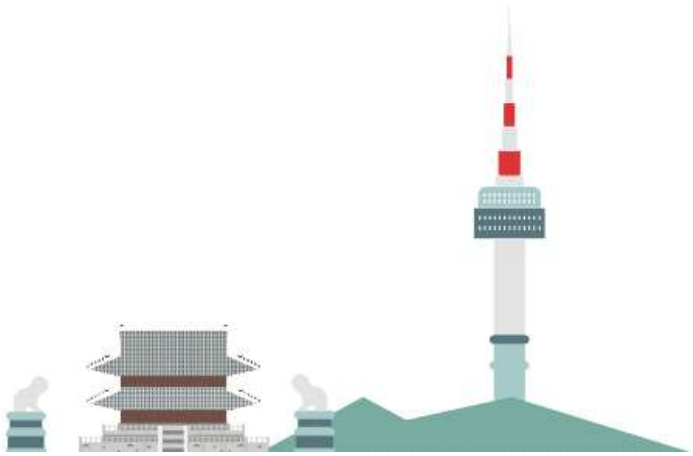
1.2. 중간보고 자료

서울기록화 중간보고회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 콘텐츠 개발 사업

2019. 10. 25

RIKAR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서울기록원



CONTENTS

1장 사업 개요

1.1 사업 소개

1.2 과업수행 목표

1.3 사업수행 전략

1.4 추진체계와 주요 전문가

1.5 과업 재구조화

1.5 진행경과

2장 연구수행 내용

2.1 연구 설계(T1)

2.2 수집·정리(T2)

2.3 네트워크·출판(T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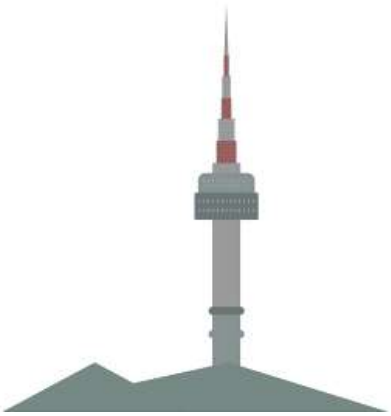
3장 사업 관리

3.1 추진 일정별 업무 흐름도

3.2 기대 효과



1장 사업 개요



1.1 사업 소개

사 업 명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 콘텐츠 개발 사업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주요내용	



서울기록원 수집 매뉴얼 개발 | 서울의 기록활동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성 | 서울기록 특별수집 | 수집기록 인수·등록·정리·기술 | 서울기록 수집 아카이빙 북 출판

1.2 과업수행 목표

서사를 기반으로 하는 '마스터플랜' 설계를 통한 수집체계 안정화

- 유기체적인 기록 수집을 위하여 서울의 문화체, 현상, 공간 등의 의미기반을 영역화
- '서울의 사회현상과 삶의 현장'이라는 관점으로 서사를 기반으로 한 OSP를 설계하고 서울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
- 서사는 서울을 상징하는 주요기록의 식별을 위한 도구로 활용

네트워크 기반의 '서울기록 생태계' 균형유지

- 서울기록원이 시민 참여형 아카이브 기반의 자기성장 메커니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서울시와 '관계'를 형성해야 할 네트워크의 핵심 주체를 마을, 시민단체, 서울시 네트워크 단체, 활동가 등으로 넓게 위치시키고 관계 기반으로 네트워킹 주체들의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지원 방안' 마련

거버넌스적 아카이브 운영

- 본 연구는 기존 서울기록원 아카이브 사업의 총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속적인 서울 아카이브의 성장 발전의 토대로 작용
- 다원적 네트워크 주체의 식별과 공감대 형성과 협업, Archival Semantic navigation Map을 통한 안정화는 서울 구성의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역할을 함
- 이러한 기반은 서울기록원의 거버넌스 운영의 기반조성 및 장기적 업무 실행능력 증진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
- 다원적 주체와의 거버넌스적 아카이브 운영으로 서울기록원의 성장 발전 도모

1.3 사업수행 전략



다원적 시각·전문성 기반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설정

- 서울의 현상을 다양한 시간, 의미로 해석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의 층위를 기록으로 가시화할 수 있도록 '서사'를 작성하여 기록화 수집 범위로 활용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

- 인류학, 연구자, 작사, 영상전문가, 기록학 연구자, 문화연구자가 연구수행인력으로 참여
- 그 외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시민, 활동가 등 서사주제에 해당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



자생적 아카이브 운영 주체와 유기적 결합 모색

- 연구 초기단계부터 자생적 아카이브의 운영 주체들과의 관계를 염두한 아카이브 계획&설계
- 자생적 아카이브 주체들과 관계 속에서 OSP의 전략 결합 → 입체적인 연구 성과 도출
- 연구팀의 연구계획과 자생적 아카이브와의 선순환 구조 창출

1.4 추진체계와 주요 전문가



1.5 과업 재구조화



1.6 진행경과



2장 연구수행 내용



2.1 연구 설계(T1)

▫ 서울 OSP 연구방법론

· 서울의 사회적 기억을 기록화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 시도

- 기존의 기록 수집체계에서는 행정적, 증거적 가치 이외의 개별 기록이 갖는 사회적 맥락이 드러나지 않음
- 기록의 이면에 숨겨진 내러티브를 찾아냄으로써 기록에 의미를 부여
- **상징적 기법의 아카이빙**을 통해 인물, 사건, 장소가 갖는 종적, 횡적 의미 확장과 서사와의 연결을 통해 본질적 맥락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

· **서울기록 수집 실행 지침** 개발 목적

- 서울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살아있는 기록 수집 정책 마련
- 새로운 기록 활동들을 발굴하고 지속적 네트워크 유지를 통한 기록 자치 생태계 구축 활용

2.1 연구 설계(T1)

▫ 서울 OSP 연구방법론

서울을 표상하는 수집 영역 구성



역사 | 자원 | 일상의 삶 | 현상 | 상징

- 별도의 주제영역단위를 개발하고 수집 영역과의 매핑 분포도 확인 과정을 거쳐 균형적 수집 실행 지침 개발 활용
- 역사학, 인류학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집 영역 보완

서울의 다원적이고 총체적인 기록화

2.1 연구 설계(T1)

▫ 서울 OSP 구조

- 서울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수집 영역 설정하여 수집실행지침(OSP) 개발
  - 정치, 행정, 사회 구조적 측면 외에 서울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 현상, 매커니즘 포괄
  - 서울을 9개의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각 영역별로 고유의 내러티브를 부여
  - 서울의 9개 영역의 내러티브에 부합하는 수집 영역을 OSP로 구성(상위 OSP)
  - 상위 OSP별로 실제 수집 실행을 위한 지침인 하위 OSP를 작성
- 서울 OSP와 수집 실행 및 기록 활동 네트워크의 선순환구조 확립
  - 연구개발 과정을 통해 도출된 OSP에 따라 실제 수집을 실행하고 산출에 의해 다시 OSP가 수정되는 환류 구조 체계
  - OSP에 기록 활동 발굴 및 네트워크 결과가 반영되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

2.1 연구 설계(T1)

▫ 서울 OSP 구조

- 서울 OSP(Operational Selection Policies)의 구조
  - 영역 : 서울의 서사를 담고 있는 9개 영역 구성
    - Symbol(상징), Idea&Value(사상과 가치), Flow(흐름), Activity(활동), Life&Story(생명과 이야기), Network(관계망), Structure(구조), Event(이벤트), Stuff&Things(물질)
  - 상위 OSP : 서울을 표상하고 있는 수집 주제로 70여개 구성
    - 영역별 대서사의 맥락 속에서 기록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수집의 주제로서 상위 OSP별로 고유 서사를 갖고 있음
  - 하위 OSP : 실제 수집 지침으로서 240여개 구성
    - 상위 OSP 서사의 맥락 속에서 실제 수집이 실행되는 단위로서 기록이 갖는 의미와 가치, 수집의 범위, 수집 지침의 내용, 참고자료 등으로 작성

2.1 연구 설계(T1)

▫ 서울 OSP 구조



2.1 연구 설계(T1)

▫ 서울 OSP 구조



2.1 연구 설계(T1)

▫ 서울 OSP를 활용한 단계적 수집 방안

· 서울 OSP에 기반한 단계적 수집 실행

- 2019년 수집 사업으로 서울OSP의 완성 및 Symbol영역 수집 실행
- 연차별로 영역별 수집 사업 지속, 수집 실행 결과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한 서울OSP의 follow-up



2.1 연구 설계(T1)

▫ 서울 OSP 개발 (예시)

영역별 서사	상위 OSP 서사	하위 OSP
OSP 1. Symbol (상징) 서울 하면 떠오르는 곳. 그러면서도 조선 최후의 왕궁인 경복궁과 정문이 있는 곳. 세운상 옛 것이나 서울은 바르고 크다. 자랑해서 올라오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서울. 하지만 그들은 그저 서울의 표층일 뿐. 서울을 정말 상징하는 것은 서울 사람들의 삶이다. 서울 사람들은 서울말을 쓰며, 입으로 떠벅 나가며, 매일 같이 찾고 보고, 하루으로는 서울의 표어들에 무감해 살아간다. 이들에 살은 서울의 건물들과 서울의 길들에 의해 공간지어지고 이어진다. 곧도 많이 이어지는 콘크리트 덩어리들은 삶의 흔들을 담아주는 길들과 어우러져 그나마 서울의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 삶들이 때로 힘들더라도 하고 있다. 박정희 때부터 서울의 삶을 옥죄었던 '공리'를 대신 서서 6시면 국가에 대한 경제를 해야 했고, 이순신 동상 앞을 사람 때문에 '좋고 '로'의 삶만을 다듬해야 하는 삶이었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던 일상이지만, 서울 시민들은 광우병 촛불 때 시청과 광화문에서 일대 난장을 벌이며 '공리'의 족쇄를 벗어던지기 시작했다. '일 공리'의 신바람은 광장의 외침으로 거칠 대통령 탄핵을 끌어내리기에 이르렀다. 대체로 광장에서는 여성의 주인공이 참으로 멋지게 재해석으로 표현되었다. 이제 기성과 지배와 권위와 거짓의 합작을 거부하며 넘쳐나는 서울 시민의 온도들이 서울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용대 클럽에서의 입담과 거침없는 춤, 불합리 학신체크에서의 놀라운 시도들, 그리고 그 모두를 품고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기획하는 공동체들. 이것이야말로 서울의 진정한 상징이지 않을까?	**OSP 2.1 이데올로기 공화국** 청년 노인들의 상기된에도, 박시 만 빨갱하고 습한 냄새 속에도, 불꾹 날 술집의 시끌벅적한 대화 속에도 그저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나무하는 곳이 서울이다. 서울을 위해서 자본도 건축하는 자체 이데올로기는 대기분 박정희 정권 때 주조된 것들이었다. 민족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형성된 자체 이데올로기는 서울 시민의 생각들 속에, 문화와 행동 습속 속에 뿌리 내려, 지금은 '체제'처럼, 주장 전체의 양태로 터져 나오고 있다. 독재를 끝냈다고도 하나는 학생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셀 수 없는 민중운동, 시민운동의 뜻깊음이 저항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 장엄한 민족제 투쟁이 이제는 민주공화국의 현장 정신을 심과 정치 속에 스미게 하였다는 100만 시민의 촛불집회로 또한 갔아냈다. 박정희독과 신주체문화으로 표상되었던 저항 이데올로기는 정치 삶의 민주주의, 정치참여 나눔의 새 정신으로 변모하고 있다. 일부를 (일 세대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의 서울은 지배든 저항이든 이데올로기의 무게를 '짓어 던지고 '정직하고, 건전하고, 재미있는" 삶의 문화와 정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OSP 2.1 이데올로기 공화국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뿌리와 가지", "박정희이여 일어나라", "민주화운동의 명암"으로 구성된다. 서울의 정신적 삶 이란 역사의 두 장면처럼 자체 이데올로기와 저항 이데올로기가 피어른다. 그 두 장면은 이제 민주화 운동조차 과거가 되어 오래로서, 가치으로서 남아 있을 뿐임을 말해준다. 바로 지금이 필고 만다라인 서울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다시 찾아가는 제자리고 우고 정치란 민주주의의 이력 오습을 모독 보여준다.	**OSP5.1.1 도시노동자가 된 상경민** • **의미와 가치** 1960~70년대 상경한 이들은 바슷한 꿈을 꾸었다. 잘살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기 위해 온 서울은 상경민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좌절을 안겨준다. 도시의 빈민의 된 삶 속에서 그들은 절망감 속에만 배제되을 수 없었다. 건실한 사람이 되어 살을 이야기하지는 노력한다. 공장에서 일하며 집세를 이야기 위해 학속시장로 들어간 이들은 고용주와 국가의 감시 속 일하면한 시설에서 가족을 위해 일을 했다. 고도노동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임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지금은 서울 외곽으로 밀려난 공장들이 서울 도심에 위치했던 당시의 도시노동자에 대한 기록은 1960~70년대 서울 속 노동 모습을 잘 보여주기에 주목해야 한다. • **범위** 1960년대부터 80년대의 서울의 경제발전과 같을 함께한 도시노동자의 삶을 따라가며,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방달과 도시노동자들의 생활, 수가에 대한 기록을 찾아 살펴본다. 1990~70년대 도시노동자였던 이들의 일상을 구술을 통해 기록한다. • **내용** 1960년대부터 80년대의 서울의 경제발전과 같을 함께한 도시노동자의 삶을 따라가며,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방달과 도시노동자들의 생활, 수가에 대한 기록을 찾아 살펴본다. 1990~70년대 도시노동자였던 이들의 일상을 구술을 통해 기록한다. 1960년대부터 80년대의 서울의 경제발전과 같을 함께한 도시노동자의 삶을 따라가며,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방달과 도시노동자들의 생활, 수가에 대한 기록을 찾아 살펴본다. 1990~70년대 도시노동자였던 이들의 일상을 구술을 통해 기록한다. 1960년대부터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이촌향도로 인해 서울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한다. 서울 곳곳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부와 호세를 꿈꾼다.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루어진 성장 동력은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진행된 서울인구의 급격한 팽창은 공업화에 선행하는 전형적인 과잉 도시화 양상이다. 출세와 성공의 가능성을 가진 서울로 모여든 이들 중 상당수가 몸고 있는 곳과 달리 경쟁에서 밀려 노동자가 됐다. ····· 원래

2.2 수집·정리(T2)

▫ 수집 개요

- 2019년 시민기록 수집의 방향성

  - **'서울의 사회현상과 삶의 현장'** 이라는 관점으로 서사를 기반으로 OSP를 설계하고 서울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

    → 이중 **'상징(symbol)'** 이라는 영역 중 4개의 세부 주제를 금년 수집사업의 주제로 선택하고 수집을 진행

    - '서울의 옛 것'
    - '광장의 외침'
    -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
    -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2.2 수집·정리(T2)

▫ 수집 개요

· 수집 방법

- 선행과정으로 **서울의 사회현상과 시민들의 삶**이라는 시각에서 서사기반거시평가 방법론을 수행하고, 후행과정으로 **현장수집**을 진행하면서 귀납적 방법론을 통해 현실성을 담보하고자 함

· 수집 특징

- 기록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서사를 기반으로 **'기록 공유'**의 관점에서 수집 진행
- 기존의 일방향적인 수집 관행에서 벗어나 **'공동 이용'**을 전제로 한 수집 진행 →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 수행

20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 콘텐츠 개발 사업 | 2장 연구수행 내용

2.2 수집·정리(T2)

▫ 수집 개요

·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 절차



21

2.2 수집·정리(T2)

▫ 수집 개요

·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 방법과 지적재산권

- 수집대상자의 **'해당 사본의 공적이용에 대한 양해'**를 기반으로 진행
- 소장처와 공동이용을 목표로 별도의 선정위원회나 평가위원회가 불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진행
- 아날로그 기록 실물수집과는 **지적재산권에서 다른 측면**이 존재

→ 지적재산권 양도가 아닌 공동이용으로 지적재산권 양도를 원할 시, 향후 기증·구매 진행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수집 진행

·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과정에서의 서울기록원과 협업체계

-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은 서사별 주제와 수집현장의 **상황에 따라 변증관계 속에서 수집** 진행
- 역동적인 수집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수집을 위해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 절차**를 마련하여 수집 진행

2.2 수집·정리(T2)

▫ 수집 진행 경과

- 수집진행은 2019년 9월 2일~2019년 10월 15일까지
  '옛것(공공:8곳, 민간:25 곳)', '광장(공공:15개, 민간:22개)' 주제를 중심으로 수집을 진행함

› 인터넷 조사 수집 이외에 실제 리드접촉 과정으로 거쳐 수집을 진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상위 OSP	하위 OSP		리드명	진행	수집기록
상징: 서울의 옛 것	기억해야 하는 서울의 옛 것을 전승하는 장인들	민간		진행중	양복 오본, 재단 도구
		민간		진행중	촬영장비, 구술
		민간		진행중	수선 도구, 수선영상
		협치	다시세운프로젝트	진행중	기술 관련 구술영상
		공공	관광산업과 콘텐츠마케팅팀	진행중	오래가게 선정기록
		공공	성동구	진행중	수제화 명장 선정 기록
	한양도성 안팎의 흔적들	민간		진행중	80년대 창신동 사진
		민간		진행중	봉제 도구, 영상
		민간	전태일기념관	진행중	창신동관련기록(미정)
		협치	이음따옴 봉제역사관	접촉예정	구술 영상, 기술 영상
		공공	서울역사박물관	진행중	한양도성마을 역사사료
		공공	한양도성박물관	진행중	한양도성 전시 도록
		공공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진행중	도성 구간별 사료
	뉴트로 감성과 추억을 선사하는 다방, 극장, 이발소	민간		가 완료	이발 영상, 이발 도구
		민간		완부 완료	작업도구, 간판사진
		민간		진행중	옛날 간판 디지털사진
		공공	문화정책과 미래유산팀	진행중	기초조사사료, 사진
	근대 문명의 이중성, 정동	공공	역사도심재생과 도심계획팀	접촉예정	정동 근대역사길 조성사업 관련 자료
		공공	서울역사박물관	진행중	정동 관련 서울역사 아카이브 자료
	궁궐의 역사와 궁중문화	공공	서울역사박물관	진행중	경희궁 역사사료

상위 OSP	하위 OSP		리드명	진행	수집기록
광장의 외침	바로나에 공원	민간		진행중	필리핀마켓 운영 사료
		민간		진행중	연극/공연 관련 기록
		민간		진행중	성소수사 연극 관련 자료
		민간	한국여성민우회	진행중	미투운동 과함에하는시민행동 관련 자료
	희망의 외침, 광희문 광장	민간	4.16기억저장소	진행중	광희문 관련 복북
		민간		진행중	간식 관련 텍스트자료
		민간		진행중	광희문 길게 그림, 동화책
		공공	광희문광장추진단	접촉예정	광희문 광장 역사
		협치	안국중앙자원봉사센터	진행중	광희문광장 시민 기록
	장충단 공원의 명과 암	민간		진행중	구술
		공공	중구청 문화관광과	진행중	호국의 길 투어 영상
	군사광장에서 시민광장이 된 여의도 공원	공공	서울시립미술관	진행중	도록, 전시관련 자료
		공공	SH공사	진행중	-

2.2 수집·정리(T2)

▫ 수집 유형별 세부 수집 경과 |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의 방법

생산

- 영상촬영
- 사진촬영
- 구술생산
- 다큐생산

디지털 수집

- 텍스트기록 수집 (스캔, 디지털파일)
- 이미지기록 수집 (스캔, 디지털파일)
- 영상·음성기록 수집 (디지털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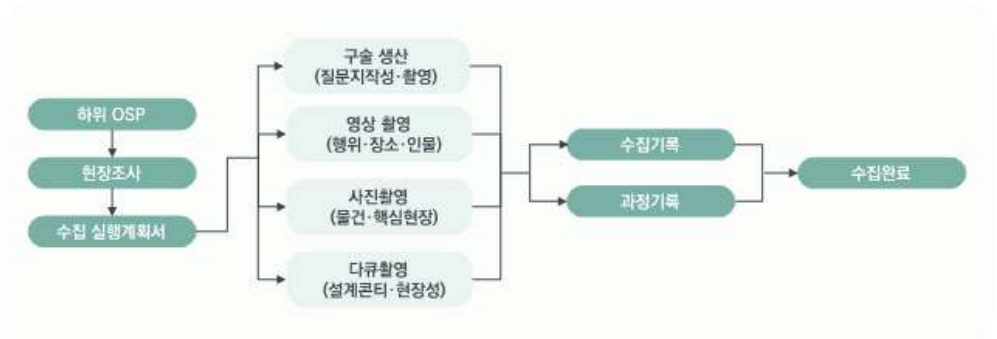
네트워크 수집

- 장기적으로 협력할 네트워크 대상을 식별하여 '목록수집'을 진행하고, 네트워크 기능과 연계

2.2 수집·정리(T2)

▫ 수집 유형별 세부 수집 경과 |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의 방법

· 생산 (1/3)



- 생산은 기록으로 확보할 수 없거나 의미 있는 행위 등을 기록으로 포착하기 위하여 진행하며, '구술, 영상촬영, 사진촬영, 다큐촬영'으로 구분

2.2 수집·정리(T2)

▫ 수집 유형별 세부 수집 경과 |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의 방법

· 생산 (2/3)

의상실

- '기억해야 하는 옛 것을 전승하는 장인들' 장인들의 '현장조사'



시아게 전문

- '기억해야 하는 옛 것을 전승하는 장인들' '행위 영상' 생산 진행



사진관

- '성곽마을들의 역사와 삶의 흔적들' 장인들의 '구술 영상' 생산 진행



2.2 수집·정리(T2)

▫ 수집 유형별 세부 수집 경과 |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의 방법

· 생산 (3/3)

생산 수집의 이슈

- 다큐팀은 서사를 기반으로 기획된 콘티를 현장상황과 구술 포함 수집상황(기록수집팀)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며 촬영 진행

  → 역동적 현장상황에 따라 다큐기획 내용이 달라지므로, **수집팀과의 긴밀한 협업관계 구축 필요**

- 기존에 생산된 기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수집처의 동의를 얻어 생산하는 것

  → 현장조사 시 수집처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라포' 형성이 중요함**

- 초기 개발된 리드들은 수집팀에 의해 개발된 리드

  → 서울기록원의 리드로 흡수하기 위해 기관이 중심이 되어 **수집처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2.2 수집·정리(T2)

▫ 수집 유형별 세부 수집 경과 |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의 방법

· 디지털 수집 (1/3)



- 디지털수집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음성 기록을 수집하며,
  비전자기록일 경우 현장에서 스캔작업을 하거나 대여를 통해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함

2.2 수집·정리(T2)

▫ 수집 유형별 세부 수집 경과 |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의 방법

· 디지털 수집 (2/3)

텍스트 기록

- 의상주문서(텍스트기록)
- 디지털화(스타의상실)



음악 파일

- 연극 '퀴어한 낭독극장' 음악파일
  (이재 음악감독)



포스터

- 여성민우회의 젠더 운동 포스터



2.2 수집·정리(T2)

▫ 수집 유형별 세부 수집 경과 |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의 방법

· 디지털 수집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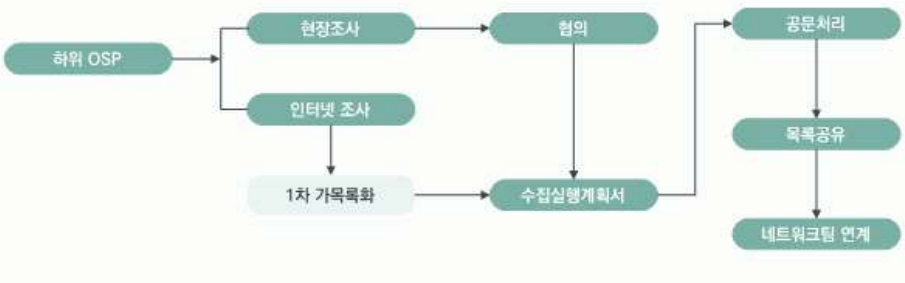
디지털 수집의 이슈

- 공동이용 및 공유를 전제로 한 수집 사업이기 때문에 디지털 수집에 있어 **일방적으로 사본수집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
- 대여를 진행할 시는 **반환일정을 정확히 공지**해야 하며, 무리한 대여는 진행하지 않음
- 현장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스캔작업을 하거나 대여를 통해 사본 수집 진행, 이도 힘들면 **목록공유로 수집 진행**
- 돌산마을과 같이 마을, 개인단위의 경우 대부분 비전자 형태로 기록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디지털화 기준(해상도)과 인력 등을 확보**하고 수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2.2 수집·정리(T2)

▫ 수집 유형별 세부 수집 경과 |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의 방법

· 네트워크 수집 (1/3)



- 네트워크 수집은 현장조사와 인터넷 조사 2가지 방법으로 수행

  → 네트워크 수집은 협치,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인터넷 조사 2가지 방법으로 수행

2.2 수집·정리(T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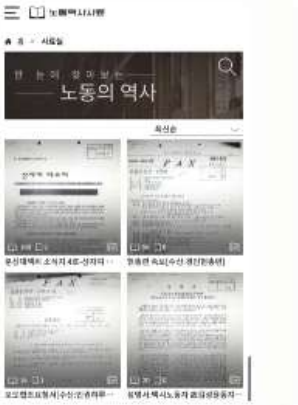
▫ 수집 유형별 세부 수집 경과 |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의 방법

· 네트워크 수집 (2/3)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전태일 기념관



2.2 수집·정리(T2)

▫ 수집 유형별 세부 수집 경과 | '디지털 기록 사본수집'의 방법

· 네트워크 수집 (3/3)

네트워크 수집의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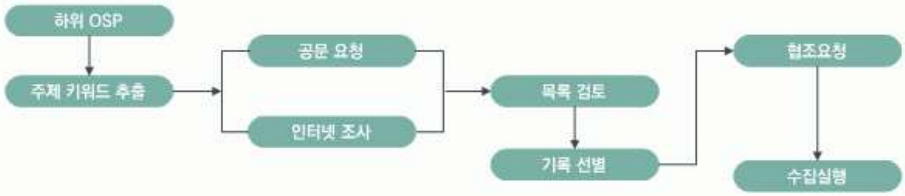
- 협력대상기관에게 서울기록원의 **수집지향을 명확히 전달**하고 장기적인 협력대상임을 인식시켜주어야 함
  - → 특히 수집팀과 서울기록원 담당자가 **함께 현장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함
  - → 협력대상기관에게 신뢰감과 장기적으로 협력대상임을 인식시키는 방법임

- 수집이 완료되면 장기적 네트워크의 유지를 위하여 **네트워크 운영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소통하는 체계마련**이 필요함

2.2 수집·정리(T2)

▫ 수집 유형별 세부 수집 경과 | '행정기록 수집'의 제안 (1/2)

‣ 행정기록 수집은 디지털수집과 네트워크수집 방법으로 실행하며,
하위 OSP 기준으로 주제키워드를 추출하여 공문으로 통해 수집하는 방법



- 행정기록 수집은 디지털수집과 네트워크수집 방법으로 실행하며, 하위 OSP 기준으로 주제키워드를 추출하여 공문으로 통해 수집하는 방법임

- 대상공공기관(중앙정부기관, 정부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산하공공기관)은 공문을 통한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본 또는 리스트'가 수집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기록원 주관하에 수집을 수행하는 것이 능률적임

- 이번사업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행정기록 수집을 진행해 본 결과 협치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대상의 수집은 서울기록원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음

34

2.2 수집·정리(T2)

▫ 수집 유형별 세부 수집 경과 | '행정기록 수집'의 제안 (2/2)

- 제한적이지만 이번 행정기록 수집을 위해 수집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기록이 식별되었음

‣ 60여 년간 일반인 통제를 제한했던 영국대사관길 개방을 위해 박원순 시장과 문화재청장이 체결한 MOU체결 관련 문서 ('근대문명의 이중성, 정동)



한양도성 관련

‣ 한양도성 인왕-백악구간 성벽보수공사 행정문서('도성의 안과 밖')



흥인지문 관련

‣ 2013년 공악인 '도시재생 역사도심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흥인지문, 광희문주변 단절된 성곽복원 및 연계성 회복사업' 관련 문서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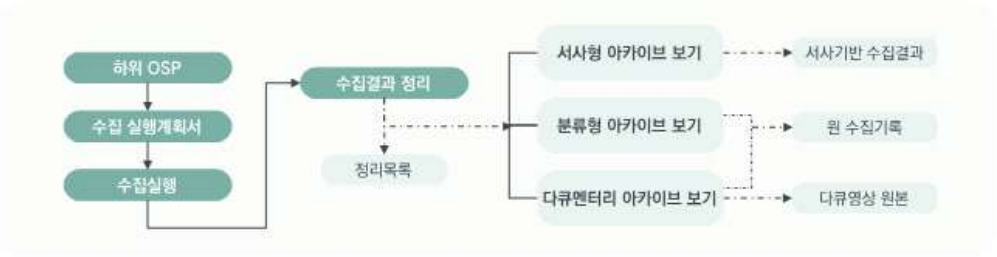
2.2 수집·정리(T2)

▫ 수집 결과 종합·정리

· 현재까지의 수집은 2개의 서사('옛 것'과 '광장')을 중심으로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분류형 아카이브 보기',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보기' 접근방식으로
수집결과물을 제공

→ 이는 기록연구자 이상의 다양한 이용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 동시에
기록으로 포착할 수 없는 다양한 층위의 서사를 보여주는 방법

‣ 현재까지 총 수집 건수는 약 1,700 건 → 서울의 옛 것 : 905 건, 광장의 외침 : 827 건



2.2 수집·정리(T2)

▫ 수집 결과 종합·정리 | 수집결과보기

1)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 '하위OSP+수집계획서+현장수집결과'를 종합하여 상세서사와 기록이 상호 연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물

‣ 서사기반 수집의 특징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방법으로 다량의 수집기록 중 핵심기록을 선별하여 기록으로 활용함

→ 확장과 축소를 통해 바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준콘텐츠' 이기도 함



서울의 옛 것



광장의 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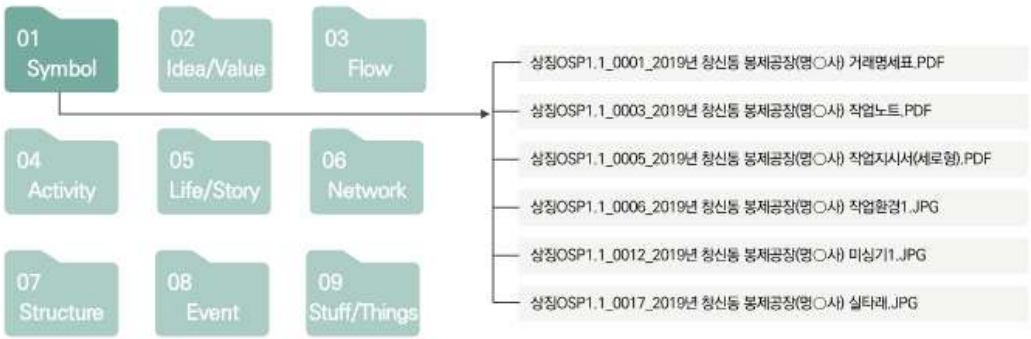


2.2 수집·정리(T2)

▫ 수집 결과 종합·정리 | 수집결과보기

2) 분류형 아카이브 보기

- 서사를 기반으로 한 주제별 분류트리로 수집기록을 볼 수 있음
- 총 수집건 1,700건은 아래와 같음 분류에 의해 정리됨



38

2.2 수집·정리(T2)

▫ 수집 결과 종합·정리 | 수집결과보기

3)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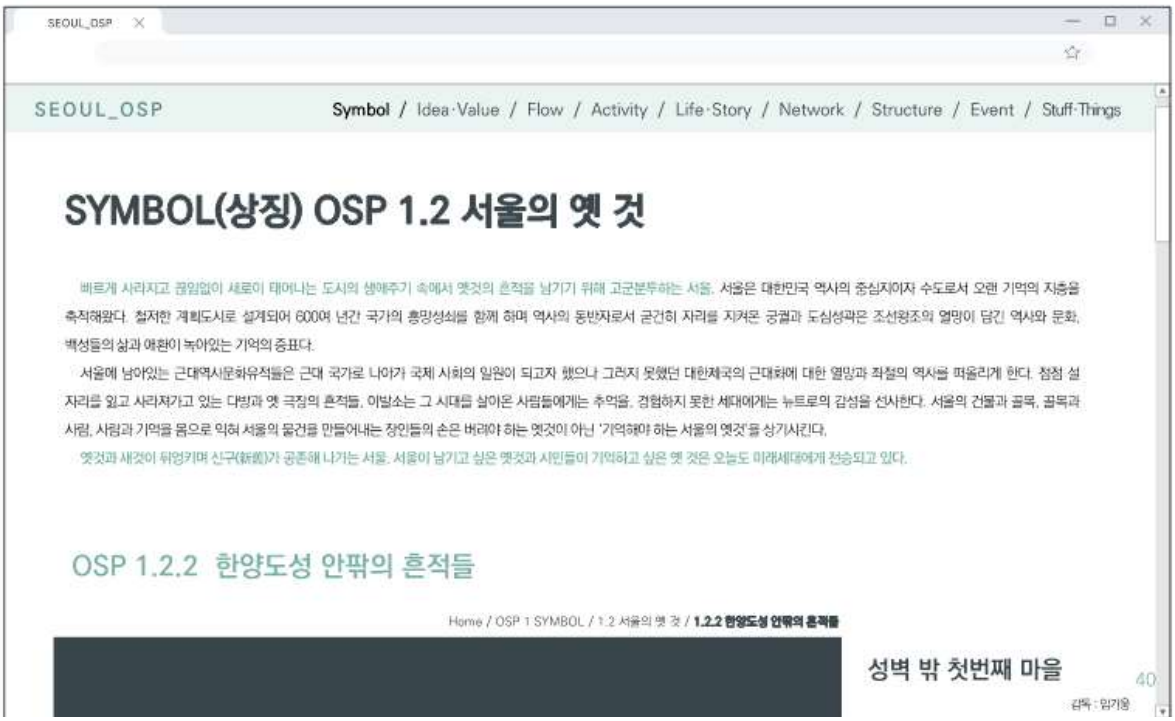
-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모형' 제안
  - 기록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을 다큐를 통해 표현 → 수집기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 아카이브 관점에서의 다큐멘터리 제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아카이브가 수집한 기록을 활용하여 그 안에 **숨겨진 서사 전달**(서사기반의 촬영진행)
    - 다큐멘터리가 갖는 **현장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
    -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의 **원기록도 기록화 대상으로 포착 가능**

  - 연구팀은 다큐멘터리와 관련 기록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모형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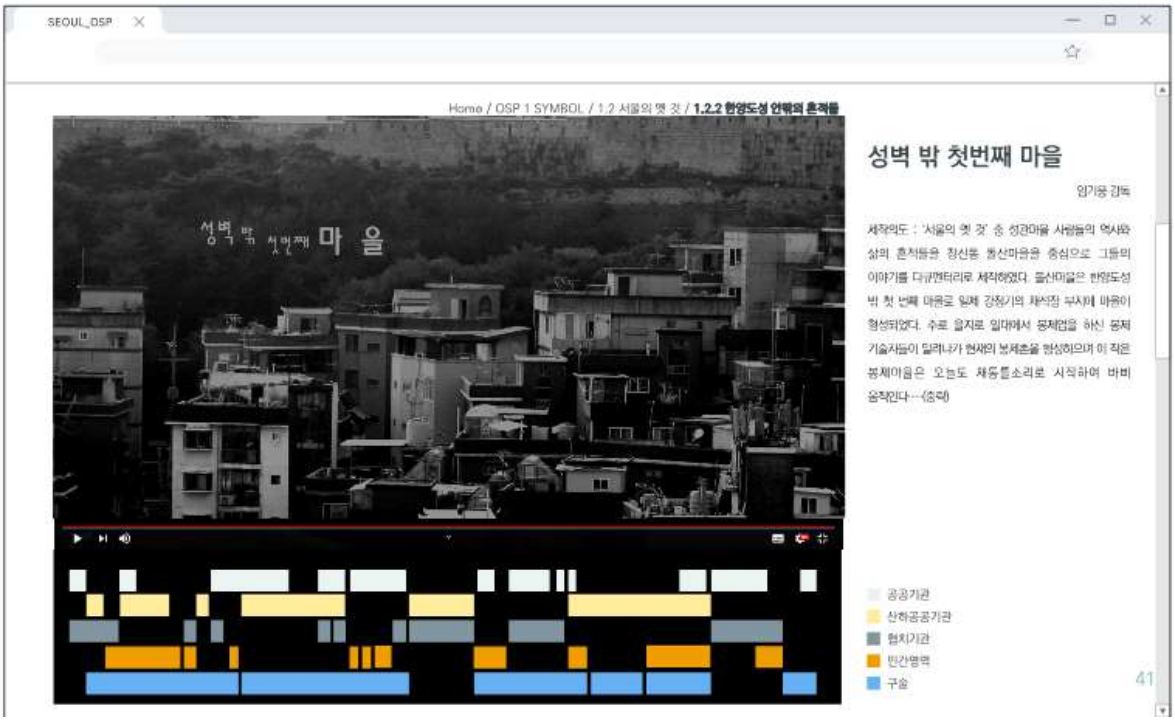
39

2.2 수집·정리(T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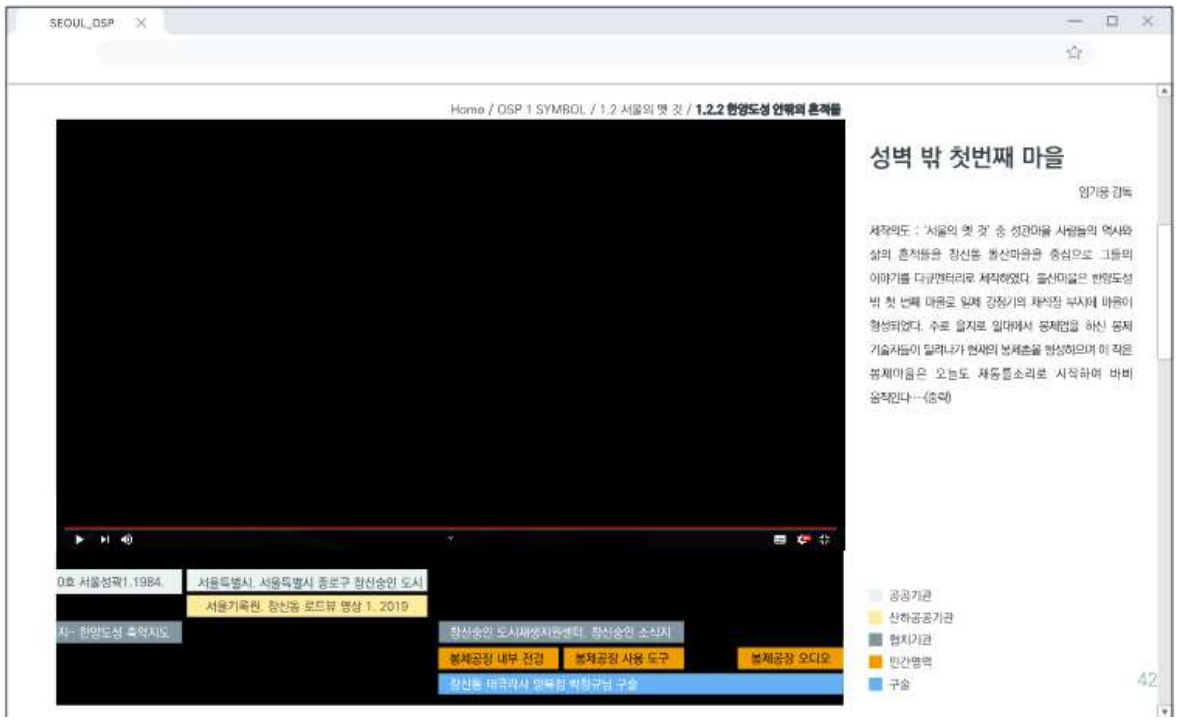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 콘텐츠 개발 사업 | 2장 연구수행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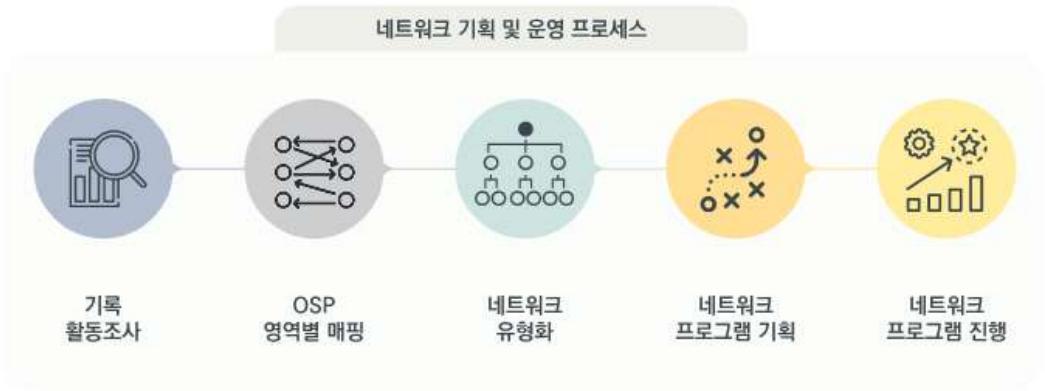
2.2 수집·정리(T2)



2.2 수집·정리(T2)



2.3 네트워크·출판(T3)



43

2.3 네트워크·출판(T3)

▫ 기초조사 진행 상황

공공영역

- 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본청, 본부·사업소, 공사·출연기관 및 서울시 내 기타 공공기관
- 대상 시기 : 2018년 7월 ~ 2019년 7월
- 조사 방법 : 나라 장터 공고 중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기록화 작업 선별
- 조사 결과 : 서울특별시 본청, 본부·사업소, 공사·출연기관에서 진행한(진행 중인) 기록화 작업 총 36건 발굴

협치영역

- 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내 중간지원조직, 공공사업 수행 민간기관
- 대상 시기 : 2018년 7월 ~ 2019년 7월
- 조사 방법 : 민간위탁사무·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수행 기관 중 기록화 작업 선별
- 조사 결과 : 서울특별시 내 중간지원조직, 공공사업 수행 민간기관에서 수행한 기록화 작업 총 28건 발굴

민간영역

- 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내 민간영역 단체
- 대상 시기 : 2018년 7월 ~ 2019년 7월
- 조사 방법 : 서울시 내 기록활동 진행한 단체 온라인 검색을 통하여 선별
- 조사 결과 : 서울특별시 내 민간영역 단체가 수행한 기록화 작업 총 37건 발굴

2.3 네트워크·출판(T3)

▫ 면담조사 진행 상황

공공영역

- 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본청, 본부·사업소,
  공사·출연기관 및 서울시 내 기타 공공기관
- 대상 시기 : 2019년 9월 ~
- 조사 결과 : 동대문구 기록관 외 5건

연번	리드	케이스(면담 내용)
1	동대문구 기록관 (최윤하 기록연구사)	· '동대문구 기억여행' 진행 상황 관련 문의 : 인간기록 수집 · 서울기록원과의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 확인 ·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와 MOU 체결 예정 중에 있음 · 행정기록 제공에 대한 의사 확인
2	관광산업과 콘텐츠마케팅팀	· 오래가게 발굴을 담당하는 곳으로, 오래가게 목록 및 기초조사 자료 확인을 위하여 접촉을 이어갈 필요성 확인
3	성동구	· 성수동 수제화 거리 조성사업 관련 자료 네트워크 수집 가능
4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역사아카이브의 서울생활문화 자료조사가 보유한 역사자료 등에 주목하여 주요한 네트워크 대상으로 확인
5	한양도성박물관	· 한양도성을 주제로 한 전시 일반에서 생산된 기록물 및 연구자료 수집에 있어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확인
6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미래유산팀	· 서울 미래유산 사업을 통해 선정된 미래유산 및 향후 사업 진행 과정이 서울을 이해하는 주요 기록이 될 것이므로 핵심 리드로 적용 가능

2.3 네트워크·출판(T3)

▫ 면담조사 진행 상황

협치영역

- 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내 중간지원조직,
  공공사업 수행 민간기관
- 대상 시기 : 2019년 9월 ~
- 조사 결과 : 다시세운 프로젝트 외 1건

연번	리드	케이스(면담 내용)
1	다시세운 프로젝트	· 세운 마이스터 기록(주요 이력·기술 관련 기록, 인터뷰 영상, 기초자료 등) 관련 네트워크 구축 가능
2	한국중앙 자원봉사센터	·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광장에서의 자원봉사 관련 기록물 보유 · 관련 활동가와의 연결 가능

2.3 네트워크·출판(T3)

▫ 면담조사 진행 상황

민간영역

- 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내 민간영역 단체
- 대상 시기 : 2019년 9월 ~
- 조사 결과 : 한국여성민우회 외 18건

연번	리드	케이스(면담 내용)
1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 활동 관련 기록물 보유현황 확인 : 현물은 대부분 망가진 상태이나, 사진으로 찍어둬서 디지털 기록은 존재 · 활동 과정 기록 및 홍보물 등 관련 디지털 기록 보관 여부 확인 필요성 인식
2	연극배우 김○○	· 마로니에 공원·광화문 광장에서의 활동 관련 기록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 개인 활동 관련 기록물 현황 파악 필요성 인식
⋮	⋮	⋮
16	최○○	· 한국소극장협회 국장 및 연극평론가로, 대학로의 문화예술과 공연문화 및 문화지구 변천사 관련 지식 및 기록 보유
17	4.16기억저장소 (이○○ 팀장)	· 활동을 통해 산출된 기록물에 대한 정리 및 목록 작성 필요성 인식, 디지털 사본 수집에 긍정적 의견 표시

2.3 네트워크·출판(T3)

▫ 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 유형화

· 목적

- 서울형 OSP와의 연계된 서울기록 생태계 조성과 순환을 위해 네트워크 대상별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유형화함

· 방향성 및 원칙

- 서울 기록 생태계 작동 원칙에 따라 기관의 자립도, 사업화 여부,
  담당자 및 인력배치의 여부, 예산 운용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체를 그룹화함
- 서울 기록 생태계 조성과 성장 매커니즘 측면에서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함

① 각 주체는 자신들의 기록을 잘 생산하고 잘 관리한다.
② 각 주체들이 생산한 기록은 시스템적으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
③ 각 주체들은 서울기록화 측면에서 서울기록원에 사본 수집을 협조한다.
④ 각 주체들은 자발적으로 소통하고 주체들끼리의 협력을 통해 유지되고 운영된다.

48

2.3 네트워크·출판(T3)

▫ 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 유형화

· 연구방법 | 프로그램 논리 모형을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프로그램 논리 모형

- 프로그램 구성요소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보여주며,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여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보여주는 모형임
  (논리모형은 Bennett(1976), wholey(1979)가 처음 용어를 사용한 이후로
  프로그램의 기획, 관리, 평가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음)



49

2.3 네트워크·출판(T3)

▫ 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 유형화

· 절차

- 신규 기록활동 조사 목록(OSP 매핑 후 확보된 목록)을 토대로
  활동주체의 조직 특성에 따라 '공공 – 준공공 – 협치 – 민간'으로 1차 분류
- OSP 영역을 기준으로 기록과 활동, 조직의 여부, 수집 가능성(디지털 사본) 등에 따라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매핑함
- 서울기록 생태계 네트워크 활동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음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 콘텐츠 개발 사업 | 2장 연구수행 내용

2.3 네트워크·출판(T3)

▫ 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 유형화



2.3 네트워크·출판(T3)

▫ 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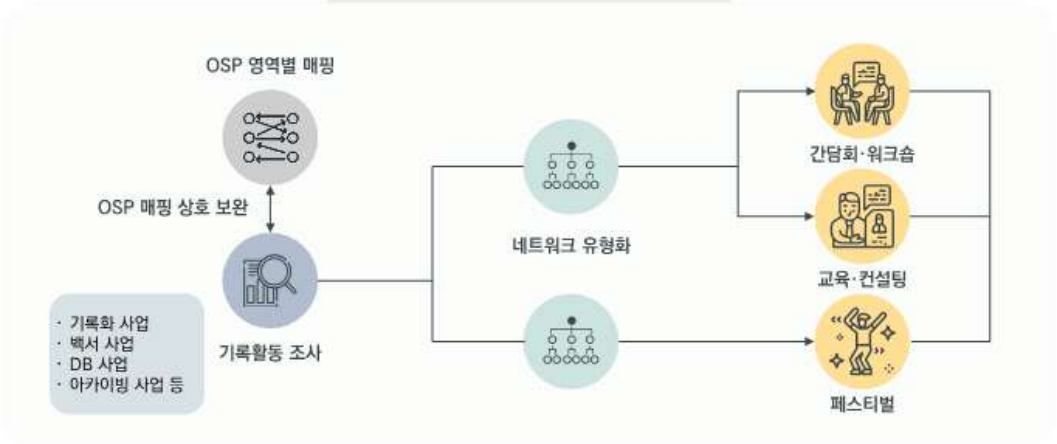
서울기록 생태계 네트워크 활동 주요 내용



2.3 네트워크·출판(T3)

▫ 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 유형화

서울기록 생태계 네트워크 운영 프로세스



2.3 네트워크·출판(T3)

▫ 프로그램 기획 | 연간 네트워크 프로그램 계획

연번	사업명	구분	대상(사업 담당자)	기간(횟수)	비고
1	본부 및 사업소 기록활동 담당자 간담회(가칭)	간담회	본청·본부·사업소	'1.1.~'12.31. (연간 1회)	
2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기초자치단체 기록활동 담당자 간담회(가칭)	간담회	산하 공공기관 기초자치단체	'1.1.~'12.31. (연간 1회)	
3	마을에서 기록하는 사람 모여라	워크숍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1.1.~'12.31. (연간 3회)	
4	우리의 기록-단체를 위한 아카이빙 컨설팅(가칭)	컨설팅	서울시 내 민간단체	'1.1.~'12.31. (연간 1회)	5차 진행
5	시민 아키비스트를 위한 아카이빙(가칭)	교육	서울시 내 활동가	'1.1.~'12.31. (연간 1회)	
6	서울 아키비스트 페어	페스티벌	협치, 민간 영역의 기록활동 단체, 개인	연1회	

54

2.3 네트워크·출판(T3)

▫ 프로그램 기획 | 향후 계획

1) 워크숍

· 목적

- 서울 기록화와 연계하여 서울 기록 생태계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운영
- 서울 기록화와 마을 활동 및 마을 기록화의 연계 지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위한 역할과 과제 탐색

· 대상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기반협력실·전략사업실 프로그램 담당자·각 자치구 마을지원센터 아카이빙 담당자

· 주요 내용

- 서울기록화와 서울형 OSP 설명
- 분임 활동 및 공유
- 오픈 토론

· 일정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담당자 워크숍 : 협의중(10/25 담당자 미팅)

55

2.3 네트워크·출판(T3)

▫ 프로그램 기획 | 향후 계획

1) 워크숍

· 프로그램·홍보(안)

시간	주요 내용	진행(발표)자	비고
09:30 ~ 10:00	등록, 무대와 환대	주현미	
10:00 ~ 10:10	워크숍의 의미와 구성	주현미	
10:10 ~ 10:20	서울기록화와 서울 기록생태계의 의미	조영삼 원장	일정 확인 요청
10:20 ~ 10:30	휴식	주현미	
10:30 ~ 11:30	서울기록화 사업 설명 및 서울형 OSP와 마을 기록	김익한 교수	
11:30 ~ 13:00	점심시간		도시락 주문 예정
13:00 ~ 15:00	분임토론 1.마을기록화 전략 짜기 (SWOT 분석, 우선 과제 수립, 기회 요인으로 서울기록원과의 협력 영역 고민해보기) 2.마을기록화 영역 설계하고 서울기록화 영역과 연결해보기	송영광 주현미 곽수진	참석인원 (15~18명 예상)을 4개조로 구분
15:00 ~ 15:20	휴식		
15:20 ~ 16:50	분임토론 결과 공유 및 자유 토론	주현미	
16:50 ~ 17:00	마무리	주현미	



2.3 네트워크·출판(T3)

▫ 프로그램 기획 | 향후 계획

2) 컨설팅

· 목적

- 서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조직, 단체, 모임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아카이빙할 수 있도록 기록화 방법론을 습득하고 실습, 공유함
- 민간영역의 활동가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서울 기록화의 주체로 기록 생태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OSP와 관련해 다양한 민간의 활동과 기록을 생산, 포착, 수집하는 기회임
- 지속적으로 기록 생산 활동을 하면서 서울기록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룹(Seoul Archives Friends)을 구성함
- 서울기록원의 존재 가치를 알림

· 주요 내용

- 서울형 OSP 설명
- OSP에 따른 기록화 방법론 개론
- 기록화 전략 수립 실습
- 기록 수집 실행
- 기록 활동 발표
- 기록 활동 전시 진행

2.3 네트워크·출판(T3)

▫ 프로그램 기획 | 향후 계획

2) 컨설팅

·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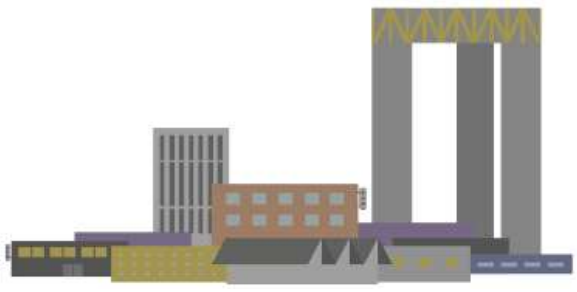
- 신청 그룹 4~5개
  (마을, 공동체, 모임, 단체)

· 프로그램(안)

회차	프로그램명 (강의명)	주요 내용	일시	강사	준비사항
1	기억과 기록	· 기록화의 가치와 의미	11/5 13:00~16:00	김익한	· 강의자료 · 강의장소 : 서울기록원 회의실
2	기록화 전략 수립	· 주제 정하기 · 서사 만들기 · 수집계획서 작성하기	11/7 13:00~16:00	송영랑	· 강의 자료 · OSP-수집 관련 서식 · 강의장소 : 서울기록원 회의실
3	기록 수집 실습	· 예비조사 · 리드 작성 · 기록 생산, 수집하기	11/12 13:00~16:00	송영랑	· 강의 자료 · 예시 서식 · 강의장소 : 서울기록원 회의실
4	기록조직화 하기	· 기록물 목록화 · 기록물 분류, 기술	11/19 13:00~16:00	주현미	· 강의 자료 · 예시 서식 · 강의장소 : 서울기록원 회의실
5	전시구성하기	· 전시 구성 실습하기	11/21 13:00~16:00	주현미	· 강의 자료 · 강의장소 : 서울기록원 회의실
6	전시하기	· 전시 진행	11/25~29	김익한	· 전시공간 필요 · 팀별 판넬 1~2개 · 총 10개 전시 가능한 공간

58

3장 사업 관리



3.1 추진 일정별 업무흐름도

내용		추진 일정				
		7월	8월	9월	10월	11월
T1 연구설계	OSP 설계를 위한 연구조사진행	완 료				
	OSP 집필					
	서울기록원 수집 매뉴얼(안) 개발					
	지속수집을 위한 로드맵 개발					
T2 수집실행정리	'서울의 옛 것' 수집실행			완 료		
	'광장의 외침' 수집실행			완 료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 수집실행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수집실행					
	수집정리					
T3 네트워크출판	네트워크 대상기관 조사		완 료			
	네트워크 기획					
	네트워크 실행					
	출판					

서울기록수집및기록콘텐츠개발사업 | 3장사업관리

3.2 기대 효과

다양한 주체와의 네트워킹으로 기록학 저변 확대

- 네트워크를 만들어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학제 간 연계 계기 마련
- 현장 인터뷰, 특별수집 과정에서 공동체 혹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형 아카이브의 기반** 마련

새로운 서울기록 수집 모형 창출

- 다양한 전공과의 협업으로 이뤄낸 연구 성과는 수집방법론으로 적용될 것이며, **새로운 아카이빙 방법론**으로 자리매김 가능
- 서울의 일상기록을 아카이브에 기초한 귀납적 방법으로 조사하고 수집 → 서울다움을 유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수집모형 제공

서울 보통사람의 '이야기 개발'과 맥락화를 통한 서울 일상의 연구 증진

- 서울시민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사라져가는 삶의 흔적을 기록화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 서울기록 수집은 **서울시민의 이야기의 '저장고'**로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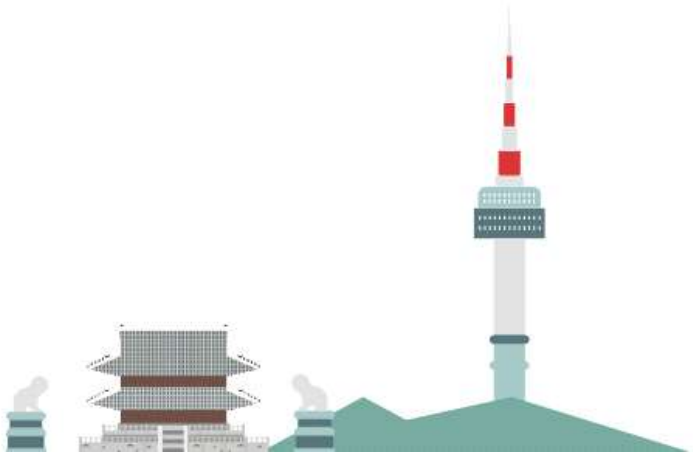
1.3. 최종보고 자료

서울기록화 최종보고회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 콘텐츠 개발 사업

2019. 11. 29

RIKAR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서울기록원



CONTENTS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 콘텐츠 개발 사업

1장 사업 결과 개요

1.1 사업 소개
1.2 서사중심 아카이빙 특징
1.3 주요수집대상
1.4 서사중심 아카이빙 수행과정
1.5 서사중심 아카이빙 주요사항 정리
1.6 서사중심 아카이빙 결과

2장 연구수행 내용

2.1 연구 설계(T1)
2.2 수집·정리(T2)
2.3 네트워크·이벤트·출판(T3)

3장 수집결과

3.1 수집매뉴얼 및 서식
3.2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3.3 분류형 아카이브 보기
3.4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보기

4장 중장기 이행계획

4.1 중장기 로드맵
4.2 기대효과



1장 사업 결과 개요



1.1 사업 소개

사 업 명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 콘텐츠 개발 사업
사업기간	2019.7월 ~ 2019.12월
주요내용	

▫ **서사형 S-NAP(Seoul – Narrative Archiving Policy) 개발**
- '서울의 사회현상과 삶의 현장'이라는 관점의 서사를 기반으로 S-NAP을 설계하고 서울을 재현할 수 있는 아카이빙 정책 개발(9개 영역 (상위 S-NAP 70개 (하위 S-NAP 240개)

▫ **S-NAP 을 기반으로 서사형 수집 진행**
- 토탈 아카이브 체계를 지향하면서 S-NAP기반으로 공공, 민간, 협치, 개인으로부터 서울을 재현할 수 있는 기록 수집을 진행함 (240여개의 S-NAP영역에서 2019년은 '상징' 영역을 중심으로 수집)
- 기록공유를 전제로한 '사본수집' 진행, 특히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을 처음 시도함

▫ **네트워크 기반의 생태계 조성**
- 자생적으로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거나, 잠재적 아카이브 소장자,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진행하여 기록생태계 조성
- 공동체, 개인, 공공기관, 협치기관을 대상으로 지원, 협력 및 기록공동이용체계 구축 기반 조성

1.2 서사중심 아카이빙 특징

1) 서울을 재현한다

- 토탈 아카이브 체계를 지향하며 서사주제와 관련된 공공기록, 산하기관기관 기록, 민간기관기록, 개인기록, 예술표현 등을 수집하여 서울을 종합·재현 할 수 있도록 함

2) 서울을 250여개의 수집주제로 영역화 한다

- 서울 전체를 아카이브 하기 위해 250여개의 서사기반 수집주제영역을 구성하고 연차적 수집 계획을 설계함
- 타기관은 특정주제 중심으로 주제의 부분을 재현한다고 하면, 서사중심 아카이브는 250여개의 서사를 기반으로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서울의 총체를 재현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단일한 생산 맥락으로 포괄할 수 없는 역사적, 사회적 흐름을 수집하여 전체를 재현하고자 하는 시도임

3) 유관기관 아카이브 결과의 수집·연계한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양도성박물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아카이브 작업은 유의미함.
- 서울기록원은 유관기관들의 유의미한 아카이브 결과까지 수집·연계하여 일반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함



1.3 주요수집대상

▫ 주요수집대상

· 공공·협치·민간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총 41곳의 수집대상자를 접촉하여 사본수집 및 공유 실행
  - 1차 : 서울시 소장 청도문서고 건 목록 조사 → 2차 : 수집을 위한 대상기관 조사 착수

공공기관	협치기관	민간기관	개인
• 국가기록원, 서울시, 문화재청 등	• 이음피움봉제역사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전태일기념관, 장충단공원 기억의 공간 등	• 강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한국소극장협회, 한국여성민우회, 416기억저장소, 어린이 청소년책 작가연대 등	• 평화의 소녀상 작가, 태국○○, ○○사진관, 봉제공장 명○사, 성우이용원, ○○갈랑(빌리핀마켓)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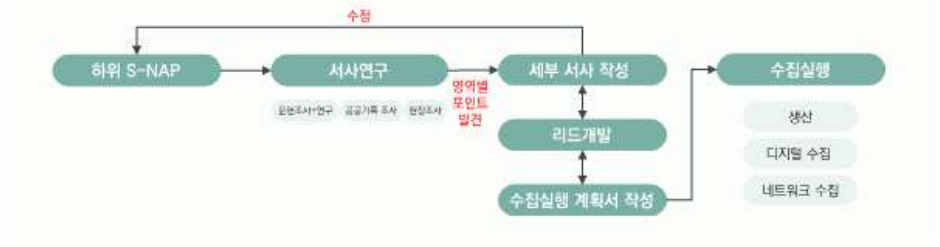


1.4 서사중심 아카이빙 수행 과정

▫ 수행 과정

· 수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성을 기반**으로 **'서사기반 수집절차'** 를 마련함.
서사 기반의 수집절차는 하위 S-NAP의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영역별 포인트**를 발견하고 서사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영역 및 리드개발**을 실행함

· 수집실행 과정을 통해 추상성 있는 S-NAP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서사를 수정 보안하는 등 **변증관계 속에서 수집 진행**



1.5 서사중심 아카이빙 주요사항 정리

▫ 사업 방향을 위한 주요사항 정리

1) 서사작성과 수집진행의 상호관계

- 서사기반 수집의 테스트베드로써 수집을 수행해본 결과, 서사작성팀과 수집진행팀의 피드백과 상호과정속에서 서사와 수집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음

- 이번 수집사업은 물리적 시간관계로 상호 피드백 과정이 다소 생략되었으나, 향후 일정 및 절차를 조정하여 수집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2) 행정기록의 수집

- 서사의 주관성을 간주관성의 관점으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서사중심 수집의 중요한 기록군임
- 서울기록의 상징에 부합하는 행정기록 수집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주제의 성격과 대상 공공기관과의 협의조정절차 및 시기의 문제로 한정된 방법으로 행정기록을 수집함

- 향후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통한 결합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3) 네트워크 프로그램

- 수집진행 결과 수집과정에서 유의미한 네트워크 대상기관을 발견하고, 이중 몇 개 기관은 네트워크 대상기관으로 고려됨. 이는 서사중심 수집이 네트워크와의 연계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음. 단, 짧은 네트워크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협치 기관은 자기성과를 공공쪽으로 이전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이슈사항을 발견하였음.

- 향후 장기간의 협의과정을 전제로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임

8

1.6 서사중심 아카이빙 결과

▫ 사업 최종 산출 목록

최종 산출 목록

1.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사업" 최종보고서
2. S-NAP (Seoul-Narrative Archiving Policy)
3. 수집실행결과물 :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수집목록'
4. 수집 객체
5. 네트워크결과물 : '네트워크 대상기관 조사목록' '면담조사 리드/케이스'

9

1.6 서사중심 아카이빙 결과

▫ 서사중심 아카이빙 산출물 보기 방식

· 이번 서사중심 수집을 진행하면서 단일한 생산 맥락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하여 서사형 수집결과물 보기 방식을 채택하고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분류형 아카이브 보기'**,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보기'** 접근방식으로 수집결과물을 제공함

서사형 보기

- '서울의 옛것',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 '조형물, 기억과 동치의 궤적', '광장의 외침' 4개의 수집주제영역에서 핵심결과물을 선별하여 기록 이면의 이야기를 기록과 함께 보여줌



수집 객체와 수집목록

- 관리번호, 서사항목, 수집정보



다큐멘터리 보기

- 성벽 밖 첫 번째 마을, 창신동(30분), 영화 간판쟁이 – 사라져가는것들의 안부(40분), 광장 – 세월호(30분) 3편의 다큐멘터리 제작



10

2장 연구수행 내용



2.1 연구 설계(T1)

S-NAP (Seoul-Narrative Archiving Policy) 연구 절차

- 서울의 사회적 기억을 기록화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 시도
  - 기존수집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의 정체성을 이루는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괄하는 다원적 총체적 기록화 지향
  - 서울을 표상하는 상징들을 서사 기반으로 엮어내고 기록 이면의 숨은 내러티브를 찾아 기록에 의미를 부여
  - 시민들의 삶과 기억을 통해 서울의 도시 구조를 드러내고 기록을 조직화하여 미시사 관점에서 사회적 기억 아카이빙 시도

S-NAP 설계



S-NAP 영역 설계	영역별 연구 진행	상위 S-NAP 설계	하위 S-NAP 설계	기록수집
· 서울을 표상하는 역사와 자원, 일상의 삶, 현상, 상징 등을 포괄하는 9개의 주제 영역 설정 · 역사학, 인류학 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영역 설정	· 다양한 분야의 서울연구자료 검토하여 S-NAP 도출 · 서울학연구, 행정기록, 단체 및 개인의 민간활동, 연구자료, 사진, 다큐멘터리 영상, 언론기사, 도서, 문화예술작품 등 검토	· 9개의 주제영역별 수집 실행 단위가 되는 상위 S-NAP 설계 · 주제 영역의 대서사에 부합하는 수집단위 64개 S-NAP 구성	· 구체적인 수집 대상을 의미하는 하위 S-NAP은 수집 객체를 구조화하며 수집 전략을 기술 · 정책과 실재, 사람들을 포괄하는 수집 객체들로 구성하며 이들은 S-NAP의 서사 기반으로 유기적 맥락관계 가짐	· 수집실행지침에 기반한 수집계획을 세워 수집을 실행하고 수집 과정의 조정에 따라 수집실행지침이 수정되는 순환적 수집사슬프로세스 구축

2.1 연구 설계(T1)

S-NAP (Seoul-Narrative Archiving Policy) 구조



서울의 서사를 담고 있는 9개 수집 주제 영역을 구성

01 Symbol 상징	서울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건물, 말과 표시, 시민의 활동이 응축된 장소 등을 주제화 함
02 Idea·Value 사상과 가치	서울을 지배하는 오랜 가치와 습관, 사상, 이데올로기를 주제화 함
03 Flow 흐름	서울 내의 사람, 자본, 사물의 흐름들을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고 그 매커니즘과 현상에 대해 주제화 함
04 Activity 활동	역동적 장소인 서울의 활동성을 직업, 노동, 교육, 생활, 사회관계, 여가, 정치 활동의 측면에서 주제화 함
05 Life·Story 생명과 이야기	서울을 살아가는 군중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일상의 표정들을 주제화 함
06 Network 관계망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체제에 주목하여 관계를 주제화 함
07 Structure 구조	도시구조의 시공간적 층위 속에서 인프라 구조를 드러내는 요소들을 주제화 함
08 Event 이벤트	도시의 기억과 도시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사건을 통해 서울의 심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09 Stuff·Things 물질	사람들과 상호작용 관계를 맺고 있는 서울의 물질 요소들을 주제화 함

상위 S-NAP

- **서울을 표상하고 있는 수집 주제로 구성.**
- 영역별대서사의 맥락 속에서 기록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수집의 주제로서 상위 수집실행지침별로 고유 서사를 갖고 있음

하위 S-NAP

- **실제 수집을 실행하는 단위.**
- 상위NAP서사의 맥락 속에서 실제 수집 대상 객체들을 조직화하여 세부 서사를 갖는 하위NAP구성함.
- 기록이 갖는 의미와 가치, 수집의 범위, 수집 지침의 내용, 참고자료 등으로 작성

2.1 연구 설계(T1)

▫ S-NAP (Seoul-Narrative Archiving Policy) 전체 구조



2.1 연구 설계(T1)

▫ S-NAP의 활용

- 서울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살아있는 기록을 수집**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
- S-NAP기반으로 수집된 기록들은 수집 영역별 **서사에 부합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되며, 수집 결과는 **서사 기반의 기록 콘텐츠 자체로 활용 가능**
- 새로운 기록 활동들을 발굴하고 지속적 네트워크 유지를 통한 기록 자치 생태계 구축에 활용

▫ 서울기록지도의 활용

- 2019년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의 결과로 수집된 **기록을 대상**으로 수집 대상 **객체의 장소성에 주목**하여 기록과의 **유기적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활용
- 기록 활동 네트워크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인 추가 수집 및 현황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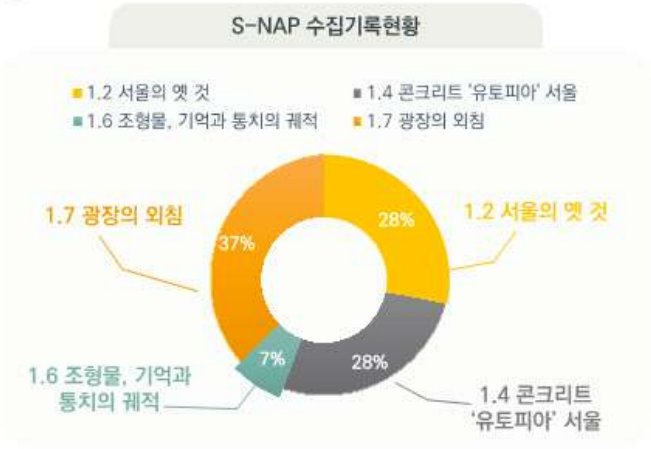


2.2 수집·정리(T2)

▫ 수집·정리 개요 (1/2)

· '서울의 사회현상과 삶의 현장' 이라는 관점으로 서사를 기반으로 S-NAP을 설계하고, 서울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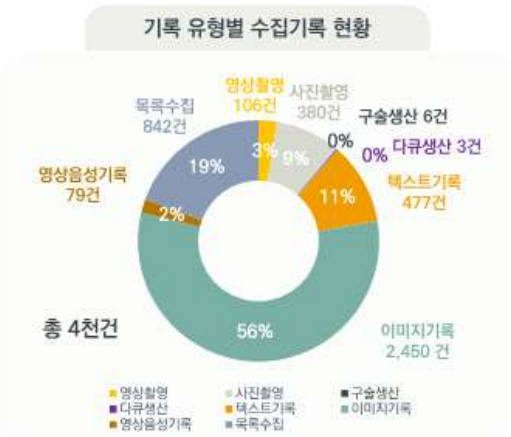
→ 이중 '상징(symbol)' 이라는 영역 중 4개의 세부 주제를 금년 수집사업의 주제로 선택하고 총 4천건 수집 진행



2.2 수집·정리(T2)

▫ 수집·정리 개요 (2/2)





2.2 수집·정리(T2)

▫ 수집 진행 경과 (1/3)

· 중간보고 이후 11월 중에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과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주제에 대한 집중 수집을 수행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음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

- 건축기록과 관련하여 기능적으로 남는 기록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남겨진 작가들의 초기구상(의도)가 담긴 초기 컨셉기록을 수집하고자 함
- 수집과정에서 건축사무소와의 기록 확보 통로를 마련, 향후 기관차원에서의 협의가 필요한 지점
- 그 외 국가기록원, 서울시를 통한 행정기록 수집과 건축가 개인(4인)을 접촉하여 유의미한 서울의 콘크리트건물의 이미지 사본을 수집함



△ 구 총독부 건물 철거계획 수립 통보.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궁능관리과, 1994.



△ 상계주공아파트 모형 수집



△ 용산터미널상가(2014년 철거), 현재는 서울드래곤시티가 위치함

2.2 수집·정리(T2)

▫ 수집 진행 경과 (2/3)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 기념비는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국가권력에 의해 확장되기도 함
- 이러한 관점에서 소녀상과 이순신 동상을 바라보고자 하였음
- 이순신 동상은 당시 정권이 '구국'의 이미지로 오버랩 시키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소녀상은 공권력이 해결해주지 못한 문제를 민간이 해결하기 위해 조성됨
- 과거의 국가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서울시라고 하는 지방정부가 사회적 기억으로 남기려는 활동의 일환으로 수집을 진행



△ 2019년 11월 강서구 소녀상 실치 영상 생산



△ 소녀상 제작과정기록 수집

2.2 수집·정리(T2)

▫ 수집 진행 경과 (3/3)

'영화 간판쟁이 – 사라져 가는 것들의 안부'

- "S-NAP" 01 상징 1.2 '서울의 옛 것'의 1.2.3 '기억해야 하는 서울의 옛 것을 전승하는 장인들'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생산 과정에서의 원기록을 수집
- "사라져가는 것들의 안부" 다큐 제작과정에서 생산된 닥터지바고(영화) 간판 및 기타 영상 원 소스를 수집
- 간판은 실물 수집되었지만, 서울기록원에 디지털 이미지화해서 전달



2.3 네트워크·이벤트·출판(T3)

▫ 네트워크 프로그램 모형

· 이번 사업에서는 서울 기록 생태계 작동 원칙에 따라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체를 그룹화, 서울 기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었음. 이러한 모형에 따라 올해 테스트베드로서 2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1) 서울기록원의 기록생태계 조성의 방향

1. 네트워크 대상기관 서울기록원 수집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2. 대상기관들이 자생적 아카이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기록원이 허브역할로서 지원한다.

2) 서울기록원의 네트워크 모델링

- 신규 기록활동 조사 목록(S-NAP 매핑 후 확보된 목록)을 토대로 활동주체의 조직 특성에 따라 공공– 준공공 – 협치 – 민간으로 1차 분류
- S-NAP 영역을 기준으로 기록과 활동, 조직의 여부, 수집 가능성(디지털 사본) 등에 따라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매핑함

2.3 네트워크·이벤트·출판(T3)

▫ 네트워크 프로그램 유형화

서울기록 생태계 네트워크 활동 매트릭스



2.3 네트워크·이벤트·출판(T3)

▫ 네트워크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

서울기록 생태계 네트워크 활동 주요 내용



2.3 네트워크·이벤트·출판(T3)

▫ 네트워크 | 마을 아카이빙 워크숍

· 프로그램 개요 및 내용



개요

- **목적** : 마을에서 자생적·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마을기록활동가를 초청하여 서울기록화 및 기록생태계의 의미와 마을 아카이빙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
- **일시** : 2019년 11월 23일 (토) 10:00 - 17:00
- **장소** : 서울기록원 3층 미팅룸 2
- **참석인원** : 10명(정말기록당, 금천구 마을공동체 기록관 운영지원단, 해방촌 마을기록단)

내용

- **서울기록화 사업 설명** : 서울기록원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서울의 기록생태계 조성에서 마을 활동가들의 활동이 갖는 중요성 및 지속적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의지 전달
  S-NAP (Seoul- Narrative Archiving Policy) 및 S-NAP 기반 수집 결과물을 통해 서울을 기록화 하는 방식에 대하여 설명
  워크숍의 의미 및 구성 설명
- **강의(마을의 이야기와 기록 수집)** : 마을의 변화를 겪으면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에서 이야기를 수집할 수 있는 이야기의 주체와 방법에 대하여 전달
- **분임토론**
  - 기록화의 목적과 필요성, 의미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아카이브를 통한 마을 단위의 소통과 공감의 장의 필요성 확인
  - S-NAP 제개 및 실제 작성본을 공유하여 마을에 적용하도록 안내
- **분임토론 결과 공유 및 자유토론**
  - 각 팀에서 논의한, 마을에서 기록한 주제와 서사 및 관련 기록에 대하여 발표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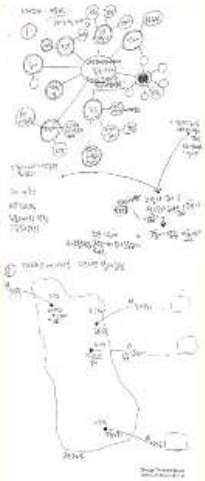
2.3 네트워크·이벤트·출판(T3)

▫ 네트워크 | 마을 아카이빙 워크숍 (분임토론 내용)

정말기록당



금천구 마을공동체 기록관 운영지원단



해방촌 마을기록단



25

2.3 네트워크·이벤트·출판(T3)

▫ 네트워크 | 마을 아카이빙 워크숍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조사 결과

· 마을활동가 워크숍 만족도 조사결과 서사중심의 아카이빙에 대한 마을활동가들의 만족도는 높았으며, 정기적인 프로그램 개최 요청이 많았음

주요 의견

· 마을 활동가들의 워크숍에 대한 주요의견은 다음과 같음

① 서사형 아카이브 제작 방법
(동영상제작, 사진촬영 기법 등)에 대한 강좌요청
② 마을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결성 지원
③ 연대와 협력을 위한 공간과 자금 조성
④ 시민이 자생적으로 서사중심 아카이빙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연결 필요



2.3 네트워크·이벤트·출판(T3)

▫ 이벤트 | 서울시 노인들의 일상 기록 수집

· 서울시 노인들의 일상 기록 수집을 위해 노인복지관 글쓰기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수집함

개요

· 수집명 : "어르신 글쓰기 기록을 모아 소중하게 보존합니다"
· 수집 기록 : 서울시 노인들이 생산한 자신들의 이야기
· 관련 활동 : 복지관 글쓰기 수업 참여
· 수집 기록 유형 : 일기, 수필, 에세이, 자서전, 자작시 등 육필 원고의 디지털 사본
· 수집 기간 : 2019년 11월 27일 ~ 2019년 12월 11일
· 수집 방식 : 디지털 사본의 온라인 수집
· 수집 시 저작권 : 공동저작권 인정

홍보

· 서울시 및 서울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공문 시행을 통한 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원대상 홍보
· 각 프로그램 운영 중인 시립노인복지관 홍보 진행

개별 복지관 글쓰기 프로그램 진행상황

번호	센터명	프로그램명
1	강남구립 강남시니어플라자	· 수필 창작·자서전 쓰기 · 시 창작 · 행복한 글쓰기(자서전, 수필 창작)
2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 시창작
3	서울특별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 동아리 '시와수필의만남'
4	서울특별시립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서대문시니어기자단
5	구립 신내노인종합복지관	· 문예창작

번호	진행내용	일정
1	기획안 확정	11/21
2	서울시 및 서울기록원 홈페이지 공고 게재 진행	11/25~27
3	서울시 및 서울기록원 공고 시행	11/27
4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등 대상기관 협의, 공문 발송 및 실행	11/25~27
5	수집	11/27~12/06

2.3 네트워크·이벤트·출판(T3)

▫ 출판 | '서울을 이야기로 기록하다'

· 컨셉

"Seoul, People, Story, Link" " 서울기록생태계, 사람 – 이야기 – 기록의 연결"

· 판형

- 신국판 확장형(168×225), 컬러, 250페이지 내외

· 주요 내용

- 서울은 사람과 이야기와, 기록이 있는 도시
  → S-NAP으로 서울을 재현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기록생태계의 주체들을 발굴, 연결이라는 주제로
  수집과정, 결과, 그리고 과정속에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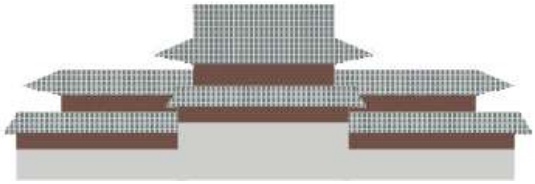
· 구성

- 서울의 재현과 기록생태계, 서울의 아카이빙 과정 이야기 등으로 구성



28

3장 수집결과



3.1 수집매뉴얼 및 서식

▫ 서사중심 수집플랜(S-NAP) 매뉴얼

· 서울기록원이 **토탈 아카이브 체계를 지향**하며, 서울을 재현하기 위해 설계된
서사기반의 기록을 수집하기 위한 **서사중심 수집플랜(S-NAP) 매뉴얼**을 제작함

- 현장성을 기반한 고도의 **지적 접근 방법**으로 수집 담당자와
현장 수집처와의 관계 형성부터 수집까지의 과정을 **절차별**로 다룸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역동적인 인간관계와 유의점, 수집 관련 법규 설명, 기관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포함)

1. 관계기반 수집 지향 → 수집 과정에서 관계 만들기에 집중하여 설계
2. 서사작업팀과 수집팀이 상호소통하며 피드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3.2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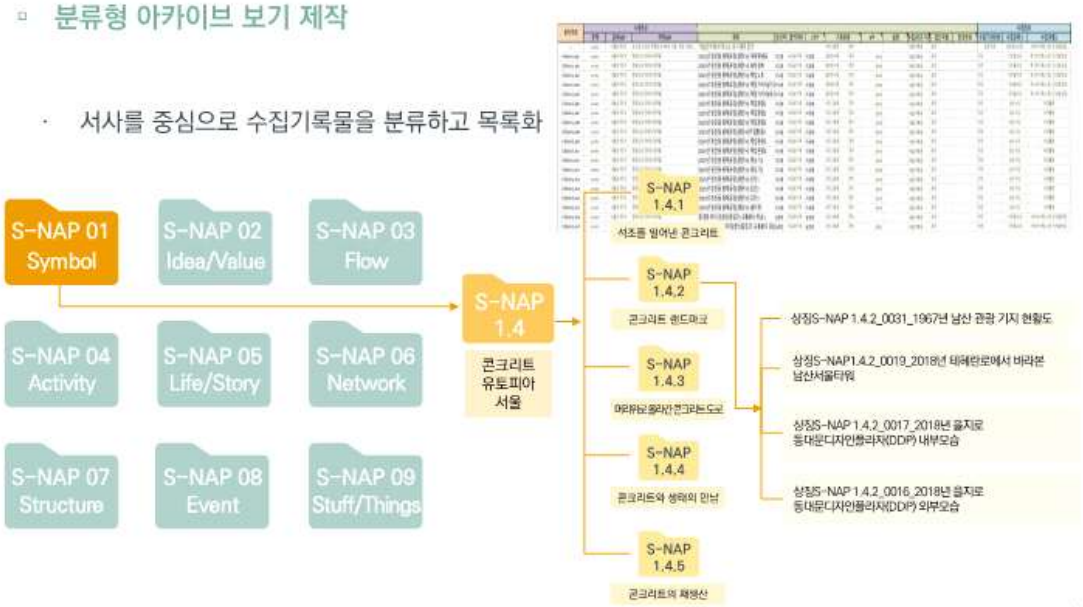
· '서울의 옛 것', '광장의 외침',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4개의 영역에서 수집한 다량의 수집기록 중 핵심기록을 선별하여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를 제작함



3.3 분류형 아카이브 보기

▫ 분류형 아카이브 보기 제작

· 서사를 중심으로 수집기록물을 분류하고 목록화



3.4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보기

▫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보기 제작

· 다큐멘터리는 수집기록과 기록으로 포착하지 못한 서사를 설명해주는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이번 수집사업으로 3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함



- 정수은 감독
- 영화 간판쟁이
  - 사라져 가는 것들의 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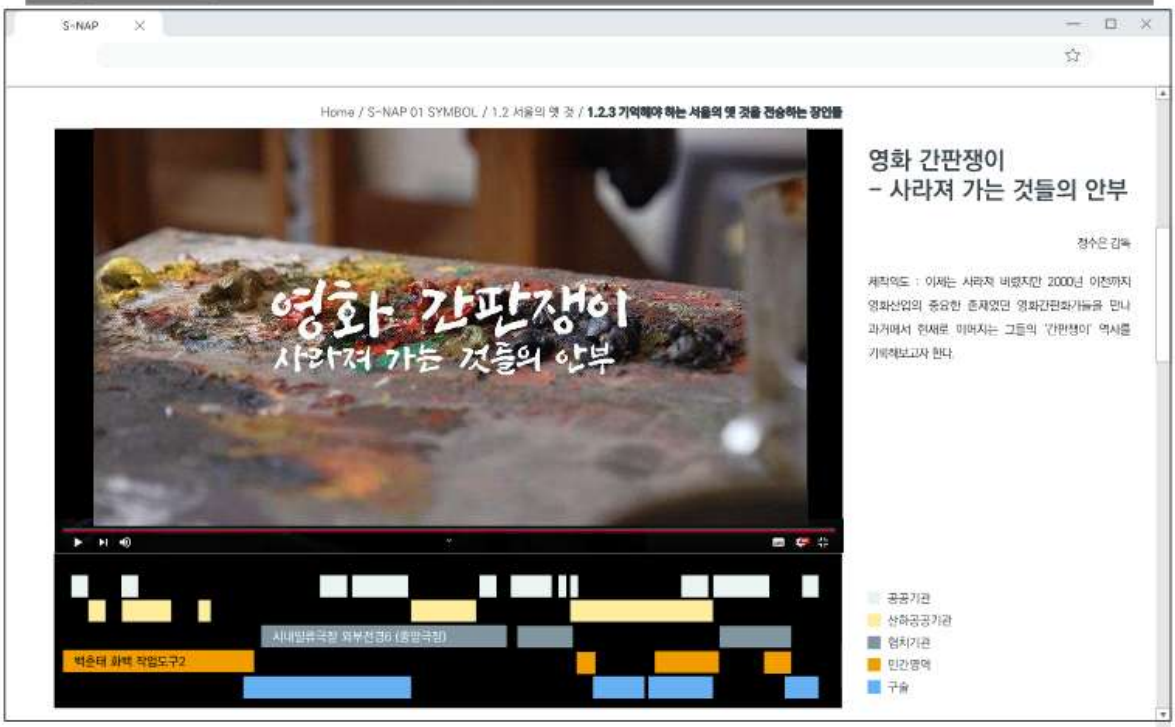


- 임기웅 감독
- 광화문-세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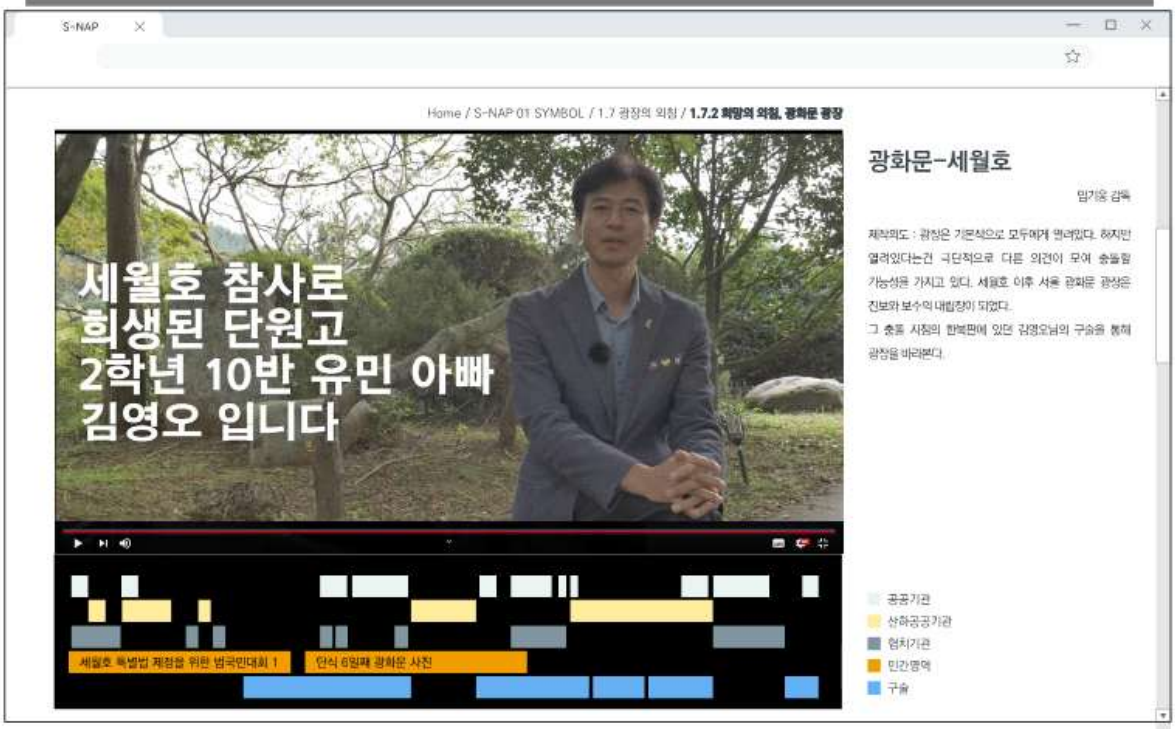


- 임기웅 감독
- 한양도성 밖 첫 번째 마을 창신동

영화 간판쟁이 – 사라져 가는 것들의 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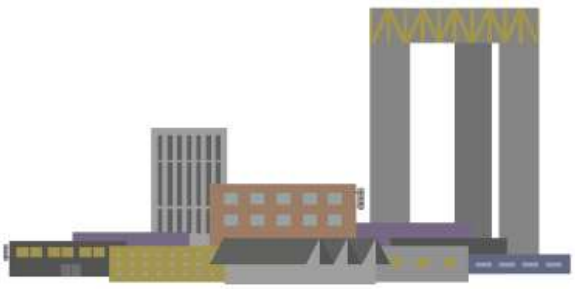
광화문-세월호



한양도성 밖 첫 번째 마을 창신동



4장 중장기 이행계획



4.1 중장기 로드맵



4.1 중장기 로드맵

▫ 단계별 세부계획

	기반구축단계 (2020~2022)	안정화단계 (2023~2025)	성장발전단계 (2026~2028)

수집사업	· S-NAP기반 수집계획 수립
	· 법적, 제도적 근거마련
	· S-NAP 보완
	· S-NAP 기반 수집 실행
	  ◦ 삼짐 영역 보완 수집
	  ◦ 사상과 가치 영역 수집
	  ◦ 흐름 영역 수집
	· 이벤트 수집
		· S-NAP 기반 수집정책 상세정비
		· 기존 S-NAP 수집 결과 보완수집
		· S-NAP 기반 수집 실행
		  ◦ 활동영역 수집
		  ◦ 생명·이야기 영역 수집
		  ◦ 관계망 영역 수집
			· 수집실행지침 고도화
			· 기존 S-NAP 수집결과 보완수집
			· S-NAP 기반 수집 실행
			  ◦ 구조 영역 수집
			  ◦ 이벤트 영역 수집
			  ◦ 물질과 사물 영역 수집

네트워크 협력 사업	· 외부기관을 통해 14개 정도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 수집 지원대상으로써 현지 조사 수행	· 서울기록원 주도하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 자생적 기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서울기록원 네트워크 지원프로그램 운영	· S-NAP과 네트워크 연계공동수집 ◦ 공동이용추구 · 자생적 기록생태계 구축으로 시민역량강화

4.2 기대 효과

다양한 주체와의 네트워킹으로 기록학 저변 확대

- 네트워크를 만들어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학제 간 연계 계기 마련
- 현장 인터뷰, 특별수집 과정에서 공동체 혹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형 아카이브의 기반** 마련

새로운 서울기록 수집 모형 창출

- 다양한 전공과의 협업으로 이뤄낸 연구 성과는 수집방법론으로 적용될 것이며, **새로운 아카이빙 방법론**으로 자리매김 가능
- 서울의 일상기록을 아카이브에 기초한 귀납적 방법으로 조사하고 수집 → 서울다움을 유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수집모형 제공

서울 보통사람의 '이야기 개발'과 맥락화를 통한 서울 일상의 연구 증진

- 서울시민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사라져가는 삶의 흔적을 기록화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 서울기록 수집은 **서울시민의 이야기의 '저장고'**로 역할 수행

40

감 사 합 니 다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 콘텐츠 개발 사업 완료 보고서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일 2019.12 (초판 1쇄)

제작부서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제작총괄 김은실 기록정책과장

제작담당 박지현 기록연구사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2길 7

전화 02-350-5616

archives.seoul.go.kr

편집 및 디자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인쇄 명지기획

ⓒ 2019. 서울기록원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판매가격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2510-01

ISBN 979-11-6161-787-9

비매품/ 무료

93350

9 791161 617879

ISBN 979-11-6161-787-9